

E13-2015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2015. 5.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2의 2항에 따라 수행한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5. 3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센터장 박 준 기

연구 담당

박 준 기	연구 위원	연구총괄
한 석 호	연구 위원	제3장, 제4장 집필
지 성 태	부 연구 위원	제6장 집필
남 경 수	연구 위원	제2장 집필
이 현 근	연구 위원	제5장 집필
정 호 연	연구 위원	제5장 집필
이 수 환	연구 위원	제4장 집필
염 정 완	연구 위원	제3장 집필
윤 정 현	연구 위원	제5장 집필
정 재 익	인턴 연구원	설문조사 및 통계자료 정리
허 덕	선임연구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전문가 평가
지 인 배	연구 위원	시도가축방역사업 전문가 평가
황 윤 재	연구 위원	한식세계화사업 전문가 평가
김 경 필	연구 위원	농식품수출촉진사업 전문가 평가
김 미 복	연구 위원	농지은행사업 전문가 평가
김 성 훈	충남대학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전문가 평가
김 배 성	제주대학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전문가 평가
박 재 홍	영남대학교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전문가 평가
김 윤 식	경상대학교	과원규모화사업 전문가 평가
김 관 수	서울대학교	발농업직불제 전문가 평가
임 용 표	충남대학교	골든시드프로젝트 전문가 평가

차 례

〈요약〉	〈1〉
------------	-----

제1장 서론	1
---------------------	----------

1.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3
1.1. FTA 추진 현황	3
1.2.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6
1.3.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8
2.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개요	12
2.1. 성과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12
2.2. 성과평가 범위 및 성과지표 개발	13
2.3. 성과계측과 성과평가 방법	16

제2장 축산경쟁력제고 분야 성과평가	19
----------------------------------	-----------

1. 개요	21
2. 정책군별 성과평가	24
2.1. 축산업경쟁력강화	24
2.1.1. 정책목표 및 개요	24
2.1.2. 성과지표	26
2.1.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26
2.1.4. 사업수혜자 조사 결과	32
2.1.5.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전문가 평가	35
2.1.6. 소결	41

2.2. 축산물 수급관리	43
2.2.1. 정책목표 및 개요	43
2.2.2. 성과지표	44
2.2.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44
2.2.4. 사업수혜자 조사 결과	47
2.2.5. 소결	48
2.3. 축산물위생안전성제고	50
2.3.1. 정책목표 및 개요	50
2.3.2. 성과지표	50
2.3.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51
2.3.4. 소결	52
2.4. 친환경축산지원	54
2.4.1. 정책목표 및 개요	54
2.4.2. 성과지표	55
2.4.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56
2.4.4. 사업수혜자 조사 결과	59
2.4.5.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전문가 평가	61
2.4.6.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전문가 평가	71
2.4.7. 소결	87
2.5. 가축방역	90
2.5.1. 정책목표 및 개요	90
2.5.2. 성과지표	90
2.5.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91
2.5.4. 시도가축방역사업 전문가 평가	92
2.5.5. 소결	98
2.6. 축산기술보급	99
2.6.1. 정책목표 및 개요	99
2.6.2. 성과지표	100
2.6.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100
2.6.4. 소결	103

제3장 원예경쟁력제고 분야 성과평가 105

1. 개요	107
2. 정책군별 성과평가	109
2.1. 원예생산경쟁력강화	109
2.1.1. 정책목표 및 개요	109
2.1.2. 성과지표	110
2.1.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110
2.1.4. 사업수혜자 조사 결과	113
2.1.5.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119
2.1.6. 과원규모화 전문가 평가	129
2.1.7. 소결	136
2.2. 원예유통경쟁력 강화	139
2.2.1. 정책목표 및 개요	139
2.2.2. 성과지표	140
2.2.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141
2.2.4. 소결	145

제4장 맞춤형농정 추진 분야 성과평가 147

1. 개요	149
2. 정책 목표별 성과평가	152
2.1. 신규농업인력육성	152
2.1.1. 정책목표 및 개요	152
2.1.2. 성과지표	152
2.1.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153
2.1.4. 소결	155
2.2. 농업경영체역량강화	156
2.2.1. 정책목표 및 개요	156

2.2.2. 성과지표	157
2.2.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157
2.2.4. 소결	160
2.3. 경영안정화	161
2.3.1. 정책목표 및 개요	161
2.3.2. 성과지표	162
2.3.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163
2.3.4. 사업수혜자 조사	166
2.3.5. 발농업직불제 전문가 평가	171
2.3.6. 소결	181
2.4. 영농규모화	184
2.4.1. 정책목표 및 개요	184
2.4.2. 성과지표	185
2.4.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185
2.4.4. 사업수혜자 조사	187
2.4.5. 농지은행사업 전문가 평가	194
2.4.6. 소결	206
2.5. 생산기반조성	208
2.5.1. 정책목표 및 개요	208
2.5.2. 성과지표	209
2.5.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209
2.5.4. 사업수혜자 조사	211
2.5.5. 소결	212

제5장 신성장동력창출 분야 성과평가 215

1. 개요	217
2. 정책군별 성과평가	220
2.1. 친환경농업육성	220
2.1.1. 정책목표 및 개요	220

2.1.2. 성과지표	221
2.1.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222
2.1.4. 소결	226
2.2. 식품산업육성	228
2.2.1. 정책목표 및 개요	228
2.2.2. 성과지표	228
2.2.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229
2.2.4. 사업수혜자 조사 결과	233
2.2.5. 소결	234
2.3. 종자산업육성	236
2.3.1. 정책목표 및 개요	236
2.3.2. 성과지표	237
2.3.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238
2.3.4. 골든씨드프로젝트 전문가 평가	241
2.3.5. 소결	252
2.4. R&D 투자확대	254
2.4.1. 정책목표 및 개요	254
2.4.2. 성과지표	255
2.4.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256
2.4.4. 소결	259
2.5. 농식품수출촉진	261
2.5.1. 정책목표 및 개요	261
2.5.2. 성과지표	262
2.5.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263
2.5.4. 사업수혜자 조사 결과	265
2.5.5. 한식세계화 전문가 평가	267
2.5.6. 농식품수출지원사업 전문가 평가	275
2.5.7. 소결	284

제6장 **직접적 FTA피해보전대책 성과평가** 287

1. 개요	289
1.1. 피해보전직접지불제	289
1.2. 폐업지원제	293
2. FTA 피해보전대책 발동사례	296
2.1. 2014년도 FTA 피해보전대책 발동요건 검토	296
2.2.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단가 산출	298
2.3. FTA 피해보전대책 예산 및 실적	299
3. 평가 및 개선과제	301
3.1. 소득증대 및 규모화	301
3.2. 개선과제	302

< 참고문헌 > 305

표 목 차

표 1-1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2015년 3월 기준)	5
표 1-2 2014년도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과 실적	11
표 1-3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방법	18
표 2-1 축산경쟁력제고 분야 예산집행률	23
표 2-2 축산업경쟁력강화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24
표 2-3 축산업경쟁력강화 분야 성과지표	26
표 2-4 축산업경쟁력강화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30
표 2-5 연도별 재정투입 실적	35
표 2-6 2014년 수혜경영체과 비수혜경영체 비교	39
표 2-7 축산물수급관리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43
표 2-8 축산물수급관리 분야 성과지표	44
표 2-9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지급기준(2012년 2월 개정)	45
표 2-10 축산물수급관리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46
표 2-11 축산물위생안전성제고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50
표 2-12 축산물위생안전성제고 분야 성과지표	51
표 2-13 축산물위생안전성제고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52
표 2-14 친환경축산지원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54
표 2-15 친환경축산지원 분야 성과지표	55
표 2-16 친환경축산지원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58
표 2-17 조사료 생산 및 공급 현황	61
표 2-18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의 세부 사업	62
표 2-19 사업의 전체 만족도	65
표 2-20 그룹별 중요도와 만족도	66
표 2-21 조사료 직접 생산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별 중요도와 만족도	67
표 2-22 조사료 생산기반 육성사업의 세부 사업별 중요도와 만족도	68

표 2-23 조사료 유통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별 중요도와 만족도	68
표 2-24 축산관련 지원사업의 향후 추진 과제의 필요성	69
표 2-25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 현황	72
표 2-26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정책 사업 개요	74
표 2-27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 사업별 예산 세부 내역	75
표 2-28 연도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투융자 실적	76
표 2-29 악취해소 및 수질오염 저감으로 인한 지속성 확보 효과(수혜자 소득 증진)	77
표 2-30 악취해소 및 수질오염 저감으로 인한 지속성 확보 효과(폐업자 잠재소득 감안)	77
표 2-31 퇴·액비의 초기 균형물량 및 균형가격 설정	78
표 2-32 퇴·액비 수요증가 예상치 및 퇴·액비별 자원화 물량	79
표 2-33 가축분뇨 자원화의 퇴·액비 균형물량 변화분	80
표 2-34 퇴·액비의 균형물량과 균형가격 환산	80
표 2-35 사회적 편익 추정	80
표 2-36 소(한우·젃소) 사료 수급 비용	81
표 2-37 소득변화 분석 결과(유형 1)	82
표 2-38 소득변화 분석 결과(유형 2)	83
표 2-39 소득변화 분석 결과(유형 3)	84
표 2-40 계측 결과의 요약	87
표 2-41 가축방역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90
표 2-42 가축방역 분야 성과지표	90
표 2-43 가축방역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91
표 2-44 시도가축방역사업 내용	93
표 2-45 시도가축방역사업 예산	93
표 2-46 가축질병별 발생 현황	95
표 2-47 가축질병 발생율	97
표 2-48 축산기술보급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99
표 2-49 축산기술보급 분야 성과지표	100
표 2-50 축산기술보급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102

표 3-1 원예경쟁력제고 분야 예산집행률	108
표 3-2 생산경쟁력강화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109
표 3-3 생산경쟁력강화 분야 성과지표	110
표 3-4 생산경쟁력강화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112
표 3-5 조사농가 기초 통계량 (사과)	120
표 3-6 시설현대화 사업 세부 참여내역 (사과)	121
표 3-7 조사대상 사업참여 농가의 자금 수혜 내역 (사과)	121
표 3-8 사과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의 성과 분석결과 (ATT 차이)	122
표 3-9 조사농가 기초 통계량 (배)	123
표 3-10 시설현대화 사업 세부 참여내역 (배)	123
표 3-11 조사대상 사업참여 농가의 자금 수혜 내역 (배)	124
표 3-12 배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의 성과 분석결과 (ATT 차이)	124
표 3-13 조사농가 기초 통계량 (포도)	125
표 3-14 시설현대화 사업 세부 참여내역 (포도)	125
표 3-15 조사대상 농가의 사업 자금 수혜 내역 (포도)	126
표 3-16 포도농가의 사업 수혜여부에 대한 Probit model 추정결과	127
표 3-17 포도농가의 사업 성과 분석결과 (ATT 차이)	128
표 3-18 과수농가의 호당 재배면적 변화	132
표 3-19 농지자산과 농지면적으로 계산한 농지가격	134
표 3-20 과원규모화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농가 수	134
표 3-21 과원규모화사업 효과	135
표 3-22 유통경쟁력강화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139
표 3-23 유통경쟁력강화 분야 성과지표	141
표 3-24 유통경쟁력강화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144
표 4-1 맞춤형농정 분야 예산집행률	151
표 4-2 신규농업인력육성사업 목적과 개요	152
표 4-3 신규농업인력육성 분야 성과지표	153

표 4-4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영농정착 인원 추이	154
표 4-5 신규농업인력육성 성과지표 측정결과	154
표 4-6 농업경영체역량강화 사업목적과 개요	156
표 4-7 농업경영체역량강화 분야 성과지표	157
표 4-8 농업경영컨설팅 성과분석 결과	158
표 4-9 농업경영체역량강화 성과지표 측정 결과	159
표 4-10 경영안정화사업 목적과 개요	161
표 4-11 경영안정화 분야 성과지표	162
표 4-12 경영안정화 성과지표 측정 결과	165
표 4-13 직불금 예산 규모 추이	174
표 4-14 농가의 소득종류별 농가소득	174
표 4-15 작물별 재배면적	175
표 4-16 밭직불금 소득 효과	177
표 4-17 규모별 추정 평균 밭직불금	177
표 4-18 규모별 밭직불금 소득 효과	178
표 4-19 연령별 추정 평균 밭직불금	178
표 4-20 연령별 밭직불금 소득 효과	179
표 4-21 주·부업별 추정 평균 밭직불금	180
표 4-22 주·부업별 밭직불금 소득 효과	180
표 4-23 영농규모화사업 목적과 개요	184
표 4-24 영농규모화 성과지표	185
표 4-25 지역별, 지목별 매입면적	186
표 4-26 영농규모화 성과지표 측정 결과	186
표 4-27 농지은행 주요 사업 개요	195
표 4-28 농지매입비축사업 예산	197
표 4-29 농지매입비축사업 연도별 지원실적	197
표 4-30 영농규모화 관련 성과 추이	198
표 4-31 경영이양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	199

표 4-32 연도별 재정투입	200
표 4-33 경영이양 실적	200
표 4-34 농지연금 연도별 재정투입	203
표 4-35 연도별 지원현황	203
표 4-36 연금액 규모별 가입현황	204
표 4-37 연금액 규모별 가입현황	204
표 4-38 농지연금 성과추이	205
표 4-39 생산기반조성 사업목적과 개요	208
표 4-40 영농규모화 성과지표	209
표 4-41 생산기반조성 성과지표 측정 결과	210
표 4-42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대한 종합만족도(87.1점)	211
표 4-43 배수개선 사업에 대한 종합만족도(85.5점)	212
표 4-44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에 대한 종합만족도(84.0점)	212
표 5-1 신성장동력창출 분야 예산집행률	219
표 5-2 친환경농업육성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220
표 5-3 친환경농업육성 분야 성과지표	221
표 5-4 친환경농업육성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225
표 5-5 식품산업육성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228
표 5-6 식품산업육성 분야 성과지표	229
표 5-7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 경과	230
표 5-8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경제적 효과산출	232
표 5-9 식품산업육성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232
표 5-10 종자산업육성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236
표 5-11 종자산업육성 분야 성과지표	237
표 5-12 주요 작물의 국산 품종 보급률	238
표 5-13 종자산업육성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240
표 5-14 GSP 소속 기관별 역할	244

표 5-15 사업단별 프로젝트 수행 현황	244
표 5-16 R&D투자확대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254
표 5-17 R&D투자확대 분야 성과지표	255
표 5-18 R&D투자확대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258
표 5-19 농식품수출촉진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261
표 5-20 농식품수출촉진 분야 성과지표	262
표 5-21 농식품수출촉진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264
표 5-22 한식세계화지원 예산 변화 추이	268
표 5-23 한식세계화지원 세부사업 유형별 예산	268
표 5-24 한식세계화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	271
표 5-25 한식세계화사업 성과분석	271
표 5-26 한식조리 전문인력 양성 현황(단기교육)	272
표 5-27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 현황	273
표 5-28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부문별 예산 동향	275
표 5-29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분야별 예산비중 변화	277
표 5-30 수출지원사업 수출증대 효과분석의 다중회귀모형 변수	279
표 5-31 가공식품 유형별 수출증대 유효사업	283
표 5-32 가공식품 품목유형별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사업 순위	283
표 6-1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개편	291
표 6-2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방법	292
표 6-3 폐업지원제도 개편	294
표 6-4 폐업지원금 산출방법	296
표 6-5 2014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 산출	298
표 6-6 2014년도 번식우(한우) 폐업지원금 지급단가 산출	298
표 6-7 FTA 피해보전대책 예산 및 실적 현황	299
표 6-8 2014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과 신청 현황	300
표 6-9 2014년도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 현황	300

표 6-10 품목별 가격 지지율 현황	301
표 6-11 품목 농가별 소득 증대 효과	301
표 6-12 폐업지원을 통한 번식우 농가의 규모화 효과	302
표 6-13 FTA 피해보전직불금 산출방법 개선(안)	303

그 림 목 차

그림 1-1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4
그림 1-2 농업분야 FTA 국내대책 예산 계획과 실적	8
그림 1-3 분야별 FTA 국내대책 집행실적 (2008~2014년 합계, 억 원)	9
그림 1-4 2014년 농업분야 FTA 투융자 예산과 주요 사업	10
그림 1-5 FTA 국내보완대책 주요 분야(대분류)	13
그림 1-6 FTA 중장기 투융자 분야 18개 사업군과 세부사업	14
그림 1-7 성과지표 개발원칙	15
그림 1-8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체계도	16
그림 2-1 축산경쟁력제고 분야 세부사업	22
그림 2-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만족도	32
그림 2-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만족 이유	33
그림 2-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불만족 이유	33
그림 2-5 평균 매출액 추이	36
그림 2-6 평균 참여농가 추이	36
그림 2-7 평균 출하체중과 1등급이상 출현율 추이	37
그림 2-8 평균 브랜드판매점 수 추이	37
그림 2-9 홈페이지 유무 및 전자상거래 이용	38
그림 2-10 마케팅 실적 및 비용 추이	38
그림 2-11 브랜드경영체 운영상 애로사항	40
그림 2-12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2013년 기준)	72
그림 2-13 가축분뇨의 일반적인 처리 및 보관 방법 유형화	73
그림 2-14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의 파급영향 유형	75
그림 2-15 자원순환 분석 결과(유형 2)	82
그림 2-16 자원순환 분석 결과(유형 3)	84
그림 2-17 법정가축질병 발생 추이	94

그림 2-18 가축질병 발생건수율 및 발생두수율	96
그림 3-1 원예경쟁력제고 분야 세부사업	107
그림 3-2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만족도	114
그림 3-3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만족 이유	114
그림 3-4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불만족 이유	115
그림 3-5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만족도	116
그림 3-6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만족 이유	117
그림 3-7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불만족 이유	117
그림 3-8 성향점수 구간의 분포 (공동영역의 존재여부 검정)	127
그림 4-1 맞춤형농정 분야의 세부사업	150
그림 4-2 농업재해보험사업 만족도	167
그림 4-3 농업재해보험사업 불만족 이유	168
그림 4-4 농지연금사업 만족도	169
그림 4-5 농지연금사업 만족 이유	169
그림 4-6 농지연금사업 불만족 이유	170
그림 4-7 농지매입비축(매도인)사업 만족도	187
그림 4-8 농지매입비축(매도인)사업 만족 이유	188
그림 4-9 농지매입비축(매도인)사업 불만족 이유	188
그림 4-10 농지매입비축(임차인)사업 만족도	189
그림 4-11 농지매입비축(임차인)사업 만족 이유	190
그림 4-12 농지매입비축(임차인)사업 불만족 이유	190
그림 4-13 경영이양직불제 만족도	191
그림 4-14 경영이양직불제 만족 이유	192
그림 4-15 경영이양직불제 불만족 이유	192
그림 5-1 신성장동력창출 분야의 세부사업	218

그림 5-2 국내 종자시장 규모 추정치 및 세계 종자시장 국별 비중	242
그림 5-3 한식세계화지원 예산 부문별 비중	269
그림 5-4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예산 추이	276

요 약

1.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개요

1.1. 성과평가 필요성과 방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특별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국내대책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말까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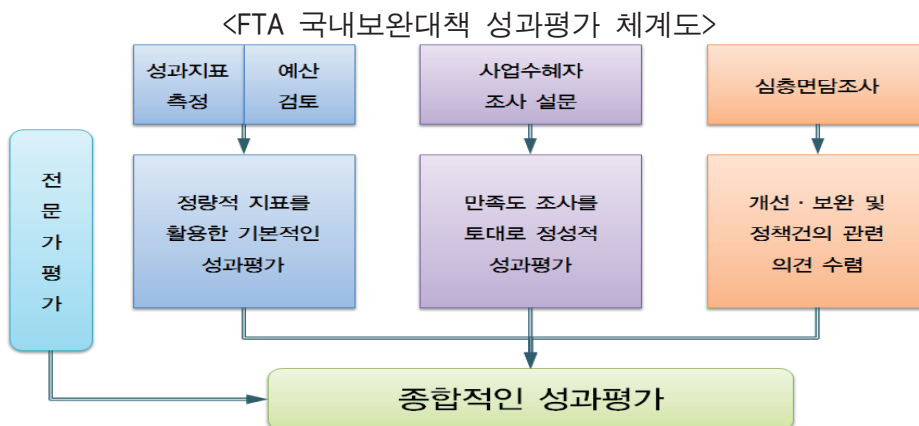
○ FTA가 이행^{*}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에 대한 국회, 농업인 등의 관심이 높으며, 농업분야의 세부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예산반영, 실효성 및 체감도 제고 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 2014년 9개, 2015년 11개 발효(신규: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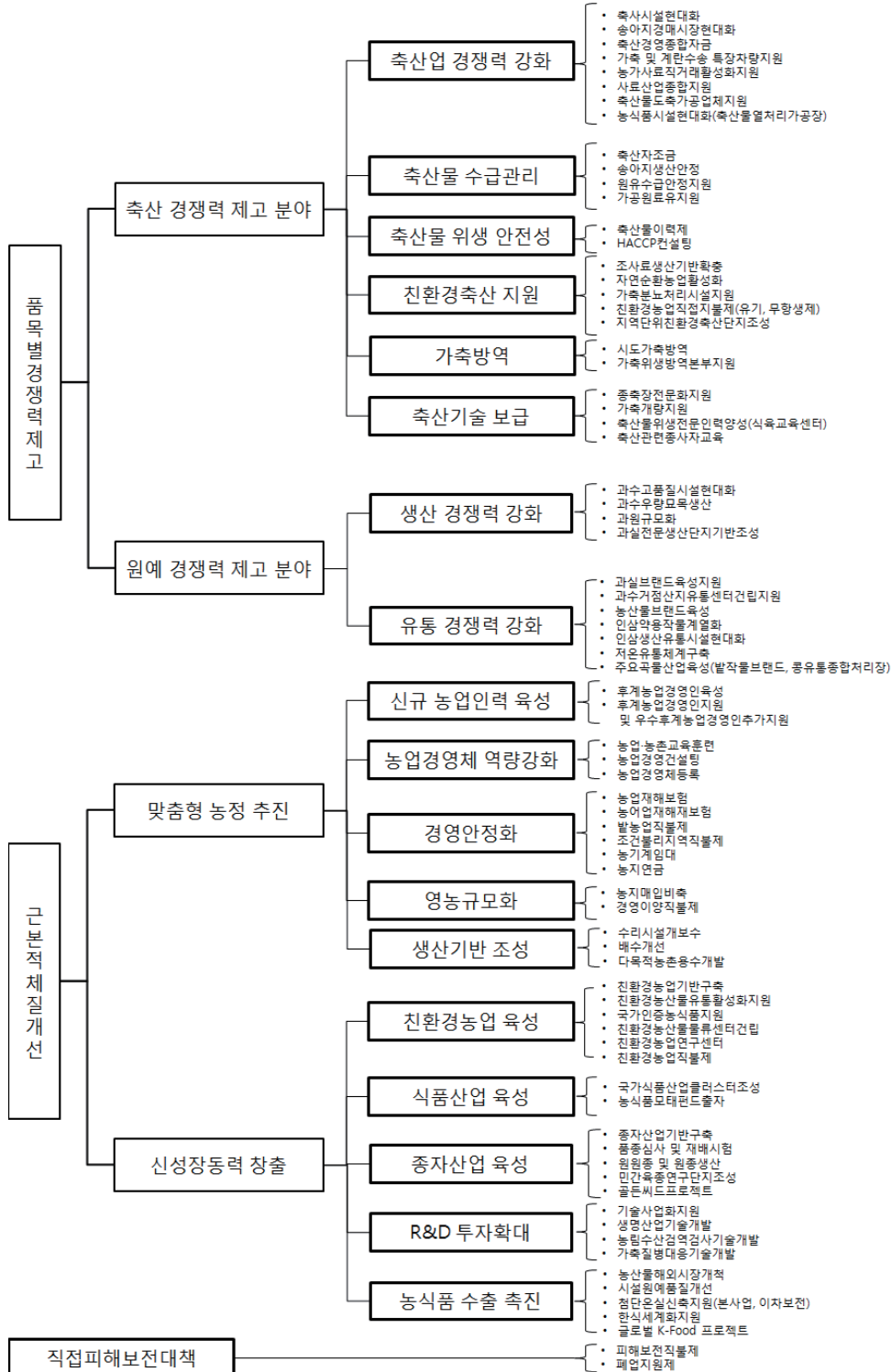
□ 2014년도 FTA 국내보완대책을 정책목적 및 사업 내용에 따라 5개^{*} 분야, 18개 사업군, 75개 사업으로 체계화하여 성과평가를 실시

* 축산경쟁력제고분야, 원예경쟁력제고분야, 맞춤형농정추진, 신성장동력창출, 단기피해보전(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 2014년도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성과평가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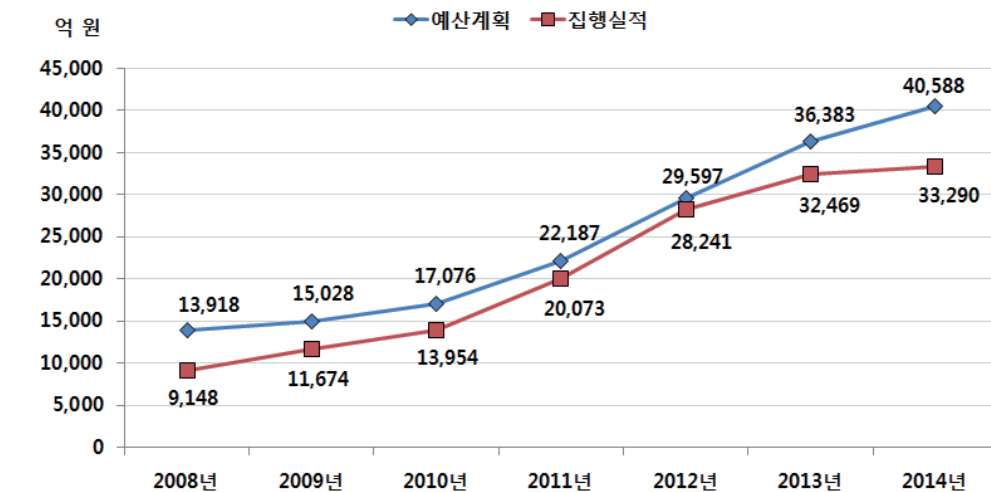
<FTA 중장기 투융자 분야 18개 사업군과 세부사업>



1.2.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과 추진

- 한·미 FTA와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농업인의 피해보전, 농업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의 핵심은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 등 중장기 투융자 사업이며, 단기피해보전제도(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는 보완적으로 운용
- 한·미 FTA는 2012년 3월에 발효되었으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추진이 요구된 사업들은 2008년부터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 2008~2014년 동안 농업분야 FTA 보완대책에 배정된 투융자 예산은 17조 4,777억원이며, 2014년까지의 집행실적은 14조 8,849억 원¹⁾

〈농업분야 FTA 국내대책 예산 계획과 실적〉



주: 한·EU FTA 국내대책 예산은 2011년부터 반영되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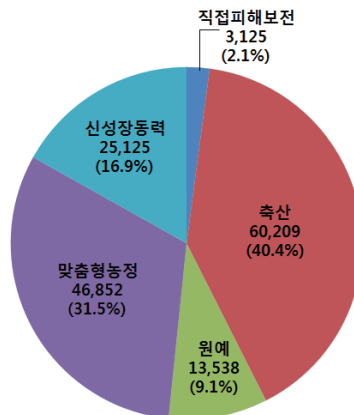
1) FTA 투융자 예산과 실적에는 정부의 재정 외에도 이차보전으로 투입된 농협자금이 포함되어 있음. 이차보전으로는 2008~2014년에 예산으로 배정된 2조 7,799억 원 중에서 1조 9,266억 원이 '축사시설 현대화(이차보전 용자)',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및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첨단온실신축지원' 사업 등에 집행되었음.

□ 지난 7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품목별 경쟁력 제고 분야와 근본적 체질 개선 분야 지원 비중은 각각 전체 지원액의 49.5%(7조 3,747억 원)와 48.4%(7조 1,977억 원) 차지

○ 축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해 집행된 투융자 규모는 6조 209억 원(40.4%)이며, 원예 및 식량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 3,538억 원(9.1%)을 지원

○ 맞춤형농정추진을 위해 집행된 투융자 규모는 4조 6,852억 원(31.5%)이며, 신성장동력창출을 위해 2조 5,125억 원(16.9%)을 지원

<분야별 FTA 국내대책 집행실적 (2008~2014년 합계, 억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14년도 FTA 국내보완대책의 집행실적은 3조 3,290억 원, 예산집행률은 82.0%

○ 신성장동력창출, 피해보전직불의 예산집행률이 각각 67.7%, 66.6%로 저조

<2014년도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과 실적>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A)	실적(B)	집행률(%) (B/A)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40,588	33,290	82.0
직접피해보전	2,032	1,748	86.0
- 피해보전직불	605	403	66.6
- 폐업지원	1,427	1,345	94.3
품목별경쟁력제고	19,966	16,709	83.7
- 축산분야	18,540	15,342	82.8
- 원예분야	1,426	1,367	95.9
근본적체질개선	18,590	14,833	79.8
- 맞춤형농정추진	11,994	10,369	86.5
- 신성장동력창출	6,596	4,464	67.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축산경쟁력제고 분야 성과평가

□ 축산경쟁력제고 분야는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화 실현’을 목적으로 6개 사업군 25개 세부사업을 시행

- 사업군: ① 축산업경쟁력강화 ② 축산물수급관리 ③ 축산물위생안전성제고
④ 친환경축산지원 ⑤ 가축방역 ⑥ 축산기술보급

○ 2014년 축산경쟁력제고에 투입된 예산은 1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하였고, 예산집행률은 82.8%로 전년보다 3.5%p 하락

- 축산업경쟁력강화(84.9%→78.8), 친환경축산지원(90.1%→85.0) 사업군의 예산집행률 하락이 주요 원인임. 그 외 부문은 상승
- 사업군별 예산비중은 축산업경쟁력강화가 68.5%로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친환경축산지원 16.6%, 가축방역 6.7%, 축산물수급관리 4.4%, 축산기술보급 2.8%, 축산물위생안전성제고 1.1%로 나타남

〈축산경쟁력제고 분야 예산집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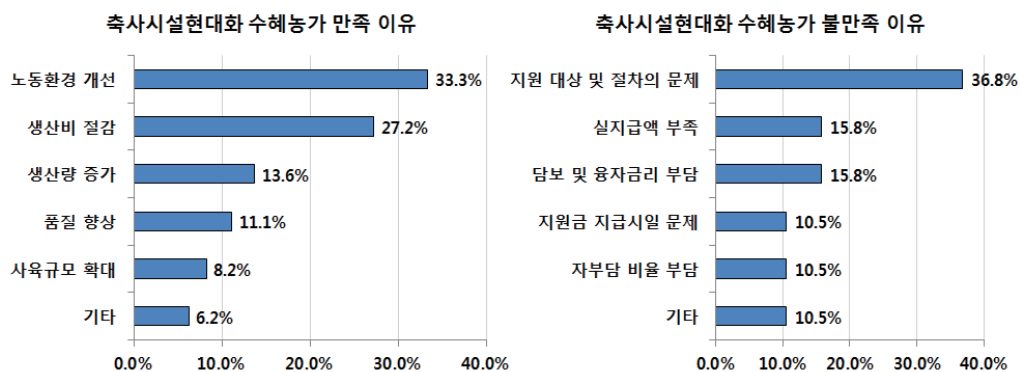
단위 : 억 원

정책군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 대비 증감률(%)
전체	예산	3,455	4,471	4,532	10,299	13,977	15,555	18,540	19.2
	실적	2,263	3,927	4,277	9,495	11,479	13,426	15,342	14.3
	집행률(%)	65.5	87.8	94.4	92.2	82.1	86.3	82.8	-3.5p
축산업 경쟁력강화	예산	1,283	1,213	1,241	4,940	8,501	10,241	12,695	24.0
	실적	172	1,149	1,239	4,521	6,100	8,699	9,999	14.9
	집행률(%)	13.4	94.7	99.8	91.5	71.8	84.9	78.8	-6.1p
축산물 수급관리	예산	335	881	435	741	1,349	773	810	4.8
	실적	330	551	344	546	1,324	610	781	28.0
	집행률(%)	98.5	62.5	79.1	73.7	98.1	78.9	96.4	17.5p
축산물 위생 안전성제고	예산	148	204	245	219	263	208	198	-4.8
	실적	139	207	247	219	262	207	197	-4.8
	집행률(%)	93.9	101.5	100.8	100.0	99.6	99.5	99.5	0.0
친환경축산 지원	예산	1,401	1,848	2,036	2,138	2,260	2,736	3,081	12.6
	실적	1,369	1,761	1,951	1,888	2,093	2,466	2,620	6.2
	집행률(%)	97.7	95.3	95.8	88.3	92.6	90.1	85.0	-5.1p
가축방역	예산	-	-	-	1,798	1,001	991	1,233	24.4
	실적	-	-	-	1,845	1,150	963	1,228	27.5
	집행률(%)	-	-	-	102.6	114.9	97.2	99.6	2.4p
축산기술보급	예산	288	325	575	463	603	606	523	-13.7
	실적	253	259	496	476	550	481	517	7.5
	집행률(%)	87.8	79.7	86.3	102.8	91.2	79.4	98.9	19.5p

2.1. 축산업경쟁력강화

□ 축산업경쟁력강화 정책의 세부사업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은 **축산농가의 노동환경 개선과 축산물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 외 ‘축산 경영종합자금지원’,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료산업종합지원’ 등의 사업 또한 **생산비 절감, 브랜드경영체 지원 등 축산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축종별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었으며, 정책 지원농가의 생산성 지표도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사업수혜자 조사에서도 노동환경 개선, 생산비 절감, 생산량 증가 등의 이유로 응답자의 81.0%가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다만, 규제완화와 신청절차 간소화, 융자 금리인하, 부가세 면제 등 보다 현실적이고 현장 중심의 지원 건의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수혜자 조사결과,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전체 응답자의 45.0%, ‘만족’ 36.0%, ‘불만족’ 13.0%, ‘매우 불만족’ 6.0%
 - 까다로운 지원 대상 규정 및 복잡한 행정절차, 담보 및 융자금리 부담 등에 대한 불만족 제기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2014년 예산집행률은 93.2%로 높았으나, ‘축사시설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은 저금리 영향 및 담보부담 등으로 예산집행률이 57.8%에 그침



- ‘축산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브랜드경영체지원’, ‘한우농가조직화’, ‘가축계열화’ 사업 시행으로 축산물브랜드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차별성 확대가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비 절감 등 안정적 축산경영에 기여

- ‘한우브랜드 연간 출하물량’은 2011년 2,517두에서 2013년 3,293두, 2014년 3,309두로 증가
-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심층면담 조사결과, 브랜드 경쟁력 확보, 판매시설 확충, 홍보 강화 등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다만, 융자금리(3%)에 대한 부담 존재
- 2014년 ‘가축계열화율’은 92%로 2012년 91%보다 1%p 상승
-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수혜경영체와 비수혜경영체를 비교한 결과, 수혜경영체의 마케팅 홍보 건수가 월등히 많았으며, 건 당 홍보비용은 약 1/20 수준으로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사업의 목적(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차별성 확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수혜경영체 마케팅 홍보 건수는 633회, 비수혜경영체는 16회

<2014년 수혜경영체과 비수혜경영체 비교>

항 목	수혜경영체	비수혜경영체
매출액(백만원)	33,754.1	25,983.5
참여농가수(호)	184.0	366.8
번식률(%)	81.3	81.7
평균출하월령(개월)	24.1	30.6
브랜드육 판매점 수(개소)	15.1	7.3
14년 마케팅 및 홍보건수(건)	633	16
14년 마케팅 및 홍보비용(백만원)	222.3	99.4
14년 건당 홍보비용(백만원)	0.35	6.2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사업’은 사료의 현금 및 선급금 거래, 공동구매 활성화를 유도하여 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 ‘농가사료구입비절감액’은 2013년 173억 5천만 원에서 2014년 520억 8천만 원으로 크게 증가
-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시행으로 ‘사료가격 변동’은 14원/kg, 사료 품질 부적합률도 1.8%까지 낮아지는 등 사료가격 안정과 품질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융자금리(업체 4%, 생산자 단체 3%)로 예산집행률(84.5%) 저조
- ‘사료가격 변동’은 2011년 78원/kg에서 2013년 23원, 2014년 14원까지 감소
- ‘사료품질 부적합률’도 2010년 2.6%에서 2012년 2.1%, 2014년 1.8%까지 하락

<축산업경쟁력강화 주요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축사시설 현대화 (우량 송아지 생산 및 비육 시설지원 포함)	하위 1등급 이상 출현율 (%)	목표	52.0	55.0	57.0	64.0	80.0	80.5	지표 변경
		실적	54.0	56.7	63.1	62.4	81.6	83.7	
		달성률(%)	103.8	103.1	110.7	97.5	102.0	104.0	
	연가 모돈두당 출하두수(두)	목표	14.0	15.0	16.0	16.5	15.5	16.0	지표 변경
		실적	14.4	15.2	15.1	14.5	15.6	16.7	
		달성률(%)	102.9	101.3	94.4	87.9	100.6	104.4	
	지원농가 연가 모돈두당 출하두수(두)	목표	-	-	-	-	-	-	17.8
		실적	-	-	-	-	-	-	17.9
		달성률(%)	-	-	-	-	-	-	100.6
	지원농가 사라계 산란율(%)	목표	-	-	-	-	-	-	74.7
		실적	-	-	-	-	-	-	75.5
		달성률(%)	-	-	-	-	-	-	101.1
	지원농가 농가호우일 우유생산량 (kg)	목표	-	-	-	-	-	-	983.0
		실적	-	-	-	-	-	-	1,018.8
		달성률(%)	-	-	-	-	-	-	103.6
	예산		1,059	1,025	1,147	1,633	2,760	2,200	1,692
	실적		-	1,022	1,091	1,633	1,754	1,877	1,577
	집행률(%)		-	99.7	95.1	100.0	63.6	85.3	93.2
	이차보전 예산		-	-	-	-	2,125	2,125	2,125
	이차보전 실적		-	-	-	-	1,753	1,283	1,228
	이차보전 집행률(%)		-	-	-	-	82.5	60.4	57.8

2.2. 축산물수급관리

- 축산물수급관리 정책 시행으로 계절적 수급불균형 완화를 통한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다만,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일부 사업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축산자조금사업’ 시행으로 축산업자의 권익보호와 수급안정, 소비촉진, 정보제공 등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 다만 자조금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필요
 - ‘축산자조금사업’에 대한 ‘생산자만족도’ 조사결과, 2014년 만족도는 69.1%로 전년보다 0.5%p 상승, 예산집행률은 91.7%
 - 축종별 자조금 위원회 면담 조사결과, 거출금 100%이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음. 반면 개별농가의 경우, 자조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 및 효율성에 대한 불만과 품질에 대한 홍보부족을 지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한우 번식기반 유지를 위해 사업을 시행하였고, 2012년부터 적정수급과 연계하여 보전금 지급기준이 개정되면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사육마리수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산지가격은 안정되는 등 제도 도입목적을 달성하였으나 농가의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 소사육두수 : 2,635천 두('09) → 3,059('12) → 2,759('14)
- 가입암소 두수(4분기 기준): 1,077천 두('09) → 1,227('12) → 1,120('14)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률은 2010년 92.8%, 2012년 66.4%, 2014년 39.3%로 매년 감소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지급기준(2012년 2월 개정)>

구분	확대단계	적정단계	위험단계	초과단계
가입암소두수	90만두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 미만	110만 이상
최대보전액(만원/마리)	40	30	10	0

○ ‘원유수급안정지원사업’과 ‘가공원료유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원유의 계절적 수급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차액을 지원하고 국내산 유제품 소비 촉진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원유수급안정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학교우유급식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과 우유 소비기반 확대에 따른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
- 다만, 현행 방식의 지원으로는 수입산 유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지속적인 소비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

<축산물수급관리 주요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원유수급 안정지원	원유 잉여율(%)	목표	16.3	18.0	17.5	11.6	6.0	2.5	7.5
		실적	14.4	11.8	7.9	0	0.8	2.1	6.6
		달성률(%)	113.2	152.5	221.5	—	750.0	119.0	113.6
	예산		—	—	—	305	333	416	482
	실적		—	—	—	305	316	326	474
	집행률(%)		—	—	—	100.0	94.9	78.4	98.3
가공 원료유 지원	가공원료유 지원율(%)	목표	—	—	—	신규 지표	1.0	22.5	10.0
		실적	—	—	—		0.5	20.2	17.5
		달성률(%)	—	—	—		50	90	175.0
	예산		—	—	—	100	72	100	122
	실적		—	—	—	—	10	65	122
	집행률(%)		—	—	—	0.0	13.9	65.0	100.0

2.3. 축산물위생안전성제고

- 축산물 위생 안전성 제고 정책은 이력정보 기록 및 관리와 HACCP 적용을 통해 **축산물 유통 투명성 확보, 소비자 신뢰성 제고** 등 축산물 위생 및 안전 축산물 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축산물이력제사업’은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여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
 - ‘쇠고기이력정보 조회건수’는 2009년 1,679건에서 2011년 7,751건, 2013년 13,917건, 2014년 21,267건까지 증가
 - 개체식별번호 위반율은 1.2%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DNA동일성 검사 불일치율도 2013년 18.2%에서 2014년 14.8%까지 하락
- ‘HACCP컨설팅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HACCP지정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축산물위생 및 안전성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
 - ‘HACCP지정 비율’: 2.0%(’08) → 11.0%(’10) → 21.4%(’12) → 31.3%(’14)

2.4. 친환경축산 지원

- 친환경축산 지원 정책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조사료 및 경종작물에 공급하는 **자연순환농업을 구현**하고 **친환경축산을 확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에 기여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소 사육두수 감소와 지방재정 부담 증가 등으로 사업 수요가 감소하면서 ‘조사료 자급률’은 전년 수준에 머물렀으며, ‘조사료재배면적’은 전년보다 감소
 - 2014년 ‘조사료 자급률’은 전년대비 동등한 82%였으며, ‘조사료 재배면적’은 2013년 보다 1천 ha 감소한 297천 ha 수준
 - 한육우 사육두수(4분기 기준): 3,059천 두(’12) → 2,918천 두(’13) → 2,759천 두(’14)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내역사업 중 지방비 부담이 포함된 사업은 ‘조사료사 일리지제조비지원’(지방비 60%), ‘조사료기계장비지원’(지방비 30%), ‘조사료유통센터운영’(지방비 30%), ‘TMR가공시설 및 운영자금지원’(지방비 30%) 사업 등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AHP 활용) 결과, 사업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조사료 생산기반 육성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아 해당 사업 그룹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조사료생산기반육성의 평균 중요도는 0.488, 조사료유통지원 0.268, 조사료직접 생산지원 0.244(세 사업의 중요도 합은 1)
- 조사료유통지원의 평균 만족도는 0.682, 조사료직접생산지원 0.664, 조사료생산기반육성 0.621(절대만족 0.9 ~ 절대 불만 0.1)
- 우리나라 축산관련 지원 사업의 향후 방향에 대한 조사 결과, 축산식품의 위생안전성 제고와 가축방역 강화를 세 그룹에서 모두 5위 이내의 중요과제로 제시

<축산관련 지원사업 향후 추진과제 필요성>

우선 순위	정부		업계		학계	
	사업명	점수	사업명	점수	사업명	점수
1	품질경쟁력	0.874	위생안전성	0.877	가축방역	0.873
2	가격경쟁력	0.861	가축방역	0.871	위생안전성	0.859
3	생산경쟁력	0.861	전문인재양성	0.868	환경오염	0.845
4	가축방역	0.860	가격경쟁력	0.860	도축유통효율성	0.827
5	위생안전성	0.858	수급관리	0.858	가공부문경쟁력	0.814

-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과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의 시행으로 ‘퇴액비 사용량’은 증가하고 ‘가축분뇨 자원화율’은 상승하는 등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 ‘퇴액비 사용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4년에는 5,034천 톤까지 증가하였고, ‘가축분뇨자원화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89.7% 달성
- 심층면담 조사 결과, 개별농가는 액비 저장능력향상, 체계적 설비 가능 등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공동자원화 시설의 경우, 환경규제, 가축분뇨의 수급불균형 등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일부지역에서는 액비유통센터의 위탁살포에 따른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업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수행한 결과, 사업의 효과 중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축산농가의 지속성 확보 효과였으며, 다음으로 에너지화에 의한 수입대체 효과와 지구온난화가스 감축, 생산비 절감, 조사료 증산(배합사료 대체) 효과 등의 순

- 향후, 축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유지 내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CO₂ 배출의 최소화 등 친환경적으로 축산을 영위하면서 성장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되어야 함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의 효과 분석 결과>

퇴액비화				에너지화	
생산비절감	지속성확보	수요증대	조사료증산	수입대체	온난화가스감축
914	7,986	219	584	2,774	1,325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시행으로 친환경축산물 생산량 증가와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친환경주요축산물생산량비중’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4년에 전년(21.1%) 대비 감소하였으나, 목표 대비 115.7%의 달성률을 보임

<친환경축산지원 주요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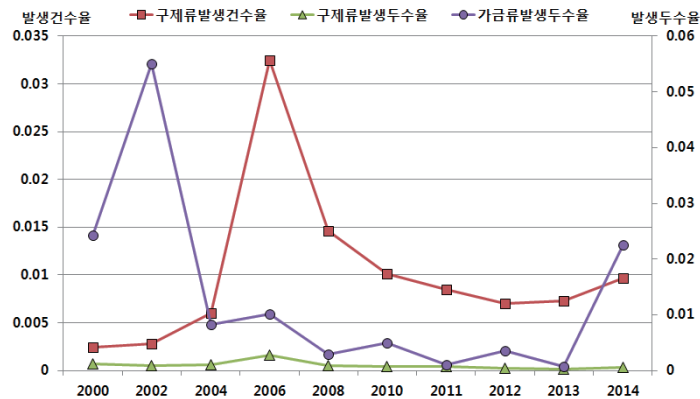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조사료 자급률(%)	목표	80.0	82.0	85.0	86.0	85.0	88.0	90.0
		실적	81.0	84.0	82.0	83.0	80.0	82.0	82.0
		달성률(%)	101.3	102.4	96.5	96.5	94.1	93.2	91.1
	조사료재배 면적 (천 ha)	목표	191	234	265	316	330	350	370
		실적	193	241	244	260	268	298	297
		달성률(%)	101.0	103.0	92.1	82.3	81.2	85.1	80.3
	예산		414	819	1,002	1,065	1,240	1,540	1,577
	실적		397	766	958	938	1,125	1,322	1,223
	집행률(%)		95.9	93.5	95.6	88.1	90.7	85.8	77.6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유기,무 항생제)	친환경 주요 축산물 생산량 비중(%)	목표	0.4	4.0	10.0	11.0	12.0	13.0	14.0
		실적	3.6	6.0	10.0	12.9	13.3	21.1	16.2
		달성률(%)	900	150	100	117.3	110.8	162.3	115.7
	예산		-	-	-	30	70	102	173
	실적		-	-	-	30	70	102	172
	집행률(%)		-	-	-	100.0	100.0	100.0	99.4

2.5. 가축방역

□ 가축방역 정책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 시 확산 차단’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2014년 FMD 및 HPAI가 수시로 발생하면서 가축질병 발생 건수가 증가하였음. 따라서 가축위생 방역의 성과 제고 및 기능 강화 방안 모색 필요

- ‘시도가축방역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해당 사업 시행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어 가축질병 발생율을 지속적으로 낮춘 것으로 평가. 다만, 2014년 HPAI와 구제역, 결핵 등의 질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향후 주요 질병에 대한 방역사업 추진 필요

〈가축질병 발생건수율 및 발생두수율〉



2.6. 축산기술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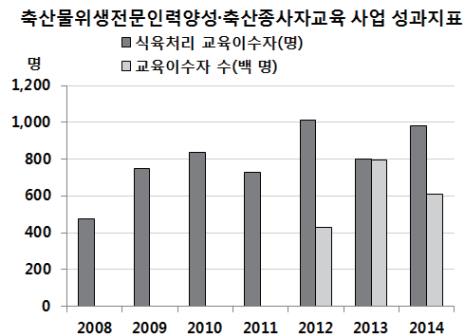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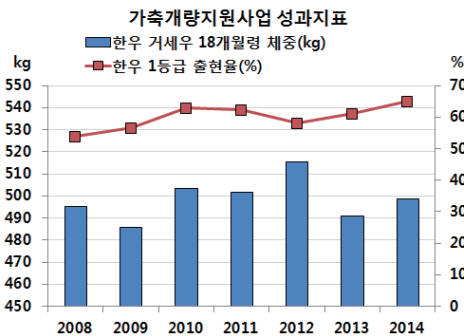
□ 축산기술보급 정책 시행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축산물 위생·안전성 개선에 기여

○ ‘가축개량지원사업’ 추진으로 ‘한우 1등급출현율’이 상승하고 ‘젖소산유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2014년 ‘한우 1등급 출현율’은 전년 대비 3.7%p 증가한 65.0%
- 연간 두당 ‘젖소산유량’은 2008년 8,553kg에서 2013년 8,723kg, 2014년 8,959kg으로 증가
- 한우개량의 경우, 지금까지 육질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되어 ‘한우 1등급출현율’을 꾸준히 상승(품질 향상) 시킴. 하지만 ‘한우 거세우 18개월령 체중’(육량 지표)의

경우, 예전에 비해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어 향후 육질 개선뿐만 아니라 육량 개선도 고려해야 함

- ‘축산물위생전문인력양성(식육교육센터)사업’을 통해 매년 ‘식육처리교육이수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도모
- ‘축산관련종사자교육사업’은 2014년에 HPAI 및 FMD 등 가축질병이 연중 발생함에 따라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교육대상자의 참여 저조



3. 원예경쟁력제고 분야 성과평가

□ 원예경쟁력제고 분야는 ‘FTA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고품질 원예 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확후 관리, 가공·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원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목적으로 2개 사업군 12개 세부사업 추진

· 사업군: ① 생산경쟁력강화 ② 유통경쟁력강화

○ 2014년 원예경쟁력제고에 투입된 예산 1,426억 원 가운데 95.9%(1,367억 원)가 집행되었으며, 예산집행률은 전년 대비 3.4%p 상승

- 다만, 생산경쟁력강화 예산집행률은 100.0%에서 97.4%로 하락

·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100.0%(’13) → 96.8(’14), 3.2%p 하락

· 과수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100.0%(’13) → 95.1(’14), 4.9%p 하락

- 사업군별 예산비중은 생산경쟁력강화 71.4%, 유통경쟁력강화 28.6%를 차지

<원예경쟁력제고 분야 예산집행률>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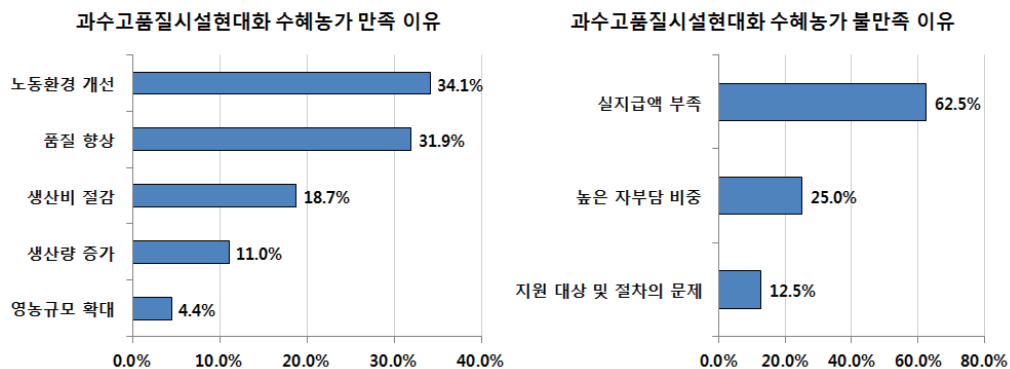
정책군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 대비 증감률(%)
전체	예산	2,446	2,204	2,455	1,848	1,930	2,176	1,426	-34.5
	실적	2,047	2,010	2,135	1,858	2,109	2,012	1,367	-32.1
	집행률(%)	83.7	91.2	87.0	100.5	109.3	92.5	95.9	3.4p
생산경쟁력 강화	예산	1,166	1,071	1,082	945	1,016	1,071	1,018	-4.9
	실적	1,166	1,071	1,081	945	1,016	1,071	992	-7.4
	집행률(%)	100.0	100.0	99.9	100.0	100.0	100.0	97.4	-2.6p
유통경쟁력 강화	예산	1,280	1,133	1,373	903	914	1,105	408	-63.1
	실적	881	939	1,054	913	1,093	941	375	-60.1
	집행률(%)	68.8	82.9	76.8	101.1	119.6	85.2	91.9	6.8p

3.1 생산경쟁력강화

□ 생산경쟁력강화 정책의 세부사업인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시행은 과수농가의 시설 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그 외 ‘과수우량묘목생산’, ‘과원규모화’,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업도 생산기반조성, 전문경영체 육성 등에 기여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사업수혜자 조사에서도 노동환경 개선, 품질 향상, 생산비 절감 등의 효과로 응답자의 89.9%가 사업에 만족함. 하지만 낮은 실지금액, 지원 자격 및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불만족 존재

- 2014년 ‘생산량 증가율’은 21.3%로 목표 대비 94.7% 달성
- 2014년 예산은 595억 원으로, 신규로 추진된 사업(ICT 분야)이 다소 미흡하여 예산 집행률은 96.8%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의 수혜자 조사결과,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전체 응답자의 29.3%, ‘만족’ 60.6%, ‘불만족’ 9.1%, ‘매우 불만족’ 1%
- 또한, 수혜농가는 사업비 지원 비율 조정,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 사업의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 건의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사과, 배, 포도 대상), 수혜농가는 비수혜농가 대비 수확량이 많고, 당도 및 상품 이상 비율이 높은 등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
 - 사과농가: 농업소득 196만원, 평균 당도 0.54 brix 향상
 - 배농가: 농업소득 194만원, 단위당 수확량 약 643kg 향상
 - 포도농가: 농업소득 176만원, 상품 이상 비율 8% 향상



- ‘과수우량묘목생산사업’을 통해 무병우량묘목 생산 및 공급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묘목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2014년 ‘자체보증 묘목 점유율’은 50.7%로 전년 대비 0.2%p 상승
 - 자체보증 묘목 공급량: 70만 주(’11) → 76(’12) → 78(’13) → 74(’14)
- ‘과원규모화사업’의 시행으로 1.5ha이상 과수전업농 비중이 증가하였고, 지원 농가의 평균 경영규모가 확대되는 등 규모화·전문화된 경영체 육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1.5ha 이상 과수전업농 비중은 지원 전에 22.7%였지만 지원 후에 53.8%로 증가
 - 지원 농가 평균 경영규모: 지원 전 1.14ha → 지원 후 2.07ha

- ‘과원규모화사업’ 심층면담 조사결과, 희망과원 우선 매입 후 원금과 이자를 매년 상환하는 지원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남. 다만, 복잡한 사업 신청절차와 일부 담보 요구로 인한 부담이 존재
- ‘과원규모화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비교한 결과, 2005~2013년까지 매년 과수농가 호당 7.7~11.9㎡, 총 76.05㎡의 면적 증가한 것으로 추정

<과원 규모화 효과>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과수농가당 평균면적 증가분	11.88	9.82	8.64	8.28	8.02	6.80	6.43	8.48	7.69

- ‘과실전문생산단지조성사업’ 시행으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증가하는 등 농업 소득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사업수혜자 조사에서도 재해예방, 재배환경 개선, 품질 향상, 생산비 절감 등의 효과로 응답자 중 84.6%가 사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늦은 완공 시점, 낮은 지원 단가, 복잡한 행정절차 등에 대한 불만족 제기
- 과수농가 소득은 2003년 1,871천 원/10a에서 2013년 3,176천 원/10a로 증가
 - 주요과실 평균 단위면적당 생산량(kg/10a): 1,622(’11) → 1,554(’12) → 1,555(’13) → 1,622(’14)
 - 수혜자 조사결과,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20.5%, ‘만족’ 64.1%, ‘불만족’ 12.8%, ‘매우 불만족’ 2.6%
 - 수혜농가는 농가 현실에 맞는 사업 진행, 행정절차 간소화, 원활한 사업진행 등 농가 의견이 반영된 사업 지원 건의

<생산경쟁력강화 주요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주요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목표	17.0	21.0	21.0	23.0	24.0	22.0	22.5
		실적	17.0	22.0	21.0	18.3	13.4	21.2	21.3
		달성률(%)	100.0	104.8	100.0	79.6	55.8	96.4	94.7
	예산		624	606	588	491	627	670	595
	실적		624	606	588	491	627	670	576
	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6.8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과수우량 묘목생산	자체보증 묘목 점유율(%)	목표	21.0	37.0	45.0	52.0	54.0	53.0	54.0
		실적	21.0	37.1	45.8	50.4	52.3	50.5	50.7
		달성률(%)	100.0	100.3	101.8	96.9	96.9	95.3	93.9
	예산		45	24	14	7	7	6	6
	실적		45	24	13	7	7	6	6
	집행률(%)		100.0	100.0	92.9	100.0	100.0	100.0	100.0

3.2 유통경쟁력강화

□ 유통경쟁력강화 정책 시행으로 지역별 대표브랜드 육성 및 규모화 등 유통구조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시행으로 주요 산지의 공동계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고품질 과실브랜드 유통비중’도 증가하는 등 국내 브랜드 정착,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주요 산지 공동계산율은 2012년 38.3%에서 2014년 56.7%로 증가
- ‘고품질 과실브랜드 유통비중’은 2008년 5.2%에서 2014년 15%로 증가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사업’을 통해 과수거점 APC 매출액 실적이 증가하고, 원예 농산물 생산액에서 과수거점 APC 처리액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과일 유통의 규모화·조직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과수거점 APC 원예농산물 취급비중은 2013년 25%에서 2014년 29.7%로 증가
- 예산집행률은 100%였지만, 예산은 전년 대비 6.1% 감소

○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시행으로 ‘인삼계열화면적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인삼농가의 수급 및 경영 안정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인삼계열화사업 면적 비중’은 2012년 12%에서 2014년 18.2%로 증가
- 2012~2014년까지 사업물량은 계약재배 면적 2,070ha, 수매 7,782톤
- 기존의 용자사업이 이차보전으로 전환되면서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

○ ‘주요곡물산업육성사업’은 계열화경영체육성, 건조·선별·저장 등 유통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발작물경영체의 지역단위 조직화의 일익을 담당

- ‘발작물브랜드경영체 생산량’이 증가 추세이고, 2014년 ‘생산량 점유율’도 31.6%로 목표에 근접
- 2012년 쿵유통종합처리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충북 괴산에 1개소를 설치하였고, 2014년 문경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세수부족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음

4. 맞춤형농정 추진 분야 성과평가

□ 맞춤형농정 추진 분야는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농가경영 및 소득안정, 고령농의 노후생활보장, 전업농의 규모화 및 경영안정(위험관리) 등 농업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국내농업의 전반적인 체질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5개 사업군 16개 세부 사업을 시행

- 사업군: ① 신규농업인력육성 ② 농업경영체역량강화 ③ 경영안정화 ④ 영농규모화 ⑤ 생산기반조성

○ 2014년 맞춤형농정에 투입된 예산은 1조 1,9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고, 예산집행률은 86.5%로 전년보다 6.0%p 하락

- 경영안정화(87.9%→64.1), 농업경영체역량강화(98.7%→94.0) 사업군의 예산집행률 하락이 주요 원인임
- 사업군별 예산비중은 경영안정화가 39.9%로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생산기반조성 25.0%, 영농규모화 15.8%, 신규농업인력육성 15.1%, 농업경영체역량강화 4.2%로 나타났음

<맞춤형농정 분야 예산집행률>

단위: 억 원

정책목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 대비 증감률(%)
전체	예산	3,600	4,768	5,756	6,145	8,444	10,956	11,994	9.5
	실적	2,813	3,358	4,541	5,146	10,496	10,129	10,369	2.4
	집행률(%)	78.1	70.4	78.9	83.7	124.3	92.5	86.5	-6.0p
신규농업인력육성	예산	2,097	2,150	2,152	1,733	1,996	1,816	1,816	0.0
	실적	1,577	1,630	1,389	798	1,605	1,409	1,940	37.7
	집행률(%)	75.2	75.8	64.5	46.0	80.4	77.6	106.8	29.2p
농업경영체역량강화	예산	351	573	566	552	559	468	501	7.1
	실적	344	543	532	455	635	462	471	2.0
	집행률(%)	98.0	94.8	94.0	82.4	113.6	98.7	94.0	-4.7p
경영안정화	예산	852	1,200	1,589	1,664	2,631	3,423	4,782	39.7
	실적	761	861	1,330	1,727	5,033	3,010	3,063	1.8
	집행률(%)	89.3	71.8	83.7	103.8	191.3	87.9	64.1	-23.8p
영농규모화	예산	300	845	1,449	2,196	2,258	2,299	1,895	-17.6
	실적	131	324	1,290	2,166	2,223	2,298	1,895	-17.5
	집행률(%)	43.7	38.3	89.0	98.6	98.4	100.0	100.0	0
생산기반조성	예산	-	-	-	-	1,000	2,950	3,000	1.7
	실적	-	-	-	-	1,000	2,950	3,000	1.7
	집행률(%)	-	-	-	-	100.0	100.0	100.0	0

4.1. 신규농업인력육성

□ 신규농업인력육성 정책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컨설팅과 영농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 육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후계농업경영인지원 및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이차보전)’을 통해 청·장년층의 농업 진입을 장려하여 농업경영인의 감소 현상을 일정부분 완화시키고 있으며 미래농업을 선도할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 2014년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1,861명)은 최근 3년간 평균 선정 인원(1,638명) 대비 13.6% 증가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가운데 영농에 정착한 비율은 97.5%
- 2014년부터 정책금리가 전년 대비 후계농업경영인은 1%p,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2%p 인하하여 적용함으로써(기존 융자대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이자부담 경감에 따른 사업수요 증가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인원: 2,147명('13) → 2,223명('14)

<신규농업인력육성 주요 성과지표 측정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후계농업 경영인 영농정착률 (%)	목표	-	91.0	92.0	95.0	95.0	96.0	97.0
		실적	-	92.8	92.3	97.7	97.6	98.1	97.5
		달성률(%)	-	102	100.3	102.8	102.7	102.2	100.5
	후계농업 경영인 증가율(%)	실적	1.34	1.12	1.20	1.14	1.17	1.37	1.36
	예산(억 원)		281	334	336	317	316	4	4
	실적(억 원)		281	334	336	53	316	4	4
	집행률(%)		100.0	100.0	100.0	16.7	100.0	100.0	100.0
후계농업 경영인 지원 및 우수후계 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이차보전)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자수	목표	-	-	-	-	-	-	-
		실적	1,607	1,319	959	438	327	288	301
		달성률(%)	-	-	-	-	-	-	-
	예산(억 원)		1,816	1,816	1,816	1,416	1,680	1,812	1,812
	실적(억 원)		1,296	1,296	1,053	745	1,289	1,405	1,936
	집행률(%)		71.4	71.4	58.0	52.6	76.7	77.5	106.8

4.2. 농업경영체역량강화

□ 농업경영체역량강화 정책 시행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업경영체 규모확대, 농업경영체 경영능력 향상, 농림지원사업의 재정집행의 효율성 향상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을 통해 농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농업경영능력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업추진방식의 개선으로 농업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의 역량강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전문농업경영인 교육생 역량향상²⁾: 3.18점(교육 전) → 3.64점(교육 후)
- 농대 교육생 역량향상³⁾: 3.09점(교육 전) → 3.65점(교육 후)
- 농고 교육생 역량향상⁴⁾: 3.07점(교육 전) → 3.62점(교육 후)

○ 농업경영컨설팅 실시 전후 개별농가 및 법인경영체의 매출액 비교 결과, 평균 26.9% 상승하여 농업경영체의 규모 확대와 경영능력 향상에 기여

- 컨설팅 전·후 법인경영체의 매출액은 26.2%, 순이익은 31.9% 증가, 개별농가의 매출액은 60.7%, 순이익은 69.0% 증가
- 법인경영체 컨설팅 지원 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개별농가의 컨설팅 지원 수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여 예산집행률은 63.9%로 저조
 - 법인경영체 컨설팅 지원 수: 95('13) → 119('14)
 - 개별농가 컨설팅 지원 수: 483('13) → 146('14)

○ 농업등록경영체 일제갱신 및 직불금 통합신청으로 152만 8,931개의 사업체가 경영체 정보를 갱신하여 경영체 정보 최신화, 직불금 부정수급방지, 각종 직불제 등 농림재정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직불금정보, 소득·자산·부채 등의 정보를 농업경영체등록 시스템에 추가 입력
- ‘등록정보의 현행화율’은 92.8%로 당초 목표(56%) 초과 달성

2) 2010년에 개발된 ‘농업인 영농능력표준진단’을 토대로 교육생의 역량 향상을 분석함(자료제공: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 역량 향상진단에는 영농능력, 직업가치관, 영농의지, 경험습득 등 4개의 요인을 분석함(자료제공: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4) 역량 향상 진단에는 영농능력, 직업가치관, 영농의지 등 3개 요인을 분석함(자료제공: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경영체역량강화 주요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농업 경영 컨설팅	컨설팅 전후 매출액 증가율 (%)	목표	6.0	20.0	20.0	20.0	25.0	25.0	25.0
		실적	7.0	37.3	25.7	21.3	29.5	29.2	26.9
		달성률(%)	116.7	186.5	128.5	107	118	116.8	107.6
	예산(억 원)		51	61	54	35	21	21	36
	실적(억 원)		51	61	51	35	21	21	23
	집행률(%)		100.0	100.0	94.4	100.0	100.0	100.0	63.9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책 활용도(%)	목표	-	-	-	30.0	30.0	20.0	지표 변경
		실적	-	-	-	64.7	39.3	30.8	
		달성률(%)	-	-	-	215.7	131	154	
	등록정보의 현행화율	목표	-	-	-	-	-	-	56.0
		실적	-	-	-	-	-	-	92.8
		달성률(%)	-	-	-	-	-	-	165.7
	예산(억 원)		85	148	148	164	167	176	199
	실적(억 원)		85	148	147	161	165	173	196
	집행률(%)		100.0	100.0	99.3	98.2	98.8	98.3	98.5

4.3. 경영안정화

□ 경영안정화 정책 시행으로 농업생산비 절감,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통한 소득 안정,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농업재해보험·농어업재해보험사업’은 보험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 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다만, 피해액 대비 낮은 보험 지급액과 손해 평가방식의 부정확성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 2014년 농작물 재해보험가입률: 16.2%(과수 5품목 46.3), 가축 89.1%
 - 농작물(%): 13.5('11) → 13.6('12) → 19.1('13) → 16.2('14)
 - 가 축(%): 55.2('11) → 71.4('12) → 77.3('13) → 89.1('14)
- 2014년 재해보험 대상품목추가(3개):시설배추, 시설가지, 시설 파(40개 → 43)
- ‘농업재해보험’의 수혜자 조사결과, ‘매우 불만족’ 20%, ‘불만족’ 35%로 ‘전체 불만족’이 응답자의 55%를 차지
 - ‘과수(67%)’, ‘벼(20%)’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피해대비 낮은 실지급액’에 대해 불만족하였으며, 품목별로 과수 농가들은 ‘손해평가방식의 불정확·공정성’을 벼 농가들은 ‘제한적인 대상재해(태풍, 우박, 서리)’에 대해 불만족
- 따라서, 예산집행률이 전년 대비 36.9%p 하락한 63.1%에 그침

- 평가품목 확대 및 평가조건의 간소화, 보험사 직원들의 농업재해보험사업 추진 관련 역량 강화와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 등 개선 요구
- ‘발농업직불제사업’ 시행으로 **발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발작물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에 기여**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행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실경작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논에 사료 또는 쌀 이외 식량작물을 이모작할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하여 전년 대비 479억 원 증가한 770억 원의 발농업직불금 지급
 - 조건불리직불금 단가인상(25%), 마을공동기금 용도 다양화, 지방비 부담완화(30% → 20)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으로 정주농비율 감소 완화에 기여
 - 농지법상 농지임대차 제한 및 소유주의 계약서 작성기피 등으로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농가들의 직불금 신청이 예상면적 대비 42%로 저조
- ‘발농업직불제’에 대한 전문가 평가(농가경제자료활용) 결과, 농가당 평균 발직불금은 36만 5천 원으로 농업소득의 2.53%, 농가소득의 0.91%인 것으로 분석
- 발직불금의 농가소득효과는 농외소득이 적고(주업), 규모가 큰 전업농에 더 크게 기여
 - 하지만, 쌀 직불금에 편중된 직불금 구조와 발농업직불의 집행실적 저조 등으로 발직불금의 소득효과는 쌀직불금의 소득효과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게 분석

<발직불금 소득 효과>

농업소득(천 원)			농외 소득	농가소득(천 원)		
보조금 포함(A)	보조금 제외(B)	① 기여율 (%)		보조금 포함(C)	보조금 제외(D)	② 기여율 (%)
14,787	14,423	2.53	15,059	40,296	39,931	0.91

-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해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영농 수월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임대 농기계 이용 농가 수(21만('13)→28만 7천('14))는 36.7% 증가했으며 ‘농기계 이용률’ 또한 1대당 6.5일('09)에서 10.5일('14)로 61.5%(4일) 상승
- ‘농지연금사업’은 가입자 확대 및 연금 지원액 상향 조정으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사업수혜자 조사에서도 자녀에게 주는 부담경감, 지속적인 영농활동, 여유로운 노후생활 기능 등 응답자의 84%가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다만, 채무부담과 낮은 연금지급액 등에 불만족 제기

- 2014년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수는 1,036건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
 - 가입건수(누계): 2,202('12) → 2,927('13) → 3,963('14)
 - 신규가입자 월 평균 지급액(천 원): 694('12) → 831('13) → 959('14)
- ‘농지연금사업’의 수혜자 조사결과,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전체 응답자의 55%, ‘다소 만족’ 29%, ‘보통’ 7%, ‘다소 불만족’ 6%, ‘매우 불만족’ 3%
- ‘농지연금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농지연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종신�형 가입이 높아지는 것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하여 일반적 복지대상이 아닌 자산을 보유한 고령농가에 대한 제도로 개선 필요

〈경영안정화 주요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농업 재해보험	농작물재해 보험 가입률(%)	목표	28.5	30.5	36.0	38.0	40.0	47.0	50.0
		실적	28.5	31.4	36	40.2	40.2	47.4	46.3 (16.2)
		달성률(%)	100.0	103.0	100.0	105.8	100.5	100.9	92.6
	가축재해 보험 가입률 (%)	목표	—	—	—	52.6	57.9	72.0	82.0
		실적	—	—	—	55.2	71.4	77.3	89.1
		달성률(%)	—	—	—	104.9	123.3	107.4	108.7
	예산(억 원)		596	922	1,029	1,367	1,568	2,016	2,701
	실적(억 원)		596	858	1,029	1,292	1,483	2,016	1,703
	집행률(%)		100.0	93.1	100.0	94.5	94.6	100.0	63.1
농기계 임대	임대농기계 이용 농가 수(천 호)	목표	20	35	52	95	105	200	250
		실적	36	36	55	75	135	210	287
		달성률(%)	180.0	102.9	105.8	78.9	128.6	105.0	114.8
	농기계 이용률 (일/대)	목표	—	6.4	6.6	6.9	8.0	9.5	10.5
		실적	—	6.5	7.0	7.5	9.2	10.1	10.5
		달성률(%)	—	101.6	106.1	108.7	115	106.3	100.0
	예산(억 원)		—	—	250	125	150	200	200
	실적(억 원)		—	—	250	125	150	200	200
	집행률(%)		—	—	100.0	100.0	100.0	100.0	100.0

4.4. 영농규모화

- 영농규모화 정책의 세부사업인 ‘농지매입비축’ 및 ‘경영이양직불제’ 시행 결과, 후계농업인의 **농지 이용 효율화**, 고령·은퇴 농가의 **소득 안정과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농지매입비축사업’ 시행으로 후계인력중심의 영농규모화와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 사업수혜자(매도인)조사 결과, 소득안정, 적정수준 매입

가격 등 응답자의 83%가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다만, 까다로운 매입 대상자 요건 등에 대한 불만족 제기

- ‘농지매입비축사업’의 수혜자(매도인) 조사결과,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전체 응답자의 16.0%, ‘만족’ 67.0%, ‘불만족’ 13.0%, ‘매우 불만족’ 4.0%
- 수혜농가(매도인)는 농지매입 절차 간소화, 단가상한 상향조정, 지원대상자 기준완화 등을 건의하였으며 임차인은 임대토지 면적 확대, 임대 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건의
- 2014년 매입실적은 논 530ha(98%), 밭 10ha(1.8%), 과수원 1ha(0.2%)

○ 사업수혜자(임차인) 조사에서는 매매부담 완화, 임대료 인하 등의 이유로 응답자의 85%가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농지선택의 제약 등에 대해서는 일부 불만족 제기

- ‘농지매입비축사업’의 수혜자(임차인) 조사결과,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전체 응답자의 9.0%, ‘만족’ 76.0%, ‘불만족’ 11.0%, ‘매우 불만족’ 4.0%

○ ‘경영이양직불제’ 시행으로 은퇴농들의 노후 안정과 신규 후계농의 영농규모화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사업수혜자 조사에서도 노후생활 안정,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이유로 응답자의 62.1%가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낮은 지급단가, 짧은 직불금 지급기간(최대 75세, 10년) 등에 대한 불만족도 제기

- ‘경영이양직불제’의 수혜자 조사결과,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전체 응답자의 22.7%, ‘만족’ 39.4%, ‘불만족’ 33.3%, ‘매우 불만족’ 4.5%
- 은퇴농들은 경영을 이양하고 1인당 평균 139만 7천 원을 지원 받아 은퇴농들의 소득보전에 기여
- 수혜농가는 수급대상자 지급기간연장, 지원비율 조정 등을 건의
-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정부의 직접보조 사업 성격에 맞게 제도 개선이 필요.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10~20만원 사이이고, 연금지급액이 소득 및 재산에 기초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경영이양직불제의 지급액이 경영이양 면적에 비례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

4.5. 생산기반조성

- 생산기반조성 정책 시행으로 **농촌용수의 안정적 확보, 공급 및 가뭄피해 해소, 침수피해 방지**를 통해 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으로 총 138개소를 정비하여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영농편의 도모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2014년에는 총 572지구에서 수리시설 개보수를 실시. 준공된 지구 142개, 신규 지구 90개, 계속 보수 지구는 340개
- ‘배수개선사업’은 2014년까지 총 16만 6천ha의 배수시설을 개선하여 침수피해 예방, 안정영농 도모,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총 대상면적 30만 270ha 중에 2014년까지 총 16만 6천ha(55%)의 배수 시설 개선
- ‘다목적농촌용수사업’을 통해 2014년까지 총 8만 8,400ha에 다목적농촌용수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2014년 ‘수리안전답율’은 전년 대비 0.6%p 증가한 60.3%를 기록하였고 목표 대비 100%를 달성
-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 ‘다목적농촌용수’의 수혜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종합만족도와 사업의 유용성, 농촌발전 기여도, 사업의 지속 필요성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생산기반조성사업 사업 수혜민 만족도〉

종합 만족도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		다목적농촌용수	
	87.1		85.5		84.0	
순위	세부사항만족도	비율(%)	세부사항만족도	비율(%)	세부사항만족도	비율(%)
1	사업지속필요성	95.0	사업지속필요성	92.9	사업지속필요성	87.8
2	농촌발전기여도	80.0	사업유용성	75.7	농촌발전기여도	70.0
3	사업유용성	77.1	농촌발전기여도	71.1	사업유용성	69.5
4	수혜민의견반영	57.2	담당자적극성	54.7	수혜민의견반영	48.9
5	담당자적극성	56.4	수혜민의견반영	52.7	담당자적극성	48.9

5. 신성장동력창출 분야 성과평가

□ 신성장동력창출 분야는 ‘시장개방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목적으로 5개 사업군 22개 세부사업 시행

- 사업군: ① 친환경농업육성 ② 식품산업육성 ③ 종자산업육성 ④ R&D 투자확대 ⑤ 농식품수출촉진

○ 2014년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6,5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고 예산집행률은 67.7%로 전년 대비 21.4%p 하락

- 농식품수출촉진(91.4%→55.5), 식품산업육성(100.0%→75.2) 등 전체적인 예산집행률이 전년 대비 하락
-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은 수요부진으로 거의 집행되지 못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단지조성사업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예산집행률이 낮게 나타남
- 5개 사업군 중에서 농식품수출촉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4.8%로 가장 높았고, 친환경농업육성(16.4%), 식품산업육성(14.4%) 순으로 예산 배정

<신성장동력 창출분야 예산집행률>

단위: 억 원

정책군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 대비 증감률(%)
전 체	예산	2,417	2,685	3,783	3,345	4,346	6,616	6,596	-0.3
	실적	1,658	2,379	3,001	3,574	4,157	5,892	4,464	-24.2
	집행률(%)	68.6	88.6	79.3	106.8	95.7	89.1	67.7	-21.4p
친환경 농업육성	예산	657	683	973	890	1,118	1,525	1,084	-28.9
	실적	633	645	456	1,200	955	1,146	851	-25.7
	집행률(%)	96.3	94.4	46.9	134.8	85.4	75.1	78.5	3.4p
식품산업 육성	예산	20	20	630	540	540	634	948	49.5
	실적	0	20	627	540	540	634	713	12.5
	집행률(%)	0.0	100.0	99.5	100.0	100.0	100.0	75.2	-24.8p
종자산업 육성	예산	187	160	178	161	219	588	831	41.3
	실적	104	129	145	158	183	516	645	25.0
	집행률(%)	55.6	80.6	81.5	98.1	83.6	87.8	77.6	-10.1p
R&D 투자확대	예산	815	965	993	818	888	781	775	-0.8
	실적	735	885	993	813	883	775	612	-21.0
	집행률(%)	90.2	91.7	100.0	99.4	99.4	99.2	79.0	-20.3p
농식품 수출촉진	예산	738	857	1,009	936	1,581	3,088	2,958	-4.2
	실적	186	700	780	863	1,596	2,821	1,643	-41.8
	집행률(%)	25.2	81.7	77.3	92.2	100.9	91.4	55.5	-35.8p

5.1. 친환경농업육성

□ 친환경농업육성 정책 시행으로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인지도 향상, 친환경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판매장 개설 사업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저농약 신규인증 중단,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 강화 등의 제도개선으로 인한 인증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광역단지 4개소, 친환경농업지구 29개소 선정 등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광역단지·지구내 친환경 인증면적(ha): 33,889('13) → 20,228('14)

- 친환경농업광역지구(누적, 개소): 1,048('11) → 1,076('12) → 1,112('13) → 1,141('14)

- 친환경농업광역단지(누적, 개소): 34('11) → 42('12) → 44('13) → 48('14)

- 부실인증 방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업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인증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친환경 교육·컨설팅 등의 지원 방안 강구 필요

○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사업’의 목적이 친환경농업의 양적 성장에서 조정·보완 추세로 전환됨. 이에 따라 친환경 인증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이상) 시장 비중’ 감소

- 세부사업인 판매장 개설자금 지원은 높은 정책금리(3%)와 신청 업체의 담보 부족 등으로 지원 실적 저조

- 친환경농업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판매장 지원 사업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

○ ‘국가인증농식품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인증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져 친환경농식품 소비 촉진 및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국가인증농식품 소비자 평균 인지도’: 50.3%('12) → 56.3('13) → 61.7('14)

○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부정 인증 방지를 위한 친환경 인증 법적 요건 강화와 친환경인증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저농약 인증 폐지 등의 제도적인 변화로 직불금 신청 면적과 농가 수는 감소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2013년 14만 ha에서 2014년 10만 ha로 감소했으며, 농가수도 같은 기간 13만 호에서 9만호로 감소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확대를 위한 직불제의 품목별 지급단가 차별화 및 지급기간 조정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필요성 제기

〈친환경농업육성 분야 주요 성과지표 및 예산집행률〉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광역·지구 조성 친환경농업 단지내 인증면적 비율(%)	목표	-	-	-	34.0	35.0	36.0	37.0
		실적	-	-	-	34.0	34.2	35.2	30.1
		달성률(%)	-	-	-	100.0	97.7	97.8	81.4
	예산(억 원)		330	147	319	365	263	254	172
	실적(억 원)		330	147	319	365	242	227	189
	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92.0	89.4	109.9
국가 인증 농식품 지원	국가인증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평균인지도 (%)	목표	-	20.0	25.0	30.0	50.0	54.3	58.0
		실적	-	39.2	45.0	46.6	50.3	56.3	61.7
		달성률(%)	-	196.0	180.0	155.3	100.2	103.6	106.4
	GAP인증 농산물 재배비율 (%)	목표	-	-	-	5.0	3.2	3.5	5.0
		실적	2.1	2.4	2.8	5.9	3.2	3.4	3.4
		달성률(%)	-	-	-	118	100	97.1	68.0
	예산(억 원)		10	14	10	40	40	49	51
	실적(억 원)		10	14	10	40	40	47	47
	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0.0	95.9	92.2
친환경 농업 직불	친환경 농산물 재배(인증) 면적 비중(%)	목표	-	-	6.2	7.4	7.8	8.0	8.5
		실적	-	-	6.4	6.7	7.3	7.0	4.9
		달성률(%)	-	-	103.2	90.5	93.6	86.3	57.6
	예산(억 원)		263	423	520	349	436	376	269
	실적(억 원)		263	409	27	681	294	247	167
	집행률(%)		100.0	96.7	5.2	195.1	67.4	65.7	62.1

5.2. 식품산업육성

- 식품산업육성 정책 시행으로 식품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로 농식품 분야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식품 관련 150개 기업 및 10개 연구소 입주, 연간 매출액 15조 원, 수출액 30억 달러 등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추정(산업연구원, 2008)

- 국내·외의 108개 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외국기업 5개소는 외국투자 신고를 한 상태(2015년 4월 기준)
 - 투자양해각서 : (국내) CJ제일제당, 동원F&B, 하림, 한성기업 등
(해외) NIZO연구소(네), 차오마마(중), 햄튼 그레인즈(미) 등
 - 외국투자신고 : 웰스프랑햄튼그레인즈(미), 위해자광차오마마(중), 골드락인터내셔널(케)
 - 세수부족과 사업시행자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착공 지연 등으로 2014년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2015년으로 이월되어 진행
- ‘농식품모태펀드출자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자펀드가 결성됨으로써 농식품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에 활성화되고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타 단위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투자처 발굴·모집과 높은 우선순실충당금 비율(3~5%) 완화를 통한 투자여건 개선 등 운용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

5.3. 종자산업육성

- 종자산업육성 정책 시행으로 농업인의 외국 품종 사용에 따른 종자 로열티 부담 경감과 우수품종 개발·생산·연구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은 국산 우량품종의 증식 및 보급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2014년 ‘국산 품종 보급률’은 57.3%로 전년 대비 5.4%p 상승, 국산 종자 보급률은 딸기 86.1%, 벼 48.0%, 장미 29.0%인 것으로 나타남
 - 2009년부터 2014년간 종자산업 기반시설 57개소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42명 양성하여 우수품종 개발 인프라 구축에 기여
-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을 통해 신품종 개발 68건에 대해 신품종개발비 2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성과지표인 ‘신품종 개발비 및 해외출원비 지원 실적 지수’는 신품종개발비·해외출원비 지원신청 저조로 전년 대비 감소

- 사업활성화를 위해 신품종으로 출원·등록된 품종에 대해 지원 및 홍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신품종개발비 및 해외출원비 지원 실적 지수’: 42.5(’13) → 34.0(’14)
- 신품종개발비 및 해외출원비 지원금액: 2.4억 원(’11) → 3.3(’12) → 3.4(’13) → 2.7(’14)
- 신품종개발비 및 해외출원비 지원건수: 80품종(’11) → 108(’12) → 85(’13) → 68(’14)

○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 시행으로 주요 식량작물 보급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원원종과 원종 종자의 생산량’은 1,512톤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으며, ‘지원 면적’은 271ha로 전년 대비 0.4% 감소
- ‘원원종·원종 종자 생산량’: 1,441톤(’11) → 1,497(’12) → 1,476(’13) → 1,512(’14)
- ‘원원종·원종 생산지원면적’: 265ha(’11) → 271(’12) → 272(’13) → 271(’14)

○ ‘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과 ‘골든시드프로젝트(GSP)’ 사업은 중장기 추진 사업으로 사업 초기에 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움

- ‘골든시드프로젝트사업’은 사업단의 성과 관리를 통한 우수 연구 결과에 대한 지원 확대로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지역 맞춤형 품종, 미래시장 선점 품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

<종자산업육성 분야 주요 성과지표 및 예산집행률>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종자산업 기반구축	주요품목의 국산품종 보급률(%) *딸기,장미, 국화,마늘등	목표	-	-	-	45.0	47.0	51.0	52.0
		실적	25.3	31.3	40.0	46.4	49.2	51.9	57.3
		달성률(%)	-	-	100	103.1	104.7	101.8	110.2
	예산(억 원)		24	30	33	45	74	111	117
	실적(억 원)		-	30	33	45	68	82	107
	집행률(%)		0.0	100.0	100.0	100.0	91.9	73.9	91.5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신품종 개발비 및 해외출원비 지원실적 (지수)	목표	25.0	26.0	44.0	52.5	80.0	38.0	37.5
		실적	24.5	26.0	27.0	47.0	54.0	42.5	34.0
		달성률(%)	98.0	100	106.8	76.2	67.5	111.8	90.7
	예산(억 원)		37	41	44	48	51	85	88
	실적(억 원)		33	37	42	45	47	83	85
	집행률(%)		89.2	90.2	95.5	93.8	92.2	97.6	96.6

5.4. R&D 투자확대

- R&D 투자확대 정책 시행으로 신성장동력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실용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검역기술개발 보급, 가축질병 위기관리 대응 등 지속가능한 농업생명산업기반 구축

5.5. 농식품수출촉진

- 농식품수출촉진 정책 시행으로 농식품의 새로운 판로개척과 홍보, 농산물 수출 확대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다만,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은 담보 및 금리 지원 조건 개선 등이 필요
- ‘농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 시행으로 농식품 브랜드 홍보,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전략품목의 수출액은 증가하였으나, 대일 수출 의존도가 높아 수출액 증가폭은 저조
 - 대외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 신규시장 박람회 참가 기회 증대, 중소기업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 ‘한식세계화지원사업’ 시행으로 한식 홍보를 통한 한국 음식에 대한 인지도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국내 외식(한식)기업의 해외진출 점포 수’는 288개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상승
 - ‘한식세계화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정책 추진 초기에 단기적 홍보·이벤트 중심 사업 추진, 잦은 사업 계획 변경, 부실한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 지적. 그러나 사업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장기적인 전략과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
- ‘글로벌 K-Food 프로젝트사업’으로 K-Food 페어 개최 등 집중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현지 수요 창출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페어 개최국 농식품 수출액 전년 대비 증가율(%): 중국 4.3, 홍콩 6.6, 베트남 1.2

- ‘해외시장개척사업’, ‘글로벌 K-Food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사업의 지원실적과 수출실적과의 관계 분석) 12개의 지원 사업 중 7개 사업이 수출업체 실적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유료정보지원사업(0.173),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0.152), 글로벌 K-FOOD FAIR, 개별브랜드지원사업, 해외판촉행사지원, 국제박람회참가, 맞춤형해외시장조사 순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2011~2013년간의 실적을 누적으로 비교한 결과 지원연도가 오래될수록 수출업체들의 수출실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별사업들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으며, 해외판촉행사지원은 3개 년도에 걸쳐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유형별 수출증대 유효사업>

구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신선 가공 식품	1)국제박람회참가 (국제식품박람회)** 2)해외바이어거래알선** 3)해외판촉행사지원**	1)해외판촉행사지원** 2)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3)국제박람회참가 (국제식품박람회)** 4)바이어초청**	1)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2)해외시장정보인프라구축 (맞춤형해외시장조사)** 3)개별브랜드지원사업** 4)국제박람회참가 (국제식품박람회)** 5)해외판촉행사지원*
전통 가공 식품	1)직접세일즈** 2)해외바이어거래알선** 3)국제박람회참가 (국제식품박람회)**	1)해외판촉행사지원**	1)유료정보지원** 2)글로벌K-FOOD FAIR**
일반 가공 식품	해외판촉행사지원**	1)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2)해외바이어거래알선** 3)국제박람회참가 (국제식품박람회)** 4)해외판촉행사지원**	1)개별브랜드지원사업** 2)글로벌K-FOOD FAIR** 3)유료정보지원** 4)국제박람회참가 (국제식품박람회)** 5)해외바이어거래알선**

6. FTA 피해보전대책 성과평가

□ 201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농가의 소득증대 효과는 감자 생산 농가가 12.9%, 번식우 농가가 6.4%였으며, 폐업지원으로 인한 규모화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남

- 2014년에는 「FTA 특별법」에 따라 수수, 감자, 고구마, 한우송아지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했고, 번식우(한우)를 대상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
- 2014년도 FTA 직접피해보전 예산으로 2,032억 원(피해보전직불금 605억, 폐업지원금 1,427억 원)이 배정되었고, 그 중 1,748억 원(피해보전직불금 403억 원, 폐업지원금 1,345억 원)이 집행되어 예산집행률은 86.0%를 기록

○ 201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수수, 감자, 고구마, 한우송아지를 대상으로 각각 8천만 원, 159억 원, 5백만 원, 164억 원이 지급되었고 이로 인해 감자 생산 농가는 12.9%, 번식우 농가는 6.4%의 소득증대 효과 발생

- 고구마 농가의 경우, 피해에 따른 지원 규모가 작아 소득증대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수수의 경우 소득과 생산 관련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지표 측정에서 제외

<품목 농가별 소득 증대 효과>

단위: 천 원, ha, 두

구 분	ha(마리)당 소득(a)	농가당 재배 (사육)규모(b)	농가당 소득(c=a×b)	ha(마리)당 직불금(d)	농가당 직불금(e=b×d)	소득 증대 효과(f=e/c)
감자	9,843	0.121	1,191	1,271	154	12.9%
고구마	14,107	0.078	1,100	9	0.7	0.06%
한우송아지	732	23.5	17,202	47	1,105	6.4%

주: 1) 감자와 고구마의 ha당 소득은 '09~'13년의 소득 중 최대·최소값을 제외한 3개년 평균이며, 감자는 봄 감자를 기준으로 함.

2) 송아지(번식우)의 마리당 소득은 '04~'13년의 소득 중 음의 소득('11~'13년)은 제외하고 최대·최소값을 제외한 5개년 평균임.

자료: 통계청(농산물소득조사, 가축동향조사, 농작물생산조사)

○ 2014년 폐업지원으로 번식우농가당 사육두수가 9.5두에서 11.4두로 증가하는 등 번식우농가의 규모화 진행

- 2014년 폐업지원을 신청한 번식우농가는 3,010호, 신청 두수는 2만 3천 두
- 2013년 폐업지원 신청농가 상당수(12,421호, 추정치)의 폐업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2014년에 이루어짐

- 번식우농가당 사육두수는 폐업전 9.5두에서 폐업 후 11.4두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한우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

<폐업지원을 통한 번식우 농가의 규모화 효과>

단위: 마리, 호

구 분		지급대상 두수 (a)	폐업신청 두수 (b)	번식우 감소 두수 (c)	전체 사육농가 수			농가당 사육두수		
					폐업 전 (d)	폐업신청 농가수	폐업 후 (e)	폐업 전 (f=a/d)	폐업 후 (g=(a-c)/e)	증가율 (%)
신청 연도	2013년	653천	118천	42천	69,075	12,421	53,644	9.5	11.4	20.0
	2014년		23천			3,010				

- 주: 1) 2013년도 폐업지원 신청 농가 중 상당수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2014년에 폐업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 전체 폐업지원 신청금액(2,183억 원) 중 37.5%(819억 원)만이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2014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됨
- 2) 모든 폐업지원 신청 농가가 폐업지원금을 수령하고, 폐업 신청 두수와 지급액이 비례한다는 가정 하에, 2013년 폐업지원을 신청한 번식우 두수 중 폐업지원금 지급이 2014년으로 유예된 두수 추정(189천 두 $\times 62.5\% = 118$ 천 두)
- 3) 폐업으로 일부 번식우가 도축되었다고 가정하였으며, 실제로 2014년 말(12월) 기준 전체 번식우 사육 두수는 1,458천 두로 2013년 말(12월) 대비 42천 두 감소함
- 4) 폐업 전 농가당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2013년 폐업지원을 신청한 번식우농가 중 폐업지원금 지급이 2014년으로 유예된 농가 수 추정(118천 두 $\div 9.5$ 두/호 = 12,421호)

자료: 통계청(가축동향조사)

□ FTA 이행에 따른 수입개방 확대로 단기 피해보전대책의 대상 품목과 지원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 및 추진체계 정비 필요

○ (수입량 요건 합리화) 현재와 같이 다수의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개별 FTA 체결국의 수입량만으로 국내 가격하락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피해보전직불금 발동요건 중 개별 FTA 체결국 수입량 요건을 전체 FTA 체결국 수입량 요건으로 대체할 필요

○ (보전비율 현실화) FTA 이행에 따른 피해부문에 대한 적극적 보상과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피해보전직불금 ‘피해보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할 필요

<FTA 피해보전직불금 산출방법 개선(안)>

구 분	발동 기준	목표 가격	보전 비율	수입기여도
현 행 (90-90-90-0)	직전 5개년 올림픽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직전 5개년 올림픽 평균가격의 90%	목표가격과 당해년가격 차액의 90%	적용
개선(안) (90-90-100-0)	직전 5개년 올림픽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직전 5개년 올림픽 평균가격의 90%	목표가격과 당해년가격 차액의 100%	적용

- (지원액 하한선 설정) 지원액이 과소하게 지급될 경우 신청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직불금 수령 후 오히려 농가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방안으로 농가 당 적정 하한액을 설정하여 정책의 효과성 대비 과도한 행정비용 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음
-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 농업인/단체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이해관계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특히,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가 한-EU FTA 발효일을 기점으로 각각 10년과 5년 동안 시행되고, FTA 이행에 따른 직접적인 수입피해만을 지원하는 한시적인 제도임을 명확히 밝힘
 - 단, 한-영연방 FTA 혹은 한-중 FTA 등 최근 체결된 FTA로 인한 추가적인 농업분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제도의 일몰기한 연장을 고려할 필요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1.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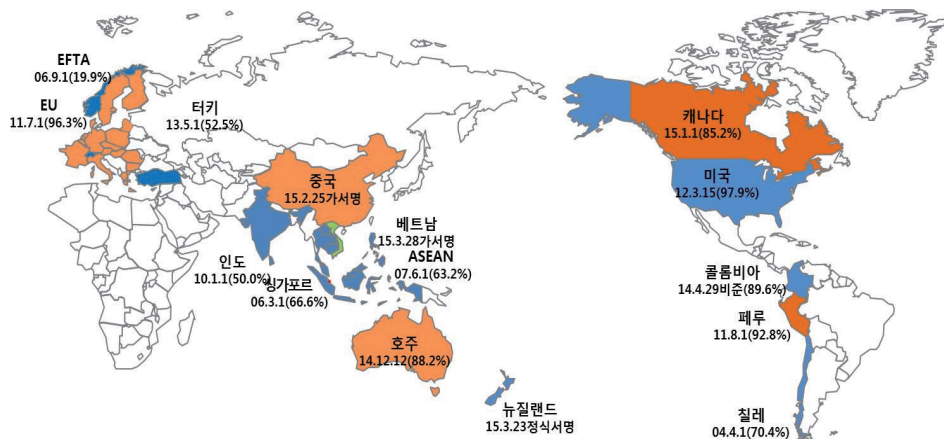
1.1. FTA 추진 현황

- UR 이후 새로운 다자무역체제의 진전을 위해 출범한 WTO/DDA 협상(2001~현재)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난항을 거듭하면서, 우리나라는 통상정책의 우선 순위를 양자간 협상 방식인 FTA에 두었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난 10여 년간 52개국과 15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11건이 발효되었다.
 - 2014년에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등 총 5건의 FTA를 체결(2건 발효)하였다.
 - 국제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는 FTA 체결 다변화 추진전략 등으로 주요 국가 및 경제권과 FTA 체결을 마무리하였고, TPP와 같은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농산물 시장구조의 재편에 대비하고 있다.
- 2014년은 한·호주,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면서 영연방 국가와 무역자유화가 본격화되었다. 영연방 국가는 축산물 및 곡물 수출국으로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농축산물은 국내 농산물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 한·영연방(호주, 캐나다)의 농축산물 수입관세 철폐율은 품목 수 기준으로 각각 89.5%와 85.9%로 이미 발효 중인 한·EU FTA(94.6%)와 한·미 FTA(98.0%)보다 개방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한·호주 FTA 발효로, 호주산 쇠고기·보라감자 등은 국내 농산물 시장에서 다른 경쟁 국가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렌지·포도·체리 등은 관세 인하 혹은 TRQ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국내 시장 진입이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 한·캐나다 FTA 발효로 캐나다산 돼지고기·쇠고기·보리 등은 양허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어 관세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1) 이 절은 FTA 농업인등 지원센터(2015a)의 제1장 'FTA 이행 현황'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음.

- 최근 가서명이 완료된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면, 쇠고기·유제품·키위 등이 특혜 관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 2014년 11월 10일 타결된 한·중 FTA는 비교적 성공적인 타결안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2015년 2월 25일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주요 신선 농산물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감품목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농림축산주요통계’에서 생산액이 집계되는 85개 품목 가운데 78개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과 고추·마늘·양파·무·배추·토마토·딸기 등 채소류, 사과·배·감·귤 등 과일류,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 인삼·버섯 등 특용작물 대부분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대두, 참깨, 팥 등은 저율관세할당(TRQ)이 부여되었으며, 김치와 혼합조미료 등 일부 가공농산물은 관세의 일부가 감축되지만 농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외에도 현재 우리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화트너십(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간 지역경제통합협정도 국내 공청회를 마치고 협상을 시작했거나 준비단계에 있다.

그림 1-1.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 () 안 %는 국가별 협정문의 전체 품목 중 계절관세/현행관세유지/TRQ/미양허 등을 제외한 품목 수의 비중(관세철폐율)을 의미

자료: FTA 강국, KOREA.

표 1-1.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2015년 3월 기준)

구 분	대상 국가	진행 상황	비고
협정발효 (11건, 49개국)	칠레	발효(2004.4.1)	* 우리 측 양허율: 99.8% (공: 100%, 농: 72.5%)
	싱가포르	발효(2006.3.2)	* 우리 측 양허율: 91.6% (공: 91.6%, 농: 66.6%)
	EFTA ¹⁾ (4)	발효(2006.9.1)	* 우리 측 양허율: 98.5% (공: 99.7%, 농: 對스위스 34%, 對노르웨이 46%, 對아이슬란드 58%)
	아세안(10)	발효(2007.6.1)	* 우리 측 양허율: 99.1% (공: 100%, 농: 93.2%)
	인도	발효(2010.1.1)	* 우리 측 양허율: 93.2% (공: 98.8%, 농: 55.2%)
	EU(28)	발효(2011.7.1)	* 우리 측 양허율: 99.6% (공: 100%, 농: 97.1%)
	페루	발효(2011.8.1)	* 우리 측 양허율: 99.1% (공: 100%, 농: 94.5%)
	미국	발효(2012.3.15)	* 우리 측 양허율: 99.9% (공: 100%, 농: 98.0%)
	터키	발효(2013.5.1)	* 우리 측 양허율: 99.6% (공: 100%, 농: 52.5%)
	호주	발효(2014.12.12)	* 우리 측 양허율: 98.6% (공: 99.9%, 농: 89.5%)
	캐나다	발효(2015.1.1)	* 우리 측 양허율: 98.2% (공: 100%, 농: 85.9%)
서명/타결 (4건, 4개국)	콜롬비아	비준(2014.4.29)	* 우리 측 양허율: 98.7% (공: 100%, 농: 89.9%)
	뉴질랜드	정식서명(2015.3.23)	* 우리 측 양허율: 98.2% (공: 99.3%, 농: 86.4%)
	중국	가서명(2015.2.25)	정식서명 추진
	베트남	가서명(2015.3.28)	정식서명 추진
협상진행 (3건, 16개국)	인도네시아	제7차 협상(2014.2)	주요 관시품목에 대한 양허에 대한 입장 차 상존
	한·중·일	제6차 협상(2014.11)	상품 양허 협상 모델리티와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 논의
	RCEP ²⁾ (16)	제6차 협상(2014.12)	제7차 협상 개최 예정(2015.2, 태국)
협상재개 여건조성 (3건, 8개국)	GCC ³⁾ (6)	제3차 협상(2009.7)	제4차 협상일정 미정
	멕시코	제2차 협상(2008.6)	제3차 협상일정 미정
	일본	제6차 협상(2004)	협상재개 실무협의 9차례 개최, 차기협상 여부 미정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7건, 19개국)	Mercosur ⁴⁾ (5)	TA(무역협정) MOU체결 (2009.7)	한·MERCOSUR TA 추진 협의를 위한 MOU체결
	이스라엘	공동연구 완료 (2009.8~2010.8)	향후 일정 미정
	중미 ⁵⁾ (5)	FTA 추진 가능성 검토회의 (2012.10)	향후 일정 미정
	말레이시아	타당성연구 완료 (2011.5~2012.12)	향후 일정 미정
	러시아	제2차 협상(2008.7)	경제동반자 협정 공동연구 회의 개최, 향후 일정 미정
	SACU(5)	공동연구개시합의(2008.12)	향후 일정 미정
	몽골	공동연구개시합의(2008.10)	향후 일정 미정

주 1)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RCEP: ASEAN 10개국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3) GCC(걸프협력회의): 사우디,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4) Mercosur(남미공동시장):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5) 중미: 파나마, 코스타리카, 파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6)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7) 양허율은 전체 HS코드 중 양허 제외/현행 유지를 제외한 품목 수의 비중이며, 협상단계별 국가 수는 중복 제외이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FTA 강국, KOREA), 농림축산식품부

1.2.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 정부는 한·칠레 FTA 때부터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피해보전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한·칠레 FTA의 국내대책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정부는 이 법에 기초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 4천억 원을 FTA 기금으로 조성하고,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융자 사업 실시하였다.
- 미국과의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4월 이후 정부는 농업인의 피해보전 및 농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조 4천억 원 규모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2007년 6월).
 - 국내보완대책의 기본방향은 한·미 FTA로 인한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득 기반을 확충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 2007년 한·미 FTA 협상타결 당시 정부가 발표한 농업분야 보완대책에 제시된 투융자 규모는 10년간(2008~2017) 20조 4천억 원²⁾이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2008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였다.
- 2011년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한·미 FTA 파급영향을 다시 추정한 결과 피해규모가 12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나 2007년 대책에 1조 원을 추가한 투융자 계획을 발표하였고(2011년 8월), 2012년 1월 한·미 FTA 비준에 앞서 2조 원 규모의 추가 보완대책 수립(2012년 1월)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분야에 추가 배정된 투융자 규모는 2조 7천억 원(수산분야 3천억 원)으로 늘어났다.
- 한편, 정부는 한·EU FTA의 발효에 앞서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 분야에 대해 기존 ‘축산업발전대책’ 등 기배정된 지원규모에 2조 원을 추가한 10조 8천억 원 규모의 ‘한·EU FTA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2010년 11월).

2) 이는 수산분야 7천억 원을 제외한 규모로, 2007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추정한 15년간의 농업부문 생산감소액 10조 470억 원에 기초한 것임.

○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의 핵심은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 등 중장기 투융자 사업을 기본으로 하며, 피해보전장치는 단기적으로 운용된다. 2007년 당시 한·미 FTA 체결에 대비하여 마련한 국내보완대책의 정책기조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첫째,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으로 인한 농업인의 단기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피해보전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FTA 이행으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 가능성에 대비, 수입피해 보전대상 품목을 전체 농축산물로 확대하고, 피해 보전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발동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품목 중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폐업지원을 실시한다.
- 둘째, 품목별 특성에 따라 생산·가공·유통 단계별 취약부분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설현대화 지원 등을 실시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성 강화 및 품질 고급화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셋째,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체질 강화를 위해 주업 농가를 중심으로 경영 규모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고령화된 농업인력구조를 전업농 중심으로 개편하고, 규모화·전업화 농가의 경영위험에 대비한 경영안정장치를 확충하였으며, 기술개발 확대, 고품질화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 넷째, 농촌을 농업 외 다양한 산업과 국민생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개발 및 복지기반을 확충한다.³⁾

○ 피해보전직불(가격차 보상 방식)은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와 그로 인한 가격 하락이 발생한 경우 발동된다.

- 품목별로 당해 연도 시장가격이 지난 5개년 가격 가운데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발동 기준가격)의 90% 미만이 될 경우, 발동 기준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 90%를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피해보전직불제 운용 기간은 한·EU FTA 발효 직후부터 10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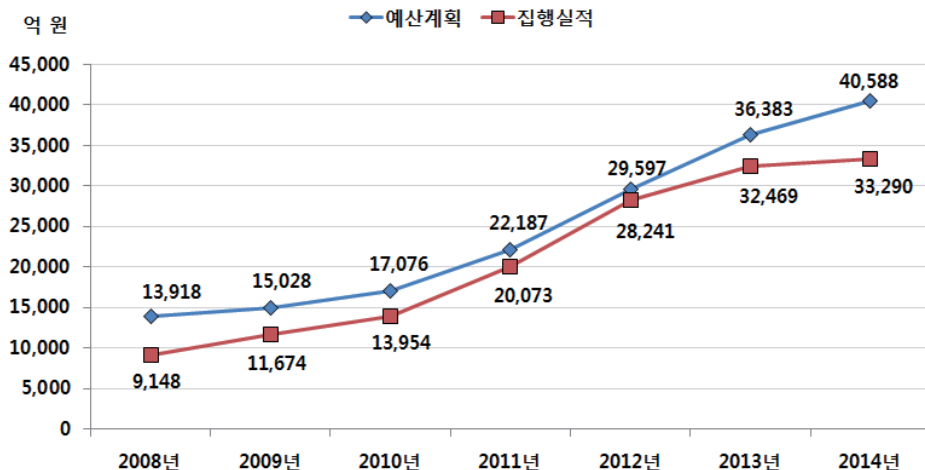
3) 2007년 6월에 발표된 한·미 FTA 보완대책 ‘이행과제’에는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 관련 사업(농촌 향토 자원 발굴 및 농공단지 조성 확대, 농촌주택 정비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후 예산이 배정되어 집행된 ‘투융자계획’에는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 관련 사업들은 FTA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음.

- 폐업보상은 피해보전직불의 발동요건을 갖춘 품목 가운데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품목으로 한정되며, 보상수준은 순이익의 3년분이고, 폐업보상 기간은 한·EU FTA 발효일로부터 5년이다.
- 한·칠레 FTA 대책에서 폐업 보상액의 산출기준은 순수입(조수입에서 경영비와 자가 노력비 제외)이었으나 한·미 FTA 대책에서는 순이익(순수입에서 토지용역비와 자본 용역비 제외)으로 조정되었다.

1.3.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 2007년 4월에 타결이 예상되었던 한·미 FTA가 재협상 국면에 접어들면서 2008년부터 계획된 FTA 국내보완대책의 본격적인 시행도 지연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FTA 이행에 앞서 주요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2008년 이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다.
-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의 세부사업에 배정된 투융자 예산은 17조 4,777억 원이었으며, 2014년까지 실제 정부가 집행한 실적은 14조 8,849억 원이었다.⁴⁾

그림 1-2. 농업분야 FTA 국내대책 예산 계획과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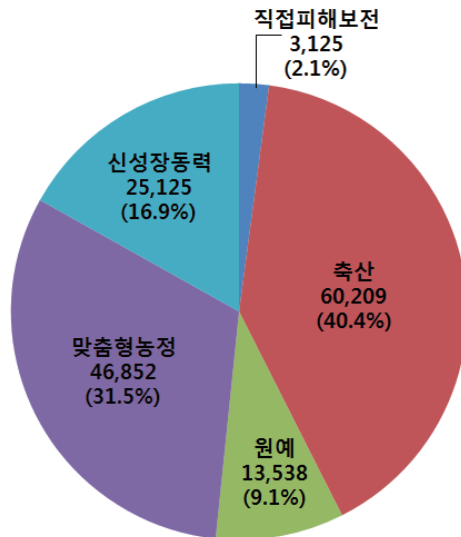


주: 한·EU FTA 국내대책 예산은 2011년부터 반영되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 FTA 투융자 예산과 실적에는 정부의 재정 외에도 이차보전으로 투입된 농협자금이 포함되어 있음. 이차보전으로는 2008~2014년에 예산으로 배정된 2조 7,799억 원 중에서 1조 9,266억 원이 '축사시설 현대화(이차보전 용자)',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및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첨단온실신축지원' 사업 등에 집행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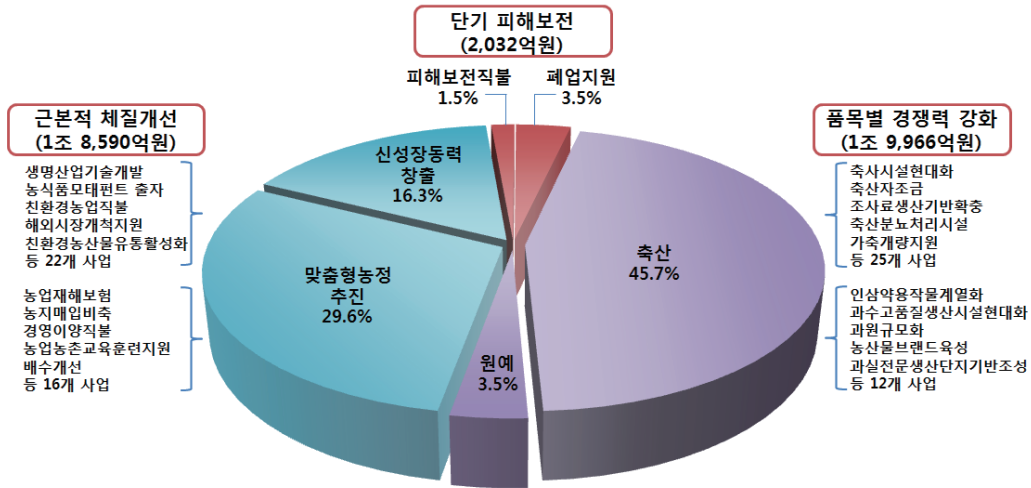
그림 1-3. 분야별 FTA 국내대책 집행실적 (2008~2014년 합계, 억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지난 7년간 집행된 FTA 투융자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축산경쟁력제고와 맞춤형 농정추진에 각각 전체 지원액의 40.4%(6조 209억 원)와 31.5%(4조 6,852억 원)가 소요되었다. 원예 및 식량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융자 비중은 9.1%(1조 3,538억 원)였다. 이외에도 농업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을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과 첨단/기술 산업 지원에 16.9%(2조 5,125억 원)가 집행되었다.
- FTA 추진을 계기로 정부는 FTA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시장차별화와 식품안정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전 단계에 걸쳐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제도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 또한,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써 농업 발전을 목표로 정부의 투융자는 후계농업인 육성, 농업인 교육·훈련, 경영컨설팅, 정책 금융을 포함한 기반조성 및 R&D 투자의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 우수한 농업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분야 투자 환경 조성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1-4. 2014년 농업분야 FTA 투융자 예산과 주요 사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 2014년도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의 예산은 약 4조 588억 원이었다. 품목별 경쟁력 강화에 1조 9,966억 원, 근본적 체질개선에 1조 8,590억 원, 단기 피해보전에 2,032억 원이 각각 배정되었다.
-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의 집행실적은 3조 3,290억 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82.0%였다.
 - ‘2013년도 피해보전대책’의 발동요건을 충족한 한우송아지, 감자, 고구마, 수수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으로 각각 403억 원, 1,345억 원이 집행되어 직접 피해보전 사업군의 집행률은 86.0%였다.
 - 품목별 경쟁력제고 관련 예산인 1조 9,966억 원 중 집행된 투융자액은 1조 6,709억 원으로 집행률은 83.7%였다.
 - 근본적 체질개선 관련 예산은 1조 8,590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집행실적은 1조 4,833억 원으로 집행률은 79.8%였다.

표 1-2. 2014년도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과 실적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A)	실적(B)	집행률(%) (B/A)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40,588	33,290	82.0
직접피해보전	2,032	1,748	86.0
- 피해보전직불	605	403	66.6
- 폐업지원	1,427	1,345	94.3
품목별경쟁력제고	19,966	16,709	83.7
- 축산분야	18,540	15,342	82.8
- 원예분야	1,426	1,367	95.9
근본적체질개선	18,590	14,833	79.8
- 맞춤형농정추진	11,994	10,369	86.5
- 신성장동력창출	6,596	4,464	67.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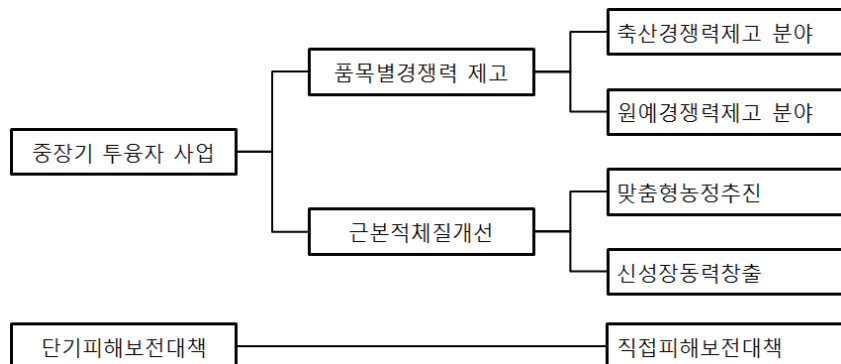
2.1. 성과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부문에 상당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 국내보완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FTA 국내보완대책의 세부사업별 성과를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국내보완대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 한·미 FTA 발효(2012.3.15)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에 대한 국회, 농업인 등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농업분야의 세부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예산조정을 위해 국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FTA 특별법』을 개정하였다(2012.10.22).
 - 『FTA 특별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말까지, 그리고 “FTA 사업 투융자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각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개정된 『FTA 특별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FTA 국내보완대책의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개발·측정, 사업수혜자 만족도조사, 전문가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농업인등 지원센터)」는 2012년도 하반기부터 성과지표를 개발하였고, 이를 매년 보완·개선하고 있으며 각 년도 상반기의 성과평가 과정에서 개별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보완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사업에 대한 심층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공식적인 정책 건의 형태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다.
 -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체적인 세부사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최종 성과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5월 말).

2.2. 성과평가 범위 및 성과지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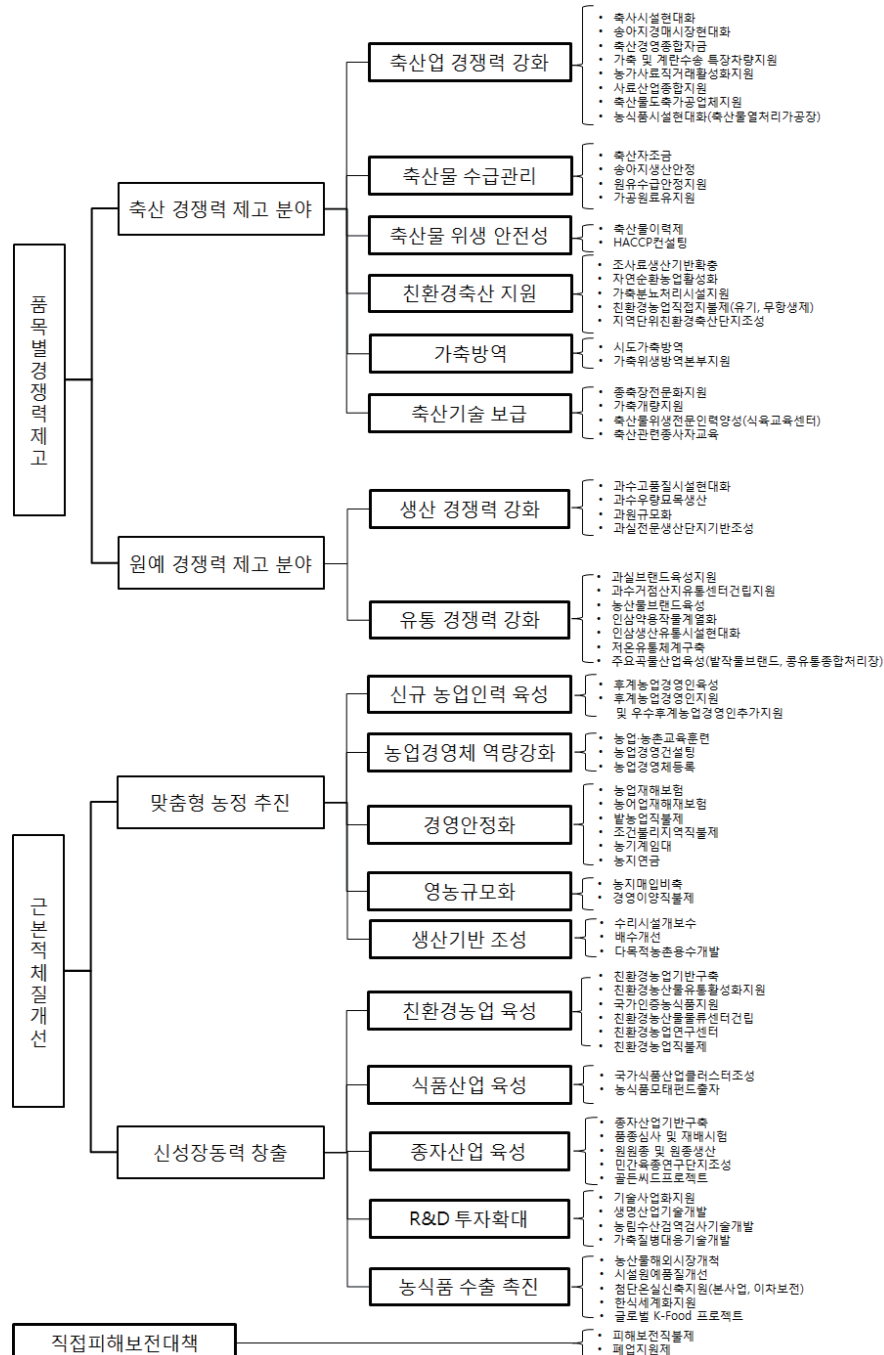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인등 지원센터」는 2014년도 FTA 국내보완대책에 포함된 75개 사업들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 사업들과 정책목표에 따라 분류한 공통 사업군 단위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 2013년 FTA 국내보완대책과 비교하여 2014년에는 축산경쟁력제고 분야의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조성사업’이 추가되었다.
 - 반면, 축산경쟁력제고 분야의 ‘쇠고기생산성향상사업’, 원예경쟁력제고 분야의 ‘신선편이 시설현대화사업’이 종료되어 국내보완대책에서 제외되었다.
- FTA 국내보완대책은 전략목표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 분야(축산경쟁력제고, 원예 경쟁력제고, 맞춤형농정추진, 신성장동력창출, 직접피해보전)로 분류할 수 있다.
 - 축산경쟁력제고 분야 25개 사업
 - 원예경쟁력제고 분야 12개 사업
 - 맞춤형농정추진 분야 16개 사업
 - 신성장동력창출 분야 22개 사업
 - 직접피해보전의 경우, 2013년에 한우 송아지, 감자, 고구마를 대상으로 ‘피해보전 직불제’와 ‘폐업지원제’가 발동함에 따라 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림 1-5. FTA 국내보완대책 주요 분야(대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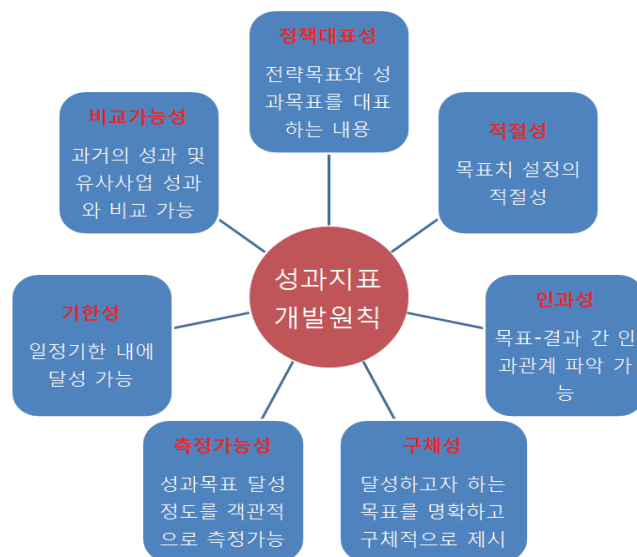
○ 본 보고서에서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직접피해보전을 제외한 네 가지 중장기 투융자 분야를 18가지 사업군(중분류)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1-6. FTA 중장기 투융자 분야 18개 사업군과 세부사업



- 다양한 세부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와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정책목표(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간의 분명한 위치 구분(구조화)과 상호간의 체계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정책목표(전략목표)는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게 된 궁극적인 비전과 목적(FTA 이행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 달성을 위하여 설정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이다.
 - 성과목표는 정책목표(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연간 단위의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이다.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양적, 질적으로 제시하는 지표로 구체적인 양적 수치로 측정이 가능한 정량지표(계량지표)와 양적 수치로 측정이 불가능한 정성지표(비계량지표)로 구성된다.
 - 특히,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줄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나 대상자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신호 역할을 하므로 적절한 지표 발굴 및 선정이 중요하다.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들(정책대표성, 적절성, 인과성, 구체성, 측정가능성, 기한성, 비교가능성)이 성과지표 개발시 고려된다(그림 1-12 참조).

그림 1-7. 성과지표 개발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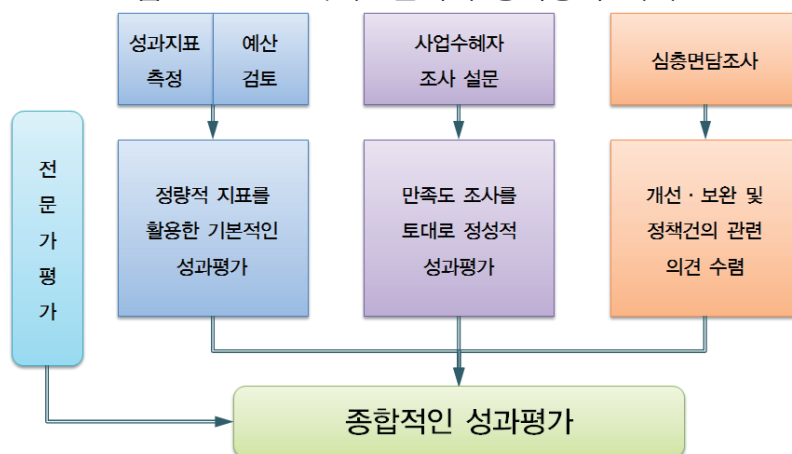
자료: '성가지표개발관리 매뉴얼'(국무조정실, 2006) 내용 편집 사용

- FTA 국내보완대책에 포함된 세부사업들을 대상으로 기존 사업부서에서 설정한 성과지표를 재검토하고, 상기의 성과지표 개발원칙을 고려하여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조정하였다.
- 농업분야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다수의 학계 전문가가 성과지표 개발과정에 참여하였다(위탁연구 수행, 자문의견 수렴, 최종결과 검토 등).
- 해당 사업의 특수성이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의 정책담당자들과의 협의를 거쳤으며, 성과측정에 있어 정량적인 성과 외에도 정성적인 성과도 함께 계측될 수 있도록 농업인 설문조사, 사업수혜자 심층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사업에 따라서는 주지표 뿐만 아니라 활용 가능한 보조지표도 추가적으로 검토·개발하였다.
- 성과지표는 매년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개선·보완될 예정이며, 「농업인등 지원센터」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체계적인 지표개발과 성과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3. 성과계측과 성과평가 방법

- 2014년도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평가는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림 1-8.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체계도



- 먼저 2014년도 FTA 국내보완대책에 포함된 75개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를 계측하여 정량적인 성과지표 중심으로 기본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성과지표를 구성하는 통계자료 분석과 측정결과 해석).
 - 정책목표별로 재분류된 18개 사업군에 포함된 개별 세부사업들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산업의 동향과 관련 품목의 국내외 시장수급 변화, 대내외 주요 경제 환경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 다음으로 농업인(사업수혜자)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정량적 지표를 통한 성과측정 방식과는 차별화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성과지표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혜자의 애로사항이나 정책건의 등을 성과평가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 주요 사업이나 사업군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성과지표 측정 외에도, 사업수혜자나 해당 농업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만족도와 그 원인, 사업군 내에서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순위, 개선·보완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현장의 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 설문조사 대상 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축산경쟁력강화(1개), 원예생산경쟁력강화(2개), 경영안정화(2개), 영농규모화(2개), 생산기반조성(3개) 이다.
 - 축산경쟁력제고 분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혜자 및 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원예경쟁력제고 분야 세부사업(‘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과실전문생산단지’)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맞춤형농정분야 세부사업(‘농업재해보험’, ‘농지연금’, ‘농지매입비축’, ‘경영이양직불제’,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 ‘다목적농촌용수’) 수혜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또한 지원·시설규모가 큰 주요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기관과 사업수혜자(생산자단체, 농협, 지자체 등)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사업만족도와 그 원인, 개선·보완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 축산경쟁력제고 분야 관련 심층면담 대상 사업(3개)
 - ※ 축산업경쟁력강화(1개):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 ※ 축산물수급관리(1개): 축산자조금사업
 - ※ 친환경축산지원(1개):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 원예경쟁력제고 분야 관련 심층면담 대상 사업(1개)
 - ※ 원예 생산경쟁력강화(1개): 과원규모화사업
- 근본적 체질개선 관련 심층면담 대상 사업(4개)
 - ※ 경영안정화(1개): 농지연금사업
 - ※ 영농규모화(2개): 농지매입비축사업, 경영이양직불제
 - ※ 식품산업육성(2개):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 농식품모태펀드출자사업
 - ※ 농식품수출촉진(2개): 해외시장개척사업, 글로벌K-Food프로젝트사업

○ 이와 함께 다각적 측면에서 FTA 국내보완대책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 평가를 통한 성과계측을 실시하였다.

표 1-3.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방법

전략 목표	정책목표	성과 지표 평가	설문 조사	심층 면담	전문가 평가	설문·심층·전문가 평가분야
직접 피해 보전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					
축산 경쟁력 제고	축산업경쟁력강화	○	○	○	○	- 축사시설현대화 - 축산경영종합자금 (브랜드경영체지원)
	축산물수급관리	○		○		축산자조금
	축산물위생안전성제고	○				
	친환경축산지원	○		○	○	- 가축분뇨처리시설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가축방역	○			○	시도가축방역
	축산기술보급	○				
원예 경쟁력 제고	원예생산경쟁력강화	○	○	○	○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 과원규모화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원예유통경쟁력강화	○				
맞춤형 농정	신규농업인력육성	○				
	농업경영체역량강화	○				
	경영안정화	○	○	○	○	- 농업재해보험 - 발농업직불제 - 농지연금
	영농규모화	○	○	○	○	- 농지매입비축 - 경영이양직불
	생산기반조성	○	○			- 수리시설개보수 - 배수개선 - 다목적농촌용수활용
신성장 동력 창출	친환경농업육성	○				
	식품산업육성	○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
	중자산업육성	○			○	골든시드프로젝트
	R&D투자확대	○				
	농식품수출촉진	○		○	○	- 해외시장개척 - 글로벌K-Food프로젝트 - 한식세계화

제2장

축산경쟁력제고 분야 성과평가

제2장

축산경쟁력제고 분야 성과평가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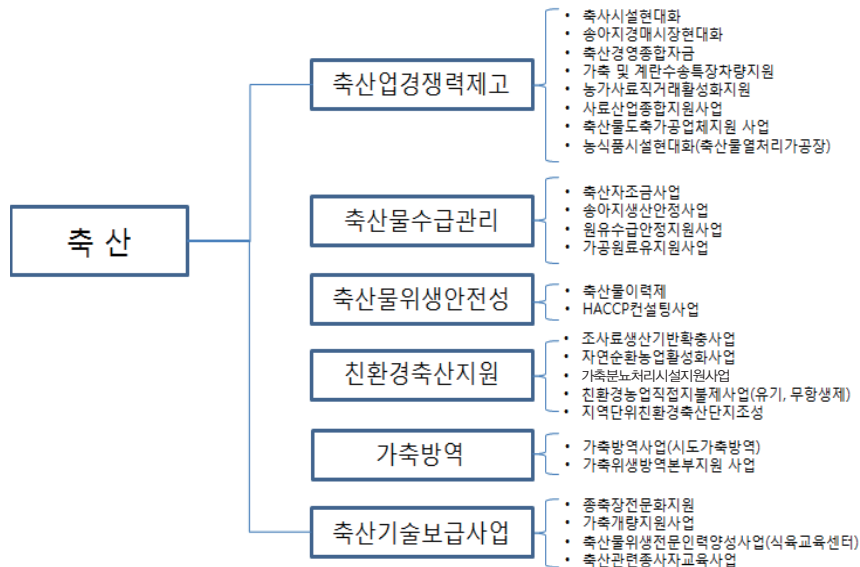
제 5 장

제 6 장

1. 개요

- 축산경쟁력제고의 정책목표(전략목표)는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축산경쟁력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화 실현’이다.
 - 지속적인 FTA 이행으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급관리, 유통 개선, 기술개발, 질병예방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축산업 종사자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추구한다.
- 축산경쟁력제고 분야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목표에 따라 6개 사업군, 25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다.
 - ① **축산업경쟁력강화**는 8개 사업으로 ‘축사시설현대화(이차보전 포함)’, ‘송아지경매 시장현대화’, ‘축산경영종합자금지원(브랜드경영체지원, 가축계열화 포함)’, ‘가축 및 계란수송특장차량지원’,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료산업종합지원’, ‘농업자금이차보전(도축가공업체지원)’, ‘농식품시설현대화(돼지고기수출작업장)’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 ② **축산물수급관리**는 4개 사업으로 ‘축산자조금’, ‘송아지생산안정’, ‘원유수급안정지원’, ‘가공원료유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 ③ **축산물위생안전성제고**는 2개 사업으로 ‘축산물이력제’, ‘HACCP컨설팅’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 ④ **친환경축산지원**은 5개 사업으로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자연순환농업활성화’,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유기, 무항생제)’, ‘지역단위친환경축산단지조성’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 ⑤ **가축방역**은 2개 사업으로 ‘시도가축방역’, ‘가축위생방역본부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 ⑥ **축산기술보급**은 4개 사업으로 ‘종축장전문화지원’, ‘가축개량지원’, ‘축산식육처리 전문인력양성’,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림 2-1. 축산경쟁력제고 분야 세부사업



○ 2014년 축산경쟁력제고에 투입된 예산 1조 8,540억 원 가운데 82.8%인 1조 5,342억 원이 집행되었다. 축산경쟁력제고 전체 예산 가운데 축산업경쟁력 강화 예산 비중이 68.5%로 가장 크고, 친환경축산지원이 16.6%, 가축방역 6.7%, 축산물수급관리 4.4%, 축산기술보급 2.8%, 축산물위생안전성제고 1.1% 순으로 나타났다.

- 예산은 전년 대비 19.2% 증가하였으나, 집행률은 3.5%p 하락하였다.
- 사업군별 예산을 살펴보면, 가축방역 예산은 전년 대비 24.4%, 축산업경쟁력강화 예산은 24.0%, 친환경축산지원 예산은 12.6% 증가한 반면, 축산기술보급 예산은 13.7%, 축산물위생안전성제고 예산은 4.8% 감소하였다.
- 사업군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업군이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인 반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축산업경쟁력강화의 집행률은 78.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1. 축산경쟁력제고 분야 예산집행률

단위: 억 원

정책목표	집행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 대비 증감률(%)
전체	예산	3,455	4,471	4,532	10,299	13,977	15,555	18,540	19.2
	실적	2,263	3,927	4,277	9,495	11,479	13,426	15,342	14.3
	집행률(%)	65.5	87.8	94.4	92.2	82.1	86.3	82.8	-3.5p
축산업 경쟁력강화	예산	1,283	1,213	1,241	4,940	8,501	10,241	12,695	24.0
	실적	172	1,149	1,239	4,521	6,100	8,699	9,999	14.9
	집행률(%)	13.4	94.7	99.8	91.5	71.8	84.9	78.8	-6.1p
축산물 수급관리	예산	335	881	435	741	1,349	773	810	4.8
	실적	330	551	344	546	1,324	610	781	28.0
	집행률(%)	98.5	62.5	79.1	73.7	98.1	78.9	96.4	17.5p
축산물위생 안전성제고	예산	148	204	245	219	263	208	198	-4.8
	실적	139	207	247	219	262	207	197	-4.8
	집행률(%)	93.9	101.5	100.8	100.0	99.6	99.5	99.5	0.0
친환경축산 지원	예산	1,401	1,848	2,036	2,138	2,260	2,736	3,081	12.6
	실적	1,369	1,761	1,951	1,888	2,093	2,466	2,620	6.2
	집행률(%)	97.7	95.3	95.8	88.3	92.6	90.1	85.0	-5.1p
가축방역	예산	-	-	-	1,798	1,001	991	1,233	24.4
	실적	-	-	-	1,845	1,150	963	1,228	27.5
	집행률(%)	-	-	-	102.6	114.9	97.2	99.6	2.4p
축산기술보급	예산	288	325	575	463	603	606	523	-13.7
	실적	253	259	496	476	550	481	517	7.5
	집행률(%)	87.8	79.7	86.3	102.8	91.2	79.4	98.9	19.5p

2. 정책군별 성과평가

2.1. 축산업경쟁력강화

2.1.1. 정책목표 및 개요

- 축산업경쟁력강화 정책은 ‘FTA 이행에 따른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 브랜드 경영체 지원 등을 통한 국산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지속적인 FTA 추진으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유통개선 등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업 종사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 축산업경쟁력강화의 세부사업별 목적,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 예산과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2. 축산업경쟁력강화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사업명		개요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목적	▪ 축사 및 축사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 도모
	지원 내용	▪ 축사시설 신개축·개보수 및 시설 자금 지원(축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축종별로 지정)
	지원 대상 및 자격	▪ 축사, 축사시설, 축사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 등 ▪ 2011.12.31 이전에 축산업 등록된 축사
	우량 송아지 생산 및 비육 시설 지원	▪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공급토록 함으로써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비 절감
	지원 내용	▪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한우사업단(농림축산식품부 인증), 브랜드 경영체, 영농조합 등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업단(경영체)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1,692억 원 ▪ 실적 : 1,577억 원
송아지 경매 시장 현대화	이차보전 용자	▪ 예산 : 2,125억 원 ▪ 실적 : 1,228억 원
	사업목적	▪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송아지 공급시장 육성
	지원내용	▪ 시설 설치 또는 개보수 자금, 건축비,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대상 및 자격	▪ 소 및 송아지를 경매 실시하기 위해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협조합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9억 원 ▪ 실적 : 4억 원

사업명		개요
축산경영종합자금	브랜드 경영체 지원	사업 목적 ▪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 ▪ 브랜드육 판매확보 및 판로 확대
		지원 내용 ▪ 브랜드 회원농가 생산 지원 ▪ 브랜드 경영체 운영 지원 ▪ 브랜드 판매시설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브랜드 운영지원 : 축산물 브랜드 추진 경영체(농축협, 영농법인 등) ▪ 브랜드 판매시설 : 브랜드 경영체 중 직영 판매장이나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음식점 겸업 포함)
	가축 (양계) 계열화	사업 목적 ▪ 전문 경영체 중심의 일괄경영으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경영
		지원 내용 ▪ 계열화에 필요한 생산기반·사육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장비, 계열화 사육비 등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계열화 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계약사육농가
	2014년 사업 예산	
		▪ 예산 : 1,356억 원 ▪ 실적 : 1,357억 원
가축 및 계란수송 특장차량 지원	사업목적	▪ 운송체계 현대화를 통해 가축 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
	지원내용	▪ 소, 돼지, 가금(닭, 오리 등) 및 계란을 수송하는 특장차량 구입비
	지원 대상 및 자격	▪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계란 집하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거점도축장 또는 거점도축장을 이용하는 업체 등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13억 원 ▪ 실적 : 6억 원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	사업목적	▪ 상당수 농가들이 외상거래를 통해 상대적으로 비싼 사료를 구매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금거래 등으로 현재보다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지원
	지원내용	▪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5,000억 원 ▪ 실적 : 4,340억 원
사료산업 종합지원	사업목적	▪ 국제 사료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 대처를 도모하여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 ▪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료제조사인 분리 등 개보수비 지원으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 도모
	지원내용	▪ 사료제조시설 개보수자금 및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 대상 및 자격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등록업체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1,000억 원 ▪ 실적 : 845억 원
축산물도축 가공업체지원	사업목적	▪ 도축장 및 축산물 가공공장의 위생시설 확충을 통해 국내산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수준 향상 및 소비자 신뢰 확보
	지원내용	▪ 도축장 및 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보완, 운영자금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축산물 도축 가공 업체 지원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1,500억 원 ▪ 실적 : 642억 원
농식품시설 현대화 (축산물 열처리 가공 공장)	사업목적	▪ 식품제조·축산가공 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지원내용	▪ 식품제조업체·외식업체의 시설 신축·증축·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축산물 열처리 가공제품 생산 및 수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식품가공업체, 외식업체, 지역농협, 농업법인 등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 ▪ 실적 : -

2.1.2. 성과지표

- 축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축산경영종합자금지원’,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 성과지표를 평가에 활용하였다.

표 2-3. 축산업경쟁력강화 분야 성과지표

사업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축사시설현대화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 시설지원 포함)	지원농가 연간 모돈두당 출하두수(두)	2015년 출하마리수/전년도 모돈 수
	지원농가 산란계 산란율(%)	마리당 1년간 생산계란 개수/365일×100
	지원농가 농가호당 1일 우유생산량 (kg)	지원농가 연간 우유생산량/지원농가 수
송아지경매시장 현대화	송아지 경매두수 비율(%)	(송아지 경매두수/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두수)×100
축산경영종합자금지원	한우브랜드 연간 출하물량 (평균두수)	정부자금지원 한우 브랜드 경영체의 연간 출하물량 평균두수
	돼지브랜드 연간 출하물량 (평균두수)	정부자금지원 돼지 브랜드 경영체의 연간 출하물량 평균두수
	가축 계열화율(%)	(양계 계열화 사업자 도축두수/양계 총 도축두수)×100
가축 및 계란수송특장 차량지원	가축 수송 점유율(%)	(특장차량 수송물량/연간도축실적)×100
	계란 수송 점유율(%)	(특장차량 수송물량/ 연간 계란생산실적)×100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	농가 사료구입비 절감액(억 원)	농가별 사료구입비 ×구입비 인하율 합계
사료산업 종합지원	사료가격 변동	월별 최고가격-최저가격
농업자금이차보전 (축산물도축가공 업체지원)	거점도축장 도축점유율(%)	(거점도축장 도축두수/전체 도축두수)×100
농식품시설현대화 (축산물열처리가공장)	축산물 열처리가공장 수	연도별 누적 개수

2.1.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2014년부터 사업의 성과방식을 전체농가의 생산성 지표에서 지원농가의 생산성 지표로 변경하여 평가하였다. 기존 축종별 생산성 지표를 살펴본 결과,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었으며, 변경된 지표인 지원농가의 생산성 지표도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시설환경 개선으로 대다수 축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축사시설현대화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최근 시장 금리인하로 정책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선호가 낮아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 양돈부문의 ‘지원농가 연간 모돈두당 출하두수’는 2014년 17.9두로 전체농가의 평균 대비 7.2% 높게 나타났으며, 목표 대비 100.6%를 달성하였다.
- 양계부문의 ‘지원농가 산란계 산란율’은 2014년 75.5%로 목표 대비 101.1%를 달성하였다.
- 낙농부문의 ‘지원농가 호당 1일 우유생산량’의 경우 2014년 1,018.8kg으로 전체 농가의 평균 호당 1일 우유생산량인 983.6kg보다 3.6%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표 대비 103.6%를 달성하였다.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예산은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초기에는 농업인들의 수요가 커서 꾸준히 증가하다 국내시장이 전반적으로 공급과잉 국면에 접어들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였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2014년 예산은 1,692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93.2%인 1,577억 원이 집행되었다.
- 한편, 2012년부터 시행된 ‘축사시설현대화이차보전사업’의 2014년 예산은 2,125억 원이며 이 가운데 57.8%인 1,228억 원이 집행되었다.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보조금 없이 저리 융자로 지원되고 있어 최근 저금리의 영향 및 담보 부담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였다.

□ 송아지경매시설현대화사업

- 2011년에 집행유보 대상사업으로 시행되지 못했다가 2012년에 집행유보가 해지되어 시행되었다. 그러나 산지 소값 하락, 금리부담 등으로 사업 수요가 부족하여 2014년 2개소(3억 9천만 원) 지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2014년 사업이 종료되었다.
- 성과지표인 ‘송아지 경매두수 비율’은 2012년 69.3%에서 2013년 79.2%, 2014년 96.3%로 상승하였다.

□ 축산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

- 해당 사업은 ‘브랜드경영체지원’, ‘한우농가조직화’, ‘가축계열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의 성과지표 측정 결과, ‘브랜드 연간 출하 물량’과 ‘가축계열화

율'이 증가하여 축산물브랜드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차별성 확대가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비 절감 등 안정적 축산경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4년 예산집행률도 100.1%로 초과 집행되었다.

- '한우브랜드 연간 출하물량'은 2011년 2,517두에서 2013년 3,293두, 2014년 3,309두로 증가하였다.
- '돼지브랜드 연간 출하물량'은 2011년 7만 5,611두에서 2013년 11만 7,151두까지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전체 돼지 도축두수가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17.7% 감소한 9만 6,430두였다.
 - 한우도축(천 두): 843('12) → 960('13) → 921('14)
 - 돼지도축(천 두, 탕박 기준): 13,484('12) → 15,560('13) → 15,227('14)
- 2014년 '가축계열화율'은 92%로 2012년 91%보다 1%p 상승하였다.
- '축산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의 2014년 예산은 1,356억 원으로 전년대비 동일하였고 일부 이월액을 포함하여 1,357억 원이 집행되어 100.1%의 집행률을 보였다.

□ 가축 및 계란수송특장차량지원사업

- 가축운송차량 현대화를 통해 가축수송과정의 혐오감 및 질병 차단 등 축산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융자+자부담 지원방식에 지원금리가 3%로 시중금리와 비교하여 큰 이익이 없고 담보 부족 등으로 2013년 18대, 2014년 16대 지원에 그치는 등 정책 수요 부족으로 2014년 사업을 종료하였다.
- '가축 및 계란수송특장차량지원사업'의 2014년 예산은 13억 원이었으나, 이 중 46.2%인 6억 원만 집행되었다.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 해당 사업은 2013년 신규사업으로 사료의 현금 및 선급금 거래, 공동구매 활성화를 유도하여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성과지표인 '농가 사료구입비 절감액'은 2013년 173억 5천만 원에서 2014년 520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여 농가 사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의 2014년 예산은 5,000억 원이었으나 축발기금 농특세 전입금 부족으로 660억 원의 예산이 불용되었다. 이로 인해 예산집행률이 86.8%에 머물렀고, ‘농가 사료구입비 절감액’도 목표인 600억 원에 미치지 못했다.

□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 사업의 성과지표인 ‘사료가격 변동 인상폭’은 목표치 이내임은 물론 2013년 23원/kg에서 2014년 14원/kg까지 낮아졌으며, 사료 품질 부적합률도 1.8%까지 하락하는 등 사료가격 안정과 품질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과거 99% 이상으로 높았던 예산집행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융자금리(업체 4%, 생산자 단체 3%)로 84.5%에 그쳤다.
- 축산농가 생산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가격의 안정을 위해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상대적으로 낮은 시중 금리로 인해 사업수요가 감소하였다.
- 제조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사료 품질 부적합률이 2014년에는 전년 대비 0.2%p 감소한 1.8%까지 낮아졌다.
 -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예산(억 원): 400('11) → 600('12) → 950('13) → 1,000('14)
 -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 실적(개소): 45('12) → 51('13) → 40('14)
 - 사료 품질 부적합률(%): 2.6('10) → 3.0('11) → 2.1('12) → 2.0('13) → 1.8('14)

□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 해당 사업은 시설자금(융자 70%, 자부담 30%)과 운영자금(융자 100%)으로 구분하여 지원되고 있다. 지원방식은 이차보전 사업으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연리 3~4% 수준으로 시중금리와 차이가 없어 2014년 예산집행률은 42.8%로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성과지표인 ‘거점도축장 도축점유율(소, 돼지)’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도축산업 규모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소 거점도축장 도축점유율’은 2013년 40.8%에서 2014년 52.1%로 11.3%p 상승하였고 ‘돼지 거점도축장 도축점유율’도 2013년 30.1%에서 2014년 34.2%로 4.1%p 상승하였다.

□ 축산물열처리공장지원사업

- 농식품시설현대화의 내역사업인 ‘축산물열처리공장지원사업’은 용자로 지원되고 있는데(금리 4%,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시중 금리와 차별성이 없고 거치기간이 짧아 2014년에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표 2-4. 축산업경쟁력강화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축사시설 현대화 (우량 송아지 생산 및 비육 시설지원 포함)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 (%)	목표	52.0	55.0	57.0	64.0	80.0	80.5	지표 변경
		실적	54.0	56.7	63.1	62.4	81.6	83.7	
		달성률(%)	103.8	103.1	110.7	97.5	102.0	104.0	
	연간 모돈두당 출하두수(두)	목표	14.0	15.0	16.0	16.5	15.5	16.0	지표 변경
		실적	14.4	15.2	15.1	14.5	15.6	16.7	
		달성률(%)	102.9	101.3	94.4	87.9	100.6	104.4	
	지원농가 연간 모돈두당 출하두수(두)	목표	-	-	-	-	-	-	17.8
		실적	-	-	-	-	-	-	17.9
		달성률(%)	-	-	-	-	-	-	100.6
	지원농가 산란계 산란율(%)	목표	-	-	-	-	-	-	74.7
		실적	-	-	-	-	-	-	75.5
		달성률(%)	-	-	-	-	-	-	101.1
	두당산유량 (리터/년)	목표	8,350.0	8,560.0	8,560.0	8,560.0	8,560.0	8,560.0	지표 변경
		실적	8,567.0	8,654.0	8,325.0	8,379.0	8,640.0	-	
		달성률(%)	102.6	101.1	97.3	97.9	100.9	-	
	지원농가 농가호당 1일 우유생산량(kg)	목표	-	-	-	-	-	-	983.0
		실적	-	-	-	-	-	-	1,018.8
		달성률(%)	-	-	-	-	-	-	103.6
	예산		1,059	1,025	1,147	1,633	2,760	2,200	1,692
	실적		-	1,022	1,091	1,633	1,754	1,877	1,577
	집행률(%)		-	99.7	95.1	100.0	63.6	85.3	93.2
	이차보전 예산		-	-	-	-	2,125	2,125	2,125
	이차보전 실적		-	-	-	-	1,753	1,283	1,228
	이차보전 집행률(%)		-	-	-	-	82.5	60.4	57.8
송아지 경매시장 현대화	송아지 경매두수 비율(%)	목표	-	-	-	-	-	-	86.0
		실적	-	-	-	62.2	69.3	79.2	96.3
		달성률(%)	-	-	-	-	-	-	112.0
	예산		20	20	20	5	10	9	9
	실적		-	-	-	-	5	-	4
	집행률(%)		0.0	0.0	0.0	0.0	50.0	0.0	44.4
축산경영중 합자금지원	한우브랜드 연간 출하물량 (평균두수)	목표	-	-	신규	2,428	2,481	2,592	2,727
		실적	-	-		2,517	3,176	3,293	3,309
		달성률(%)	-	-		103.7	128.0	127.0	121.3
	돼지브랜드 연간 출하물량 (평균두수)	목표	-	-	신규	85,236	87,685	90,861	98,650
		실적	-	-		75,611	103,039	117,151	96,430
		달성률(%)	-	-		88.7	117.5	128.9	97.7
	가축 계열화율 (%)	목표	74	75	80	85	85	87	92
		실적	85	85	85	94	91	93	92
		달성률(%)	114.9	113.3	106.3	110.6	106.5	106.9	100.0
	예산		-	-	-	1,226	1,396	1,356	1,356
	실적		-	-	-	1,204	1,343	1,346	1,357
	집행률(%)		-	-	-	98.2	96.2	99.3	100.1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가축 및 계란수송 특장차량 지원	가축 수송 점유율(%)	목표	-	-	-	신규	-	17.0	5.0
		실적	-	-	-		-	4.0	5.0
		달성률(%)	-	-	-		-	23.5	100.0
	계란 수송 점유율(%)	목표	-	-	-	신규	5.0	21.0	5.0
		실적	-	-	-		-	9.0	8.0
		달성률(%)	-	-	-		-	42.9	160.0
	예산		33	20	12	8	15	13	13
	실적		-	-	-	-	11	7	6
	집행률(%)		-	-	-	-	73.3	53.8	46.2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농가 사료구입비 절감액 (억 원)	목표	-	-	-	-	신규	170.0	600.0
		실적	-	-	-	-		173.5	520.8
		달성률(%)	-	-	-	-		102.1	86.8
	예산		-	-	-	-	-	2,000	5,000
	실적		-	-	-	-	-	1,928	4,340
	집행률(%)		-	-	-	-	-	96.4	86.8
			-	-	-	-	-	-	-
사료산업 종합지원	사료가격 변동	목표	-	-	-	100원 이내	100원 이내	90원 이내	90원 이내
		실적	-	-	-	78.0	21.0	23.0	14.0
		달성률(%)	-	-	-	100	100	100	100.0
	예산		-	-	-	400	600	950	1,000
	실적		-	-	-	398	597	950	845
	집행률(%)		-	-	-	99.5	99.5	100.0	84.5
축산물 도축가공업 체지원	소 거점도축장 도축점유율 (%)	목표	-	-	37.0	38.0	39.0	40.0	43.8
		실적	-	-	37.4	37.8	38.8	40.8	52.1
		달성률(%)	-	-	101.1	99.5	99.5	102.0	118.9
	돼지 거점도축장 도축점유율 (%)	목표	-	-	28.0	29.0	30.0	31.0	32.0
		실적	-	-	29.2	30.7	30.9	30.1	34.2
		달성률(%)	-	-	104.3	105.9	103.0	97.1	106.9
	예산		-	-	-	1,500	1,500	1,500	1,500
	실적		-	-	-	1,140	557	1,283	642
	집행률(%)		-	-	-	76.0	37.1	85.5	42.8
			-	-	-	-	-	-	-
축산물 열처리 가공장 지원	축산물 열처리 가공장 수	목표	-	2	3	3	4	4	1.0
		실적	-	2	4	1	2	1	0.0
		달성률(%)	-	100.0	133.3	33.3	50.0	25.0	0.0
	예산		-	-	-	70	70	70	-
	실적		-	-	-	70	70	17	-
	집행률(%)		-	-	-	100.0	100.0	24.3	-

- 축산업경쟁력강화 사업군의 14개 성과지표(8개 사업) 가운데 목표 대비 성과를 달성한 지표는 11개, 미달성은 3개였다.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로 ‘돼지브랜드 연간 출하물량’, ‘농가 사료구입비 절감액’, ‘축산물 열처리 가공장 수’가 있다.
- ‘농가사료구입비절감액’은 전년 대비 절감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사업예산의 증가에 따라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여 달성도는 86.8%에 그쳤으며, ‘돼지브랜드 연간 출하물량’은 전체 돼지 도축 두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브랜드 출하물량도 감소하여 달성도가 97.7%에 머물렀다.

2.1.4. 사업수혜자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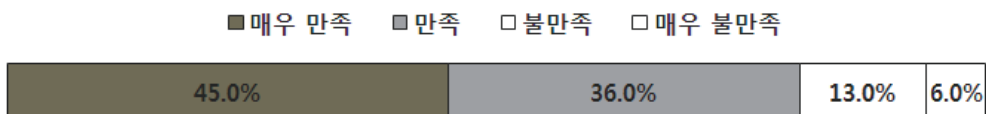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설문조사

○ 〈조사개요〉 FTA 국내보완대책의 주요 사업을 면밀히 평가하고 생산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하고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혜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의 만족도, 만족·불만족 이유, 기존 사업의 개선점,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 조사시기: 2014년 4월 1일~4월 30일
- 응답자 연령: 41세 이하 2.0%, 41~50세 15.0%, 51~60세 58.0%, 61~70세 21.0%, 71세 이상 4.0%
- 영농 경력: 10년 이하 14.0%, 11~20년 23.0%, 21~30년 29.0%, 31~40년 29.0%, 41년 이상 5.0%
- 거주지역: 충청·세종 41.3%(38명), 경상도 20.7%(19명), 서울·경기 12.0%(11명), 전라도 10.9%(10명), 강원도 8.7%(8명), 제주도 6.5%(6명)
- 주요 축종: 산란계 25.0%, 한우 25.0%, 돼지 22.0%, 육계 15.0%, 젓소 11.0%, 양봉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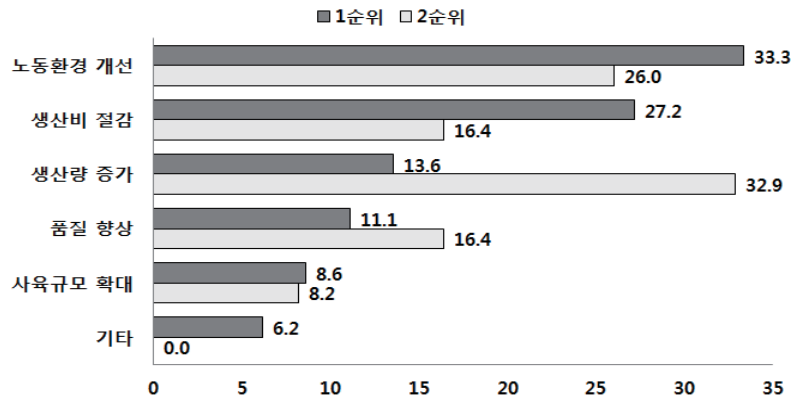
○ 〈세부사업 만족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으로 노동환경 개선, 생산비 절감, 생산량 증대 등의 효과가 나타나 사업에 대한 수혜농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지원절차 및 대상의 문제, 실지금액 부족, 담보 및 융자 금리 부담 등으로 인한 불만족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전체 응답자의 45.0%, ‘만족’ 36.0%, ‘불만족’ 13.0%, ‘매우 불만족’ 6.0%로 조사되었다.

그림 2-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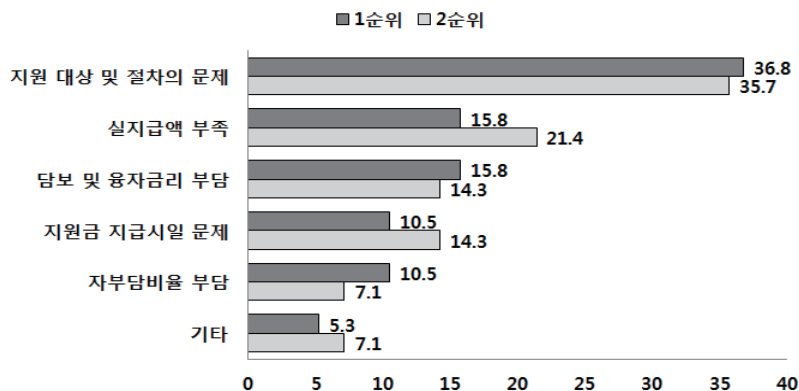
- 만족하는 이유 1순위는 ‘노동환경 개선’이 33.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생산비 절감’ 27.2%, ‘생산량 증가’ 13.6%, ‘품질 향상’ 11.1%, ‘사육규모 확대’가 8.6%로 조사되었다.
- 만족하는 이유 2순위는 ‘생산량 증가’가 32.9%로 가장 많았고, ‘노동환경 개선’ 26.0%,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이 16.4%, ‘사육규모 확대’가 8.2%로 조사되었다.

그림 2-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만족 이유



- 불만족하는 이유 1순위는 ‘지원 대상 및 절차의 문제’가 3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실지금액 부족’과 ‘담보 및 융자금리 부담’ 15.8%, ‘지원금 지급시일 문제’와 ‘자부담 비율 문제’ 10.5% 순이었다.
- 불만족하는 이유 2순위는 ‘지원 대상 및 절차의 문제’가 3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실지금액 부족’ 21.4%, ‘담보 및 융자금리 부담’과 ‘지원금 지급시일 문제’ 14.3%, ‘자부담 비율 문제’ 7.1%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불만족 이유



- 현재 시행되고 있는 FTA 국내보완대책 외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축산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⁵⁾으로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강화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직접피해보전 확대 29.3%,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14.1%, 생산비 절감 방안 마련 9.1%, 유통구조 개선 및 규모화 7.1%, 종축 및 종자 개량 연구 강화 3.0% 순으로 조사되었다.
- 〈건의사항〉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혜농가는 규제완화와 신청절차 간소화, 융자 금리인하, 부가세 면제 등 보다 현실적이고 현장 중시의 지원을 건의하였다.
 - 농가들은 각 사업마다 까다로운 규제와 행정적 절차가 복잡해 사업 신청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규제완화의 흐름에 부응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 최근 시장금리 인하로 지원사업의 융자금리와 시중금리의 차이가 크지 않아 지원 사업의 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금리와 연동하여 일정 수준의 금리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또한, 금리 혜택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융자금에 대한 부가세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났다. 금리에 대한 개선과 함께 융자금 부가세에 대한 개선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심층면담⁶⁾

- 사업만족도 및 원인
 - 조사결과,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4.2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운영지원금을 활용하여 종돈 및 사료통일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판매시설자금을 활용하여 브랜드 판매시설 확충, 홍보 강화 등으로 매출액이 상승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과 우수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의 신청시기가 비슷하여 행정 처리 업무를 간소화 할 수 있었다.
- 정책 건의
 - 2015년 농가에 지원되는 출하선급금의 정책금리는 인하(3%→2%)되었으나, 브랜드 운영지원금과 브랜드판매시설에 대한 융자금리는 여전히 3%로 정책금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
 - 그밖에 사업 신청서류 간소화 등 신청절차 개선을 건의하였다.

5) 1순위 응답 기준

6) 축산브랜드경영체 5군데 조사결과

2.1.5.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전문가 평가⁷⁾

가.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현황 및 성과분석 방법

-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은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축산물 생산 및 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브랜드 축산물 판매시설을 지원하여 브랜드육 판매 확보 및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 축산브랜드경영체 및 농가들의 선호가 높은 사업 중의 하나로, 최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리인하도 이루어져 그 정책적인 지원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으며,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표 2-5. 연도별 재정투입 실적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0 ~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1,830,387	137,125	134,662
용 자	1,480,200	109,100	109,100
자부담	350,187	28,025	27,472
○ 브랜드 운영지원	1,757,930	131,125	129,262
- 용 자	1,429,480	104,900	103,410
- 자부담	328,450	26,225	25,852
○ 브랜드 판매시설	72,457	6,000	5,400
- 용 자	50,720	4,200	3,780
- 자부담	21,737	1,800	1,620

- 본고에서는 2014년 축산물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의 수혜기업(단체)을 중심으로 한 브랜드경영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접조사를 바탕으로 본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였다.
- 조사된 브랜드경영체는 24개소로 그 중 18개소가 2014년 축산물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의 수혜자였으며, 주로 기술통계를 중심으로 하여 성과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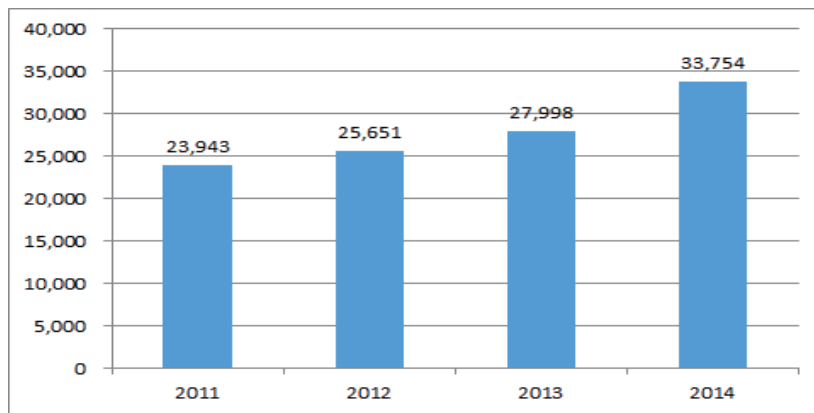
7) 영남대학교 「박재홍 교수」 작성

나.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성과

- 2014년 축산물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매출액의 변화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브랜드경영체의 매출액이 상승추세에 있으나 2014년에 대폭 상승하였다. 2011~2013년 평균 매출액이 25,864백만 원이었으나 2014년 33,75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평균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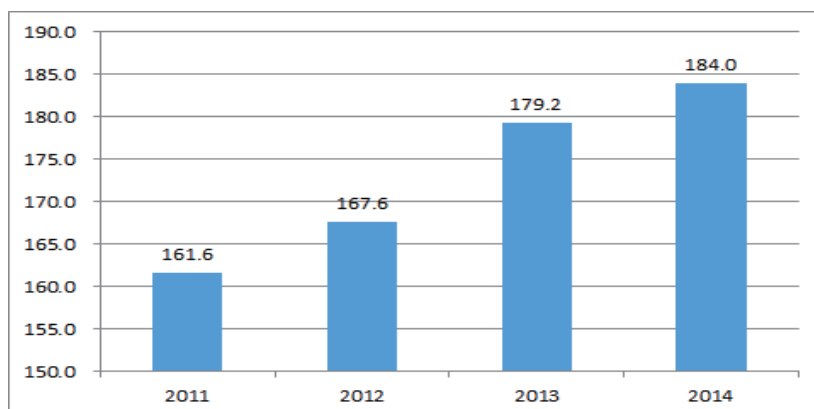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 수혜 브랜드경영체의 참여하고 있는 농가수는 2011년 브랜드경영체당 평균 161호에서 2012년 167호, 2013년 179호, 그리고 2014년 184호로 나타나 축산 농가들의 브랜드경영체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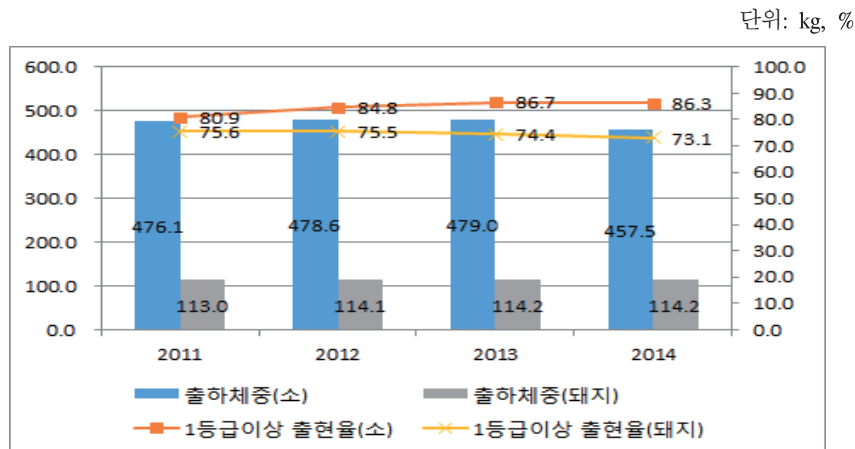
그림 2-6. 평균 참여농가 추이

단위: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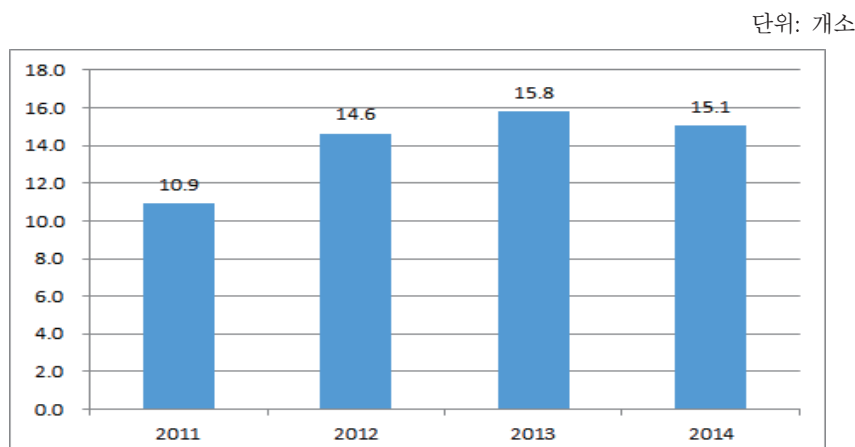
- 1등급 이상 출현율은 한우브랜드경영체의 경우 2011~2013년 평균 84.1%에서 2014년 86.3%로 상승한 반면, 양돈브랜드경영체의 경우 2011~2013년 평균 75.2%에서 2014년 73.1%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평균 출하체중과 1등급이상 출현율 추이



- 브랜드판매점수를 살펴보면, 2011년 브랜드경영체 평균 10.9개소, 2012년 14.6개소, 2013년 15.8개소, 2014년 15.1개소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늘어났으나, 일부 브랜드의 경우 판매점수가 줄어들어 2014년에 조금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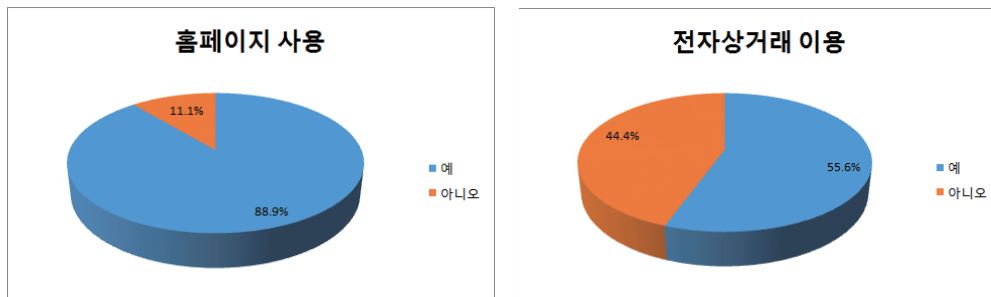
그림 2-8. 평균 브랜드판매점 수 추이



- 홈페이지는 2014년 브랜드경영체의 88.9%가 운영 중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이를 전자상거래 연결하여 운영하는 곳은 55.6%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기술의 이용 기반은 상당 수준 갖추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브랜드경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홈페이지 유무 및 전자상거래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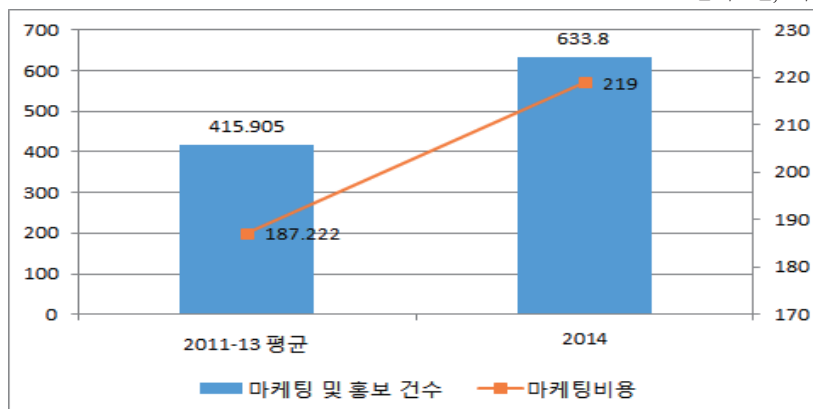
단위: %



- 마케팅 및 홍보건수는 2011~2013년 평균 415건에서 2014년 633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마케팅비용 2011~2013년 평균 187백만 원에서 2014년 219백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수행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0. 마케팅 실적 및 비용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2014년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의 수혜경영체와 비수혜경영체를 비교하여 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수혜경영체의 실적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등급이상 출현율은 비수혜기업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비수혜경영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육두수나 출하두수가 적고, 소수의 가축을 키우면서 출하 월령을 상대적으로 길게 하여 등급을 높이는 경영전략을 취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 정보기술과 관련한 항목에서 홈페이지 보유여부나 전자상거래 활용여부는 거의 같은 비중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에 의한 매출액 비중은 비수혜경영체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혜경영체들이 상대적으로 대형 경영체로서 대량의 출하물량을 지속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직판점, 대형마트 등의 거래처를 통한 오프라인상의 거래 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온라인거래의 비중이 농식품산업 전반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혜 브랜드경영체들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수혜경영체와 비수혜경영체를 비교한 결과, 수혜경영체의 마케팅 홍보 건수가 월등히 많았으며 건당 홍보비용은 약 1/20 수준으로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사업의 목적(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차별성 확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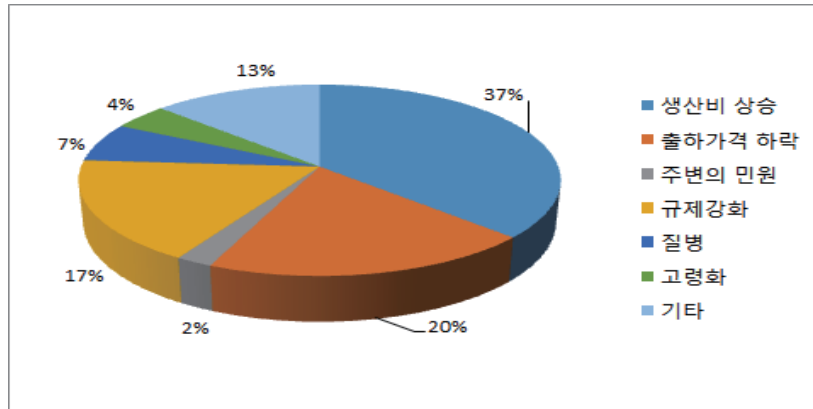
표 2-6. 2014년 수혜경영체와 비수혜경영체 비교

항 목	수혜경영체	비수혜경영체
매출액(백만원)	33,754.1	25,983.5
참여농가수(호)	184.0	366.8
번식률(%)	81.3	81.7
평균출하월령(개월)	24.1	30.6
브랜드육 판매점 수(개소)	15.1	7.3
14년 마케팅 및 홍보건수(건)	633	16
14년 마케팅 및 홍보비용(백만원)	222.3	99.4
14년 건당 홍보비용(백만원)	0.35	6.2

- 브랜드경영체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사항에 대한 1순위와 2순위의 내용을 보면, 생산비 상승이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출하가격 하락이 20%, 축산에 대한 규제강화가 17%, 기타 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료값 상승에 따른 생산비

상승에 따른 전 축종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이며, 특히 생산을 표준화하고 사료를 통일하여 브랜드의 일관된 품질을 갖추어야 하는 브랜드경영체의 입장에서는 큰 애로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11. 브랜드경영체 운영상 애로사항



다. 시사점

- 축산물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영체와 받지 않은 경영체 간의 매출액, 참여농가수, 출하두수, 1등급이상 출현률, 마케팅비용 등을 분석한 결과 축산부문 FTA 국내대책의 일환인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의 성과는 전체적으로 비수혜경영체에 비하여 수혜경영체의 매출액, 참여농가수, 출하두수 등 규모화 및 브랜드관리 측면에서 일정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축산농가들과 브랜드경영체의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출하두수 증가나 브랜드판매점 수의 증가 등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질병 발생 및 한우의 가격하락 등의 이유가 일정 정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마케팅 및 홍보 건수의 증대와 마케팅비용의 증가폭이 커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브랜드경영체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브랜드경영체의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용측면의 가장 요인인 사료비 등 생산비에 대한 어려움은 모든 브랜드경영체에서 토로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이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의 성과를 확대하는데 필요하다 하겠다.

2.1.6. 소결

- **축산업경쟁력강화** 정책의 세부사업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은 축산농가의 노동환경 개선과, 축산물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그 외 ‘축산경영종합자금지원’,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료산업종합지원’ 등의 사업 또한 생산비 절감, 브랜드 경영체 지원 등 축산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부 용자사업에 대한 담보 및 금리부담과 복잡한 사업 지원절차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축산업경쟁력강화 사업군의 14개 성과지표(8개 사업) 가운데 목표 대비 성과를 달성한 지표는 11개, 미달성 3개였다.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축종별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었으며, 정책 지원농가의 생산성 지표도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시설환경 개선으로 대다수 축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수혜자 조사에서도 노동환경 개선, 생산비 절감, 생산량 증가 등의 이유로 응답자의 81.0%가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지원 대상 및 절차의 문제와 담보 및 용자금리 부담 등에 대한 불만족도 제기되었다.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수혜자 조사결과,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전체 응답자의 45.0%, ‘만족’ 36.0%, ‘불만족’ 13.0%, ‘매우 불만족’ 6.0%로 조사되었다.
 - 일부 수혜농가에서 규제완화와 신청절차 간소화, 용자 금리인하, 부가세 면제 등 보다 현실적이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건의하였다.
- ‘축산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브랜드경영체지원’, ‘한우농가조직화’, ‘가축계열화’ 사업 시행으로 축산물브랜드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차별성 확대가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비 절감 등 안정적 축산경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심층면담 조사결과, 브랜드 경쟁력 확보, 판매시설 확충, 흥

보 강화 등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융자금리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수혜경영체와 비수혜경영체를 비교한 결과, 수혜경영체의 마케팅 홍보 건수가 월등히 많았으며 건당 홍보비용은 약 1/20 수준으로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사업의 목적(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차별성 확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수혜경영체 마케팅 홍보 건수는 633회, 비수혜경영체는 16회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사업’은 사료의 현금 및 선급금 거래, 공동구매 활성화를 유도하여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농가사료구입비절감액’은 2013년 173억 5천만 원에서 2014년 520억 8천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시행으로 ‘사료가격 변동’이 14원/kg까지 낮아졌으며, 사료 품질 부적합률도 1.8%까지 하락하는 등 사료가격 안정과 품질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융자금리(업체 4%, 생산자 단체 3%)로 예산집행률(84.5%)은 저조하게 나타났다.
 - ‘사료가격 변동’은 2011년 78원/kg에서 2013년 23원, 2014년 14원까지 낮아졌다.
 - ‘사료품질 부적합률’도 2010년 2.6%에서 2012년 2.1%, 2014년 1.8%까지 하락하였다.

2.2. 축산물 수급관리

2.2.1. 정책목표 및 개요

- 축산물수급관리의 정책목표는 ‘계절적 수급불균형 완화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산 축산물 수급변동을 완화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유도하며,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정책 목적이 있다.
- 축산물수급관리의 세부사업별 목적,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 예산과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7. 축산물수급관리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사업명	개요
축산 자조금	사업목적
	▪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지원내용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정보제공 ▪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 축산물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 대상 및 자격
	▪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단위의 단체 ▪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193억 원 ▪ 실적 : 177억 원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목적
	▪ 번식 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 유도
	지원내용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수수료
원유 수급 안정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가입 농가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13억 원 ▪ 실적 : 8억 원
원유 수급 안정 지원	사업목적
	▪ (원유수급조절) 수급조절 지원을 통한 낙농 생산기반 유지 및 농가 경영 안정 ▪ (학교우유급식) 우유급식을 통해 학생 건강 유지증진 및 우유소비기반 확대
	지원내용
	▪ (원유수급조절) 계약물량을 초과한 잉여원유 처리에 소요되는 차액 보전 ▪ (학교우유급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유급식 지원
원유 수급 안정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원유수급조절) 진흥회와 원유생산계약을 체결한 낙농가 ▪ (학교우유급식)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차상위계층 초등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등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482억 원 ▪ 실적 : 474억 원

사업명		개요
가공 원료유 지원	사업목적	▪ 낙농가 경영안정 및 수급 계절편차 완화 ▪ 수급 계절편차에 의해 발생하는 잉여원유를 가공유제품 생산에 사용한 집유주체에 지원함으로써 국산유제품 자급률 향상
	지원내용	▪ 우유생산비와 가공원료유 공급가격과의 차액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전국단위원유수급조절제에 참여한 낙농가 및 집유주체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122억 원 ▪ 실적 : 122억 원

2.2.2. 성과지표

- 축산물수급관리를 위해 ‘축산자조금’, ‘송아지생산안정’, ‘원유수급안정지원’, ‘가공원료유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세부사업별 성과지표를 평가에 활용하였다.

표 2-8. 축산물수급관리 분야 성과지표

사업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축산자조금	생산자 만족도	자조금 위원회 활동에 대한 생산자의 만족도 조사
송아지생산안정	가입율(%)	$(\text{계약 암소수} / \text{전년 도 말 가임 암소수}) \times 100$
원유수급안정지원	원유 잉여율(%)	$(\text{잉여량} / \text{생산량}) \times 100$
가공원료유지원	가공원료유 지원율(%)	$(\text{가공원료유 지원물량} / \text{전체 잉여원유량}) \times 100$

2.2.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 축산자조금사업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축산업자의 권익보호와 수급안정, 정보제공 등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축산자조금사업’에 대한 ‘생산자만족도’ 조사결과, 2014년 만족도는 69.1%로 전년보다 0.5%p 상승하였고, 예산집행률도 91.7%로 높게 나타났다.
- ‘축산자조금사업’은 과거부터 지속되었으나 성과지표인 ‘생산자만족도’는 2012년부터 조사되었다.⁸⁾ 만족도는 2012년 66.9%에서 2013년 68.6%, 2014년 69.1%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8)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경영과에서 생산자 대상으로 자체 조사

- ‘축산자조금사업’의 예산은 2010년(262억 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193억 원이었다. 이 중 91.7%인 177억 원이 집행되었다. 농가거출금 납입 부진에 따른 불용 발생으로 일부 예산이 미집행되었으나 집행률은 높은 편이다.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한우 번식기반 유지를 위해 사업을 시행하였고, 2012년부터 적정수급과 연계하여 보전금 지급기준이 개정되면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사육마리수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산지가격은 안정되는 등 제도 도입목적은 달성하였으나 농가의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 소사육두수 : 2,635천 두('09) → 3,059('12) → 2,759('14)
 - 가입암소 두수(4분기 기준): 1,077천 두('09) → 1,227('12) → 1,120('14)
 - 한우큰소산지가격(600kg) : 569만원('09) → 470('12) → 512('14)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률은 2010년 92.8%, 2012년 66.4%, 2014년 39.3%로 매년 감소하였다.
 - 2012년 보전금 지급기준이 변경된 이후 산지가격 상승세로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발동될 조건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행정비 수준의 예산만 반영되고 있다.

표 2-9.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지급기준(2012년 2월 개정)

구분	확대단계	적정단계	위험단계	초과단계
가입암소두수	90만두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 미만	110만 이상
최대보전액(만원/마리)	40	30	10	0

□ 원유수급안정지원사업

- 2010년 말 구제역 발생 이후 2013년까지 원유가 부족한 상황으로 잉여물량이 거의 없었으나, 2014년 6.6%까지 잉여물량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 예산이 증액되었고 예산의 98.3%를 집행하여 계절적 수급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잉여원유 처리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낙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원유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2014년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5.9% 증가한 482억 원이었고, 이 중 98.3%인 474억 원이 집행되었다.

- 참고로 ‘원유수급안정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학교우유급식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은 물론이고, 우유 소비기반 확대에 따른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가공원료유지원사업

- 예산을 100% 활용하여 잉여 원유로 유가공품을 생산하였다. 이로 인해 낙농가의 수급 및 경영 안정, 국산 유제품 자급률 향상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단, 현재 수준의 지원으로는 수입 유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국산 원료 사용을 통한 유제품 자급률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
- 2014년 ‘가공원료유지원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목표치(10%)를 크게 상회하는 17.5%로 나타났다.

표 2-10. 축산물수급관리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축산 자조금	생산자 만족도	목표	-	-	-	신규 지표	65.0	68.3	68.9
		실적	-	-	-		66.9	68.6	69.1
		달성률(%)	-	-	-		102.9	100.4	100.3
	예산		156	223	262	248	214	214	193
	실적		198	208	208	202	218	209	177
	집행률(%)		126.9	93.3	79.4	81.5	101.9	97.7	91.7
송아지 생산안정	가입율(%)	목표	93.3	90.0	90.0	90.0	-	66.0	70.0
		실적	108.5	104.4	92.8	88.9	66.4	45.9	39.3
		달성률(%)	116.3	116	103.1	98.8	-	69.5	56.1
	예산		132	563	62	68	426	43	13
	실적		132	295	18	19	476	10	8
	집행률(%)		100.0	52.4	29.0	27.9	111.7	23.3	61.5
원유수급 안정지원	원유 잉여율(%)	목표	16.3	18.0	17.5	11.6	6.0	2.5	7.5
		실적	14.4	11.8	7.9	0	0.8	2.1	6.6
		달성률(%)	113.2	152.5	221.5	-	750.0	119.0	113.6
	예산		-	-	-	305	333	416	482
	실적		-	-	-	305	316	326	474
	집행률(%)		-	-	-	100.0	94.9	78.4	98.3
가공 원료유 지원	가공원료유 지원율(%)	목표	-	-	-	신규 지표	1.0	22.5	10.0
		실적	-	-	-		0.5	20.2	17.5
		달성률(%)	-	-	-		50	90	175.0
	예산		-	-	-	100	72	100	122
	실적		-	-	-	-	10	65	122
	집행률(%)		-	-	-	0.0	13.9	65.0	100.0

- **축산물수급관리** 사업군의 4개 성과지표(4개 사업) 가운데 목표 대비 성과를 달성한 지표는 3개, 미달성 지표는 1개였다.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자조금 생산자 만족도’, ‘원유잉여율’, ‘가공원료유지원율’이며, 미달성 지표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가입율’이었다.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2012년 보전금 지급기준이 변경되고, 2011년 이후 사육마리수 감소, 산지가격 안정 등으로 농가 가입률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2.2.4. 사업수혜자 조사 결과

□ ‘축산자조금사업’ 심층면담⁹⁾

- 사업만족도 및 원인
 - 조사결과, ‘축산자조금사업’에 대한 축종별 자조금위원회의 만족도는 4.2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출금의 100% 이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거출금과 보조금을 활용하여 축산물 소비촉진, 수급안정, 농가 교육 등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개별 농가는 자조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 및 효율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또한, 닭고기의 경우 다수 협회(양계협회, 육계협회, 토종닭협회)가 참여하고 있어 자조금 운영·관리에 이견이 발생하고 하고 있다.
- 정책 건의
 - 일부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출금과 관련 없이 정책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 홍보 등 소비촉진 목적과 수급관리, 생산성 향상, 교육 등 생산 부분의 목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 품질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효과적인 사업에 집중적 투자가 요구된다.
 - 여러 단체의 참여로 운영되는 자조금의 경우 운영·관리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자조금 목적·취지 등을 고려하여 단체간 조정 등을 통해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9) 축종별 자조금위원회 6군데, 축산농가 12군데 조사결과

2.2.5. 소결

- **축산물수급관리** 정책 시행으로 계절적 수급불균형 완화, 자급률 안정 등 축산물 수급관리,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일부 사업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축산물수급관리 사업군의 4개 성과지표(4개 사업) 가운데 목표 대비 성과를 달성한 지표는 3개, 미달성 지표는 1개였다.
- ‘**축산자조금사업**’ 시행으로 축산업자의 권익보호와 수급안정, 소비촉진, 정보제공 등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조금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개선이 필요하다.
 - ‘축산자조금사업’에 대한 ‘생산자만족도’ 조사결과, 2014년 만족도는 69.1%로 전년도보다 0.5%p 상승하였고, 예산집행률도 91.7%로 높게 나타났다.
 - 축종별 자조금 위원회 면담 조사결과, 거출금 100%이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개별농가의 경우, 자조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 및 효율성에 대한 불만과 품질에 대한 홍보부족을 지적하였다.
 - 여러 단체의 참여로 운영되는 자조금의 경우 운영·관리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자조금 목적·취지 등을 고려하여 단체간 조정 등을 통해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정책지원을 통한 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홍보 등 소비촉진 목적과 수급관리, 생산성 향상, 교육 등 생산 부문의 목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한우 번식기반 유지를 위해 사업을 시행하였고, 2012년부터 적정수급과 연계하여 보전금 지급기준이 개정되면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사육마리수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산지가격은 안정되는 등 제도 도입목적을 달성하였으나 농가의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률은 2010년 92.8%, 2012년 66.4%, 2014년 39.3%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 ‘**원유수급안정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계절적 수급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잉여원유

처리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낙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2010년 말 발생한 구제역 이후 원유잉여율은 2011년 0%, 2012년 0.8%, 2013년 2.1%, 2014년 6.6%까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2014년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5.9% 증가한 482억 원이었고, 이 중 98.3%인 474억 원이 집행되었다.
- ‘가공원료유지원사업’ 시행으로 유제품 자급률 향상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현재 수준의 지원으로는 수입 유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국산 원료 사용을 통한 유제품 자급률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

2.3. 축산물위생안전성제고

2.3.1. 정책목표 및 개요

- 축산물위생안전성제고 정책은 ‘이력추적 시스템과 HACCP 인증제를 통해 축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FTA 이행에 따른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력정보 기록 및 관리, HACCP 적용을 통해 국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및 축산식품 안전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 축산물위생안전성제고의 세부사업별 목적,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 예산과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11. 축산물위생안전성제고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사업명	개요	
축산물 이력제	사업목적	▪ 이력정보를 추적하여 방역 등의 효율성을 도모,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
	지원내용	▪ 귀표부착·전산등록 등 사육단계와 도축 이후 유통되는 모든 쇠고기 이력 관리
	지원 대상 및 자격	▪ 국내 소를 사육하는 모든 농가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182억 원 ▪ 실적 : 181억 원
HACCP 컨설팅	사업목적	▪ 축산물 HACCP 적용을 통하여 축산식품의 위생·안전성 제고
	지원내용	▪ HACCP 희망 축산농가 등 HACCP 전문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축산농가와 축산물 작업장 중 HACCP 적용 희망 농업인 및 영업자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16억 원 ▪ 실적 : 16억 원

2.3.2. 성과지표

- 축산물위생안전성제고를 위해 ‘축산물이력제’, ‘HACCP 컨설팅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 성과지표를 평가에 활용하였다.

표 2-12. 축산물위생안전성제고 분야 성과지표

사업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축산물이력제	쇠고기 이력정보 조회건수 (천 건)	해당년도 조회건수
HACCP컨설팅	HACCP 지정신청건수(건)	HACCP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원 자료
	HACCP 지정비율(%)	$(\text{HACCP 지정건수} / \text{HACCP 컨설팅 사업대상자 수}) \times 100$

2.3.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 축산물이력제사업

- 2014년 해당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9.5%이며, 성과지표인 ‘쇠고기이력정보조회건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식육판매업소¹⁰⁾의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위반율’은 1.2%로 전년 대비 0.1%p, ‘DNA 동일성 검사 불일치율’도 3.4%p 하락하여 ‘축산물이력제사업’이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쇠고기이력정보 조회건수’는 2009년 1,679건에서 2011년 7,751건, 2013년 13,917건, 2014년 21,267건까지 증가하였다.
- 개체식별번호 위반율(%): 1.0('11) → 1.0('12) → 1.3('13) → 1.2('14)
- DNA 동일성 검사 불일치율(%): 18.9('11) → 19.7('12) → 18.2('13) → 14.8('14)
- 2014년 ‘축산물이력제사업’ 예산 182억 원의 99.5%인 181억 원이 집행되었다.

□ HACCP컨설팅사업

- 성과지표인 ‘HACCP지정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HACCP 지정 신청건수’도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축산물위생 및 안전성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HACCP지정 비율’은 2008년 2.0%에서 2010년 11.0%, 2012년 21.4%, 2014년 31.3%까지 상승했다.

10)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개체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 단속은 2009년 10월 6일부터 실시

- ‘HACCP지정 신청건수’는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규모 축소로 2012년 803건에서 2013년 767건, 2014년 441건으로 농가의 지정신청 건수는 감소했으나, 목표 대비 달성률은 103.3%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3. 축산물위생안전성제고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축산물 이력제	쇠고기 이력정보 조회건수 (천 건)	목표	—	—	—	—	—	13,891	14,975
		실적	—	1,679	7,205	7,751	12,910	13,917	21,267
		달성률(%)	—	—	—	—	—	100.2	142.0
	예산		117	165	191	154	165	182	182
	실적		110	168	193	154	165	181	181
	집행률(%)		94.0	101.8	101.0	100.0	100.0	99.5	99.5
HACCP 컨설팅	HACCP 지정신청 건수(건)	목표	—	—	—	—	743	707	427
		실적	—	—	—	—	803	767	441
		달성률(%)	—	—	—	—	108.1	108.5	103.3
	HACCP 지정비율 (%)	실적	2.0	3.4	11.0	14.9	21.4	27.8	31.3
	예산		—	—	—	—	26	26	16
	실적		—	—	—	—	26	26	16
	집행률(%)		—	—	—	—	100.0	100.0	100.0

- 축산물위생안전성제고 사업군의 3개 성과지표(2개 사업)는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다.

2.3.4. 소결

- 축산물위생안전성제고 정책은 이력정보 기록 및 관리와 HACCP 적용을 통해 축산물 유통 투명성 확보, 소비자 신뢰성 제고 등 축산물 위생 및 안전 축산물 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축산물이력제사업’은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여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쇠고기이력정보 조회건수’는 2009년 1,679건에서 2011년 7,751건, 2013년 13,917건, 2014년 21,267건까지 증가하였다.
 - 개체식별번호 위반율은 1.2%로 낮은 수준을 보이며, DNA동일성 검사 불일치율도 2013년 18.2%에서 2014년 14.8%까지 하락하였다.

- ‘HACCP컨설팅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HACCP지정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축산물위생 및 안전성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HACCP지정 비율’은 2008년 2.0%에서 2010년 11.0%, 2012년 21.4%, 2014년 31.3%까지 상승했다.

2.4. 친환경축산지원

2.4.1. 정책목표 및 개요

- 친환경축산지원 정책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농산물 및 조사료에 공급하는 자연순환농업을 구현함과 동시에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친환경 실천 축산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등을 통해 친환경 축산 확산을 도모한다.
- 친환경축산지원의 세부사업별 목적,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 예산과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14. 친환경축산지원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사업명		개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목적	- 국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부존자원 활용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
	지원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조사료용 기계, 장비 지원 - 별집 등 부존자원 활용지원 -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 조사료 유통센터 운영 - 조사료 가공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
	지원 대상 및 자격	-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 제조, 이용하는 농가경영체, 생산자단체, 섬유질가공공장(TMR, TMF) - 축산업 등록농가, 한우회·낙우회 등 협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및 지역 농·축협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1,577억 원 - 실적 : 1,223억 원
자연순환 농업활성화	사업목적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자연순환 농산물 및 조사료를 생산·공급하여 경종과 축산이 상호 상생하는 자연순환농업 구현
	지원내용	가축분뇨 퇴비·액비를 생산·유통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및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교육·홍보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자연순환농업 추진 전문경영체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310억 원 - 실적 : 310억 원

사업명		개요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목적	▪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지원내용	▪ 개별시설(퇴·액비화 시설) ▪ 공동자원화시설 ▪ 정착촌 구조 개선 ▪ 액비저장조시설 ▪ 액비유통센터(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지원) ▪ 액비살포비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부숙도판정기
	지원 대상 및 자격	▪ 축산농가, 지역 농·축협,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전문유통업체 등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976억 원 ▪ 실적 : 900억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유기, 무항생제)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 도모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지원내용	▪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의 축산물 생산을 위한 비용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지원 대상 및 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 통보자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173억 원 ▪ 실적 : 172억 원
지역단위친환경 축산단지조성	사업목적	▪ 일반 주거지와 거리를 두어 차단방역이 용이한 유흥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가축 사육을 사육할 수 있는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육성
	지원내용	▪ 친환경 지원 사업 전반적인 부분을 집중지원(시설현대화, 환경개선, 분뇨 처리시설 등)
	지원 대상 및 자격	▪ 축산단체 및 농업법인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45억 원 ▪ 실적 : 15억 원

2.4.2. 성과지표

- 친환경축산지원을 위해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자연순환농업활성화’, ‘가축분뇨처리 시설지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역단위친환경축산단지조성’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 성과지표를 평가에 활용하였다.

표 2-15. 친환경축산지원 분야 성과지표

사업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조사료 자급률(%)	(국내산 조사료공급량/조사료 총공급량)*100
	조사료 재배면적(천 ha)	시·도별 종자공급 실적을 기준으로 재배면적 추정

사업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퇴액비 사용량(천 톤)	자원화조직체의 퇴액비를 이용한 살포량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가축분뇨 자원화율(%)	(자원화 물량/전체가축분뇨 발생량)×100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유기,무항생제)	친환경주요축산물생산량 비중(%)	(친환경 주요 축산물 생산량 / 전체 주요 축산물 생산량)×100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친환경축산단지입주율(%)	축산농가 입주 면적/친환경축산단지 조성 면적*100

2.4.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소 사육두수 감소와 지방재정 부담 증가 등으로 사업수요가 감소하여 ‘조사료 자급률’은 전년 및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조사료재배면적’은 증가세가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예산집행률은 77.6%로 낮게 나타났다.
 - ‘조사료 자급률’은 매년 80~8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4년은 2013년과 동일한 82%였다.
 - ‘조사료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 한육우 사육두수가 감소하면서 증가세가 완화되었다. 2014년 ‘조사료재배면적’은 2013년보다 1천 ha 감소한 297천 ha였다.
 - 한육우 사육두수(4분기 기준): 3,059천 두('12) → 2,918천 두('13) → 2,759천 두('14)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내역사업 중 지방비 부담이 포함된 사업은 ‘조사료사일리지제초비지원’(지방비 60%), ‘조사료기계장비지원’(지방비 30%), ‘조사료유통센터운영’(지방비 30%), ‘TMR가공시설 및 운영자금지원’(지방비 30%) 사업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조율 및 지방비 비율 등을 조정하고 규모별로 자원을 차등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2014년 예산 1,577억 원의 77.6%인 1,223억 원이 집행되었다.

□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

- 사업의 추진으로 가축분뇨 퇴·액비를 생산·유통하여 농지에 살포하는 자연순환 농업을 확산시키고 있다. 성과지표인 ‘퇴액비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도 100% 집행되고 있다.
 - ‘퇴액비 사용량’은 2012년 4,720천 톤에서 2013년 4,872천 톤, 2014년 5,034천 톤으로 증가했다.
 - 2014년 사업 예산은 2013년 대비 38.4% 증가한 310억 원이었으며 100% 집행되었다.

□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 ‘가축분뇨 자원화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예산집행률도 높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이후 원활한 분뇨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 자연순환농업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성과지표인 ‘가축분뇨 자원화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4년에는 89.7%를 달성하였다.
 -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은 공동자원화시설지원 수요가 소폭 감소하여 92.2%의 예산집행률을 보였다.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해당 사업의 시행은 친환경축산물 생산량 증가와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산집행률 또한 높아 매년 예산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다.
 - ‘친환경 주요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 생산량 비중’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4년에 전년(21.1%) 대비 4.9%p 감소한 16.2%였으나, 목표 대비 115.7%의 달성률을 보였다.
 - 2014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예산은 전년 대비 71억 증가한 173억이며, 99.4%의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 지역단위친환경축산단지조성사업

○ 2014년 시범사업으로 3개소를 지정하였으나, 1개소는 사업을 포기하였다. 진행 중이 2개 사업 중 경기도 화성은 기반조성 중이며, 전남 장흥은 2015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사업대상자 및 대상지가 없어 사업포기서 제출 의사를 표명한 상태이다.

표 2-16. 친환경축산지원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조사료 자금률(%)	목표	80.0	82.0	85.0	86.0	85.0	88.0	90.0
		실적	81.0	84.0	82.0	83.0	80.0	82.0	82.0
		달성률(%)	101.3	102.4	96.5	96.5	94.1	93.2	91.1
	조사료재배 면적 (천 ha)	목표	191	234	265	316	330	350	370
		실적	193	241	244	260	268	298	297
		달성률(%)	101.0	103.0	92.1	82.3	81.2	85.1	80.3
	예산		414	819	1,002	1,065	1,240	1,540	1,577
	실적		397	766	958	938	1,125	1,322	1,223
	집행률(%)		95.9	93.5	95.6	88.1	90.7	85.8	77.6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퇴액비 사용량 (천 톤)	목표	3,550	3,850	4,100	4,350	4,600	4,850	5,000
		실적	3,595	4,208	4,199	4,450	4,720	4,872	5,034
		달성률(%)	101.3	109.3	102.4	102.3	102.6	100.5	100.7
	예산		323	275	243	242	242	224	310
	실적		323	241	242	242	242	224	310
	집행률(%)		100.0	87.6	99.6	100.0	100.0	100.0	100.0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가축분뇨 자원화율 (%)	목표	84.0	85.0	86.0	87.5	88.5	89.2	89.5
		실적	84.3	85.6	86.6	87.6	88.7	89.2	89.7
		달성률(%)	100.4	100.7	100.7	100.2	100.2	100.0	100.2
	예산		664	754	791	801	708	870	976
	실적		649	754	751	678	656	818	900
	집행률(%)		97.7	100.0	94.9	84.6	92.7	94.0	92.2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유기,무 항생제)	친환경 주요 축산물 생산량 비중(%)	목표	0.4	4.0	10.0	11.0	12.0	13.0	14.0
		실적	3.6	6.0	10.0	12.9	13.3	21.1	16.2
		달성률(%)	900	150	100	117.3	110.8	162.3	115.7
	예산		-	-	-	30	70	102	173
	실적		-	-	-	30	70	102	172
	집행률(%)		-	-	-	100.0	100.0	100.0	99.4
지역단위 친환경축 산단지 조성	친환경축산 단지 입주율(%)	목표	2015년 이후 측정 가능						
		실적							
		달성률(%)							
	예산		-	-	-	-	-	-	45
	실적		-	-	-	-	-	-	15
	집행률(%)		-	-	-	-	-	-	33.3

- 친환경축산지원 사업군의 6개 성과지표(5개 사업) 가운데 목표 대비 성과를 달성한 지표는 3개, 미달성 2개, 목표 미설정 혹은 결과 미계측 지표가 1개였다.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두 가지 지표인 ‘조사료 자급률’과 ‘조사료재배면적’이었다.
- ‘조사료 자급률’과 ‘조사료재배면적’의 달성도는 각각 91.1%, 80.3%로 소 사육두수 감소와 지방재정 부담으로 인한 사업수요 감소가 원인이었다.

2.4.4. 사업수혜자 조사 결과

□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심층면담¹¹⁾

○ 사업만족도 및 원인

- 조사결과, 개별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4.5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공동 자원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2.3점(5점 만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된 이후, 축산농가의 필수 시설인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액비 저장능력 향상, 농가부담 경감으로 체계적 시설설비 가능 등 개별시설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부담으로 시설규모가 제한적이며, 가축분뇨의 공급과 수요(살포지)의 불균형 발생, 생산과 살포시기의 불일치, 환경규제 등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정책 건의

- 액비살포비지원 절차가 까다롭고, 필지별 토양성분의 차이로 인해 시비처방서 발급 시일이 지연되면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시비처방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 공동자원화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법인 등 소유의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양도·양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단, 개인 및 법인 간의 거래는 제외하고 농·축협, 지자체 등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기관으로 그 범위는 한정할 필요가 있다.

11) 공동자원화시설 4군데, 개별농가 4군데 조사결과

- 그 밖에 일부 기능이 중복되는 공동자원화시설과 액비유통센터의 통합, 액비 활용의 우수성 홍보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된다.

참고. 액비살포, 시비처방 및 부속판정 관련 기본방향(사업시행지침서)

- 액비를 생산하여 농경지에 살포하고자 하는 자(전문유통주체 또는 개별 축산 농가)는 연간 액비생산 및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시군에 제출
 - 동 계획에는 액비생산량, 성분분석결과, 농경지 확보현황, 계절별 재배작물, 운반 차량 및 살포장비, 인력 등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가축분뇨 액비를 생산·유통·살포하고자 하는 전문유통주체 또는 개별 축산 농가는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속도판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동일 필지에 연 1회) 받음.
 - 전문유통주체가 개별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하는 경우 축산 농가단위로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단, 농가별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공동으로 직접 액비를 생산하는 경우 예외).
- 액비살포비는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 및 부속도측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받고 Agrix ‘가축분뇨 자원화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 시비처방서를 발급 받아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가축분뇨발효촉진제 사용을 권장
 - ※ 가축분뇨 액비에 대한 이용 및 관리지침 별도 통보

2.4.5.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전문가 평가¹²⁾

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추진실적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우리나라 조사료의 생산기반 조성 및 확충에 필요한 기계·장비, 사일리지 제조비, 국내 유통비 등 자금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 DDA·FTA 확대 등 개방화에 대응,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 등 경쟁력 강화와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표 2-17. 조사료 생산 및 공급 현황

단위: 톤, ha, 개소,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총 소요량 (사육기준 : 한육우+젖소)		5,033 (3,352)	5,577 (3,372)	5,663 (3,479)	5,731 (3,342)	5,578 (3,190)
국 내 전 체	국내산 (면 적)	4,127 (244)	4,606 (260)	4,543 (268)	4,672 (298)	4,598 (297)
	목초(톨페스큐, 오차드그라스 등) (면 적)	273 (39)	273 (39)	266 (38)	277 (39)	268 (38)
	벼 짚	2,257	2,152	2,040	1,982	1,836
	사료작물 (면 적)	1,597 (205)	2,181 (221)	2,237 (230)	2,413 (259)	2,494 (259)
	동계작물 (면 적)	1,001 (160)	1,520 (175)	1,626 (187)	1,839 (210)	1,869 (215)
	청 보 리 (면 적)	183 (25)	273 (34)	146 (18)	133 (17)	136 (17)
	IRG·호밀 등 (면 적)	818 (135)	1,247 (141)	1,480 (169)	1,706 (193)	1,733 (198)
	하계작물 (면 적)	596 (45)	661 (46)	611 (43)	574 (49)	625 (45)
	옥수수 (면 적)	174 (11)	177 (11)	154 (10)	182 (12)	173 (11)
	수단그라스·귀리 등 (면 적)	422 (34)	484 (35)	457 (33)	392 (37)	452 (34)
	수입산	906	971	1,120	1,059	980
	할당관세 물량	734	800	960	894	805
	1214류(농가용 건조)	690	750	900	850	770
	2308류(배합사료 원료용)	44	50	60	44	35
	알팔파(1214.90.9011)	172	171	160	165	175
자급률		82.0	82.6	80.2	81.5	82.4
농 협 (조사료 거점조합)	생산량	121	199	212	245	299
	재배면적	12.3	22.4	26.4	29.3	35.7
	조합수(개소)	29	41	45	49	50
	점유율(면적, %)	6.0%	10.1%	11.5%	11.3%	13.8%
	육성자금	200	300	300	400	400

자료: 축산발전기금 사무국

12) 충남대학교 「김성훈 교수」 작성

- 최근 5년간 조사료 총 소요량을 보면, 2010년 5,033톤에서 2014년 5,578톤으로 10.8%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조사료 자급률은 82%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산 조사료의 공급량은 2010년 4,127톤에서 2014년 4,598톤으로 11.4%의 성장을 보였는데, 같은 기간의 조사료 소요량 증가율(10.8%)을 상회하고 있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다.
- 국내산 재배 면적은 2010년 244ha에서 2014년 297ha로 21.7% 증가하여 공급량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 국내 주요 작물별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벣짚 공급량이 1,836톤으로 가장 많은데, 전체 국내 공급량의 39.9%를 차지한다. 이어 IRG·호밀 등이 1,733톤(37.7%), 수단그라스·귀리 등 452톤(9.8%), 톨페스큐·오차드그라스 등의 목초 268톤(5.8%) 순으로 공급되고 있다.
- 한편, 수입산의 경우 2010년 906톤에서 2014년 980톤으로 8.2%의 증가를 보였는데, 2012년에는 1,120톤으로 급증하는 등의 변동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할당관세 물량 등 시장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15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면, 9개 사업 1,363억원(보조 943억, 융자 420억, 지방비 제외)이 시행 중인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8.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의 세부 사업

구분	세부 사업	주요 내용
조사료 직접 생산 지원	벣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	벣짚, 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사일리지로 제조하기 위한 비닐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의 구입 비용을 지원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용 지원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용 지원
조사료 생산 기반 육성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자재비·측량수수료 등
	TMR 가공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TMR 가공 기계·장비 구입 및 시설 건축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조사료 전문 생산단지 조성	조사료 전문 생산 단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사일리지 제조,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조사료용 종자, 조사료 재배용 퇴·액비 등) 지원

구분	세부 사업	주요 내용
조사료 유통 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및 건초를 제조하여 축산 농가까지 단거리(10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국내산 조사료(짚류 제외)를 유통주체를 통해 100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타 지역으로 공급하거나 타 지역으로부터 구매할 때 드는 유통비용 지원
	조사료 유통센터 운영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의 유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 시설 건축비 등과 기타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 유통센터 설비 및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자료: 축산발전기금 사무국

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성과계측

1) 계측 방법

- 우리나라 조사료 시장은 정부의 할당관세 물량 공급 등 시장 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일반적인 시장 경제 이론에 근거한 성과 분석은 의미가 없는 실정이다.
 - 예를 들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예산 1억 원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에서의 자급률 증가분 등을 시장경제이론에 근거한 모형으로 추정이 가능하겠지만, 이는 분석 대상인 우리나라 조사료 시장이 완전경쟁 시장이거나 이에 근접한 시장이라는 전제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가능하다.
- 따라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정량적 성과 계측은 불가능하기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관계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성적 성과 계측을 진행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연관된 업체나 전문가를 3개 그룹(업계, 학계 및 연구계, 정부)으로 분류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및 세부 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정성적 성과와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이론적 모형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성과 등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적용하였다. AHP 분석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고, 개별 평가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도를 가진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기법으로 1970년대 초 토마스

사티(Thomas Saaty)에 의해 개발된 이후 정성적인 다기준 의사결정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 AHP 기법은 의사결정에 고려되는 평가요소들을 동질적인 집합으로 군집화하고, 다수의 수준으로 계층화한 후, 각 수준별로 분석·종합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한다. AHP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평가요소들을 계층화하고, 계층별 요소들에 대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는데 있다.
- 이 기법은 인간의 사고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제를 분해하고 구조화한다는 점, 그리고 평가요소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와 대안들의 선호도를 비율척도로 측정하여 정량적인 형태로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간결한 적용절차에도 불구하고 척도선정, 가중치 산정절차, 민감도 분석 등에 사용되는 각종 기법이 실증분석과 엄밀한 수리적 검증과정을 거쳐 채택된 방법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 일반적으로 AHP 기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행된다.
 - Step1) 의사결정요소들을 계층화하는 단계로써 최상위 계층에는 가장 포괄적인 의사결정의 목표가 주어지고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보다 상세한 의사결정 요소들이 분해된다. 이때 계층간의 의사결정 요소들은 종속적 관계, 같은 계층의 요소들끼리는 독립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 Step2) 의사결정요소들을 두 개씩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하게 되는데 의사결정자의 선호(preference)정도를 Saaty에 의해서 제안된 9점 척도에 의해서 적절한 수치로 수량화한다.
 - Step3) 고유 벡터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요소들 간의 상대적 가중치(weight)를 추정한다. 즉, $A \cdot W = \lambda_{\max} \cdot W$ (여기서 A 는 쌍대비교로 얻어진 정방행렬을 나타내고, $\lambda_{\max}$ 는 A 의 최대고유치(maximum eigenvalue), W 는 고유벡터이다)의 식을 통해 고유벡터 W 가 구해지면 W 의 각각의 성분을 $\sum W_i$ 로 나눔으로써 정규화(normalized)된 가중치를 얻을 수 있다.
 - Step4) AHP의 마지막 단계는 최하위 계층에 있는 대안들의 상대적 비중 또는 우선순위를 구하기 위해 각 계층에서 계산된 평가기준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종합(aggregation)하는

과정이다. 최상위 계층에 있는 의사결정문제의 가장 일반적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최하위 계층에 있는 대안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안들의 종합가중치(composite relative weights)를 구하는 단계이다. 대안의 종합가중치는 $W_i = \sum(w_j)(u_{ij})$ 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W_i 는 i 번째 대안의 종합가중치이고 w_j 는 평가기준 j 의 상대적 가중치, u_{ij} 는 평가기준 j 에 대한 i 번째 대안의 가중치를 각각 의미한다). 이들 대안의 종합가중치는 대안의 상대적 비중 또는 우선순위라고도 하며, 대안 선택 또는 자원배분의 기초를 제공한다.

3) 분석 결과

〈분석 대상 샘플〉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성과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업과 연관된 3개 그룹을 설정하고 각각 20여개의 유의한 조사 결과를 확보하였다. 구체적인 응답 자들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수혜자인 업체나 농가 26 곳, 대학이나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21 곳, 중앙 및 지방 공무원 20 곳이 포함되었다.

〈조사료 생산확충 지원사업의 전체 만족도〉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가늠하기 위해 사업의 전체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정부와 업체는 약간 만족(0.75)에 가까운 값을 보인 반면 학계는 보통(0.5)에 다소 못 미치는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학계에서는 조사료 생산확충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이 상당부분 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결과로 보이나, 사업의 실제 수혜자들인 업체의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2-19. 사업의 전체 만족도

사업명	정부	업체	학계
조사료 생산확충 지원사업	0.747	0.705	0.487

주: 만족도는 AHP 분석 결과를 수치로 제시한 것으로 절대 만족(0.9), 매우 만족(0.875), 만족(0.833), 약간 만족(0.75), 보통(0.5), 약간 불만(0.25), 불만(0.167), 매우 불만(0.125), 절대 불만(0.1)의 범위를 가짐.

〈대분류 그룹별 중요도와 만족도〉

-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조사료 생산확충 지원사업을 3개 대분류 그룹(조사료 직접 생산지원 사업, 조사료 생산 기반육성 사업, 조사료 유통지원 사업)으로 묶은 다음, 해당 그룹간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결과가 다음 표에 제시되었는데, 3개 그룹 모두 조사료 생산기반 육성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 그룹으로 제시하였다.
- 두 번째로 중요한 사업 그룹은 조사 대상그룹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정부와 업계는 조사료 유통지원을 제시한 반면, 학계는 조사료 직접 생산지원을 제시하였다.
- 이어서 진행된 그룹별 만족도 분석 결과는 중요도 분석 결과와 차이를 보였는데, 3개 그룹 모두 조사료 유통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한편, 3개 그룹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지정한 조사료 생산기반 육성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세부적으로 조사료 생산기반육성사업에 대한 학계의 만족도가 보통(0.5)에 다소 못 미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부사업에 대한 응답 그룹들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제시하였다.

표 2-20. 그룹별 중요도와 만족도

사업 그룹	분석 결과	응답 그룹		
		정부	업계	학계
조사료 직접 생산지원	중요도	0.270	0.229	0.233
	만족도	0.749	0.705	0.538
조사료 생산기반육성	중요도	0.457	0.456	0.550
	만족도	0.742	0.679	0.441
조사료 유통 지원	중요도	0.273	0.315	0.217
	만족도	0.754	0.743	0.550

주 1) 중요도는 AHP 분석 결과 가중치를 제시한 것으로 사업 그룹에 대한 중요도의 합이 1이 됨.

2) 만족도는 AHP 분석 결과를 수치로 제시한 것으로 절대 만족(0.9), 매우 만족(0.875), 만족(0.833), 약간 만족(0.75), 보통(0.5), 약간 불만(0.25), 불만(0.167), 매우 불만(0.125), 절대 불만(0.1)의 범위를 가짐.

〈그룹 내 세부사업별 중요도와 만족도〉

- 조사료 직접 생산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별 중요도 분석 결과, 정부는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제시한 반면, 업계와 학계는 조사료용 기계 장비지원사업을 가장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어 차이를 보였다.

- 업계와 학계는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관련 설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만족도의 경우에는 정부와 업계는 각각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학계는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지원사업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아 차이를 보였다.
- 세부적으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한 학계의 만족도가 보통(0.5)에 다소 못 미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부사업에 대한 응답 그룹들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제시하였다.
- 업계와 학계가 가장 중요한 세부 사업으로 지정한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 2-21. 조사료 직접 생산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별 중요도와 만족도

세부 사업	분석 결과	응답 그룹		
		정부	업계	학계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지원	중요도	0.390	0.261	0.265
	만족도	0.721	0.711	0.609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중요도	0.287	0.334	0.273
	만족도	0.770	0.740	0.483
조사료용 기계 장비지원	중요도	0.323	0.405	0.462
	만족도	0.763	0.673	0.530

주 1: 중요도는 AHP 분석 결과 가중치를 제시한 것으로 사업 그룹에 대한 중요도의 합이 1이 됨.

주 2: 만족도는 AHP 분석 결과를 수치로 제시한 것으로 절대 만족(0.9), 매우 만족(0.875), 만족(0.833), 약간 만족(0.75), 보통(0.5), 약간 불만(0.25), 불만(0.167), 매우 불만(0.125), 절대 불만(0.1)의 범위를 가짐.

- 가장 중요도가 높게 제시된 조사료 생산기반 육성사업의 세부 사업별 중요도 분석 결과, 정부와 업계는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시한 반면, 학계는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는 학계에서는 단지 조성만과 같은 종합적인 생산기반 육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만족도 분석 결과로는 정부와 업계가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지원사업을 가장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반면, 학계는 TMR 가공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가장 높게 제시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 세부적으로 추지조성 및 기반 시설 지원사업과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학계의 만족도가 보통(0.5)에 못 미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부사업에 대한 응답 그룹들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제시하였다.

- 중요도와 만족도 수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표 2-22. 조사료 생산기반 육성사업의 세부 사업별 중요도와 만족도

세부 사업	분석 결과	응답 그룹		
		정부	업계	학계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중요도	0.486	0.499	0.367
	만족도	0.727	0.691	0.448
TMR 가공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중요도	0.172	0.228	0.232
	만족도	0.732	0.584	0.532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지원	중요도	0.342	0.273	0.401
	만족도	0.767	0.737	0.381

- 주 1) 중요도는 AHP 분석 결과 가중치를 제시한 것으로 사업 그룹에 대한 중요도의 합이 1이 됨.
 2) 만족도는 AHP 분석 결과를 수치로 제시한 것으로 절대 만족(0.9), 매우 만족(0.875), 만족(0.833), 약간 만족(0.75), 보통(0.5), 약간 불만(0.25), 불만(0.167), 매우 불만(0.125), 절대 불만(0.1)의 범위를 가짐.

○ 끝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게 제시된 조사료 유통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별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 결과, 3개 그룹 모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가장 높게 제시하였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조사료 유통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 중 가장 중요함과 동시에 사업 성과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세부적으로 모든 세부사업에 대한 응답 그룹들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제시하였다.

표 2-23. 조사료 유통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별 중요도와 만족도

세부 사업	분석 결과	응답 그룹		
		정부	업계	학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중요도	0.449	0.387	0.412
	만족도	0.796	0.754	0.614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중요도	0.239	0.281	0.290
	만족도	0.729	0.720	0.510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	중요도	0.312	0.331	0.298
	만족도	0.713	0.751	0.501

- 주 1) 중요도는 AHP 분석 결과 가중치를 제시한 것으로 사업 그룹에 대한 중요도의 합이 1이 됨.
 2) 만족도는 AHP 분석 결과를 수치로 제시한 것으로 절대 만족(0.9), 매우 만족(0.875), 만족(0.833), 약간 만족(0.75), 보통(0.5), 약간 불만(0.25), 불만(0.167), 매우 불만(0.125), 절대 불만(0.1)의 범위를 가짐.

〈축산관련 지원사업의 추진 과제별 필요성〉

-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축산관련 지원 사업이 향후 검토하여야 할 추진 과제들의 필요성을 조사하였는데, 그룹별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정부는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 제고, 축산물의 가격 경쟁력 제고, 축산 생산부문의 경쟁력 강화, 가축 방역 강화, 축산식품의 위생안전성 제고 등의 순으로 필요성을 지적인 반면, 업계는 축산식품의 위생안전성 제고, 가축 방역 강화, 축산부문 전문 인재 양성, 축산물의 가격 경쟁력 제고, 축산물수급관리 등을 우선적으로 제기하였다. 학계는 가축 방역 강화, 축산식품의 위생안전성 제고, 축산의 환경오염 완화, 축산물 도축유통의 효율성 제고, 축산 가공부문의 경쟁력 강화 등을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로 제시하여 차이를 보였다.
- 이들 우선 과제들을 상호 검토하면, 축산식품의 위생안전성 제고와 가축 방역 강화를 3그룹이 모두 5위 이내의 중요과제로 제시하여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축산물의 가격 경쟁력 제고도 2그룹이 5위 이내의 중요 과제로 제시하여 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표 2-24. 축산관련 지원사업의 향후 추진 과제의 필요성

추진과제 평가항목	정부		업계		학계	
		우선순위		우선순위		우선순위
축산물수급관리	0.814	9	0.858	5	0.736	10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 제고	0.874	1	0.853	6	0.779	9
축산물의 가격 경쟁력 제고	0.861	2	0.860	4	0.788	8
축산식품의 위생안전성 제고	0.858	5	0.877	1	0.859	2
축산의 환경오염 완화	0.834	7	0.825	11	0.845	3
가축 방역 강화	0.860	4	0.871	2	0.873	1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0.804	13	0.846	8	0.65	14
해외 시장 개척	0.805	12	0.680	15	0.633	15
유기(친환경)축산물 생산 촉진	0.809	11	0.797	13	0.671	13
축산 생산부문의 경쟁력 강화	0.861	3	0.852	7	0.796	6
축산물 도축유통의 효율성 제고	0.797	15	0.829	10	0.827	4
축산 가공부문의 경쟁력 강화	0.814	10	0.842	9	0.814	5
축산부문 전문 인재 양성	0.835	6	0.868	3	0.792	7
축산업과 6차 산업의 연계 확대	0.815	8	0.814	12	0.721	11
동물복지 축산업 육성	0.798	14	0.797	13	0.72	12

주: 필요성은 AHP 분석 결과를 수치로 제시한 것으로 절대 필요(0.9), 매우 필요(0.875), 필요(0.833), 약간 필요(0.75), 보통(0.5), 약간 불필요(0.25), 불필요(0.167), 매우 불필요(0.125), 절대 불필요(0.1)의 범위를 가짐.

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성과를 정성적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AHP 분석 등을 시도하였는데,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업의 실제 수혜자들인 업계의 만족 수준이 상당히 높아 사업의 성과를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 9개 세부사업을 3개로 묶은 그룹별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 결과, 조사료 생산기반 육성 사업이 가장 중요한 반면 만족도는 가장 낮아 해당 사업 그룹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어서 그룹 내 세부사업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각각 분석하였는데, 조사료 직접 생산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들 중에는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중요도를 업계와 학계가 가장 높게 제시하였다. 반면, 만족도의 경우 정부와 업계는 각각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으나, 학계는 볏짚 등 부존 자원 활용지원사업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아 서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사업의 경우 추가적인 보완책 검토가 필요하다.
- 조사료 생산기반 육성사업의 세부사업들에 대해 정부와 업계는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시한 반면, 학계는 조사료 전문생산 단지 조성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만족도 분석 결과로는 정부와 업계가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지원사업을 가장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반면, 학계는 TMR 가공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가장 높게 제시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어 관련 사업의 보완이 필요하다.
- 가장 만족도가 높게 제시된 조사료 유통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별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 결과, 3개 그룹 모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가장 높게 제시하였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조사료 유통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 중 가장 중요함과 동시에 사업 성과에 대한 만족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축산관련 지원 사업이 향후 검토하여야 할 추진 과제들의 필요성을 조사하였는데, 축산식품의 위생안전성 제고, 가축 방역 강화, 축산물의 가격 경쟁력 제고 등을 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4.6.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전문가 평가¹³⁾

가. 사업의 목적과 개요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의 목적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가축분뇨를 퇴비 또는 액비 또는 에너지 등으로 자원화 하여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이 지원사업의 근거법으로는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가 있다.

1)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 현황

- 축종별 마리당 1일 가축분뇨 발생량을 보면, 한우가 13.7kg, 젓소가 37.7kg, 돼지가 5.1kg(슬리리돈사 5.1kg, 톱밥깔짚 2.6kg), 닭·오리가 0.12kg, 사슴·양이 0.7kg, 기타 가축은 1.1kg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⁴⁾. 2013년 기준 가축분뇨 총 발생량은 4,724만 톤이다. 이중 양돈 분뇨가 3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한우우가 31.7%, 닭이 14.6%, 젓소가 12.3%를 차지한다.
-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가축분뇨의 발생량도 매년 증가하였다. 가축분뇨는 주로 퇴비나 액비로 자원화되고, 일부는 공공처리장이나 개별 처리시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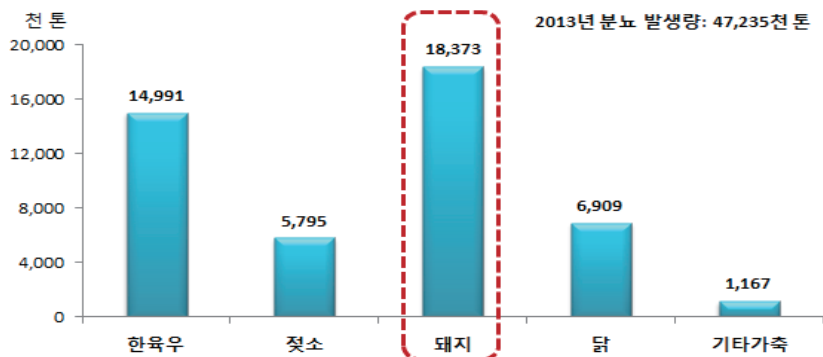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선임연구위원」 작성

14) 농촌진흥청, 2009, 「가축분뇨 발생량 및 주성분 재설정」

정화·방류 처리되었다. 2013년 기준으로 가축분뇨가 퇴비나 액비로 자원화되는 비율이 89.2%이며, 정화·방류 처리되는 비율은 8.6%로 나타났다.

-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이 사업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가축분뇨의 전량을 육상에서 적정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할 수 있는 시설 및 유통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2007년 83%에서 2017년 91%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목표의 달성도를 전체가축분뇨 발생량 중 자원화 비율(%)을 살펴보면, 2011년 87.6%에서 2012년 88.7%, 2013년 89.2%의 실적을 보였다. 목표 달성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2.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2013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 11.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액비 이용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축산경영학회.

표 2-25.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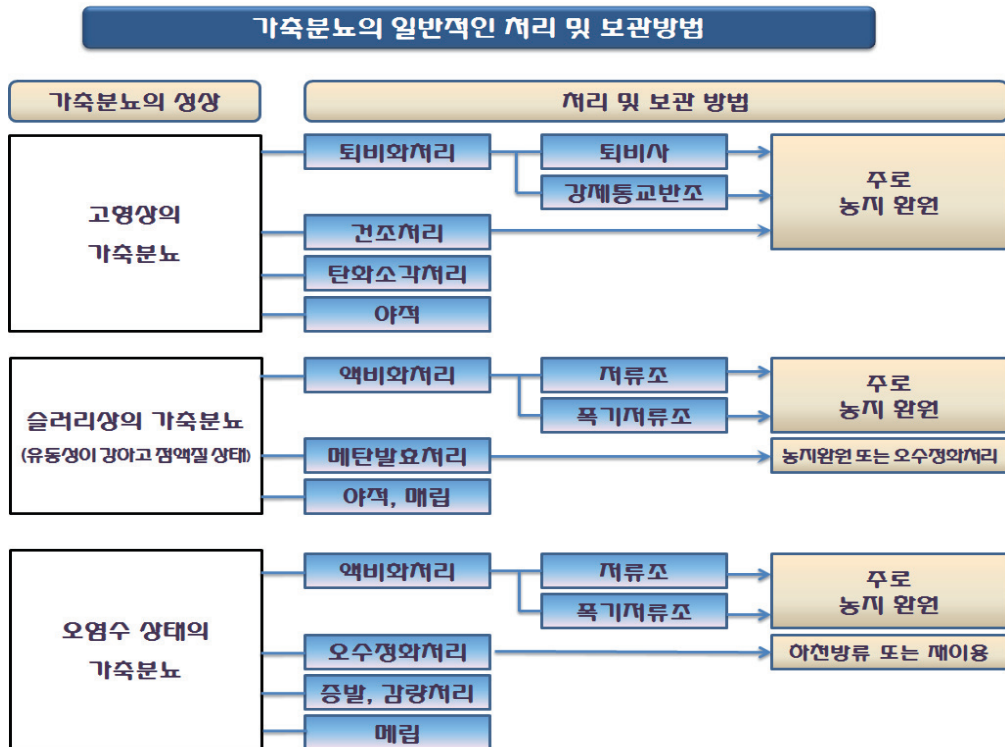
단위: 천 톤

연도	가축분뇨 발생량	자 원 화			정화방류		해양 배출	기타
		소계	퇴비	액비	개별처리	공공처리장		
2006	40,255 (100)	33,298 (82.7)	31,998 (79.5)	1,300 (3.2)	870 (2.2)	2,784 (6.9)	2,607 (6.5)	696 (1.7)
2007	41,417 (100)	34,656 (83.7)	32,862 (79.3)	1,794 (4.3)	894 (2.2)	2,871 (6.9)	2,019 (4.9)	977 (2.4)
2008	41,743 (100)	35,207 (84.3)	32,912 (78.8)	2,295 (5.5)	1,184 (2.8)	2,907 (7.0)	1,460 (3.5)	985 (2.4)
2009	43,703 (100)	37,396 (85.6)	34,742 (79.5)	2,654 (6.1)	1,199 (2.7)	2,973 (6.8)	1,171 (2.7)	964 (2.2)
2010	46,534 (100)	40,286 (86.6)	37,220 (80.0)	3,066 (6.6)	1,427 (3.1)	2,727 (5.9)	1,070 (2.3)	1,024 (2.2)

연도	가축분뇨 발생량	자 원 화			정화방류		해양 배출	기타
		소계	퇴비	액비	개별처리	공공처리장		
2011	42,685 (100)	37,396 (87.6)	34,393 (80.6)	3,003 (7.0)	1,527 (3.6)	2,057 (4.8)	767 (1.8)	938 (2.2)
2012	46,489 (100)	41,236 (88.7)	37,656 (81.0)	3,580 (7.7)	1,999 (4.3)	2,211 (4.8)	— (0)	1,043 (2.2)
2013	47,235 (100)	42,129 (89.2)	38,132 (80.7)	3,997 (8.5)	1,552 (3.3)	2,510 (5.3)	— (0)	1,044 (2.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그림 2-13. 가축분뇨의 일반적인 처리 및 보관 방법 유형화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

- 가축분뇨는 그 상태에 따라 고형상(固形狀)의 가축분뇨와 슬러리상의 가축분뇨 그리고 오염수 상태의 가축분뇨로 구분된다. 고형상의 가축분뇨는 퇴비화 처리 또는 건조처리 등을 통해 주로 농지로 환원된다. 슬러리상의 가축분뇨는 액비화 처리 과정을 거쳐 농지로 환원되고, 메탄발효처리를 통해 농지로 환원되거나 정화처리 된다. 오염수 상태의 가축분뇨는 액비화처리, 정화처리를 거쳐 농지로 환원되기도 하고, 하천으로 방류되거나 재이용되기도 한다.

2)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정책 사업

- 정부의 정책 사업은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사업’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이 있다.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은 가축분뇨를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자연순환 농산물 및 조사료를 생산하여 축산농가에게 공급, 경종과 축산이 상호상생하는 자연순환농업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은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등에 지원함으로써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한 수질 및 토양 오염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의 예산은 2013년 244억 원에서 2014년 310억 원으로 27.0% 증가하였고,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의 예산은 2013년 853억 원에서 2014년 976억 원으로 14.4% 증가하였다.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에서 액비저장조,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액비성분분석기, 액비부숙도판정기는 순수 액비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개별시설, 공동자원화, 자원화조직 관리 및 우수지자체 평가에 대한 지원 중 70~80% 이상이 액비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표 2-26.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정책 사업 개요

사업명		개요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지원내용	·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는 전문경영체에 운영자금 지원(용자) 및 자연순환농업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보조), 축산업 육성 계획수립비 지원 등 - 용자 내용: 출하선급금, 매취자금, 원재료구입비, 외상미수금, 농지임대료, 생산 및 유통 제비용) - 보조 내용: 퇴액비 시범포 운영,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운영, 자연순환농업 우수사례 홍보, 연찬회·심포지엄·포럼 등, 친환경축산 현장 투어·순회교육 등
	지원조건	· 용자 70%(연리 2%, 3년거치 일시상환), 보조 100%
	지원대상 및 자격	·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자연순환농업 추진 전문경영체
	사업기간	· 2007년~계속
가축분 뇨 처리시설 지원	지원내용	·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 개별퇴액비화, 개별정화처리, 공동퇴액비화, 에너지화, 정착준구조개선, 액비저장조,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액비성분분석기, 액비부숙도판정기, 친환경퇴비시설현대화
	지원조건	· 보조, 용자, 지방비: 세부사업내역별로 차등 - 국고보조(30~100%), 지방비(30/50%), 국비용자(20~80%), 자부담 20%
	지원대상 및 자격	· 축산농가, 지역 농·축협,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전문유통업체 등
	사업기간	· 1991년~계속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도 축산부문 예산·기금 운용 계획」.

표 2-27.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 사업별 예산 세부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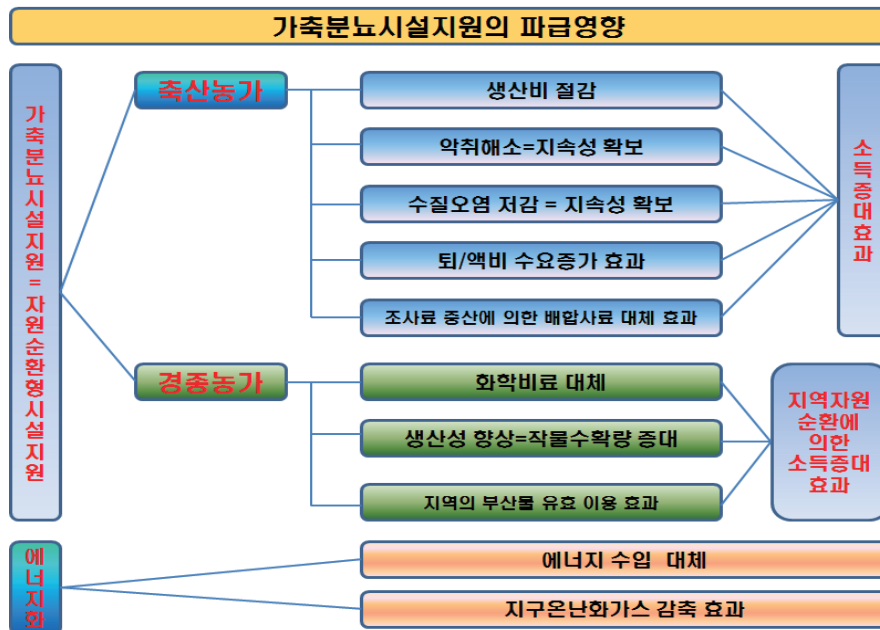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사업명	구분	2012년 결산	2013년	2014년	13년 대비 14년 증감률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사업	계	24,194	24,420	31,000	26.9
	· 자연순환농업활성화(용자)	24,000	24,000	30,800	28.3
	· 자연순환농업교육홍보(보조)	194	220	200	-9.1
	· 축산마스터계획수립(보조)	-	200	-	-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계	79,916	85,274	96,938	13.6
	· 개별시설	20,712	19,488	44,459	128.1
	· 공동자원화	43,875	49,175	36,050	-26.7
	· 정착촌구조개선	1,764	1,764	970	-45.9
	· 액비저장조	5,167	2,380	2,380	0.0
	· 액비유통센터	1,620	1,500	1,500	0.0
	· 액비살포비	5,200	6,047	6,524	7.9
	· 성분분석기	198	120	180	50.0
	· 부속도판정기	1,230	150	225	50.0
	· 자원화조직 관리 및 우수지자체 평가	150	150	150	0.0
	· 친환경퇴비시설현대화	-	4,500	4,500	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도 축산부문 예산·기금 운용 계획」.

나. 가축분뇨시설지원사업의 성과 계측

그림 2-14.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의 파급영향 유형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의 방향은 가축분뇨 자원화 즉, 경축환원 또는 자원순환형 (또는 자연순환형) 확대이다. 사업의 성과 계측에 있어, 축산농가 파급영향과 경종농가 파급영향으로 나누어 계측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원화에 의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경제적 파급영향과 자원순환형 처리의 파급영향은 중복 계산의 우려가 있어, 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가축분뇨 퇴·액비화의 영향 분석

〈축산농가 파급 영향〉

①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효과

-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효과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예산으로 효과 대체가 가능하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고정비 성격의 정부지원액¹⁵⁾은 456,809백만 원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1년 평균 913.6억 원 수준이다.

표 2-28. 연도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투융자 실적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130,410	127,890	114,660	140,814	153,368
국 고	53,142	50,524	42,244	46,629	45,417
융 자	25,950	27,600	27,075	38,645	51,521
지방비	42,812	41,646	38,841	44,770	45,660
자부담	8,505	8,120	6,500	10,770	10,770

주: 2014년은 계획예산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② 악취해소 및 수질오염 저감으로 인한 지속성 확보 효과

- 계측을 위해서는 먼저 지원 농가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퇴액비 자원화율이 2006년 82.7%에서 2013년 89.2%로 증가하였으므로, 이를 처리물량으로 환산하면 33,298천 톤에서 42,129천 톤으로 7년간 차이는 8,831천 톤이다.

15) 고정비성격의 정부지원액이란, '국고 지원분 전액 + 지방비 전액 + 융자액의 이차보전을 3%를 적용한 금액'으로 함

이는 2013년 총발생량 대비 21%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측을 위해 축종에 관계 없이 고르게 지원되었다고 보고, 각 축종별로 동일하게 21.0%를 적용하였다.

- 2013년 기준 자원화시설 수혜자의 연간 총소득은 ‘같은 해 축종별 총생산액 × 축종별 소득률 × 21.0%’를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여 얻은 자원화시설 수혜자의 연간 총소득은 4,665.8억 원/년이었다.

표 2-29. 악취해소 및 수질오염 저감으로 인한 지속성 확보 효과(수혜자 소득 증진)

구분	총생산액(억 원)	소득률(%)	지원농가수 비율	총소득(억 원)	잠재소득(억 원)
한우	36,820	11.8	동일하게 21% 적용	912.4	680.4
돼지	50,100	19.4		2,041.1	1,725.4
우유	20,740	14.1		614.1	483.4
육계	21,710	14.5		661.1	524.3
계란	16,390	12.7		437.1	333.9
계	145,760	14.5		4,665.8	3,747.5

주: 축종별 소득률은 농협중앙회 상위 10% 성적 적용(농협중앙회, 축산업생산기반강화대책, 2014.10)

- 여기서 가축분뇨의 부적절한 처리로 폐업을 하게 된 농가가 폐업 후 은퇴 시 까지 얻을 수 있는 잠재 소득을 구하기 위해 소득률 3%를 적용하면, 지원이 없었을 경우 폐업 농가의 투자손실은 ‘호당 투자액 × 폐업 시 손실비율(30% 가정)’으로 총 7,986억 원/년이 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표 2-30. 악취해소 및 수질오염 저감으로 인한 지속성 확보 효과(폐업자 잠재소득 감안)

구분	두당 투자액 (만 원)	호당 평균 두수 (두, 수)	호당투자액 (만 원)	폐업손 실비율	호당 손해액 (만 원)	사육 호수 (호)	적용 비율	총손실 (억 원)
한우	144.0	55.74	8028.1	동일 하게 30% 적용	2408.4	109,000	동일 하게 21% 적용	5,512.9
돼지	21.2	1836	38974.4		11692.3	5,315		1,305.0
우유	292.6	64.2	18782.0		5634.6	5,768		682.5
육계	0.06	287999	17280.2		5184.1	3,434		186.9
계란	0.96	28615	27601.3		8280.4			298.6
계	-	-	-	-	-	123,517	-	7,985.9

- 주 1) 육계와 산란계농가 각각 50%씩 적용(2014년 9월 가축동향)
 2) 통계청, ‘축산물생산비, 2013 적용
 3) 투자액은 건물 및 대농구평가액을 적용(통계청, 축산물생산비)

- 사업효과 계측의 결과는 연간 단위로 산출되었다. 이 단계에서 폐업 후 은퇴까지 얼마만큼의 기간을 더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201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 농가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4.4세(201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이며, 농협조사연구소에 의하면, 축산농가의 향후 영농기간은 10.6%(10년 이내)라고 발표한 바 있다¹⁶⁾. 이러한 자료적 근거에 따라 은퇴시까지의 적용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하여 적용하면, 7조 9,859억 원이 된다.

③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 증가 효과¹⁷⁾

초기 균형 값 설정

- 초기 균형물량으로는 가축분뇨 퇴비물량인 3,200만 톤과 액비물량인 130만 톤을 설정하였다. 초기 균형가격은 퇴비의 경우 20kg당 1,000원(벌크 기준)을 적용하고, 액비는 톤당 수거에서 살포 때까지 14,510원을 잠재시장가격으로 설정하였다.

표 2-31. 퇴·액비의 초기 균형물량 및 균형가격 설정

구분	퇴 비	액 비
균형물량(천 톤)	31,998	1,300
균형가격(원/톤)	50,000	14,510

주: 액비는 가축분뇨 수거에서 액비화하여 살포시까지 톤당 14,510원(수거료 4,574원+살포비 4,269원+제조원가 5,667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수요변화

- 퇴·액비 생산량 및 수요량의 변화는 사육두수의 증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2010년 정부발표에 의하면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 중 해양배출 및 정화 후 방류되는 물량이 약 14%이며, 여기서 공공처리 물량을 제외한 약 10% 물량(460만 톤)이 자원화로 전환될 수 있는 물량으로 추정된다.
- 지역별 가축분뇨 업무를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2015년까지 액비수요량은 2010년(307만 톤)보다 66%(20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액비수요를 고려한 퇴비수요량은 2015년까지 추가적으로 최대 257톤(6.9%) 정도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6) 농협경제연구소, 2014. '영농승계자 확보가 축산농가의 경영행태에 미치는 영향'

17) 이 부분은 정민국 외, 2013, 지역단위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모델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진흥청의 연구결과에서 발췌한 것임.

- 분석 결과, 2010년 이후 퇴비수요는 2.1%증가하고, 액비수요는 66%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¹⁸⁾.

표 2-32. 퇴·액비 수요증가 예상치 및 퇴·액비별 자원화 물량

구분	자원화 물량	
	퇴 비	액 비
수요증가 예상치(A)	6.9%	66.0%
자원화 기술 기여율(B)	30.0%	-
R&D기여 수요증가(A×B)	2.1%	66.0%

자료: 정민국 외, 2013.1, 「지역단위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모델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진흥청, p.72

가축분뇨 퇴·액비에 대한 탄력성

- 허 덕 등(2001.3)에 의하면 경종농가를 155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퇴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8941이며, 표본오차는 ± 0.2645 인 것으로 추정되었다¹⁹⁾. 퇴비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퇴비 수요처별·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도작보다 밭작물 수요의 가격탄성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충청과 경기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탄성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액비수요 역시 퇴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액비수요의 가격탄성치는 퇴비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 현재의 가축분뇨 자원화 시장에서 퇴비 및 액비의 공급은 일정한 생산비만 보장되면 주어진 가격 수준에 대해 무한탄력적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이로 부터 발생하는 생산자잉여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사회적 편익 측정 결과

- 가축분뇨 퇴액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퇴·액비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은 6.7% 하락하고 퇴비 균형물량은 7.9% 증가하고, 액비 균형물량은 3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정민국 외, 2013.1, 「지역단위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모델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진흥청, p.72

19) 허 덕, 정민국, 2001. “축분비료에 대한 수요반응과 이용 활성화 방안.” 한국축산경영학회. 한국농업정책학회. 「농업경영. 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표 2-33. 가축분뇨 자원화의 퇴·액비 균형물량 변화분

구분	퇴 비(A)	액 비(B)
R&D기여 수요 변화분	1.9%	26.4%
균형가격 변화분	-6.7%	-6.7%
균형물량 변화분	7.9%	32.4%

주: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8941로 가정함.

자료: 정민국 외, 2013.1, 「지역단위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모델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진흥청

- 균형 가격 및 물량 변화분을 균형물량과 균형가격으로 환산하면 퇴비의 새로운 균형물량은 34,523천 톤으로 균형가격은 톤당 46,650원이 되며, 액비의 새로운 균형 물량은 1,721천 톤으로 균형가격은 톤당 13,538원으로 분석되었다.

표 2-34. 퇴·액비의 균형물량과 균형가격 환산

구분	2006년		새로운 균형점	
	퇴 비	액 비	퇴 비	액 비
균형물량(천톤)	31,998	1,300	34,523	1,721
균형가격(원/톤)	50,000	14,510	46,650	13,538

자료: 정민국 외, 2013.1, 「지역단위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모델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진흥청

- 사회적 편익 계측결과 가축분뇨 자원화로 인해 퇴비와 액비 시장에서 새롭게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회편익은 219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2-35. 사회적 편익 추정

단위: 억 원

기존 사회편익			새로운 균형점 (사회편익)			증감
퇴비	액비	계(A)	퇴비	액비	계(B)	B-A
4,800	57	4,856	5,005	70	5,075	219

자료: 정민국 외, 2013.1, 「지역단위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모델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진흥청,

④ 조사료 증산 효과(배합사료 대체 효과)²⁰⁾

- 배합사료 대체로 인한 농가부담 절감효과 계측결과, ‘배합사료 구입 감소액 - 조사료 구입비용 증가액’은 ‘3,664억 원 ~ 3,080억 원’으로 연간 총 584억 원으로 계측되었다.

20) 허 덕, 김연중, 신용광, 2009.6.25., “녹색동물자원산업의 경제적 효과”, 「한국동물자원과학회 하계 심포지움 발표자료」를 참조하기 바람.

표 2-36. 소(한우·젖소) 사료 수급 비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①배합사료량(천톤)	6,633	6,168	5,728	5,230	4,697	4,145
한 우	4,849	4,492	4,102	3,660	3,169	2,665
젖 소	1,784	1,676	1,626	1,570	1,528	1,480
②배합사료가격(천 원/톤)						
한 우	276	352	352	352	352	352
젖 소	322	411	411	411	411	411
배합사료비(억원) ① × ②	19,128	22,700	21,122	19,336	17,435	15,464

주 1) '07년 대비 '08년 배합사료가격은 27.7% 인상 적용

2) 배합사료 절감액 : 3,664억 원(19,128억 원 - 15,464)

3) 조사료 구입비 : 3,080억 원(생산 1,400천톤 × 구입비 220천 원/톤)

자료: 허 덕, 김연중, 신용광, 2009.6.25., “녹색동물자원산업의 경제적 효과”, 「한국동물자원과학회 하계심포지움 발표자료」

〈경종농가 파급영향²¹⁾〉

① 유형 1 (수도작+양돈)의 경종농가 소득 변화

○ 수도작과 축산(양돈) 간에 물질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작 농가는 재배 면적이 현재 보다 10% 증가한 18,436ha이며, 돼지사육두수는 60%이상 감소한 98,390두이다. 수도작에서 부산물 이익은 수도작 재배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 2,028톤 중에서 자체생산이 867톤이며 톤당 가격을 26,467원을 적용하면 22,947천 원이 된다. 양돈 농가에서 부산물 이익은 돼지사육과정에서 발생한 분뇨를 성분량 톤당 가격을 1만 원으로 수도작 농가에 1,161톤을 판매하면 11,610천 원의 이익이 발생된다.

○ 기존의 재배면적과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부산물의 성분량 “N”이 물질 균형을 이루었을 때 소득을 비교해 보았다. 기존의 수도작 소득은 기존 수도작 재배면적에 ha당 소득을 곱해서 915억 원이 된다. 균형조건하에서 수도작 농가는 부산물이익을 더하면 1,007억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종농가의 기존소득과의 차이는 연간 91.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21) 이 부분은 허 덕, 김연중, 신용광, 2009.6.25., “녹색동물자원산업의 경제적 효과”, 「한국동물자원과학회 하계심포지움 발표자료」에서 발표한 내용 중 발췌한 것임.

표 2-37. 소득변화 분석 결과(유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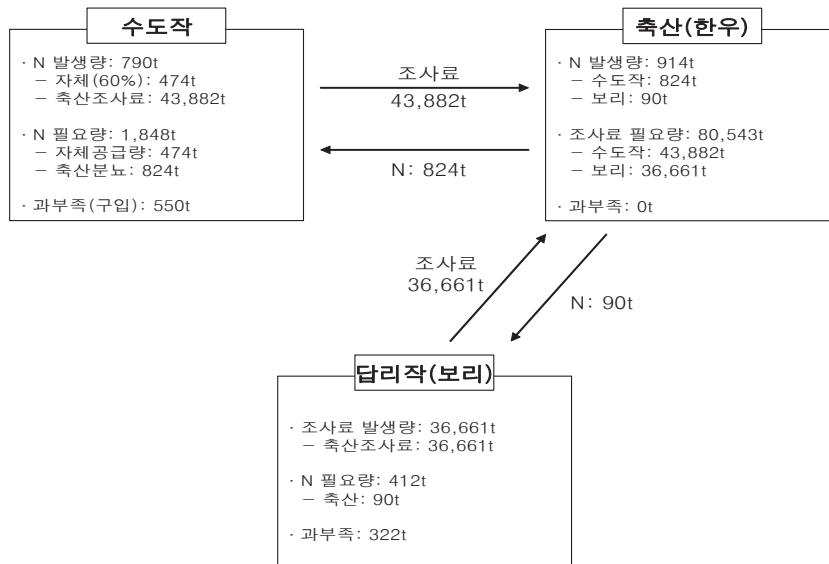
구분		재배면적(ha) 사육두수(두) (A)	소득(천 원/ha) 소득(천 원/두) (B)	부산물이익 (천 원) (C)	소득(억 원) (A×B+C)
수도작	기존	16,760	5,458	-	914.7
	순환	18,436	5,458	22,947	1,006.5
양돈	기존	247,180	94,993	-	234.8
	순환	98,390	94,993	11,610	93.6
기존과 순환비교					-49.5

자료: 허 덕, 김연중, 신용광, 2009.6.25., “녹색동물자원산업의 경제적 효과”, 「한국동물자원과학회 하계심포지움 발표자료」

② 유형 2 (수도작 + 한우 + 보리)의 경종농가 소득변화

- 수도작, 축산(한우), 답리작(청보리) 간에 물질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작 농가는 재배면적이 현재보다 40ha 증가한 16,800ha이고, 한우 사육두수는 5.0% 증가한 44,746두이다. 답리작 재배면적은 약 5배 증가한 4,526ha이다.

그림 2-15. 자원순환 분석 결과(유형 2)



자료: 허 덕, 김연중, 신용광, 2009.6.25., “녹색동물자원산업의 경제적 효과”, 「한국동물자원과학회 하계심포지움 발표자료」

- 수도작에서 부산물 이익은 수도작 재배에 필요한 474톤을 자체적으로 공급받고, 자체적으로 공급된 474톤에 톤당 가격을 26,467원을 적용하면 12,545천 원이

절약되고, 한우농가에게 조사료 43,882톤을 kg당 1,000원에 판매하여 43,882천 원의 추가 소득을 얻게 된다. 한우 농가는 한우 사육과정에서 발생한 분뇨를 성분량 톤당 1만원으로 수도작 농가에 824톤을 판매하면 8,240천 원의 이익이 발생되며, 답리작 농가는 한우 농가에게 36,660톤을 판매하여 36,660천 원의 소득을 추가로 얻게 된다.

- 기존의 수도작, 한우, 답리작 소득을 비교해 보았다. 기존의 수도작 소득은 기존 수도작 재배면적에 ha당 소득을 곱해서 915억 원으로 부산물 이익을 더한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한우 농가는 사육두수 증가로 소득이 561억 원에서 589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답리작은 19억 원에서 91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지역 전체적으로는 103억 원 추가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수도작과 답리작을 합한 소득의 차이는 74.4억 원이었다.

표 2-38. 소득변화 분석 결과(유형 2)

구분		재배면적(ha) 사육두수(두) (A)	소득(천 원/ha) 소득(천 원/두) (B)	부산물이익 (천 원) (C)	소득(억 원) (A×B+C)
수도작	기존	16,760	5,458	—	914.8
	순환	16,800	5,458	12,545 43,882	917.5
한우	기존	42,615	1,317	—	561.1
	순환	44,746	1,317	8,240	589.3
답리작	기존	982	1,317	—	18.9
	순환	4,526	1,920	366,600	90.6
기존과 순환비교					1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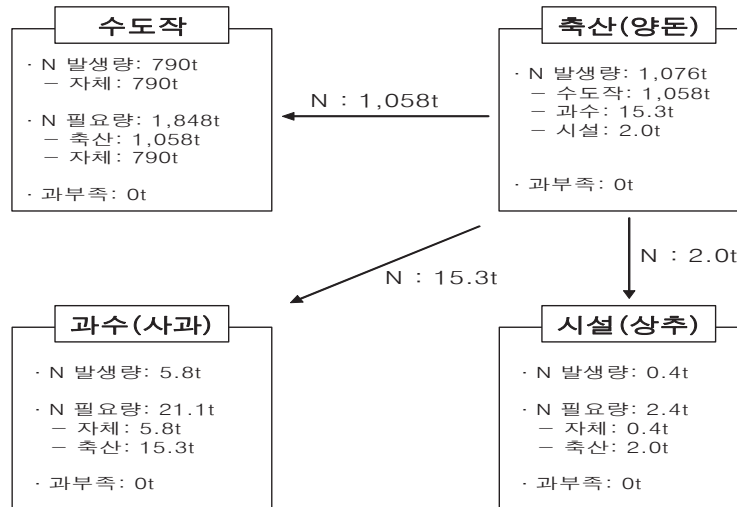
주: 조사료 가격은 400kg 곤포를 40만원에 판매함으로 kg당 1,000원으로 환산함.

자료: 허 덕, 김연중, 신용광, 2009.6.25., “녹색동물자원산업의 경제적 효과”, 「한국동물자원과학회 하계심포지움 발표자료」

③ 유형 3 (수도작 + 양돈 + 사과 + 시설상추)의 경종농가 소득변화

- 수도작에서 부산물 이익은 수도작 재배에 필요한 790톤을 자체적으로 공급받고, 자체적으로 공급된 790톤에 톤당 가격을 26,467원을 적용하면 20,909천 원이 절약된다.

그림 2-16. 자원순환 분석 결과(유형 3)



자료: 허 덕, 김연중, 신용광, 2009.6.25., “녹색동물자원산업의 경제적 효과”, 「한국동물자원과학회 하계 심포지움 발표자료」

표 2-39. 소득변화 분석 결과(유형 3)

구분		재배면적(ha) 사육두수(두) (A)	소득(천 원/ha) 소득(천 원/두) (B)	부산물이익 (천 원) (C)	소득(억 원) (A×B+C)
수도작	기존	16,760	5,458	—	914.8
	순환	16,800	5,458	20,909	917.2
양돈	기존	247,180	94.9	—	234.8
	순환	91,115	94.9	10,753	86.6
사과	기존	211	32,052	—	67.6
	순환	422	32,052	466	135.3
시설상추	기존	12	36,058	—	4.3
	순환	24	36,058	24	8.7
기존과 순환비교					-73.7

자료: 허 덕, 김연중, 신용광, 2009.6.25., “녹색동물자원산업의 경제적 효과”, 「한국동물자원과학회 하계심포지움 발표자료」

- 양돈 농가는 양돈 사육과정에서 발생한 분뇨를 성분량 톤당 1만 원으로 수도작 농가에 1,058톤을 판매하면 소득은 10,580천 원, 과수농가에 15.3톤을 판매하여 153천 원, 시설농가에 2톤을 판매하여 20천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 사과 농가는 사과 재배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 21.1톤 중에서 자체적으로 5.8톤을 절약할 수 있어 466천 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시설 상추 농가는 0.4톤을 절약할 수 있어 2만 4천 원을 절약할 수 있다.
- 소득분석결과, 수도작과 사과, 시설상추의 소득차이는 합계 연간 74.5억 원이

증가하였지만, 양돈소득의 감소로 지역 전체적으로는 74억 원의 소득이 감소하였다. 이는 양돈 분뇨를 과부족 없이 0이 되도록 모형이 구축되어 있어, 돼지 사육두수가 크게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지역소득이 감소한 결과를 가져온다.

2) 가축분뇨 에너지화의 효과 분석

〈에너지 수입대체효과〉

○ 가축분뇨는 온도, 유기물 농도 등의 조건을 최적화하여 메탄 발효시키면 메탄 가스가 발생한다. 메탄가스는 수분, 부식성 가스(H_2S)를 제거한 다음에 보일러나 발전기의 연료로 이용되며 온수, 증기 또는 전기로 전환하여 필요시설에 공급할 수 있다.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에너지로 환산하는 방법은 산업자원부(2006)에서 제시²²⁾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BOD발생량 = 가축분뇨 발생량 × BOD발생원단위

$$= 5,100\text{만 톤} \times 30\text{kgBOD/kl} = 153,000\text{만kgBOD/년}$$
- 메탄가스발생량 = BOD발생량 × 메탄가스발생원단위 × 메탄반응률

$$= 153,000\text{만kgBOD/년} \times 0.35\text{m}^3/\text{kgBOD} \times 0.80$$

$$= 41,840\text{만m}^3/\text{년}$$
- 에너지발생량 = 메탄가스발생량 × 메탄발열량원단위

$$= 41,840\text{만m}^3/\text{년} \times 8,500\text{kcal/m}^3 = 3.6\text{조kcal/년}$$

$$= 36\text{만toe/년}$$

※ 가축분뇨의 에너지 환산에 이용된 원단위 자료

- 가축분뇨 발생량(2004년 기준 환경부 백서) = 약 5,100만톤
- 가축분뇨에 의한 BOD발생 원단위 = $30\text{kgBOD/kl} = 30,000\text{mg/L}$
- BOD에 의한 메탄가스발생 원단위 = $0.35\text{m}^3/\text{kgBOD}$
- 메탄 반응률(제거율) = 0.80
- 메탄발열량 원단위 = $8,500\text{kcal/m}^3$

22) 산업자원부, 2006.8.24., '골칫거리 가축분뇨가 에너지자원으로 활용된다.'(보도자료)

- 또한 가축분뇨에 의한 메탄가스의 에너지를 원유로 대체시키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메탄가스에 의한 에너지 1toe는 원유 7.41bbl과 동일한 발열량을 지니므로 전국의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36만 toe는 2,667,600bbl의 원유대체효과가 있다. 만약 수입되는 원유가격이 80달러/bbl이고 환율이 1,300원/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36만toe는 원유 2,667,600bbl에 상당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2,774억 원의 원유 수입대체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구온난화가스 감축효과〉

-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가스 발생량은 가축분뇨 발생량에 메탄함량을 적용하고 이를 메탄비중과 지구온난화 지수를 적용하여 추정한다.
 - 지구온난화 가스 감축량=바이오가스 발생량×메탄함량×메탄비중×지구온난화 지수
 $= 41,840\text{만 m}^3/\text{년} \times 65\% \times 0.714\text{kg/m}^3 \times 21^{24}) = 4,077,768\text{톤CO}_2/\text{년}$
- 지구온난화 가스 가격은 배출권의 종류, 사업위험, 사업성, 적응메타니즘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EU ETS 참여기업의 배출권에 대한 균형가격은 20~25유로/톤CO₂로 조사되었다.
 - 지구온난화 가스 감축효과 = 지구온난화 가스 감축량 × 가격
 $= 4,077,768\text{톤CO}_2 \times 25\text{달러} \times 1,300\text{원} = 1,325\text{억 원}$

다. 요약 및 시사점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축산업과 경종농업의 연계 즉,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에 의해 축산업과 경농농업이 성장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의 효과를 퇴·액비 자원화 효과와 에너지자원화로 나누어, 퇴·액비자원화에 의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효과, 지속성 확보 효과,

23) 1kg몰의 기체는 0°C, 1기압 상태에서 약 22.414m³의 부피를 갖으며, 메탄 분자량이 16이므로 메탄 1kg몰은 약 16kg이 된다. 따라서 메탄 비중은 $16\text{kg} \div 22.414\text{m}^3 = 0.71383\text{kg/m}^3$ 가 됨.

24) 온실가스별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하여 각 가스별 기여정도를 명시한 것이다. 각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가스별 지구온난화 지수를 고려하여 이산화탄소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지구온난화 지수는 1이며, 메탄은 21, 아산화질소는 310, 수소불화탄소는 150~11,700이며, 과불화탄소는 6,500~9,200, 육불화황은 23,900임.

퇴·액비 수요 증대효과, 조사료 증산에 의한 배합사료 대체효과를 각기 적절한 조건 가정 하에 계측을 시도하였다. 또한, 지역의 자원순환 축산업이 영위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조사지역(정읍)을 대상으로 경종농가의 소득증진 효과를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에너지 자원화의 효과는 에너지 수입대체효과, 지구온난화가스 감축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의 효과 중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축산농가의 지속성 확보 효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에너지화에 의한 수입대체 효과와 지구온난화가스 감축효과도 크게 나타났다.
- 축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지만, 투자비용이 막대하여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가축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유지 내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축산업은 CO₂ 배출의 최소화 등 친환경적으로 축산을 영위하면서 성장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표 2-40. 계측 결과의 요약

단위: 억 원/년

퇴액비화							에너지화	
축산농가				경종농가(사례지역 분석)				
생산비 절감	지속성 확보	수요 증대	배합사료 대체	유형1	유형2	유형3	수입대체	온난화 가스감축
913.6	7,985.9	219	584	91.8	74.4	74.5	2,774	1,325

주: 각 효과별로 다른 상황을 가정하였으므로, 각 효과의 합은 성립하지 않음.

2.4.7. 소결

- **친환경축산지원** 정책의 시행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조사료 및 경종작물에 공급하는 자연순환농업을 구현하고 친환경축산을 확산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 친환경축산지원 사업군의 6개 성과지표(5개 사업) 가운데 목표 대비 성과를 달성한 지표는 3개, 미달성 2개, 목표 미설정 혹은 결과 미계측 지표가 1개였다.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소 사육두수 감소와 지방재정 부담 증가 등으로 사업수요가 감소하면서 ‘조사료 자급률’은 전년 수준에 머물렀으며, ‘조사료재배면적’은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 2014년 ‘조사료 자급률’은 전년과 동일한 82%였으며, ‘조사료재배면적’은 2013년보다 1천 ha 감소한 297천 ha였다.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내역사업 중 지방비 부담이 포함된 다수의 사업이 존재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AHP 활용) 결과, 사업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조사료 생산기반 육성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아 해당 사업 그룹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조사료생산기반육성의 평균 중요도는 0.488, 조사료유통지원 0.268, 조사료직접생산지원 0.244로 나타났다(세 사업의 중요도 합은 1).
 - 조사료유통지원의 평균 만족도는 0.682, 조사료직접생산지원 0.664, 조사료생산기반육성 0.621로 나타났다(절대만족 0.9 ~ 절대 불만 0.1).
 - 우리나라 축산관련 지원 사업의 향후 방향에 대한 조사 결과, 축산식품의 위생 안전성 제고와 가축방역 강화를 세 그룹 모두에서 5위 이내의 중요과제로 제시하였다.
-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과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의 시행으로 ‘퇴액비 사용량’은 증가하고 ‘가축분뇨 자원화율’은 상승하는 등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개별농가 대상 심층면담 조사 결과 축산농가의 필수 시설인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경영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퇴액비 사용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4년에는 5,034천 톤까지 증가하였고, ‘가축분뇨자원화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89.7%를 달성했다.
 - 심층면담 조사 결과, 개별농가는 액비 저장능력향상, 체계적 설비 가능 등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공동자원화 시설의 경우, 환경규제, 가축분뇨의 수급불균형 등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수행한 결과, 사업의 효과 중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축산농가의 지속성 확보 효과였으며, 다음으로 에너지화에 의한 수입대체 효과와 지구온난화가스 감축, 생산비 절감, 조사료 증산(배합사료 대체) 효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축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유지 내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CO₂ 배출의 최소화 등 친환경적으로 축산을 영위하면서 성장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 지속성 확보 효과 7,986억 원 → 수입 대체 2,774억 원 → 온난화가스 감축 1,325억 원 → 생산비 절감 914억 원 → 조사료 증산 584억 원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시행으로 친환경축산물 생산량 증가와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친환경주요축산물생산량비중’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4년에 전년(21.1%) 대비 감소하였으나, 목표 대비 115.7%의 달성률을 보였다.

2.5. 가축방역

2.5.1. 정책목표 및 개요

- 가축방역 정책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발생시 확산 차단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구제역, AI, 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질병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여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
- 가축방역의 세부사업별 목적,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 예산과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41. 가축방역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사업명		개요
가축방역 (시도가축방역)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의 발생·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
	지원내용	▪ 가축전염병의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백신·검진약품·기생충 구제제 구입 및 검사장비 구입 등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시도(시군구), 가축위생시험소 및 대한수의사회 등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1,020억 원 ▪ 실적 : 1,020억 원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질병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 주요 가축 전염병 방역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 및 경쟁력 제고
	지원내용	▪ 방역본부 운영비, 인건비, 자산취득비
	지원 대상 및 자격	▪ 가축위생방역본부, 8도본부, 40출장소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213억 원 ▪ 실적 : 208억 원

2.5.2. 성과지표

- 가축방역 정책으로 ‘가축방역(시도가축방역)’, ‘가축위생방역본부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 성과지표를 평가에 활용하였다.

표 2-42. 가축방역 분야 성과지표

사업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가축방역(살처분보상금, 시도가축방역)	주요가축전염병발생 감소율(%)	$\{(\text{최근 3년간 평균 발생건수} - \text{당해연도 발생건수}) / \text{최근 3년간 평균 발생건수}\} \times 100$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구제역검사물량	구제역 검사 실적

2.5.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 가축방역사업

-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건수가 감소하면서 ‘주요 가축 전염병 발생 감소율’이 20~40% 수준을 보였으나, 2014년 FMD 및 HPAI가 수시로 발생하면서 가축질병 발생 건수가 증가하였다.
 -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가축전염병 발생이 2014년에는 기준년도 대비 36.7% 증가하였다.
 - 2014년 ‘가축방역사업’ 예산은 FMD 및 HPAI 발생으로 증가하였으며, 100% 집행되었다.

□ 가축위생방역본부지원사업

- 2011년 이후 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의 추진을 통해 2013년 구제역 비발생을 유지하였으나, 2014년 FMD 및 HPAI가 재발하면서 가축위생방역의 효율성 제고 및 기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2014년 ‘가축위생방역본부지원사업’ 예산은 2013년 대비 5억 원 증가한 213억 원이며, 그 중 97.7%인 208억 원이 집행되었다.

표 2-43. 가축방역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가축방역(시도가축방역)	주요가축 전염병 발생 감소율(%)	목표	3.0	31.0	29.5	35.0	32.0	-	-
		실적	43.0	31.0	29.5	19.3	33.5	25.5	-36.7
		달성률(%)	1,433	100.0	100.0	55.1	104.7	-	-
	예산		-	-	-	1,575	803	783	1,020
	실적		-	-	-	1,630	957	757	1,020
	집행률(%)		-	-	-	103.5	119.2	96.7	100.0
가축위생방역본부지원	구제역 검사물량(건)	목표	9,572	9,850	9,532	60,500	67,500	32,256	32,304
		실적	9,770	10,175	15,819	85,222	71,192	33,696	32,348
		달성률(%)	102.1	103.3	166.0	140.9	105.5	104.5	100.1
	예산		-	-	-	223	198	208	213
	실적		-	-	-	215	193	206	208
	집행률(%)		-	-	-	96.4	97.5	99.0	97.7

- 가축방역 사업군의 2개 성과지표(2개 사업) 가운데 목표 대비 성과를 달성한 지표는 1개, 미달성 1개였다.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는 ‘주요전염병발생감소율’이었다.
-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가축전염병 발생이 2014년 FMD 및 HPAI가 수시로 발생하면서 기준년도 대비 36.7% 증가하였다.

2.5.4. 시도가축방역사업 전문가 평가²⁵⁾

가. 시도가축방역사업 개요

- 본 사업의 목적은 구제역·HP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예방·검진약품, 방역기자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하고 수의사 자질향상을 통한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하는 데 있다.
- 시도가축방역사업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근절하기 위한 예방약과 함께 검진·병성감정, 그리고 이를 위한 장비 등을 지원한다.
- 본 사업은 1945년부터 시작되어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총 5,198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다.
- 지원내역은 긴급방역비, 공중방역 수의사 직무교육비·여비, 가축혈청검사·병성감정, 조달수수료 등은 100% 국비로 지원되며, 예방주사·기생충구제 등은 국비 70%, 지방비 30%, 광우병 진단키트 구입비, 시험소 방역보조 요원, 가축방역·소독차량 및 검사장비 구입 등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되고 있다.
- 사업의 시행주최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며, 일부 대한수의사회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집행한다.

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인배 연구위원」 작성

표 2-44. 시도가축방역사업 내용

구분	내용
사업내용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조기 근절을 위한 예방약, 검진·병성감정 및 장비 등 지원 추진
사업기간	'45~계속
총사업비	'13년까지 기 투자액: 5,198억 원
지원조건	① 긴급방역비, 공중방역 수의사 직무교육비·여비, 가축혈청검사·병성감정, 조달수수료(국비 100%) ② 예방주사·기생충구제(국비 70%, 지방비 30%) ③ 광우병 진단키트 구입비, 시험소 방역보조 요원, 가축방역·소독차량 및 검사장비 구입 등(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대한수의사회,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도 축산부문 예산·기금 운용계획

○ 사업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770억 원으로 매년 700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 사업별 금액을 살펴보면 긴급방역비, 교육비 등 시도가축방역으로 약 4.2%인 33억 원이 소요되며, 예방주사 및 방역장비 지원이 95.8%인 738억 원으로 대부분 지자체를 통해 지원되고 있다.

표 2-45. 시도가축방역사업 예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율
□ 시도가축방역사업	72,501	52,951	75,094	78,313	77,049	100.0
○ 시도가축방역	11,759	2,502	2,502	4,752	3,252	4.2
· 긴급방역비	11,513	2,253	2,253	2,003	2,003	2.6
·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등	38	41	41	41	41	0.1
· 수의사 연구교육 등	208	208	208	2,708	1,208	1.6
○ 시도가축방역(지자체)	60,742	50,449	72,592	73,561	73,797	95.8
· 예방주사 등 지원	55,720	43,000	64,541	66,061	69,047	89.6
· 방역장비 등 지원	5,022	7,449	8,051	7,500	4,750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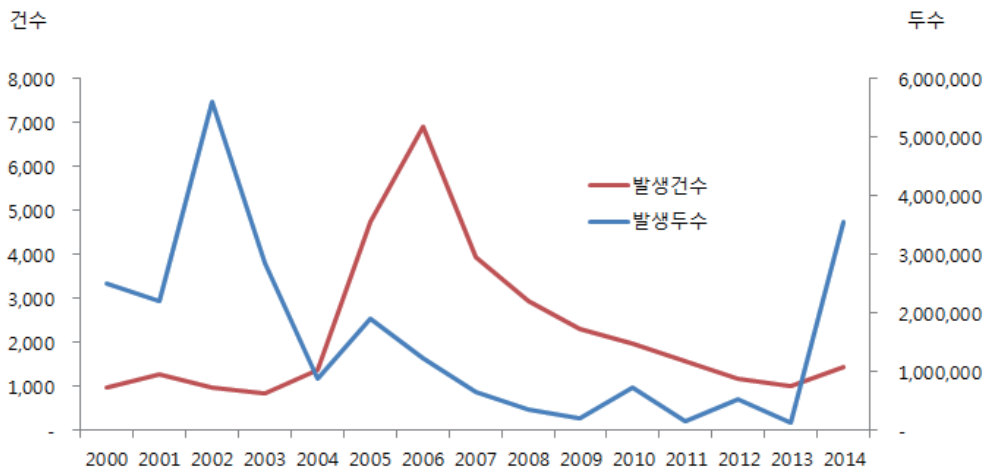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도 축산부문 예산·기금 운용계획

나. 가축질병 발생 현황

- 우리나라 법정가축질병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법정가축질병의 발생건수는 2000년에 983건이던 것이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4,743건과 6,909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였다. 2014년에는 결핵병과 HPAI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여 전체 질병발생건수가 소폭 증가하였다.

-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15년간 발생건수 중 소와 돼지 등 우제류에 발생한 건수는 총 3만 1,472건이었으며, 가금류의 발생건수는 1,953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6%수준이다.
- 가축질병발생 두수는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250만 두와 220만 두이던 것이 2002년 560만 두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3년에는 12만 3천 두로 감소하였다.
- 질병발생 두수의 대부분은 가금류이며, 2002년에 가금티푸스와 뉴캐슬병으로 인해 발생두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2-17. 법정가축질병 발생 추이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KAHIS.

-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에 발생한 주요법정가축질병별 발생을 살펴보면 우제류(소, 돼지 등)는 브루셀라병이 가금류(닭, 오리 등)는 티푸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지난 15년간 브루셀라병은 22,997건이 발생하여 전체 우제류 질병중 73.1%를 차지하였으며, 결핵병이 5,818건으로 18.5%를 차지했다.
- 발생두수 기준으로는 브루셀라병이 9만 2,156마리로 46.5%로 가장 많이 걸렸으며,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이 3만 4,428마리로 17.4%, 돼지오제스키병이 3만 582마리로 15.4%순으로 나타났다.

- 가금류의 질병으로 가금티푸스가 1,205건으로 전체의 61.7%를 차지하였으며, HPAI와 뉴캐슬병이 각각 361건(18.5%)과 360건(18.4%)을 차지하고 있다.
- 발생두수로는 가금티푸스가 1,287만 마리로 55.3%, 뉴캐슬병이 639만 마리(27.5%), HPAI가 389만 마리(16.7%) 순이었다.

표 2-46. 가축질병별 발생 현황

		발생건수	비율	발생두수	비율
우제류 질병	구제역	229	0.7	3,458	1.7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875	2.8	34,428	17.4
	돼지열병	117	0.4	9,415	4.8
	돼지오제스키병	1,418	4.5	30,582	15.4
	만성소모성질병	18	0.1	42	0.0
	브루셀라병	22,997	73.1	92,156	46.5
	결핵병	5,818	18.5	27,984	14.1
	소계	31,472	100.0	198,065	100.0
가금류 질병	추백리	27	1.4	130,614	0.6
	가금티푸스	1,205	61.7	12,868,010	55.3
	HPAI	361	18.5	3,889,683	16.7
	뉴캐슬병	360	18.4	6,390,200	27.5
	소계	1,953	100.0	23,278,507	100.0
합계		33,433		23,476,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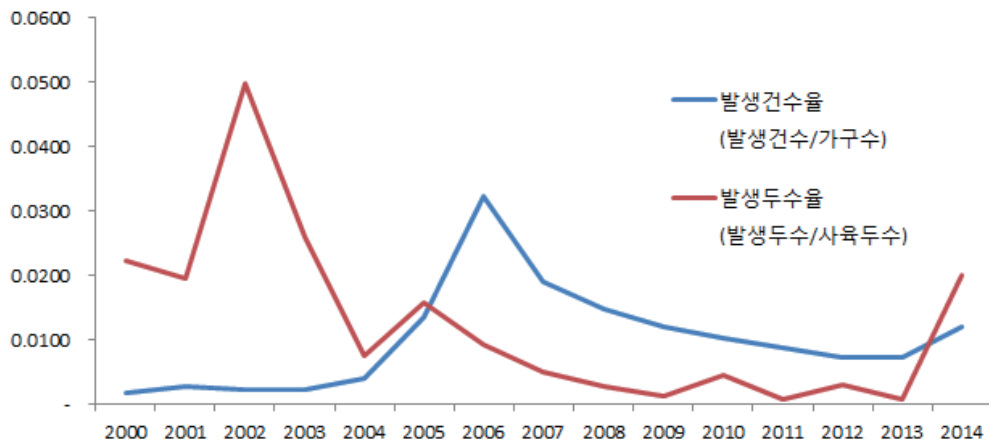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KAHIS.

다. 시도가축방역사업 성과평가

- 본 연구에서는 가축질병발생율을 발생건수율과 발생두수율을 계산하여 시도 가축방역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 발생건수율 = 가축전염병발생건수/사육농가수
 - 발생두수율 = 가축전염병발생두수/사육두수
- 2000년의 발생건수율은 0.0018이었으며,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0324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건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브루셀라병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 가축질병 발생두수율은 2002년에 0.0497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2002년의 발생두수율이 높은 것은 550만 수의 닭이 가금티푸스와 뉴캐슬병에 걸렸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18. 가축질병 발생건수율 및 발생두수율



- 구제류인 소와 돼지의 질병발생율을 별도로 살펴본 결과, 2006년 최고점에 도달했던 구제류의 질병발생율(질병발생건수율, 질병발생두수율)은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3년 이후 소폭 상승하였다.
-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질병발생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소 브루셀라병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 구제류 발생건수율: 0.0085('11) → 0.0070('12) → 0.0073('13) → 0.0097('14)
 - 구제류 발생두수율: 0.0007('11) → 0.0004('12) → 0.0003('13) → 0.0005('14)
- 닭의 질병 발생두수율은 2002년에 가장 높은 0.0550이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4년에 0.0225로 다시 상승하였다.
- 2002년의 질병 발생두수율이 높은 이유는 가금티푸스와 뉴캐슬병으로 인한 것이며, 2014년의 발생두수율 상승은 HPAI로 인한 것이다.
 - 가금류 발생두수율: 0.0010('11) → 0.0036('12) → 0.0008('13) → 0.0225('14)

표 2-47. 가축질병 발생률

구분	전체가족 발생건수율 (발생건수/ 가구수)	전체가족 발생두수율 (발생두수/ 사육두수)	구제류 발생건수율 (발생건수/ 가구수)	구제류 발생두수율 (발생두수/ 사육두수)	닭 발생두수율 (발생두수/ 사육두수)
2000	0.0018	0.0222	0.0024	0.0012	0.0243
2002	0.0023	0.0497	0.0028	0.0009	0.0550
2004	0.0040	0.0075	0.0060	0.0011	0.0082
2006	0.0324	0.0093	0.0325	0.0028	0.0102
2008	0.0148	0.0027	0.0146	0.0009	0.0029
2010	0.0104	0.0045	0.0101	0.0008	0.0049
2011	0.0087	0.0008	0.0085	0.0007	0.0010
2012	0.0072	0.0031	0.0070	0.0004	0.0036
2013	0.0073	0.0007	0.0073	0.0003	0.0008
2014	0.0121	0.0200	0.0097	0.0005	0.0225

라. 요약 및 시사점

- 소와 돼지 등 구제류의 질병발생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 정점을 이룬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소 브루셀라병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2008년 이후 발생건수율이 0.0185 이하로 떨어져 “시도가축방역사업”이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닭의 경우 질병 발생두수율이 2002년의 가금티푸스와 뉴캐슬병으로 0.0550까지 이르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2014년 HPAI로 인해 2013년의 0.0008보다 상승한 0.0225였다.
- ‘시도가축방역사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어 가축질병 발생률을 지속적으로 낮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2014년 HPAI와 구제역, 결핵이 발생하면서 사업의 성과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따라서 “시도가축방역사업”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HPAI, 구제역, 결핵 등을 조기에 근절하고 향후부터는 HPAI와 구제역, 결핵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질병들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5.5. 소결

○ **가축방역** 정책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발생 시 확산 차단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2014년 FMD 및 HPAI가 수시로 발생하면서 가축질병 발생 건수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가축위생방역의 성과 제고 및 기능 강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시도가축방역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해당 사업 시행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어 가축질병 발생율을 지속적으로 낮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2014년 HPAI와 구제역, 결핵 등의 질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향후 주요 질병에 대한 방역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구제류 발생건수율: 0.0040('01) → 0.0325('06) → 0.0085('11) → 0.0070('12)
→ 0.0073('13) → 0.0097('14)
- 구제류 발생두수율: 0.0020('01) → 0.0028('06) → 0.0007('11) → 0.0004('12)
→ 0.0003('13) → 0.0005('14)
- 가금류 발생두수율: 0.0213('01) → 0.0102('06) → 0.0010('11) → 0.0036('12)
→ 0.0008('13) → 0.0225('14)

2.6. 축산기술보급

2.6.1. 정책목표 및 개요

- 축산기술보급 정책은 ‘FTA 확대에 대비하여 종축 개량과 종축장의 전문화·청정화를 통한 가축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축산물 위생·안전성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종축장 전문화 및 청정화, 우수 형질 개량,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을 통해 축산 기술을 보급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를 도모한다.
- 축산기술보급 정책의 세부사업별 목적,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 예산과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48. 축산기술보급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사업명		개요
종축장 전문화 지원	사업목적	▪ 종축장 전문화 및 청정화를 유도, 가축 폐사 감소 등 생산성 향상
	지원내용	▪ 시설개선 사업비(축사 및 내부시설, 정액제조실 등) ▪ 운영자금(종축구입비, 청정화 소요비용 등)
	지원 대상 및 자격	▪ 종축장을 전문화하고자 하는 종축업이 허가된 농업인 가축개량 지원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89억 원 ▪ 실적 : 53억 원
가축 개량지원	사업목적	▪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
	지원내용	▪ 한우정액생산·공급 ▪ 젖소정액생산·공급 ▪ 한우·젖소육종농가지원 ▪ 유우군능력검정 ▪ 돼지능력검정 ▪ 종축등록
	지원 대상 및 자격	▪ 농가, 도 가축개량기관(축산관련연구기관), 지역축협(생축장), 낙협(검정소)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397억 원 ▪ 실적 : 436억 원
	사업목적	▪ 식육처리 및 가공 등에 대한 위생교육으로 축산물식육처리 기능사 등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축산물위생 전문인력 양성	지원내용	▪ 식육처리기능사 양성 교육사업
	지원 대상 및 자격	▪ 농협중앙회 축산물 위생교육원(축산물 소비자 및 영업자)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7억 원 ▪ 실적 : 7억 원

사업명		개요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사업목적	▪ 가축방역, 질병, 사업평가반, 사양 등 교육을 통해 축산에 대한 경영 능력 향상
	지원내용	▪ 교육비(강사수당, 인쇄비, 농장사용료, 현장지도비, 차량임대료, 사무 다과비 등) ▪ 교육운영비 ▪ 전산시스템 관리비
	지원 대상 및 자격	▪ 지자체, 대학, 연수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등 축산관련 교육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지정하는 기관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30억 원 ▪ 실적 : 21억 원

2.6.2. 성과지표

○ 축산기술보급을 위해 ‘종축장전문화지원’, ‘가축개량지원’, ‘축산물위생전문인력양성’,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 성과지표를 평가에 활용하였다.

표 2-49. 축산기술보급 분야 성과지표

사업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종축장전문화 지원	종돈산자수	요크셔 산자기준
가축개량지원	한우 1등급 출현율(%)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 조사
	한우 거세우 18개월령 체중	후대검정우의 체중조사
	젖소산유량(kg/두/년)	검정참여농가의 검정우 1산차 연간 두당 산유량
축산물위생 전문인력양성(식육 교육센터)	식육처리 교육이수자	식육처리교육이수자(농협중앙회)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교육이수자 수(명)	교육이수 농가 수

2.6.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 종축장전문화지원

○ ‘종축장전문화지원’은 종축장의 전문화·청정화를 통해 우수 번식돈을 공급함으로써 일반 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유사하지만 지원조건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보다 불리하

여 2013년 선정된 사업만 실시하였고, 2014년부터 축사시설현대화 내역사업으로 추진하였다.

- ‘종축장전문문화지원’의 융자금리는 3%인 반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금리는 1%였다.

□ 가축개량지원사업

- 2014년 ‘한우 거세우 18개월령 체중’, ‘한우 1등급출현율’이 상승하였고 ‘젖소산유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2014년 ‘한우 1등급 출현율’은 전년 대비 3.7%p 증가한 65.0%였다.
 - 2014년 ‘한우 거세우 18개월령 체중(547.5일령 기준)’은 체중은 498.8kg로 전년 대비 7.7kg 상승하였으나, 2010~11년에 발생한 구제역 등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가장 높았던 515.4kg에 비해 3.2% 하락하였다.
 - 연간 두당 ‘젖소산유량’은 2008년 8,553kg에서 2013년 8,723kg, 2014년 8,959kg으로 증가하였다.
 - 한우개량의 경우, 지금까지 육질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되어 ‘한우 1등급출현율’을 꾸준히 상승시켰다(품질 향상). 하지만 ‘한우 거세우 18개월령 체중’(육량 지표)의 경우, 예전에 비해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어, 향후 육질 개선뿐만 아니라 육량 개선도 고려해야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 축산물위생전문인력양성사업

- 성과지표인 ‘식육처리교육이수자’는 2013년 799명에서 2014년 980명으로 증가하는 등 ‘축산물위생전문인력양성(식육교육센터)사업’을 통해 매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 ‘축산물위생전문인력양성사업’ 2014년 예산은 전년대비 7억 원으로 100%의 예산집행률을 보였다.

□ 축산관련종사자교육사업

- HPAI 및 FMD 등 가축질병이 연중 발생함에 따라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교육대상자의 참여가 저조하게 나타나, ‘교육이수자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중단 및 참여 저조로 2014년 사업 예산은 30억 원 중 70.0%인 21억 원만 집행되었다.

표 2-50. 축산기술보급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종축장전문 문화지원	중돈 산자수	목표	10.8	10.9	10.9	11.0	11.0	11.3	11.3
		실적	10.8	10.9	11.0	10.9	11.2	11.4	11.5
		달성률(%)	100.0	100.0	100.9	99.1	101.8	100.9	101.8
	예산		-	-	140	112	247	147	89
	실적		-	-	164	68	196	101	53
	집행률(%)		-	-	117.1	60.7	79.4	68.7	59.6
가축개량 지원	한우 1등급 출현율(%)	목표	52.0	55.6	58.0	64.0	65.0	62.4	62.4
		실적	54.0	56.7	63.1	62.4	58.1	61.3	65.0
		달성률(%)	103.8	102.0	108.8	97.5	89.4	98.2	104.2
	한우 거세우 18개월령 체중	실적	495.0	485.6	503.3	501.7	515.4	491.1	498.8
	젖소산유량 (kg/두/년)	목표	8,390	8,600	8,600	8,623	8,623	8,840	8,865
		실적	8,553	8,527	8,527	8,652	8,800	8,723	8,959
		달성률(%)	101.9	99.2	99.2	100.3	102.1	98.7	101.1
	예산		261	268	428	344	327	408	397
	실적		249	253	275	401	334	358	436
	집행률(%)		95.4	94.4	64.3	116.6	102.1	87.7	109.8
축산물 위생전문 인력양성 (식육교육 센터)	식육처리 교육이수자	목표	410	440	440	825	700	870	700
		실적	477	750	838	726	1,010	799	980
		달성률(%)	116.3	170.5	190.5	88.0	144.3	91.8	140.0
	예산		27	57	7	7	7	7	7
	실적		4	6	57	7	7	7	7
	집행률(%)		14.8	10.5	814.3	100.0	100.0	100.0	100.0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교육이수자 수(명)	목표	12년부터 교육시작, 이전실적 없음				21,000	114,000	88,000
		실적					42,900	79,400	60,751
		달성률(%)					204.3	69.6	69.0
	예산		-	-	-	-	22	44	30
	실적		-	-	-	-	13	15	21
	집행률(%)		-	-	-	-	59.1	34.1	70.0

- 축산기술보급 사업군의 6개 성과지표(4개 사업) 가운데 목표 대비 성과를 달성한 지표는 4개, 미달성 1개, 목표 미설정 1개였다.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는 ‘축산 관련종사자교육’이었다.

2.6.4. 소결

- **축산기술보급** 정책 시행은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도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가축개량지원사업’ 추진으로 ‘한우 1등급출현율’이 상승하고 ‘젖소산유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2014년 ‘한우 1등급 출현율’은 전년 대비 3.7%p 증가한 65.0%였다.
 - 연간 두당 ‘젖소산유량’은 2008년 8,553kg에서 2013년 8,723kg, 2014년 8,959kg으로 증가하였다.
 - 향후 한우개량은 육질 개선뿐만 아니라 육량 개선도 고려해야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 ‘축산물위생전문인력양성(식육교육센터)사업’을 통해 매년 ‘식육처리교육이수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다.
- ‘축산관련종사자교육사업’은 2014년에 HPAI 및 FMD 등 가축질병이 연중 발생함에 따라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교육대상자의 참여가 저조하였다.

제3장

원예경쟁력제고
분야 성과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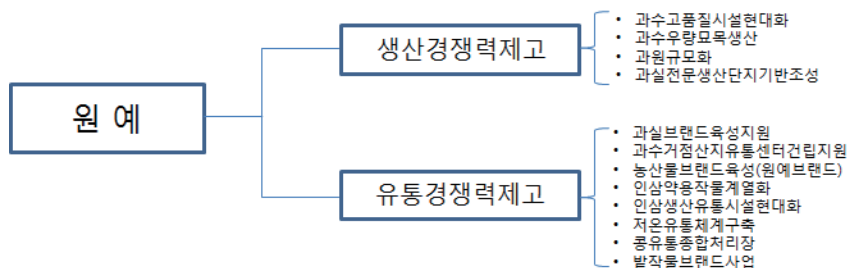
제3장

원예경쟁력제고 분야 성과평가

1. 개요

- 원예경쟁력제고 분야의 전략목표는 ‘FTA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고품질 원예작물의 효율적인 생산과 수확후 관리, 가공·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원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원예 및 과수 분야의 생산시설 현대화, 규모화 및 조직화, 유통구조 효율화를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 제고를 추구한다.
- 원예경쟁력제고 분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목표에 따라 2개 사업군, 12개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 ① **생산경쟁력강화**는 4개 사업으로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 ‘과원규모화’,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 ② **유통경쟁력강화**는 8개 사업으로 ‘과실브랜드육성지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농산물브랜드육성’, ‘인삼약용작물계열화지원’,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저온유통체계구축’, ‘주요곡물산업육성(발작물브랜드지원, 콩유통종합처리장)’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림 3-1. 원예경쟁력제고 분야 세부사업



- 2014년 원예경쟁력제고에 투입된 예산 1,426억 원 가운데 95.9%인 1,367억 원이 집행되었다. 원예경쟁력제고 전체 예산 가운데 생산경쟁력강화 예산 비중이 71.4%, 유통경쟁력강화가 28.6%를 차지하였다.
- 예산은 전년 대비 34.5% 감소하였지만, 집행률은 3.4%p 증가하였다.
 - 생산경쟁력강화 사업군 예산은 1,0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하였고, 집행률 또한 2.6%p 감소하였다.
 - 유통경쟁력강화 사업군 예산은 4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1% 감소하였지만, 집행률은 6.8%p 증가하였다.

표 3-1. 원예경쟁력제고 분야 예산집행률

단위: 억 원

정책목표	집행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 대비 증감률 (%)
전체	예산	2,446	2,204	2,455	1,848	1,930	2,176	1,426	-34.5
	실적	2,047	2,010	2,135	1,858	2,109	2,012	1,367	-32.1
	집행률(%)	83.7	91.2	87.0	100.5	109.3	92.5	95.9	3.4p
생산경쟁력 강화	예산	1,166	1,071	1,082	945	1,016	1,071	1,018	-4.9
	실적	1,166	1,071	1,081	945	1,016	1,071	992	-7.4
	집행률(%)	100.0	100.0	99.9	100.0	100.0	100.0	97.4	-2.6p
유통경쟁력 강화	예산	1,280	1,133	1,373	903	914	1,105	408	-63.1
	실적	881	939	1,054	913	1,093	941	375	-60.1
	집행률(%)	68.8	82.9	76.8	101.1	119.6	85.2	91.9	6.8p

2. 정책군별 성과평가

2.1. 원예생산경쟁력강화

2.1.1. 정책목표 및 개요

- 원예생산경쟁력강화 정책은 ‘원예(과수)농가의 생산시설현대화, 규모화, 조직화 등을 지원하여 해당 농가의 생산비용 절감과 함께 고품질 농산물 생산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세부사업별 사업 목적,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자격, 예산과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2. 생산경쟁력강화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사업명		개요
과수 고품질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목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지원내용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방풍말시설, 배수 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 공동이용설비
	지원 대상 및 자격	▪ 지역(품목) 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약정한 농가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595억 원 ▪ 실적 : 576억 원
과수 우량 묘목 생산 지원	사업목적	▪ 병해충(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등)을 제거한 생산성이 높은 묘목으로 농업인에게 공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고품질 과일생산 촉진
	지원내용	▪ 묘목 생산 비용 : 토지임차, 기반정비, 모수포 조성, 자근묘 발근, 품종 접목, 병해충 방제, 시비, 겉가지 발생 및 유인 등 ▪ 중앙모수포 조성 및 병충해 검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대상 및 자격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종자산업법에 의거 과수묘목생산판매가 가능한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사과, 포도, 감귤, 배, 복숭아, 감(단감, 뽕은감) 등)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6억 원 ▪ 실적 : 6억 원
과원 영농 규모화	사업목적	▪ 과원매매·임대차를 통해 과수재배농가의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
	지원내용	▪ 비농가, 전업·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과원을 매입하는 과수농가에게 매입자금 지원(과원매매사업) ▪ 비농가, 전업·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으로부터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게 임차료 지원(과원임대차사업)
	지원 대상 및 자격	▪ 비농가, 전업·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과원 매도·임대대상자) ▪ 과수농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과원매입·임차대상자)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273억 원 ▪ 실적 : 273억 원

사업명		개요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목적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과수수출단지 정비 및 대형 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거점으로 육성 지원
	지원내용	과수단지 관개용수 개발 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 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지원 대상 및 자격	집단화된 지구로 개소 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20ha 이상)으로 5년 이상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하 약정한 지구
	2014년 사업예산	예산 : 144억 원 실적 : 137억 원

2.1.2. 성과지표

- 원예생산경쟁력강화를 위해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과수우량묘목생산’, ‘과원규모화’,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세부사업별 성과지표를 평가에 활용하였다.

표 3-3. 생산경쟁력강화 분야 성과지표

사업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주요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frac{(10a\text{당 평균수량}-\text{기준연도('07) } 10a\text{당 평균수량})}{\text{기준연도('07) } 10a\text{당 평균수량}} \times 100$
과수우량묘목생산	자체보증 묘목 점유율(%)	$\frac{\text{자체보증 묘목 공급량}}{\text{총 묘목 수요량}} \times 100$
과원규모화	과수전업농 증가율(%)	$\frac{(\text{당해연도 과수전업농 수}-\text{기준연도('04) 과수전업농 수})}{\text{기준연도 과수전업농 수}} \times 100$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주요과실 단위면적당 생산성 증가율(%)	$\frac{(10a\text{당 평균수량}-\text{기준연도('07) } 10a\text{당 평균수량})}{\text{기준연도('07) } 10a\text{당 평균수량}} \times 100$

2.1.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 겨울철 한파로 인한 나무고사, 개화기 저온으로 인한 수정 장애 등 과수저온 피해에도 성과지표인 ‘주요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주요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은 2012년부터 상승하여 2014년 21.3%로 목표 대비 94.7%를 달성하였다.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의 예산은 2013년까지 100% 집행되었지만, 2014년 예산 집행률은 신규로 추진된 ICT 분야의 사업추진이 다소 미흡하여 96.8%에 그쳤다.
 - 사과 성목단수: 1,775kg/10a(’11) → 1,824(’12) → 2,285(’13) → 2,218(’14)
 - 배 성목단수: 2,100kg/10a(’11) → 1,293(’12) → 2,217(’13) → 2,475(’14)
 - 단감 성목단수: 1,363kg/10a(’11) → 1,448(’12) → 1,445(’13) → 1,568(’14p²⁶)
 - 포도 성목단수: 1,831kg/10a(’11) → 1,904(’12) → 1,859(’13) → 1,943(’14p)
 - 복숭아 성목단수: 1,948kg/10a(’11) → 2,103(’12) → 1,992(’13) → 2,214(’14p)

□ 과수우량묘목생산사업

- 해당 사업은 과수재배의 근간인 무병우량묘목 생산 및 공급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성과지표를 살펴본 결과 ‘묘목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자체보증 묘목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자체보증 묘목 점유율’은 2014년 50.7%로 접목 후 묘목 생육초기 서리피해로 인해 묘목이 고사하여 목표 달성률은 93.9%로 다소 미흡하였다.
 - 묘목 생육초기 서리피해로 인한 고사로 2014년 자체보증 묘목 공급량은 전년 대비 5% 감소한 74만 주였다.
 - 자체보증 묘목 공급량: 70만 주(’11) → 76(’12) → 78(’13) → 74(’14)

□ 과원규모화사업

- ‘과원규모화사업’을 통해 사업시행 전과 비교하여 경영규모가 1.5ha이상인 과수전업농 비중이 증가하였고, 지원 농가의 평균 경영규모가 확대되는 등 규모화·전문화된 경영체 육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1.5ha이상 과수전업농 비중은 지원 전 22.7%에 불과하였지만 지원 후 53.8%로 증가하였다.
 - 지원 농가 평균 경영규모는 2.07ha로 지원 전 1.14ha보다 1.8배 확대되었고, 전국 과수농가 호당 평균 재배면적(0.72ha)의 2.9배 수준이다.

26) '14p는 농업관측센터 생산량 추정치 사용하여 계산함.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과종별 생산량 증가율(%)	목표	17.0	21.0	21.0	23.0	24.0	22.0	22.5
		실적	17.0	22.0	21.0	18.3	13.4	21.2	21.3
		달성률(%)	100.0	104.8	100.0	79.6	55.8	96.4	83.5
	예산		97	87	132	171	106	119	144
	실적		97	87	132	171	106	119	137
	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5.1

- 생산경쟁력강화 사업군의 4개 성과지표(4개 사업) 가운데 목표대비 성과를 달성한 지표는 1개, 미달성 3개였다.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는 ‘주요 과실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자제보증 묘목 점유율’, ‘과종별생산량 증가율’이었다.
- ‘주요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자제보증묘목 점유율’, ‘과종별생산량 증가율’의 달성도는 각각 94.7%, 93.9%, 83.5%로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목표량에 다소 미흡하였다.

2.1.4. 사업수혜자 조사 결과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설문조사²⁷⁾

- 〈조사개요〉 FTA 국내보완대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장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사업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2014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수혜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의 만족도, 만족·불만족 이유, 개선점,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 조사시기: 2015년 4월 1일 ~ 4월 30일
- 응답자 연령: 40세 이하 4%(4명), 41세~51세 12.1%(12명), 51세~60세 54.5%(54명), 61세~70세 25.3%(25명) 71세 이상 4%(4명)
- 영농 경력: 10년 이하 10.1%(10명), 11~20년 32.3%(32명), 21~30년 27.3%(27명), 31~40년 23.2%(23명) 41년 이상 7.1%(7명)
- 거주지역: 충청도·세종 27.4%(26명), 전라도 27.4%(26명), 경상도 25.3%(24명), 제주도 8.4%(8명), 강원도 6.3%(6명), 서울·경기 5.3%(5명)
- 생산품목: 사과 28.3%(28명), 배 26.3%(26명), 복숭아 17.2%(17명), 단감 9.1%(9명), 감귤 8.1%(8명), 포도 8.1%(8명), 딸기 1%(1명), 자두 1%(1명), 키위 1%(1명)

27)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수혜한 99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일부 문항 미응답자 존재)

- 〈세부사업 만족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시행으로 노동환경 개선, 품질 향상, 생산비 절감 등의 효과로 인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낮은 실지금액, 높은 자부담 비중, 행정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불만족이 일부 존재했다.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전체 응답자의 29.3%, ‘만족’ 60.6%, ‘불만족’ 9.1%, ‘매우 불만족’은 1%로 조사되었다.

그림 3-2.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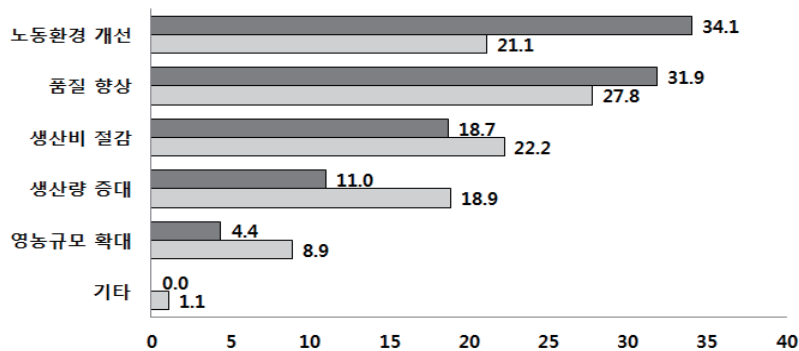
■ 매우 만족 ■ 만족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만족하는 이유 1순위는 ‘노동환경 개선’이 34.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품질 향상’ 31.9%, ‘생산비 절감’ 18.7%, ‘생산량 증가’ 11.0%, ‘영농 규모 확대’ 4.4%로 조사되었다.
- 만족하는 이유 2순위는 ‘품질 향상’이 2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생산비 절감’ 22.2%, ‘노동환경 개선’ 21.1%, ‘생산량 증가’ 18.9%, ‘영농 규모 확대’ 8.9%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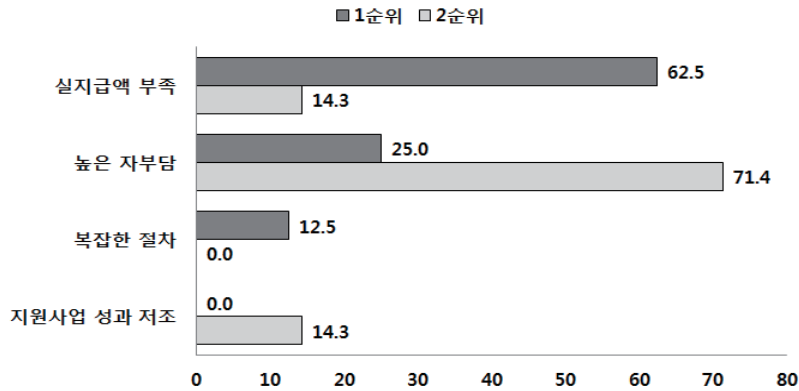
그림 3-3.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만족 이유

■ 1순위 □ 2순위



- 불만족하는 이유 1순위는 ‘신청금액 대비 낮은 실지금액’이 6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높은 자부담 비중’ 25.0%, ‘복잡하고 까다로운 지원자격 및 절차’ 12.5% 등으로 조사되었다.
- 불만족하는 이유 2순위는 ‘높은 자부담 비중’이 71.4%로 가장 많고, ‘신청금액 대비 낮은 실지금액’과 ‘지원사업 성과 저조’ 14.3%로 조사되었다.

그림 3-4.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불만족 이유



- FTA 국내보완대책 외에 원예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려할 사항²⁸⁾으로 직접피해 보전 확대와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강화가 32.3%로 가장 많았고,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과 유통구조 개선 및 규모화 14.1%, 생산비 절감 방안 마련 4.0%, 농업인력 확보 및 농업인 역량 강화 2.0% 순으로 조사되었다.
- 〈건의사항〉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수혜농업인은 사업비 지원 비율 조정 (자부담 비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행정절차 간소화 및 농가 현실에 맞는 지원 사업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 높은 자부담 비율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보조금 확대 및 자부담 비율 하향 조정에 대해 건의했다.
 - 낙후 시설 개보수 및 교체, 시설 자동화(ICT 분야) 지원 및 컨설팅 사업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2017년에 종료되는 일부 FTA 국내보완대책에 대해 농업인들은 사업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일관된 수혜자 선정 기준 확립을 건의했다.

28) 1순위 응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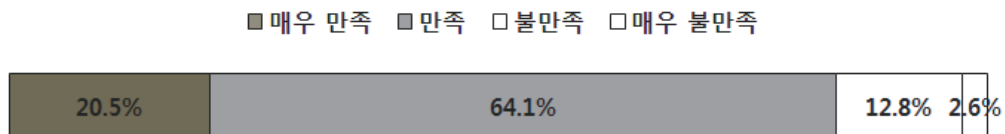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설문조사²⁹⁾

○ 〈조사개요〉 FTA 국내보완대책에 영향을 받고 있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여 농가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도움을 주기위해 2014년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수혜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의 만족도, 만족·불만족 이유, 개선점,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 조사시기: 2015년 4월 1일 ~ 4월 30일
- 응답자 연령: 40세 이하 2.6%(2명), 41세~50세 14.1%(11명), 51세~60세 44.9%(35명), 61세~70세 26.9%(21명), 71세 이상 11.5%(9명)
- 영농 경력: 10년 이하 14.1%(11명), 11~20년 21.8%(17명), 21~30년 21.8%(17명), 31~40년 30.8%(24명), 41년 이상 11.5%(9명)
- 거주지역: 경상도 45.2%(33명), 충청도·세종 34.3%(25명), 전라도 20.5%(15명)
- 생산품목: 사과 51.3%(40명), 포도 33.3%(26명), 복숭아 7.7%(6명), 배 6.4%(5명), 자두 1.3%(1명)

○ 〈세부사업 만족도〉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시행으로 재해예방, 재배환경 개선, 품질 향상, 생산비 절감 등의 효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늦은 완공 시점, 낮은 지원단가, 복잡한 행정절차 등에 대한 불만족이 일부 존재했다.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전체 응답자의 20.5%, ‘만족’ 64.1%, ‘불만족’ 12.8%, ‘매우 불만족’은 2.6%로 조사되었다.

그림 3-5.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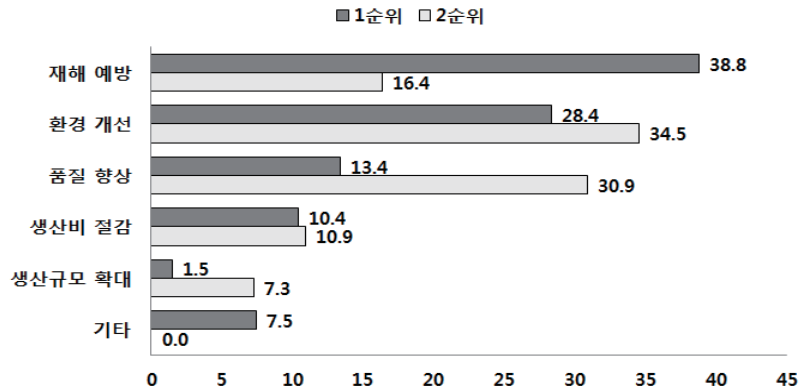


- 만족하는 이유 1순위는 ‘재해예방’이 38.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환경 개선’ 28.4%, ‘품질 향상’ 13.4%, ‘생산비 절감’ 10.4%, ‘생산규모 확대’ 1.5%로 조사되었다.

29)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을 수혜한 78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일부 문항 미응답자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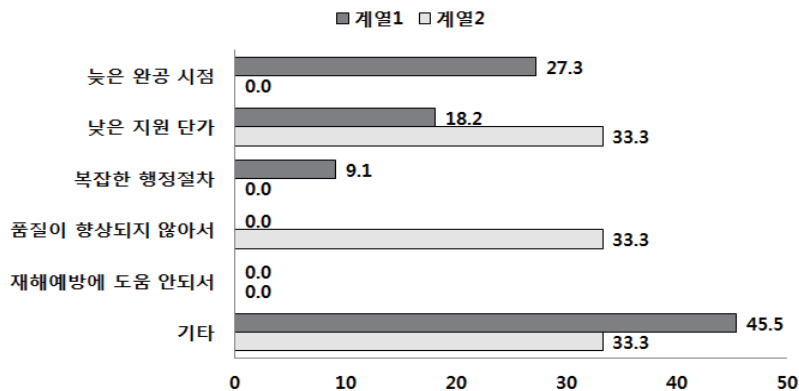
- 만족하는 이유 2순위는 ‘환경 개선’이 3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품질 향상’ 30.9%, ‘재해예방’ 16.4%, ‘생산비 절감’ 10.9%, ‘생산규모 확대’ 7.3%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6.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만족 이유



- 불만족하는 이유 1순위는 ‘기타 의견’이 45.5%로 가장 많았고, 기타 의견으로 농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 진행과 사업 완료 후 주변정리소홀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늦은 완공 시점’이 27.3%, ‘낮은 지원 단가’ 18.2%, ‘복잡한 행정절차’ 9.1%로 조사되었다.
- 불만족하는 이유 2순위는 ‘기타 의견’, ‘낮은 지원 단가’, 그리고 ‘품질 향상’이 33.3%로 조사되었다.

그림 3-7.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불만족 이유



- FTA 국내보완대책 외에 원예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려할 사항³⁰⁾으로 수급안정 대책 강화가 42.3%로 가장 많았고, 직접피해보전 확대 20.5%,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15.4%, 유통구조 개선 및 규모화 7.7%, 생산비 절감 방안 마련 6.4%, 품종개량 연구 강화와 농업인력 확보 및 농업인 역량 강화 2.6% 순으로 조사되었다.
- 〈건의사항〉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설문 결과 농가의견을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행정절차 간소화, 조속한 사업진행 등의 의견이 있었다.
 - 농가의견보다 위원회 위주의 의견이 사업에 많이 반영되어 농가 실정에 맞지 않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애로를 호소하였다.
 - 수혜농가들은 복잡한 지원자격 및 신청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고, 최근 규제완화의 움직임에 따른 규제 완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의 개선을 건의했다.
 - 또한, 사업 일정에 따른 원활한 사업진행, 공사 완료 후 주변정리 및 사후관리 철저 등을 요구했다.

□ ‘과원규모화사업’ 심층면담³¹⁾

- 사업만족도 및 원인
 - 조사결과, ‘과원규모화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4.2점(5점 만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원규모화사업’을 통해 희망과원을 우선 매입한 후 원금과 이자를 매년 상환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만족하였다. 하지만 매매시 융자금리 2%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책 건의
 - ‘과원규모화사업’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도 적절히 이루어져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사업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일부 담보가 요구되는 경우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농신보 활용성 제고 및 홍보 강화로 농가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30) 1순위 응답 기준

31) 과원규모화사업 수혜자 5군데 조사결과

2.1.5.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³²⁾

가. 분석 개요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은 고품질 과실생산 및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 참여농가들의 10a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등 사업의 성과가 산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농림수산식품부), 농가들의 사업 참여 희망도 높은 사업으로 파악된다.
- 주요 과실(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에 대한 현행 성과지표는 최근 5개년 평균 생산량이 기준년도('04년)와 비교하여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파악하는 정량적인 수량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과실의 당도 개선, 시설현대화 정도, 농가소득의 향상, 참여농가의 사업 만족도 등 사업을 통한 과실의 정성적 품질 개선 및 농가의 경제적 성과를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참여 농가는 그 동안 비가림시설, 관수관비시설, 다겹보온커튼, 서리피해방지시설, 야생동물 방지시설, 작업로 정비, 지주시설, 품종갱신, 배수시설, 친환경과원관리 등 다양한 세부 사업에 참여하였다.
- 여기서는 과실 중 재배비중이 높은 사과, 배, 포도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의 정량적 및 정성적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는 사과 100농가, 배 100농가, 그리고 포도 91농가를 대상으로 수행하되, 응답률 및 설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내 농업관측사업의 정보 제공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 사업의 정책적 효과 유무에 대한 검정은 품목별 설문자료를 근거로 공변량매칭(Covariate Matching) 및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32) 제주대학교 「김배성 교수」 작성

수행되었고, 사업의 세부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생산량 증가율, 농가판매가격 상승률, 손실 감소율, 상품 이상 생산비율, 당도 증가율, 생산지 절감율 등 성과변수들의 사업 전후의 변화를 비교·검토하였다.

나. 시설현대화사업 성과 분석

1) 사과

○ (조사농가) 사업의 성과 파악을 위해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100농가(사업 참여 및 비참여 농가 포함)에 대한 설문 응답결과를 보면, 농업소득은 평균 5,508만원, 재배면적은 평균 23,288m²(7,057평), 사과 재배면적은 16,470m²(4,991평), 생산량은 평균 3.3톤, 경영주 연령은 평균 58세, 영농경력은 약 31년, 전체 농업소득 중 사과소득의 비중은 86.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조사농가 기초 통계량 (사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연간 농업소득(만 원)	5,508.5	3,958.2	-2,000	20,000
총 재배면적(m ²)	23,288	14,414	5,610	123,750
사과 재배면적(m ²)	16,470	8,570	1,980	41,250
타작물 재배면적(m ²)	11,754	15,483	660	105,600
사과 생산량(kg)	33,437	19,357.6	1,500	90,000
경영주 연령(세)	58.9	8.2	41	82
영농경력(년)	31.4	12.2	7	60
농업소득 중 사과소득 비중(%)	86.4	19.9	30	100

○ (사업 참여내역) 과수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과 농가들은 품종갱신 사업에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41.2%), 다음으로 관수관비시설 설치를 위해 많은 참여(19.6%)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리방지시설 및 야생동물 방지시설 설치에도 각각 9.8% 참여율을 보였다.

표 3-6. 시설현대화 사업 세부 참여내역 (사과)

세부내역	참여율(%)	세부내역	참여율(%)
비가림시설	0	품종갱신	41,2
관수관비시설	19,6	배수시설	3,9
다검보온커텐	0	친환경과원관리	3,9
서리방지시설	9,8	지주시설	5,9
야생동물 방지시설	9,8	기타	5,9
작업로 정비	0	-	-

- (사업자금 수혜 내역) 조사대상 농가 중 사업참여 농가의 시설현대화사업 자금 수혜년도는 평균 2011년이며, 총 수혜액은 평균 1,907만 원, 보조액 865만 원, 융자액 364만 원, 자부담 931.6만 원, 그리고 지자체 부담은 평균 371.5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수혜 농가들의 보조, 융자, 자부담 등의 비중이 서로다르기 때문에 각 항목의 합계가 총 수혜액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7. 조사대상 사업참여 농가의 자금 수혜 내역 (사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혜년도(년)	2011	3,0	2005	2015
보조액(만 원)	865,4	953,9	60	5,000
융자액(만 원)	364,0	151,9	192	480
자부담(만 원)	931,6	1,018,4	80	5,000
지자체 부담액(만 원)	371,5	342,5	40	1,000
총 수혜액(만 원)	1,907,2	1,931,8	200	10,000

- (분석방법) 사과 시설현대화사업 성과 분석을 위해 관찰된 변수들 중 주요 변수를 통제하는 공변량매칭(Covariat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통제변수로 이용가능한 변수가 많지 않아, 설명변수들의 모든 상호 교차항을 고려한 마할라노비스 거리³³⁾(Mahalanobis Distance)를 이용한 매칭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3)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는 표본의 분석-공분산 매트릭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중치인 w_n 은 0 이상의 값을 갖는다.

- (성과변수) 사과농가의 경우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자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품종갱신, 관수관비시설, 서리피해 및 야생동물 방지시설 등에 이용되었다. 따라서 사업 성과변수로 품질 개선과 관련된 상품화 비율, 당도, 생산량 중 손실비율 등의 변수를 설정하였고, 사업의 최종 목표는 농가 소득 증대이므로 농업소득을 성과변수로 활용하였다.

표 3-8. 사과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의 성과 분석결과 (ATT 차이)

구분	통제변수	처리그룹	통제그룹	추정치 (차이)	표준오차	Z	P> Z
농업소득	acr, brix	7,674.4	5,713.6	1,960.7***	662.6	2.96	0.003
상품 이상 비율 (%)	acr, yld	85.96	81.73	4.23	5.1838	0.82	0.414
평균 당도 (brix)	acr, yld	14.47	13.93	0.538**	0.338	2.39	0.017
총생산량 중 손실비율(%)	acr, nfp	11.15	14.61	-3.46	2.960	-1.17	0.242

- 주 1)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acr은 재배면적, brix는 당도, yld는 단수, nfp는 농가판매가격을 의미함.
 3) 표준오차는 500회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임.

- (분석결과)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은 사과 농가의 농업소득, 평균 당도를 높이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 수혜를 받은 사과 농가는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해 농업소득이 196만원 높고, 쓰가루(아오리), 일반후지를 홍로 및 착색계 후지로 품종 갱신을 하여 사과의 평균 당도가 0.54 brix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사업을 통해 사과 상품화 비율은 4.2% 향상되었고, 총생산량 중 손실비율은 3.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2) 배

- (조사농가) 사업의 성과 파악을 위해 배를 재배하고 있는 100농가(사업 참여 및 비참여 농가 포함)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를 보면, 농업소득은 평균 5,098만 원, 작물 총 재배면적은 평균 25,418m²(7,702평), 배 재배면적은 18,282m²(5,549평), 생산량은 평균 약 5.57톤, 경영주 연령은 평균 62세, 영농경력은 약 35년, 전체 농업소득 중 배 재배 소득의 비중은 83.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9. 조사농가 기초 통계량 (배)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연간 농업소득(만 원)	5,098	4,473	-2,900	25,000
총 재배면적(m2)	25,418 (7,702평)	15,022 (4,552평)	2,310 (700평)	95,700 (29,000평)
배 재배면적(m2)	18,282 (5,540평)	12,567 (3,807평)	2,310 (700평)	72,600 (22,000평)
타작물 재배면적(m2)	10,811 (3,276평)	10,677 (3,236평)	165 (50평)	66,000 (20,000평)
배 생산량(kg)	55,670	43,642	3,800	255,000
경영주 연령(세)	62	9.1	37.0	82.0
영농경력(연)	35	11.3	5.0	60.0
농업소득 중 배소득 비중(%)	83.3	20.0	10.0	100.0

○ (사업 참여내역) 과수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배 농가들은 관수관비시설 설치 사업에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34.1%).

표 3-10. 시설현대화 사업 세부 참여내역 (배)

세부내역	참여율(%)	세부내역	참여율(%)
비가림시설	2.4	품종갱신	7.3
관수관비시설	34.1	배수시설	0
다겹보온커튼	0	친환경과원관리	0
서리방지시설	9.8	지주시설	12.2
야생동물 방지시설	2.4	기타	24.4
작업로 정비	7.3	-	-

○ 다음으로 지주시설 설치를 위해 많은 참여(12.2%)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리방지시설 9.8%, 작업로 정비 및 품종 갱신 사업에도 각각 7.3%의 참여율을 보였다.

○ (사업자금 수혜 내역) 조사대상 농가 중 사업 참여 농가의 시설현대화사업 자금 수혜년도는 평균 2012년이며, 총 수혜액은 평균 약 2,069만 원, 보조액 1,253만 원, 융자액 1,740만 원, 자부담 776만 원, 그리고 지자체 부담은 평균 34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각 항목의 합계가 총 수혜액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혜 농가들의 보조, 융자, 자부담 등의 비중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3-11. 조사대상 사업참여 농가의 자금 수혜 내역 (배)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혜년도(년)	2012	2.7	2006	2015
보조액(만 원)	1,253.3	2,247.3	40.0	10,000.0
융자액(만 원)	1,740.0	1,781.9	480.0	3,000.0
자부담(만 원)	776.1	920.2	40.0	5,000.0
지자체 부담액(만 원)	340.0	272.3	80.0	720.0
총 수혜액(만 원)	2,068.8	2,890.6	40.0	15,000.0

- (분석방법) 배 시설현대화사업 성과 분석을 위해 사과와 마찬가지로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이용한 공변량매칭기법을 이용하였다.
- (성과변수) 배의 경우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자금은 관수관비시설에 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생산량과 관련된 단위당 수확량을 성과변수를 추가적으로 이용하였고,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의 최종 목표는 농가 소득 증대이므로 농업소득을 성과변수로 활용하였다.
- (분석결과)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은 배 농가의 농업소득 및 단위당 수확량을 높이는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사업의 수혜를 받은 농가는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해 농업소득이 194만원 높고, 관수관비시설을 통해 배의 단위당 수확량은 약 643kg 향상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 배 상품화비율은 3.3%, 평균 당도는 0.07 brix 향상시키고, 총생산량 중 손실비율은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12. 배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의 성과 분석결과 (ATT 차이)

성과변수	통제변수	처리그룹	통제그룹	추정치 (차이)	표준오차	Z	P> Z
농업소득	acr, brix	6,582.1	4,638.3	1,943.7**	906.1	2.15	0.032
단위당 수확량 (kg/10a)	acr, brix	2,884.1	2241.5	642.6***	212.4	3.02	0.002
상품 이상 비율(%)	acr, yld	72.5	69.2	3.33	6.16	0.54	0.588
평균 당도(brix)	acr, yld	12.26	12.19	0.069	0.17	0.41	0.683
총생산량 중 손실비율(%)	acr, nfp	18.08	19.02	-0.944	4.12	-0.23	0.819

주 1)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acr은 재배면적, brix는 당도, yld는 단수, nfp는 농가판매가격을 의미함.

3) 표준오차는 500회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임.

3) 포도

○ (조사농가) 포도농가의 사업 성과 파악을 위해 포도 재배농가 91농가(사업 참여 및 비참여 농가 포함)에 대한 기초 통계량이 조사되었다.

표 3-13. 조사농가 기초 통계량 (포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연간 농업소득(만 원)	3,742	5,633	-500	45,000
총 재배면적(m ²)	14,689 (4,451평)	13,134 (3,980평)	1,485 (450평)	75,900 (23,000평)
포도 재배면적(m ²)	7,328 (2,221평)	4,145 (1,256평)	990 (300평)	23,100 (7,000평)
비가림면적(m ²)	6,401 (1,940평)	3,941 (1,194평)	660 (200평)	23,100 (7,000평)
포도 생산량(kg)	11,214	8,894	750	48,000
경영주 연령(세)	65	7.5	50.0	82.0
영농경력(연)	37	11.5	4.0	60.0
농업소득 중 포도소득 비중(%)	80.0	24.7	15.0	100.0

○ 조사농가에 대한 설문 응답결과를 보면, 농업소득은 평균 3,742만 원, 작물 총 재배면적은 평균 14,689m²(4,451평), 포도 재배면적은 7,328m²(2,221평), 비가림면적은 6,401m²(1,940평), 생산량은 평균 약 11톤, 경영주 연령은 평균 65세, 영농경력은 약 37년, 전체 농업소득 중 배 재배 소득의 비중은 8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4. 시설현대화 사업 세부 참여내역 (포도)

세부내역	참여율(%)	세부내역	참여율(%)
비가림시설	55.8	품종갱신	0
관수관비시설	5.8	배수시설	7.7
다검보온커튼	5.8	친환경과원관리	0
서리방지시설	1.9	지주시설	0
야생동물 방지시설	0	기타	21.2
작업로 정비	1.9	-	-

- **(사업 참여내역)** 과수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포도 농가들은 대부분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55.82%), 다음으로 배수시설 설치(7.7%), 관수관비시설 설치(5.8%), 다겹보온커텐 설치(5.8%)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조사대상 농가의 사업 자금 수혜 내역 (포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혜년도(년)	2010	4.6	1995	2015
보조액(만 원)	956.7	892.5	18	4,200
융자액(만 원)	2,357.5	4,502.9	125	15,000
자부담(만 원)	910.6	1,141.4	18	6,000
지자체 부담액(만 원)	447.5	207.4	300	740
총 수혜액(만 원)	2,338.9	3,807.6	36	24,000

- **(사업자금 수혜 내역)** 조사대상 농가 중 사업참여 농가의 시설현대화사업 자금 수혜년도는 평균 2010년, 총 수혜액은 평균 약 2,338.9만 원, 보조액 956.7만 원, 융자액 2,357.5만 원, 자부담 910.6만 원, 그리고 지자체 부담은 평균 447.5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수혜 농가들의 보조, 융자, 자부담 등의 비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항목의 합계가 총 수혜액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분석방법)** 사과 및 배와 달리 통제변수로 이용가능한 변수들이 있어, PSM(P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PSM 분석을 위해 성향점수를 추정하여 포도농가의 사업 자금을 수혜받은 농가와 비수혜 농가들의 공통영역을 추출하였다.
- **(PSM 사전분석)** 아래 표는 포도농가의 사업 수혜여부에 대한 성향점수를 추정한 결과이다. 재배면적이 많은 수록, 재배관련 교육횟수가 많을수록, 비가림재배를 하는 농가일수록 사업을 수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경력 및 하우스재배 여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현대화사업은 주로 비가림시설 설치에 주로 이용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재배방식에 대한 더미변수(비가림재배여부)를 추가하였다(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됨).

표 3-16. 포도농가의 사업 수혜여부에 대한 Probit model 추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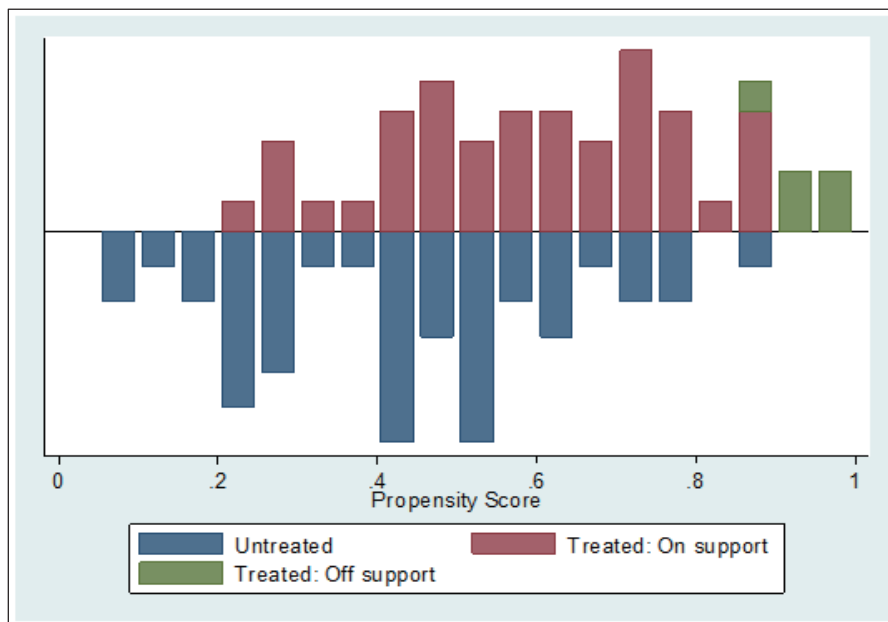
구분	추정치	표준오차	Z	P> Z
상수항	-2.2085	1.2360	-1.79	0.074
포도 재배면적	0.0004	0.0002	1.87	0.062
포도 재배관련 교육횟수	0.2633	0.0983	2.68	0.007
영농경력	0.0170	0.0226	0.75	0.453
비가림재배 여부	1.1365	0.5416	2.10	0.036
하우스재배 여부	0.5993	0.5508	1.09	0.277

주 1) Prob > chi2 = 0.0060, Log likelihood = -52.90965

2) LR chi2(7) = 19.79

○ (성향점수 분포) 아래 그림은 포도농가의 사업 자금을 수혜한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들의 성향점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사업을 수혜받은 농가 중 이들의 성향점수와 유사한 비수혜 농가가 없어 6개의 수혜농가는 공통영역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공통영역에 포함된 43개의 수혜농가와 비수혜농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사업 수혜 농가와 비수혜 농가의 성향점수 분포는 0.07~0.99 구간이며, 평균값은 0.54로 나타났다.

그림 3-8. 성향점수 구간의 분포 (공통영역의 존재여부 검정)



주: Untreated는 사업을 수혜받지 않은 농가, Treated는 사업을 수혜받은 농가를 나타낸다. Treated: off support는 사업을 수혜받은 농가이지만 이들의 성향점수와 유사한 비수혜농가를 찾지 못해 제외된 표본을 의미한다.

표 3-17. 포도농가의 사업 성과 분석결과 (ATT 차이)

구분	추정치	표준오차	Z	P> Z
농업소득	2,647**	1,316	2.01	0.044
포도소득	1,755*	1,023	1.71	0.086
상품 이상 비율(%)	8.05**	3.818	2.11	0.035
평균 당도(brix)	0.55	0.548	1.01	0.311
총생산량 중 손실비율(%)	-10.1	12.63	-0.80	0.423

주 1)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표준오차는 500회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임.

○ (분석결과) PSM의 다양한 매칭방법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Nearest Neighbor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결과, 사업이 포도농사로 얻는 소득과 농업소득을 높이며, 포도의 상품화 비율을 높이는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 포도의 경우 사업 수혜를 받은 농가가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해 포도농사로 얻는 소득이 176만원, 농업소득이 265만원 높고, 포도 상품 이상 비율도 약 8%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시사점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사과 참여농가는 세부사업 중 주로 품종갱신에 참여하여 과일 당도를 향상시키고, 농업소득을 높이는 등 품질 및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사업 수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6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사업 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FTA에 대응한 본 사업의 성격을 감안할 때, 사업의 목표를 해외 시장에서 수요 및 수출 증대 등 해외 시장을 겨냥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및 달성도 평가를 하는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은 배농가의 관수관비시설에 주로 활용되어 배의 단위당 수확량을 향상시키고, 소득을 높이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사업 자금을 수혜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61.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사업에 대한 만족 이유로 품질향상(28.6%), 노동환경개선(25.7%), 생산량증가(20.0%), 농가소득 증대(11.4%) 순으로 조사되어 사업 만족도도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과와 마찬가지로 해외 시장을 겨냥한 사업의 성과 개선(수출 증대)을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사업에 참여한 포도농가는 세부적으로 주로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에 참여하여 포도 상품화 비율을 향상시키고, 포도 영농소득을 높인 것으로 나타나, 품질 및 소득 향상이라는 사업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사업 자금을 수혜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78.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만족하는 이유로 품질향상이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가소득 증대(14.3%)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 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야기되는 단점은 보완하되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2.1.6. 과원규모화 전문가 평가³⁴⁾

가. 연구 목적

- ‘과원규모화사업’은 과일 수출 대국들과의 FTA가 체결됨에 따라,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원의 규모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 과원의 매매 혹은 임대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과원의 규모를 장려하여, FTA로 인한 외국산 과일의 수입 급증에 대처하여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장기 발전을 모색하는 정책이다.
 - FTA가 많이 체결되었지만, 실제 국내 과수산업과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과일 수입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 국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과, 배, 복숭아, 감귤, 감 등의 수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렌지나 체리 등의 수입만 늘어나고 있으며,
 - 포도 또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의 시설포도가 출하되는 시점에 수입된다는 점에서, 국내 포도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지포도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34) 경상대학교 「김윤식 교수」 작성

- 이 연구는 과원규모화를 목적으로 지원된 사업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그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해보는 데 있다.
- 하지만 ‘과원규모화사업’은 가격을 통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실제 과원의 매매 혹은 임대차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 차이가 있다.

나. 연구 방향

- 최근 과수산업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과수산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과원규모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특히, 일부 과수에서 면적 변화 등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과수의 면적은 감소하는 반면, 일부 과수의 면적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또한, 과수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 과수농가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이러한 과수산업 내부의 변화는 해당 과수별 수익성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정부 정책도 일정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FTA에 대응한 농가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첫째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폐원하는 방안, 둘째는 다른 대체 과수로 전환하는 방안, 셋째는 과수가 아닌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다.
- 첫 번째 방안은 기존 농가 수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평균 경작규모를 일부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두 번째 방안은 과수 간 면적이 전환되는 것이므로, 전체 과수농가의 평균 면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개별 과수의 평균면적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세 번째 방안은 전체 과수면적을 줄인다는 점에서, 오히려 평균 경작면적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따라서 FTA나 상대소득 변화 등에 대응해 과수농가가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이런 사업은 특성상 평균 면적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량이나 사업 규모가 대단히 커야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다. 사업 규모가 크지 않으면, 투자액은 많아도 성과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 과원규모화사업의 최종 결과물은 과수농가의 평균 경영면적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A_i 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N 개의 과수농가가 있고, 이들 농가의 평균 경작면적을

$\bar{A}$ 라고 하면, $\bar{A} = \sum A_i / N$ 으로 적을 수 있다. 즉,

$$\bar{A} = \frac{A_1 + A_2 + \cdots + A_i + A_j + \cdots + A_N}{N}$$

○ 과원규모화사업의 성과는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1) 과수 농가간 과원의 이전과 (2) 일부 농가의 타작목으로의 전업 혹은 은퇴가 있다.

○ 과수 농가간 과원의 이전은 과수 농가 사이의 이전이기 때문에 실제 과수농가당 평균면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i 농가의 과원이 j 농가로 이전되었다면, 호당 평균면적인 $\bar{A}$ 는 변하지 않는다.

$$\bar{A}' = \frac{A_1 + A_2 + \cdots + (A_i - \Delta A_i) + (A_j + \Delta A_i) + \cdots + A_N}{N}$$

- 이 경우, 과원규모화사업의 효과라 할 수 있는 $(\bar{A}' - \bar{A})$ 는 0이 된다.

○ 과원규모화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농가의 전업 혹은 은퇴가 이루어졌을 경우이다. 기존 과수농가의 일부가 타작목으로 전업 혹은 은퇴하게 되면, 분모인 농가수가 줄어들므로 과수농가당 면적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 따라서 과원규모화사업의 효과는 농가의 평균 과원면적의 변화로 측정하여야 한다.

- 전업 혹은 은퇴 등을 통해 과수산업에서 빠져나간 농가수를 ΔN 이라 하면,

$$\bar{A}'' = \frac{A_1 + A_2 + \cdots + A_i + A_j + \cdots + A_N}{N - \Delta N}$$

- 이 경우, 과원규모화사업의 효과는 $(\bar{A}'' - \bar{A})$ 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두 번째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과원규모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 평균 재배면적이나 혹은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 비중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과원규모화사업을 하나의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과원규모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평균 재배면적 혹은 일정 규모 이상 농가 비중)

$$= f(\text{과원규모화사업, 상대 수익성, 연령, 과수종류, 기타변수})$$

- 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실질적인 분석이 불가능하다.

- 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십 개의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기 시작한 지 10년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자료가 축적되지 않아 자료가 충분치 않다.
- ② 과수 관련 통계의 경우, 2009년을 기점으로 기준이 바뀌어 2010년 이후 자료와 일관성이 없다. 자료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성격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 과원규모화사업의 평가

○ 단순히 과수농가 전체로 과수재배면적을 나눈 호당 재배면적을 보면, 2005년 이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과원 면적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데 반해, 과수 농가가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 실제로 2009년 이전에도 농가수가 다소 증가추세를 보였을 뿐 아니라, 2010년 이후에도 적지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과원면적은 2005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
- 따라서 단순 평균면적으로만 판단하면, 과원규모화사업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것은 분명 정부 정책으로 일정한 효과가 있었음에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여, 과원규모화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과원규모화사업의 효과를 적절히 평가해줄 필요가 있다.

표 3-18. 과수농가의 호당 재배면적 변화

단위: 호, ha, ha/호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농가	145,236	138,797	144,053	145,956	147,742	170,237	175,162	173,467	175,704
면적	159,612	156,957	159,119	160,939	157,097	162,472	161,232	159,658	160,797
호당 면적	1.10	1.13	1.10	1.10	1.06	0.95	0.92	0.92	0.92

주: 통계 기준이 2009년을 기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자료의 일관성이 없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

- 과원규모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은, 단순히 과수농가당 평균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타난 호당 면적과 ‘과원규모화사업이 없었더라면 나타났을 호당 면적’의 차이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 실제 나타난 과수농가당 평균면적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면,

$$\bar{A} = \frac{A_1 + A_2 + \cdots + A_i + A_j + \cdots + A_N}{N}$$

- 과원규모화사업이 없었더라면, 나타났을 평균면적이 된다.

$$\bar{A}'' = \frac{A_1 + A_2 + \cdots + A_i + A_j + \cdots + A_N}{N - \Delta N}$$

- 평균 과원면적 $\bar{A}''$ 은 일종의 가상(counterfactual)의 평균면적이 된다.
- 따라서 과원규모화사업의 효과는 가상의 평균면적인 $\bar{A}''$ 과 실제 면적 $\bar{A}$ 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
- 가상의 평균면적 $\bar{A}''$ 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과원규모화사업으로 전업 혹은 은퇴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가수인 ΔN 을 계산해야 한다. 즉, 과원규모화사업으로 얼마만큼의 농가가 과수산업에서 빠져나갔는지를 추산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매년 집행된 과원규모화사업 투자액으로 몇 농가가 과수산업에서 빠져나갔는지를 추산할 수 있다.
- 가장 먼저 과수농가수와 과수 재배면적 자료를 이용하여, 과수 농가당 평균 면적을 산출하고, 농지가격을 통해 과원규모화사업 투자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 총면적으로 산출해야 한다.
- 농지가격은 농지자산을 농지면적으로 나누는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³⁵⁾.
- 엄밀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아니라 과원의 면적과 과원의 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현재 농지자산과 농지면적 자료만 활용 가능하다.
- 농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금액으로 평가한 농지자산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인다.
- 농가의 농지자산과 농지면적으로 계산한 농지의 평균가격은 2005년 m²당 11,390원에서 2013년 20,410원으로 7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5) 이정환, 조재환, “농지가격의 결정요인과 요인별 영향력,” 「농촌경제」19(3)(1996):1-13)

표 3-19. 농지자산과 농지면적으로 계산한 농지가격

단위: 1,000원, m², 1,000원/m²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농지 자산	158,923	200,854	227,757	198,087	201,537	201,952	207,960	223,462	224,204
농지 면적	13,956	13,943	14,440	12,188	12,164	11,900	11,934	11,909	10,987
평균 가격	11.39	14.41	15.77	16.25	16.57	16.97	17.43	18.76	20.41

자료: 통계청.

- 과원규모화사업 투자액을 과수농가당 면적과 농지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나누면, 이 사업으로 과수산업에서 빠져나간 농가수를 계산할 수 있다. 즉,

$$\Delta N = \frac{\text{과원규모화사업 투자액}}{[(\text{호당 평균면적}) \times (\text{농지가격})]}$$

- 과원규모화사업의 투자액은 2005~11년 기간 동안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총투자액인 1,570억 1,700만원을 평균 내어, 매년 196억 2,700만원씩 투자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 2012~13년에는 각각 275억 6,0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 계산 결과, 농지가격에 따라 매년 차이가 있지만, 최저 110농가에서 최대 157농가까지 지원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과원규모화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농가 수

단위: 호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농가수	157	120	113	110	111	121	122	160	148

라. 성과분석 결과

- 과원규모화사업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 해당 사업이 없었을 때와 비교할 때, 매년 과수농가 호당 7.7~11.9m²의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05~2013년까지의 투자 결과를 모두 합하면, 해당 기간 동안 과원규모화 사업은 과수농가의 평균 면적을 76.05㎡ 늘이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 사업으로 인한 과원규모화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매년 일정 정도의 면적을 늘이는 효과는 분명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21. 과원규모화사업 효과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과수농가당 평균면적 증가분	11.88	9.82	8.64	8.28	8.02	6.80	6.43	8.48	7.69

- 결과적으로 과원규모화사업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과수농가의 호당 평균면적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호당 과수면적은 가격과 같은 ‘한계’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 수치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기 위해서는 면적을 크게 늘거나 농가수가 현저하게 감소해야 한다. 그만큼 평균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많아야 한다.
 - 이에 반해, 한계개념의 일종인 가격은 마지막 단위에만 영향을 주면 가격 자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효과를 만들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 수 있다. 과원규모화사업은 과수농가의 평균을 올리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금액이 아주 많지 않아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둘째, 농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매년 동일한 사업금액으로는 사업대상 면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농지가격은 매년 상승추세를 보인 반면, 과원규모화사업의 투자액을 그에 비례해 증액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원규모화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
- 과원규모화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과수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호당 면적이 증가하는 효과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과수농가가 증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도 과원규모화사업의 효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 과수 전체농가 가운데 3.0ha 이상인 농가의 비중과 5.0ha 이상인 농가의 비중을 살펴보면, 2005년 이후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3.0ha 이상 농가의 비중이 2005년에 5.7%에서 2013년에 7.4%로 증가하였고, 5.0ha 이상의 농가 비중도 같은 기간 1.1%에서 2.2%로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과수농가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농가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은 대규모 농가의 수 자체도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 결과는 평균적으로는 농가 호당 면적이 줄어들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수는 증가해, 전체적으로 대규모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과원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1.7. 소결

- **생산경쟁력강화** 정책의 세부사업인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시행은 과수 농가의 시설 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외 ‘과수우량묘목생산’, ‘과원규모화’,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업도 생산기반조성, 전문화된 경영체 육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생산경쟁력강화 사업군의 4개 성과지표 가운데 목표대비 성과를 달성한 지표는 1개, 미달성 3개였다.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주요과실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수혜자 조사에서도 노동환경 개선, 품질 향상, 생산비 절감 등의 효과로 응답자의 89.9%가 사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낮은 실지급액, 지원 자격 및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불만족이 존재했다.
 - 2014년 ‘생산량 증가율’은 21.3%로 목표대비 94.7% 달성하였다.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의 수혜자 조사결과,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전체 응답자의 29.3%, ‘만족’ 60.6%, ‘불만족’ 9.1%, ‘매우 불만족’ 1.0%로 조사되었다.
 - 또한, 수혜농가는 사업비 지원 비율 조정,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 사업의 확대 등 농가 실정에 맞는 사업의 추진을 건의했다.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사과, 배, 포도 대상), 수혜농가는 비수혜농가 대비 수확량이 많고, 당도 및 상품 이상 비율이 높은 등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사업 수혜를 받은 사과 농가는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해 농업소득이 196만원 높고, 품종 갱신을 하여 사과의 평균 당도가 0.54 brix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배 농가의 경우, 사업의 수혜를 받은 농가는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해 농업소득이 194만원 높고, 관수·관비시설을 통해 배의 단위당 수확량은 약 643kg 향상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 포도의 경우 사업 수혜를 받은 농가가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해 포도 재배로 인한 소득이 176만원 높고, 상품 이상 비율도 약 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과수우량묘목생산사업’을 통해 무병우량묘목 생산 및 공급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묘목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2014년 ‘자체보증 묘목 점유율’은 50.7%로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공급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0.2%p 상승하였다.
- ‘과원규모화사업’의 시행으로 1.5ha 이상인 과수전업농 비중이 증가하였고, 지원 농가의 평균 경영규모가 확대되는 등 규모화·전문화된 경영체 육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1.5ha 이상 과수전업농 비중은 지원 전에 22.7%였지만 지원 후에 53.8%로 증가하였다.
 - 지원 농가 평균 경영규모: 지원 전 1.14ha → 지원 후 2.07ha
 - ‘과원규모화사업’ 심층면담 조사결과, 희망과원 우선 매입 후 원금과 이자를 매년 상환하는 지원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다만, 복잡한 사업 신청절차와 일부 담보 요구로 인한 부담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과원규모화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비교한 결과, 2005~2013년까지 매년 과수농가 호당 7.7~11.9㎡, 총 76.05㎡의 면적이 증가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해당 사업으로 인한 과원규모화가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매년 일정 수준의 면적 증대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과실전문생산단지조성사업’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증가하는 등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수혜자 조사에서도 재해예방, 재배 환경 개선, 품질 향상, 생산비 절감 등의 효과로 응답자 중 84.6%가 사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늦은 완공 시점, 낮은 지원 단가, 복잡한 행정절차 등에 대한 불만족이 제기되었다.

- 과수농가 소득은 2003년 187백 1천 원/10a에서 2013년 317백 6천 원/10a로 증가하였다.
- 주요과실 평균 단위면적당 생산량(kg/10a): 1,622('11) → 1,554('12) → 1,555('13) → 1,622('14)
- 수혜자 조사결과,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20.5%, '만족' 64.1%, '불만족' 12.8%, '매우 불만족' 2.6%로 조사되었다.
- 수혜농가는 농가 현실에 맞는 사업 진행, 행정절차 간소화, 원활한 사업진행 등 농가의견이 반영된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2.2. 원예유통경쟁력 강화

2.2.1. 정책목표 및 개요

- 원예유통경쟁력강화 정책은 농업인의 조직화 유인, 농산물의 수확후 관리 개선, 가공·유통구조의 효율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산 원예농산물의 시장차별화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후생 증대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 유통경쟁력강화의 세부사업별 사업 목적,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자격, 예산과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22. 유통경쟁력강화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사업명		개요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목적	▪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 가능하고 국내과실을 대표 할 수 있는 전국 공동브랜드 육성 ▪ 지역단위 군소 브랜드를 통합하여 지역공동브랜드 육성
	지원내용	▪ 홈페이지 운영, 유통정보화, 농가유통 교육 등 ▪ 인건비·마케팅 활동비, 상품개발비, 교육용기자재 구입비 등 ▪ 광고 홍보비, 소비촉진 시식회, 과실브랜드 축제 등(과실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포괄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과수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과실 브랜드 경영체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9억 원 ▪ 실적 : 9억 원
과수거점 산지유통 센터건설	사업목적	▪ 규모화·현대화 된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Hub)으로 육성하고 산지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
	지원내용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지원대상자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62억 원 ▪ 실적 : 62억 원
농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목적	▪ 원예작물 및 발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비용절감 고품질화시설 및 브랜드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산 및 유통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지원내용	▪ 심의위원회운영, 조직결성 및 법인설립, 경영컨설팅 등(조직운영 지원) ▪ 브랜드 개발·관리, 상품판촉 등(마케팅 지원) ▪ 공정육묘장, 우량종구 생산단지 등 공동이용시설·장비(생산기반 조성 지원) ▪ 건조, 가공, 위생시설 등(종합처리시설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원예작물(채소류)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11억 원 ▪ 실적 : 11억 원
인삼약용 작물 계열화 지원	사업목적	▪ 생산·유통·가공구조를 생산자단체의 계열화를 통해 유통구조를 현대화 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
	지원내용	▪ 계약재배(재배단계부터 이력관리를 실시하는 농가와 생산자단체 간 계약 재배를 실시하고 계약에 참여하는 농가에 계약자금 지원)

사업명		개요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수매사업(농가와 계약재배한 물량에 대하여 수매전 계약대상자의 생산 이력을 포장별로 확인하고, 잔류농약분석을 실시한 후 수매한 물량에 대하여 수매자금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재배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등을 실시하여 고품질 청정 인삼·약용작물을 생산하고, 이를 수매·가공·유통하여 생산·유통을 계열화하려는 조직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186억 원 - 실적 : 186억 원
	사업목적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조직화·규모화·브랜드화를 통한 인삼 전문생산단지 조성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내용	- 생산·유통시설현대화(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등 유통·가공 시설 등 시설비)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계획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대상 및 자격	경작규모 200ha 이상 규모로 조직화 할 수 있으며, 기존의 농림수산 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법인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18억 원 - 실적 : 11억 원
	사업목적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저온유통 체계구축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의 신규설치 및 개보수)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의 신규설치 - 저온수송차량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농업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 - 김치가공업체(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이면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 또는 참여조직 우선 선정)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81억 원 - 실적 : 67억 원
	사업목적	계열화 경영체를 육성하고 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발식량작물의 생산·유통·소비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하여 자급기반을 확충
주요곡물산업 육성(발작물 브랜드지원, 공유통종합 처리장)	지원내용	- 주요 발작물 기반 조성 및 건조, 저장시설 지원 - 국산 콩 건조·저장 시설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역 통합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한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농협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12억 원(공 유통종합처리장), 29억 원(발작물브랜드지원) - 실적 : 29억 원(발작물브랜드지원)
	사업목적	

2.2.2. 성과지표

○ 원예유통경쟁력강화를 위해 ‘과실브랜드육성지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농산물브랜드육성’, ‘인삼약용작물계열화’,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저온유통체계구축’, ‘주요곡물산업육성(발작물브랜드지원, 공유통종합처리장)’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 성과지표를 평가에 활용하였다.

표 3-23. 유통경쟁력강화 분야 성과지표

사업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과실공동브랜드 유통비중비율(%)	(공동브랜드 과실생산량/과실생산량)×100
과수거점산지유통센 터건설	거점 APC 매출액 증가율(%)	(당년 매출액-기준연도('10) 매출액)/기준연도('10) 매출액)×100
농산물브랜드육성	원예브랜드농산물 매출액 비율(%)	(브랜드 부여된 농산물 매출액/경영체 전체 매출액)×100
인삼약용작물 계열화	인삼 이력관리 유통물량 비율(%)	(이력관리 인삼유통량/인삼유통량)×100
	인삼 계약재배(이력관리) 비율(%)	(당해년도 계약재배 이력관리 면적/당해년도 신규 식재면적)×100
	인삼계열화사업 면적 비중(%)	(인삼계열화 계약재배면적/전체 인삼재배면적)*100
인삼생산유통시설현 대화	인삼전문생산단지 대상 선정 개소 수	인삼전문생산단지 대상 선정 개소 수
저온유통체계구축	저온유통물량 비중(%)	(지원조직의 채소·버섯류 저온유통물량/채소·버섯류 총 취급물량)×100
주요곡물산업 육성지원 (발작물브랜드지원, 공유통종합처리장)	브랜드경영체 생산량(천 톤)	Σ브랜드경영체 생산량
	브랜드경영체 생산량 점유율(%)	Σ브랜드경영체 생산량 점유율

2.2.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 과실브랜드육성지원³⁶⁾사업

○ 과실주산지 중심의 지역공동·국내 과실대표브랜드 육성을 위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주요 산지의 공동계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 과실브랜드 유통비중’도 증가하고 있어, 국내 브랜드 정착,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광역브랜드의 규모화·조직화 정도를 나타내는 주요 산지 유통조직들의 공동계산율은 2012년 38.3%에서 2014년 56.7%로 상승하였다.
- 고품질 과실브랜드(지역공동브랜드) 유통량은 2013년 175천 톤에서 2014년 214천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성과지표인 ‘고품질 과실브랜드 유통비중’도 전년 대비 0.7%p 상승한 15%이다.

36) 2014년까지 총 18개(전국브랜드 1개, 지자체 17개)의 과실브랜드가 선정됨.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사업

○ 2014년 전국 거점 APC 매출액 실적은 4,5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원예 농산물 생산액에서 과수거점 APC 처리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과일 유통의 규모화·조직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과수거점 APC 원예농산물 취급비중: 22.5%('12) → 25.0%('13) → 29.7%('14)
- 2014년 예산은 전년 대비 6.1% 감소한 62억 원이며, 집행률은 100%이었다.

□ 농산물브랜드육성³⁷⁾사업

○ 원예작물브랜드는 기존 17개소에서 2011~2012년에 6개소가 추가적으로 개설되었으며, 2014년 현재 총 23개소가 육성되었다. '농산물브랜드육성사업'은 원예 브랜드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생산·가공·유통 등 계열화를 통한 자체 우수 농산물 브랜드 점유율 확대 및 지역 품목 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4년 성과지표인 '원예브랜드 농산물 매출액 비율'은 88.8%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 대비 1.2%p 상승하였다. 따라서, 원예 경영체의 브랜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2010년도부터 일몰사업으로 지정되어 예산은 계속 감소하였으며, 이후 신규사업이 없었고, 2012년에 시작된 사업을 2014년까지 지원하여 완료되었다. 최근에 지원된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 2014년 예산은 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 감소하였다.

□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 해당 사업은 2014년부터 사업 성과지표를 '인삼계열화사업면적비중³⁸⁾'으로 변경하여 평가한다. 기존 지표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100% 이상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변경된 지표인 '인삼계열화면적비중'도 목표량을 3.7%p 초과

37) '농산물브랜드육성사업'은 2008~2011년까지 원예브랜드 사업과 발작물브랜드 사업을 분리하여 관리하였지만, 2012년부터 통합하여 관리하고, 2014년부터 다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음.

38) '인삼이력유통물량비율', '인삼계약재배(이력관리)비율'보다 사업 성과측정에 더 적절한 지표로 판단되어 변경함.

한 18.2%이고 125.5%의 달성률을 보여 인삼농가 수급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의 예산은 100% 집행되었다.

- 2012~2014년까지 사업물량³⁹⁾은 계약재배 면적 2,070ha, 수매 7,782톤, 인삼 신규 계약재배 면적은 660ha이며, 인삼계열화 계약재배 면적(5년간)은 2,670ha로 전체 인삼재배 면적(14,652ha) 중 18.2%로 전년 대비 1.7%p 상승했다.
-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의 2014년 예산은 186억 원으로 원예 유통경쟁력강화 사업 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년 대비 67.4% 감소하였다.
- 인삼 수매자금(374억 원)은 농협은행 이차보전 자금(융자)으로 전환되어 2014년 예산이 감소하였다.

□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 인삼 생산·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해당 사업은 2014년 일시적인 사업 수요 부족으로 신규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원 증가한 18억 원이었으나 계속 사업만 진행된 관계로 집행률은 61.1%이었다.

□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 해당 사업은 농가소득 증대, 가격 및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성과지표인 ‘저온유통물량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14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⁴⁰⁾’으로 예냉설비 1개소, 저온저장고 30개소, 저온선풍장 4개소, 저온수송차량 44대, 양잠산물저온시설 5개소 등을 지원했다.
-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의 예산은 2013년에 277억 원으로 전년보다 상승하였지만, 무배추 출하조절 시설 사업 예산 미확보로 인해 2014년 81억 원으로 감축되었다. 2014년 실적⁴¹⁾은 67억 원이며, 집행률은 82.7%로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였다.

39) (인삼) 계약재배 1,770ha, 수매 6,787톤, (약용) 계약재배 300ha, 수매 995톤

40) 예냉설비(신규 1), 저온저장고(신규 22, 개보수 2, 김치 6), 저온선풍장(신규 4)

41) 수시배정액 중 일부 미집행 및 담보 부족으로 인한 융자금 미집행.

□ 주요곡물산업육성⁴²⁾사업

○ 2014년에 재추진된 ‘발작물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과 공유통종합처리장지원사업’은 지표를 변경하여 생산량 지표에서 점유율 지표로 변경하여 평가하였다. 기존 성과지표인 ‘발작물브랜드경영체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변경된 지표인 ‘생산량 점유율’은 31.6%로 나타나 발작물경영체의 지역단위 조직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2012년 ‘공유통종합처리장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충북 괴산에 1개소를 설치하였고, 2014년에 1개소(문경)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미시행되었다.
- 사업의 예산은 총 41억 원으로 ‘발작물브랜드지원사업’에 29억 원이 배정되어 100% 집행되었지만, ‘공유통종합처리장사업’은 세수부족으로 2014년에는 미집행되었다.

표 3-24. 유통경쟁력강화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과실 브랜드 육성지원	고품질 과실브랜드 유통비중(%)	목표	5.0	7.0	8.5	9.5	8.5	9.5	15.0
		실적	5.2	7.8	8.8	9.6	8.6	14.3	15.0
		달성률(%)	104	111.4	103.1	101.1	101.2	150.5	100.0
	예산		25	23	18	14	13	10	9
	실적		25	23	18	14	12	10	9
	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92.3	100.0	100.0
과수거점 산지유통 센터건설	거점 APC 매출액 증가율(%)	목표	-	-	-	5.0	12.0	45.0	50.0
		실적	-	-	-	17.1	41.9	46.6	68.8
		달성률(%)	-	-	-	342	349.2	103.6	137.6
	예산		149	8	68	83	82	66	62
	실적		149	8	68	83	82	66	62
	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산물 브랜드 육성	원예브랜드 농산물 매출액 비율(%)	목표	-	-	-	70.0	85.0	87.0	85.0
		실적	-	-	-	81.6	87.2	87.6	88.8
		달성률(%)	-	-	-	116.6	102.6	100.7	104.5
	예산		223	381	464	138	140	100	11
	실적		182	360	319	138	140	100	11
	집행률(%)		81.6	94.5	68.8	100.0	100.0	100.0	100.0
인삼약용 작물 계열화	인삼 이력관리 유통물량 비율(%)	목표	10.1	10.1	7.0	7.6	7.6	9.3	지표 변경
		실적	11.9	8.5	7.6	7.1	9.2	9.7	
		달성률(%)	117.8	84.2	108.6	93.4	121.1	104.3	
	인삼 계약재배 (이력관리) 비율(%)	목표	13.6	15.0	10.0	10.4	12.2	14.2	지표 변경
		실적	18.6	16.6	10.4	12.6	14.4	20.2	
		달성률(%)	136.8	110.7	104.0	121.2	118.0	142.3	

42) 계열화경영체육성, 건조·선별·저장 등 유통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낙후된 발식량작물의 생산·유통·소비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지급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임.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삼계열화 사업면적비중	목표	-	-	-	-	12.0	13.0	14.5
		실적	-	-	-	-	12.0	16.5	18.2
		달성률(%)	-	-	-	-	100.0	126.9	125.5
	예산		522	522	490	427	519	571	186
	실적		522	522	490	427	720	571	186
	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38.7	100.0	100.0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인삼전문생 산단지 대상 선정 개소수	목표	-	-	2	2	2	2	2
		실적	-	-	2	2	2	2	0
		달성률(%)	-	-	100	100	100	100	0.0
	예산		17	17	17	21	13	17	18
	실적		-	-	17	21	13	17	11
	집행률(%)		0.0	0.0	100.0	100.0	100.0	100.0	61.1
저온유통 체계구축	저온유통물 량 비중(%)	목표	-	-	14.7	20.0	30.0	45.0	40.0
		실적	-	-	14.7	26.7	39.1	57.0	59.0
		달성률(%)	-	-	100	133.5	130.3	116.7	147.5
	예산		30	30	76	120	71	277	81
	실적		-	-	76	120	71	177	67
	집행률(%)		0.0	0.0	100.0	100.0	100.0	63.9	82.7
주요곡물 산업육성 (공 유통중 합처리장 등)	발작물브랜 드경영체생 산량(천 톤)	목표	-	-	40.0	57.0	87.0	-	지표 변경
		실적	-	-	49.0	60.0	89.0	-	
		달성률(%)	-	-	122.5	105.3	102.3	-	
	발작물브랜 드경영체생 산량 점유율(%)	목표	-	-	-	-	-	-	34.2
		실적	-	-	-	-	-	-	31.6
		달성률(%)	-	-	-	-	-	-	92.4
	발작물브랜 드지원사업	예산	38	26	34	20	-	-	29
		실적	-	26	34	20	-	-	29
		집행률(%)	-	100.0	100.0	100.0	-	-	100.0
	공유통중합 처리장	예산	-	-	-	-	12	-	12
		실적	-	-	-	-	12	-	-
		집행률(%)	-	-	-	-	100.0	-	PP0.0

○ 유통경쟁력강화 사업군의 7개 성과지표(8개 사업) 가운데 목표 대비 성과를 달성한 지표는 5개, 미달성 2개였다.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는 ‘인삼전문생산단지 대상 선정 개소수’, ‘발작물브랜드경영체 생산량 점유율’이다.

- ‘인삼전문생산단지 대상 선정 개소수’, ‘발작물브랜드경영체 생산량 점유율’의 달성도는 각각 0%, 92.4%로 사업수요 부족과 경영체 사업추진지연으로 인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2.2.4. 소결

○ 유통경쟁력강화 정책 시행으로 지역별 대표브랜드 육성 및 규모화 등 유통구조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수요부족,

사업 예산 미확보 및 세수부족 등으로 인해 예산이 100% 집행되지 않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

- 유통경쟁력강화 사업군의 7개 성과지표 가운데 목표대비 성과를 달성한 지표는 5개, 미달성 2개였다.
-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시행으로 주요 산지의 공동계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고품질 과실브랜드 유통비중’도 증가하는 등 국내 브랜드의 정착,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주요 산지 공동계산율은 2012년 38.3%에서 2014년 56.7%로 증가했다.
 - ‘고품질 과실브랜드 유통비중’은 2008년 5.2%에서 2014년 15%로 증가했다.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사업’을 통해 과수거점 APC 매출액 실적이 증가하고, 원예 농산물 생산액에서 과수거점 APC 처리액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과일 유통의 규모화·조직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과수거점 APC 원예농산물 취급비중은 2013년 25%에서 2014년 29.7%로 증가했다.
- ‘농산물브랜드육성사업’으로 생산·가공·유통 등 계열화를 통한 농산물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품목 산업의 구심점 역할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2014년 ‘원예브랜드 농산물 매출액 비율’은 88.8%로 목표대비 104.5%를 달성하여 원예 경영체의 브랜드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시행으로 ‘인삼계열화면적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인삼농가의 수급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인삼계열화사업 면적 비중’은 2012년 12%에서 2014년 18.2%로 증가했다.
 - 2012~2014년까지 사업물량은 계약재배 면적 2,070ha, 수매 7,782톤 이었다.
- ‘주요곡물산업육성사업’은 계열화경영체육성, 건조·선별·저장 등 유통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발작물경영체의 지역단위 조직화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발작물브랜드경영체 생산량’이 증가 추세이고, 2014년 ‘생산량 점유율’도 31.6%로 목표에 근접했다.

제4장

맞춤형농정 추진
분야 성과평가

제4장

맞춤형농정 추진 분야 성과평가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1. 개요

- 맞춤형농정추진의 전략목표는 ‘FTA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농가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여 농업체질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소득안정, 고령농의 노후생활보장, 전업농의 규모화 및 경영안정(위험관리)을 촉진’ 하는데 있다.
 - 전업농 중심으로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고령농 비중이 높은 농업인력구조를 젊은 전업농 중심으로 개편하며, 농가의 경영위험에 대비한 경영안정장치를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맞춤형농정분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목표에 따라 5개 사업군, 16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다.
 - ① 신규농업인력육성은 2개 사업으로 ‘후계농업경영인육성’, ‘후계농업경영인지원 및 우수후계농업경영인추가지원(이차보전)’이 시행되고 있다.
 - ② 농업경영체역량강화는 3개 사업으로 ‘농업·농촌교육훈련’, ‘농업경영컨설팅’, ‘농업경영체등록’이 시행되고 있다.
 - ③ 경영안정화는 6개 사업으로 ‘농업재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발농업직불제’, ‘조 건불리지역직불제’, ‘농기계임대’, ‘농지연금’이 시행되고 있다.
 - ④ 영농규모화는 2개 사업으로 ‘농지매입비축’, ‘경영이양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다.
 - ⑤ 생산기반조성은 3개 사업으로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 ‘다목적농촌용수개발’이 시행되고 있다.

그림 4-1. 맞춤형농정 분야의 세부사업



○ 2014년 맞춤형농정에 투입된 예산 1조 1,994억 원 가운데 86.5%인 1조 369억 원이 집행되었다. 맞춤형농정 전체 예산가운데 경영안정화 예산비중이 39.9%로 가장 높고, 생산기반조성이 25.0%, 영농규모화 15.8%, 신규농업인력육성 15.1%, 농업경영체역량강화 4.2% 순으로 나타났다.

- 맞춤형농정에 투입된 예산은 전년 대비 9.5% 증가했으나, 예산집행률은 86.5%로 전년 대비 6.0%p 하락하였다.
- 사업군별 예산을 살펴보면, 경영안정화 예산은 전년 대비 39.7%, 농업경영체역량강화 7.1%, 생산기반조성 1.7%가 증가한 반면, 영농규모화 예산은 전년 대비 17.6% 감소하였다. 신규농업인력육성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다.
- 사업군별 예산집행률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군이 90%이상 높은 예산집행률을 보인 반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경영안정화의 예산집행률은 64.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 2014년 ‘농업재해보험사업’과 ‘발농업직불제’의 예산집행률은 각각 63.1%, 61.2%로 낮아 경영안정화 전체 예산집행률(87.9%→64.1)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표 4-1. 맞춤형농정 분야 예산집행률

단위: 억 원

정책목표	집행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 대비 증감률 (%)
전체	예산	3,600	4,768	5,756	6,145	8,444	10,956	11,994	9.5
	실적	2,813	3,358	4,541	5,146	10,496	10,129	10,369	2.4
	집행률(%)	78.1	70.4	78.9	83.7	124.3	92.5	86.5	-6.0p
신규농업인 력육성	예산	2,097	2,150	2,152	1,733	1,996	1,816	1,816	0.0
	실적	1,577	1,630	1,389	798	1,605	1,409	1,940	37.7
	집행률(%)	75.2	75.8	64.5	46.0	80.4	77.6	106.8	29.2p
농업경영체 역량강화	예산	351	573	566	552	559	468	501	7.1
	실적	344	543	532	455	635	462	471	2.0
	집행률(%)	98.0	94.8	94.0	82.4	113.6	98.7	94.0	-4.7p
경영안정화	예산	852	1,200	1,589	1,664	2,631	3,423	4,782	39.7
	실적	761	861	1,330	1,727	5,033	3,010	3,063	1.8
	집행률(%)	89.3	71.8	83.7	103.8	191.3	87.9	64.1	-23.8p
영농규모화	예산	300	845	1,449	2,196	2,258	2,299	1,895	-17.6
	실적	131	324	1,290	2,166	2,223	2,298	1,895	-17.5
	집행률(%)	43.7	38.3	89.0	98.6	98.4	100.0	100.0	0
생산기반 조성	예산	-	-	-	-	1,000	2,950	3,000	1.7
	실적	-	-	-	-	1,000	2,950	3,000	1.7
	집행률(%)	-	-	-	-	100.0	100.0	100.0	0

2. 정책 목표별 성과평가

2.1. 신규농업인력육성

2.1.1. 정책목표 및 개요

- 신규농업인력육성 정책은 ‘농가 인구감소, 고령화, 그리고 FTA이행 등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양성과 농업 경영체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신규농업인력육성의 세부사업별 사업 목적,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자격, 예산과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2. 신규농업인력육성사업 목적과 개요

사업명		개요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사업목적	▪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후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 발굴 및 육성
	지원내용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대상에 대한 홍보 ▪ 지자체에서 선정한 후계농 평가에 필요한 예산지원
	사업시행 주체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4억 원 ▪ 실적 : 4억 원
후계농업경영 인 지원 및 우수후계농업 경영인 추가지원 (이차보전)	사업목적	▪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영농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및 유지
	지원내용	▪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 영농기반 조성이나 영농규모 확대 및 개보수 자금 지원(이차보전)
	지원 대상 및 자격	▪ 「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정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발·추천한 자 ▪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된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서 「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정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발·추천한 자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1,812억 원 ▪ 실적 : 1,936억 원

2.1.2. 성과지표

- 신규농업인력육성은 전문 농업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육성’과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및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이차보전)’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세부 사업별 성과지표를 평가에 활용한다.

표 4-3. 신규농업인력육성 분야 성과지표

사업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후계농업인육성	후계농업경영인 영농 정착률(%)	$(\text{선정 후계농업인 수} - \text{영농미종사자 수}) / \text{선정 후계농업인 수} \times 100$
	후계농업경영인 증가율(%)	$(\text{당해년 누적 후계농 선정자 수} - \text{전년 누적 후계농 선정자 수}) / \text{전년 누적 후계농 선정자 수} \times 100$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및 우수후계농업 경영인추가지원 (이차보전)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자수	선정자 수(명)

2.1.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 후계농업경영인육성·후계농업경영인지원 및 우수후계농업경영인추가지원(이차보전)

○ 후계농업경영인(이하 후계농)으로 선정된 농업인 가운데 97.5%가 영농에 정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까지 누적된 후계농업경영인은 전년 대비 1.36%p 증가하여 농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2014년에 후계농업경영인 선정된 농업인은 1,861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선정 인원 수 (1,638명)대비 13.6% 증가하였다.
- 2014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중(1,861명) 영농에 정착한 인원은 1,815명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컨설팅과 영농자금 지원이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정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후계농사업의 지속적인 홍보효과로 2014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인원은 선정인원 대비 362명(19.4%) 많은 2,223명이다.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인원: 1,764명('11) → 1,805명('12) → 2,147명('13) → 2,223명('14)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에 관한 최초 정보취득은 언론매체를 통하지 않고, 대부분 지자체 담당자나 비공식적 경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조사자들⁴³⁾중 72%가 사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 자료제공이 충분하였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43) 2012년과 2013년의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수료생 4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하였음(2014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성과분석 결과 참고).

표 4-4.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영농정착 인원 추이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후계농 선정 인원(명)	1,435	1,559	1,500	1,564	1,849	1,861
영농 정착 인원(명)	1,332	1,439	1,466	1,526	1,813	1,815

- ‘후계농업경영인지원 및 우수후계농업경영인추가지원(이차보전)’은 2014년부터 정책금리가 전년 대비 후계농업경영인은 1%p,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2%p 인하하여 적용됨으로써(기존 융자 대상자도 동일하게 적용)이자부담 경감에 따른 사업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성과지표인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인원’은 2013년 288명에서 2014년 301명으로 전년 대비 13명(4.5% 증가)이 추가 선정되어 농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2014년 사업예산은 1,812억 원이고, 사업실적은 1,936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4억 원(6.8%)을 추가 집행하였다.
 - 초기 영농기반 마련에 필요한 창업자금(융자지원)을 지원함으로써 영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4-5. 신규농업인력육성 성과지표 측정결과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후계농업 경영인 영농정착률 (%)	목표	-	91.0	92.0	95.0	95.0	96.0	97.0
		실적	-	92.8	92.3	97.7	97.6	98.1	97.5
		달성률(%)	-	102.0	100.3	102.8	102.7	102.2	100.5
	후계농업 경영인 증가율(%)	실적	1.34	1.12	1.20	1.14	1.17	1.37	1.36
	예산(억 원)		281	334	336	317	316	4	4
	실적(억 원)		281	334	336	53	316	4	4
	집행률(%)		100.0	100.0	100.0	16.7	100.0	100.0	100.0
후계농업 경영인 지원 및 우수후계 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이차보전)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자수	목표	-	-	-	-	-	-	-
		실적	1,607	1,319	959	438	327	288	301
		달성률(%)	-	-	-	-	-	-	-
	예산(억 원)		1,816	1,816	1,816	1,416	1,680	1,812	1,812
	실적(억 원)		1,296	1,296	1,053	745	1,289	1,405	1,936
	집행률(%)		71.4	71.4	58.0	52.6	76.7	77.5	106.8

- 신규농업인력육성 사업군의 3개 성과지표(2개 사업) 가운데 목표대비 성과를 달성한 지표는 1개, 목표 미설정 혹은 결과 미계측 지표가 2개였다.

2.1.4. 소결

- 신규농업인력육성 정책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컨설팅과 영농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 육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신규농업인력육성 사업군의 3개 성과지표(2개 사업) 가운데 목표대비 성과를 달성한 지표는 1개, 목표 미설정 또는 결과 미계측 지표는 2개였다.
- 2014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의 지속적인 홍보효과로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인원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2,223명이다.
 - 2014년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1,861명)은 최근 3년간 평균 선정인원(1,638명)대비 13.6% 증가하였다.
- ‘후계농업경영인육성·후계농업경영인지원 및 우수후계농업경영인추가지원(이자보전)’을 통해 청·장년층의 농업 진입을 장려하여 농업경영인의 감소 현상을 일정부분 완화시키며 미래농업을 선도할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가운데 영농에 정착한 비율은 97.5%이다
 - 2014년부터 정책금리가 전년 대비 후계농업경영인은 1%p,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2%p 인하하여 적용됨으로써(기존 융자대상자도 동일하게 적용) 이자부담 경감에 따른 사업수요가 증가하였다.
 - 후계농업인경영육성사업 신청인원: 2,147명('13) → 2,223명('14)

2.2. 농업경영체역량강화

2.2.1. 정책목표 및 개요

- **농업경영체역량강화** 정책은 ‘FTA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전문 농업경영체 양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실제 영농에 필요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전문성과 창조성을 겸비한 농업 인력을 양성하고, 컨설팅을 통한 농업경영체의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 또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 관리하여 각종 농림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
- 농업경영체역량강화의 세부사업별 사업 목적,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자격, 예산과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6. 농업경영체역량강화 사업목적과 개요

사업명	개요
농업·농촌 교육훈련	사업목적
	▪ 전문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젊은 후계인력 양성
	▪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사업비 보조
	▪ 결혼이민여성농업인에게 실습위주의 교육 실시 및 정착지원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대상 및 자격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252억 원 ▪ 실적 : 238억 원
농업 경영체 등록	사업목적
	▪ 농업경영체가 지속적으로 경영능력과 기술을 혁신하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지원내용
	▪ 컨설팅업체 자문비용 지원 ▪ 법인 및 조직경영체 컨설팅 회의비, 자료조사비 지원
농업 경영체 등록	지원 대상 및 자격
	▪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며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농업법인 ▪ 다수의 농업경영체, 협동조합 등이 구성·운영하는 조직 경영체 ▪ FTA 피해 농업경영체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36억 원 ▪ 실적 : 23억 원
농업 경영체 등록	사업목적
	▪ 농업인·법인의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체 단위로 등록·관리 ▪ 맞춤형 농정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정책자금 지원시 적정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정보 제공
	지원내용
	▪ 등록된 경영체에 농림사업, 직불제 등 우선 지원 ▪ 미등록(또는 변경등록 하지 않는) 경영체는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농업 경영체 등록	지원 대상 및 자격
	▪ 융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영체(농업인·법인)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199억 원 ▪ 실적 : 196억 원

2.2.2. 성과지표

- 농업경영체역량강화를 위해 ‘농업·농촌교육훈련’, ‘농업경영컨설팅’, ‘농업경영체등록’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 성과지표를 평가에 활용한다.

표 4-7. 농업경영체역량강화 분야 성과지표

단위: %

사업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농업·농촌 교육훈련	농업교육 전·후 교육생의 역량 향상률	$(\text{교육 후 역량지수} - \text{교육 전 역량지수}) / \text{교육 전 역량지수} \times 100$
농업 경영 컨설팅	컨설팅 전·후 매출액 증가율	$(\text{컨설팅 다음연도 매출액} - \text{전년도 매출액}) / \text{전년도 매출액} \times 100$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정책 활용도(기존)	$(\text{해당연도 정책연계 농림사업수} - \text{전년도 정책연계사업수}) / \text{전년도 정책연계사업수} \times 100$
	등록정보의 현행화율(신규)	$(\text{등록정보 변경비율} / \text{전체 경영체}) \times 100$

2.2.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

- 농업인 정규교육(농고 및 농대), 농업마이스터대학, 후계농교육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내용 구성, 생산 및 고부가가치 사업과의 교육연계 등을 통해 농업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의 성과지표는 ‘농업교육 전·후 교육생의 역량 향상률’로 교육생의 역량 향상이 2013년 15.1%에서 2014년 16.6%로 1.5%p 증가하였다.
 - 전문 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 교육생의 역량 향상⁴⁴⁾은 교육 전 3.18점에서 교육 후 3.64점으로 0.46점 향상되었으며, 농고 교육생의 역량 향상⁴⁵⁾은 교육 전 3.07점에서 교육 후 3.62으로 0.55점 향상되었다. 농대 교육생의 역량 향상⁴⁶⁾은 교육 전 3.09점에서 교육 후 3.65점으로 0.56점 향상되었다.⁴⁷⁾

44) 2010년에 개발된 ‘농업인 영농능력표준진단’을 토대로 교육생의 역량 향상을 분석함(자료: 농림수산 식품교육문화정보원).

45) 역량 향상 진단에는 영농능력, 직업가치관, 영농의지 등 3개 요인을 분석하였음(자료: 농림수산 식품교육문화정보원).

46) 역량 향상진단에는 영농능력, 직업가치관, 영농의지, 경험습득 등 4개의 요인을 분석함(자료: 농림수산 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고 역량강화 지원현황: 16개 농업계 고교, 4개 기관, 64개 과정, 19,158명 교육
- 농대 역량강화 지원현황: 14개 농업계 대학, 1개 기관, 55개 과정, 7,382명 교육
-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현황: 9개 대학, 96개 품목 전공, 1,776명 수료

□ 농업경영컨설팅사업

- 농업경영컨설팅을 받은 개별농가 및 법인경영체의 매출액은 컨설팅 전 대비 26.9% 상승하여 농업경영체의 규모 확대와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2014년 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전·후 재무성과를 분석한 결과 법인경영체의 매출액은 26.2%, 순이익은 3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농가들 또한 컨설팅 전 대비 매출액은 60.7%, 순이익은 6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는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법인경영체의 컨설팅 지원 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개별농가의 컨설팅 지원 수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여 예산집행률(63.9%)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 법인경영체 컨설팅 지원 수(개): 95('13) → 119('14)
 - 개별농가 컨설팅 지원 수(개): 483('13) → 146('14)

표 4-8. 농업경영컨설팅 성과분석 결과

단위: 백만 원

구분	법인경영체			개별농가		
	컨설팅 전	컨설팅 후	증감율(%)	컨설팅 전	컨설팅 후	증감율(%)
매출액	6,150	7,763	26.2	118	190	60.7
순이익	152	200	31.9	36	62	69.0
농업경영비	5,949	7,573	27.3	81	128	57.0

47) 성과지표의 측정도구인 '역량진단지 및 성과진단지'는 외부 전문가(서울대학교 김진모 교수)에 의뢰하여 개발하였음. 교육 전·후 전문농업인에게는 역량진단지를, 예비농업인에게는 성과진단지를 배포. 취합하여 설문조사 분석 전문기관(한국표준협회)에 의뢰하여 결과를 분석하였음. 조사대상은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생 1,765명과 농대 2,575명, 농고 4,324명이며, 측정기간은 2014년 4월(교육 전)과 2014년 10월(교육 후)임.

□ 농업경영체등록사업

- 2014년에는 총 152만 8,931개의 농업경영체가 등록을 갱신하였고, 직불금 정보, 소득, 자산, 부채 등의 정보를 ‘농업경영체등록’에 추가 입력하여 정보 최신화, 직불금 부정수급방지, 각종 직불제 등 농림지원사업의 재정집행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2014년부터 개편된 성과지표인 ‘등록정보의 현행화율’은 92.8%로 당초 목표(56%)대비 26.8%p 증가하였다.
- 경영체정보 일제갱신(변경등록) 및 농업직불금 통합신청으로 경영체정보 최신화 및 직불금 부정수급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본 사업을 통해 휴·폐경 및 타인경작 농지 신청 등 부적합 농지 1만 7,000ha를 적발하여 95억 원을 회수하였으며, 농업용 면세유 관련 조세특별법 위반, 행정행위 미이행 등을 적발하여 66억 원을 회수하였다.

표 4-9. 농업경영체역량강화 성과지표 측정 결과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농업·농촌 교육·훈련	농업교육 전후 교육생의 역량 증가율(%)	목표	-	-	-	7.0	7.0	15.0	15.0
		실적	-	-	-	16.7	16.7	15.1	16.6
		달성률(%)	-	-	-	238.6	238.5	100.6	110.7
	예산(억 원)		215	364	364	353	361	257	252
	실적(억 원)		208	334	334	259	439	254	238
	집행률(%)		96.7	91.8	91.8	73.4	121.6	98.8	94.4
농업 경영 컨설팅	컨설팅 전후 매출액 증가율 (%)	목표	6.0	20.0	20.0	20.0	25.0	25.0	25.0
		실적	7.0	37.3	25.7	21.3	29.5	29.2	26.9
		달성률(%)	116.7	186.5	128.5	107	118	116.8	107.6
	예산(억 원)		51	61	54	35	21	21	36
	실적(억 원)		51	61	51	35	21	21	23
	집행률(%)		100.0	100.0	94.4	100.0	100.0	100.0	63.9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책 활용도(%)	목표	-	-	-	30.0	30.0	20.0	지표 변경
		실적	-	-	-	64.7	39.3	30.8	
		달성률(%)	-	-	-	215.7	131	154	
	등록정보의 현행화율	목표	-	-	-	-	-	-	56.0
		실적	-	-	-	-	-	-	92.8
		달성률(%)	-	-	-	-	-	-	165.7
	예산(억 원)		85	148	148	164	167	176	199
	실적(억 원)		85	148	147	161	165	173	196
	집행률(%)		100.0	100.0	99.3	98.2	98.8	98.3	98.5

- 농업경영체역량강화 사업군의 3개 성과지표(3개 사업)는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다.

2.2.4. 소결

- 농업경영체역량강화 정책 시행으로 농업 전문 인력양성, 농업경영체 규모 확대, 농업경영체 경영능력 향상, 농림지원사업의 재정집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농업경영체역량강화 사업군의 3개 성과지표(3개 사업) 가운데 목표대비 성과를 달성한 지표는 3개였다.
-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을 통해 농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농업경영능력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업추진방식의 개선으로 농업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의 역량강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전문농업경영인 교육생 역량향상: 3.18점(교육 전) → 3.64점(교육 후)
 - 농대 교육생 역량향상: 3.09점(교육 전) → 3.65점(교육 후)
 - 농고 교육생 역량향상: 3.07점(교육 전) → 3.62점(교육 후)
- 농업경영컨설팅 전·후 개별농가 및 법인경영체의 매출액 비교 결과, 평균 26.9% 상승하여 농업경영체의 규모 확대와 경영능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컨설팅 전·후 법인경영체의 매출액은 26.2%, 순이익은 31.9% 증가하였고, 개별농가의 매출액은 60.7%, 순이익은 69.0% 증가하였다.
 - 법인경영체 컨설팅 지원 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개별농가의 컨설팅 지원 수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여 예산집행률(63.9%)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 법인경영체 컨설팅 지원 수: 95건('13) → 119('14)
 - 개별농가 컨설팅 지원 수: 483건('13) → 146('14)
- 농업등록경영체 일제갱신 및 직불금 통합신청으로 152만 8,931개의 사업체가 경영체 정보를 갱신하여 경영체 정보 최신화, 직불금 부정수급방지, 각종 직불제 등 농림재정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2014년에 직불금정보, 소득, 자산, 부채 등의 정보를 농업경영체등록에 추가 입력하였다.
 - ‘등록정보의 현행화율’은 92.8%로 당초 목표(56%)대비 26.8%p 증가하였다.

2.3. 경영안정화

2.3.1. 정책목표 및 개요

- **경영안정화** 정책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경감, 조건불리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 농기계임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고령농업인의 노후보장 등 농업인의 경영위험 해소와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고, 직불제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도모하며,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여 경쟁력 강화, 농지연금을 통한 고령농업인의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경영안정화의 세부사업별 사업 목적,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자격, 예산과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10. 경영안정화사업 목적과 개요

사업명		개요
농업재해보험 (농어업재해 재보험 포함)	사업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
	지원내용	- 농업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지원(50% 보조) * 가족(영업보험료 50% 보조) - 농업재해보험사업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지원(100% 보조) - 상품개발에 소요되는 품목개발 및 통계관리비(100% 보조)
	지원 대상 및 자격	-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 농업용시설물(축사) 소유자 또는 법인 - 보험대상 농작물을 일정규모 이상 경작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2,701억 원(농업재해보험), 230억 원(재보험) - 실적 : 1,703억 원(농업재해보험), 31억 원(재보험)
발농업 직불제	사업목적	발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통해 주요 발작물 자급률 제고 및 생산 기반 유지
	지원내용	대상품목의 재배면적에 따라 발농업 보조금 지급
	지원 대상 및 자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발농업 보조금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1,347억 원 - 실적 : 825억 원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	사업목적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
	지원내용	농업인의 소득보조, 마을공동기금 조성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에 거주하며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14억 원 - 실적 : 14억 원

사업명	개요
농기계임대	사업목적
	▪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여 생산비 절감 및 농촌 일손부족 해소
	지원내용
	▪ 임대 농기계 구입과 사후관리 지원
농기계임대	지원 대상 및 자격
	▪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
	▪ 농기계은행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농협
2014년 사업예산	예산 : 200억 원
	실적 : 200억 원
농지연금	사업목적
	▪ 고령농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
	지원내용
	▪ 가입자(배우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 지급
	▪ 종신형은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일정 금액 지급
농지연금	지원 대상 및 자격
	▪ 농지소유자 만 65세 이상
	▪ 영농경력 5년 이상
2014년 사업예산	총 소유농지가 3만 m^2 이하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2014년 사업예산	예산 : 290억 원
	실적 : 290억 원

2.3.2. 성과지표

○ 경영안정화를 위해 ‘농업재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농기계임대’, ‘농지연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 성과지표를 평가에 활용한다.

표 4-11. 경영안정화 분야 성과지표

단위: %

사업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농업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보험가입면적/대상면적)×100
	가축 재해보험 가입률	(보험가입가축 수/대상가축 수)×100
농어업재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금 지급률	(재보험지급액/재보험금청구액)×100
밭농업직불제	주요발작물의경지면적변화율 *주요발작물: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콩	(당해년도 경지면적-최근 5년간 평균 경지면적)/최근 5년간 평균 경지면적×100
	신청면적 대비 지급적격면적	(당해년도 지급면적/발직불금 신청면적)×100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정주농 비율 증가율	해당 지역의 최근 5년간 평균 정주농 비율 대비 당해년 정주농 비율
농기계임대	임대농기계 이용 농가 수(천 호)	(임대농기계 이용 농가 수/전체 농가 수)×100
	농기계 이용률(일/대)	작업일수/임대농기계 수
농지연금	농지연금 가입율(%)	(가입자 수/목표농가 수)×100

2.3.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 농업재해보험·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

-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농업재해보험은 그동안 보험대상 및 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피해 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과수 5종(사과, 배, 단감, 뽕은감, 감귤)을 대상으로 집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2008년 28.5%에서 2014년 46.3%로 보험 가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축 4종(돼지, 소, 가금, 말)을 대상으로 집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률’도 2011년 55.2%에서 2014년 89.1%로 33.9%p 증가하였다.
 - 다만, 최근 재해 발생(2013~2014년)이 적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수요 저조로 성과 지표인 ‘농작물재해보험가입률’은 목표대비 92.6%를 달성하였다.
 - 농업재해보험 지원품목은 2001년에 5개 품목(사과, 배, 소, 말, 돼지)에서 2014년 59개 품목(농작물 43개, 가축 16개)으로 확대되었으며 농작물 13만 4,369ha, 가축 2억 1,851만 8천 두(수)가 2014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
 - 해당 사업의 지표인 ‘보험 가입률’은 농가의 선택, 과거 연도의 흉·풍작에 따라 변동할 수 있어, 안정적인 지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지표인 ‘가입률’을 ‘가입금액’으로 변경하여 측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성과지표로 판단된다.
 - 자연재해 외 병충해·야생동물피해·화재 등 재해보험의 지급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농업시설과 연계한 보험 상품 판매 등 각 품목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험 상품(자기부담비율 다양화)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은 2014년에는 16.2%로 전년 대비 2.9% 감소하였다.
 - ‘농업재해보험사업’의 2014년 예산 2,701억 원 가운데 1,703억 원이 집행되어 63.1%의 예산집행률은 나타내었고,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은 2014년에 큰 규모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31억 원이 집행되었다.

□ 발농업직불제

- 2014년부터 ‘발농업직불제’의 성과지표를 ‘주요 발작물의 경지면적 변화율’에서 ‘발직불금 신청대비 적격비율’로 변경하여 평가하였다. ‘발직불금 신청대비 적격 비율’은 90.9%로서 당초 목표(75%)를 초과 달성하였다.
- 2014년부터 논에 사료 또는 쌀 이외 식량작물을 이모작할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하여 전년 대비 479억 원 증가한 770억 원의 발농업직불금을 지급하였다.
- 하지만,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농가들의 발농업직불금 신청이 예상면적 대비 42%로 저조하였으며, 농지법상 농지임대차 제한 및 소유주의 계약서 작성기피 등으로 2014년 예산 1,347억 원 가운데 825억 원을 집행하였다.

□ 조건불리직불제

- ‘조건불리직불제’의 성과지표는 ‘정주농 비율 증가율’로서 2013년 110.2%에서 2014년 98.8%로 약 11.4%p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4년에 목표로 설정한 98.5%를 초과 달성하였다.
- 조건불리직불금 단가인상(25%, 2010년), 마을공동기금의 용도 다양화(2012년), 지방비 부담완화(30% → 20, 2012년)등의 제도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정주농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완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 농기계임대사업

- 해당사업은 ‘임대농기계 이용 농가 수’와 ‘농기계 이용률’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2014년에는 28만 7천 농가가 임대 농기계를 사용했으며, 임대 농기계 1대당 평균 10.5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달성률 100.0%).
- ‘임대농기계 이용 농가 수’는 2013년 21만 농가에서 2014년 28만 7천 농가로 임대 농기계 이용 농가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 농기계 임대료가 구입비용의 0.2~0.7% 수준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 및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농기계이용률’은 2009년 1대당 6.5일에서 2014년에는 10.5일로 61.5% 증가했으며, 이는 사전 수요조사에 따른 기종 선택, 농기계 임대 사업소확장, 농기계 운반 서비스와 신속한 고장수리 등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농기계 임대 사업소 확충 수(개소): 25('11) → 30('12) → 43('13) → 42('14)

□ 농지연금사업

○ 해당사업의 성과지표인 ‘농지연금 가입률’은 2014년 26.4%로 전년 대비 9.0%p 증가하였다. 2011년 ‘농지연금사업’이 시행된 이후 2014년까지 농지연금의 총 가입자 수는 3,963건 이었으며, 농지연금으로 742억 원을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2014년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1,036건이다.
- 농지연금 가입자 수의 지속적인 확대와 연금 지원액 상향 등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일정 부문 기여하였다.
- 가입건수(누계): 2,202건('12) → 2,927('13) → 3,963('14)
- 신규가입자 월 평균 지급액(천 원): 694('12) → 831('13) → 959('14)

표 4-12. 경영안정화 성과지표 측정 결과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농업 재해보험	농작물재해 보험 가입률(%)	목표	28.5	30.5	36.0	38.0	40.0	47.0	50.0
		실적	28.5	31.4	36.0	40.2	40.2	47.4	46.3 (16.2)
		달성률(%)	100.0	103.0	100.0	105.8	100.5	100.9	92.6
	가축재해 보험 가입률 (%)	목표	-	-	-	52.6	57.9	72.0	82.0
		실적	-	-	-	55.2	71.4	77.3	89.1
		달성률(%)	-	-	-	104.9	123.3	107.4	108.7
	예산(억 원)		596	922	1,029	1,367	1,568	2,016	2,701
	실적(억 원)		596	858	1,029	1,292	1,483	2,016	1,703
	집행률(%)		100.0	93.1	100.0	94.5	94.6	100.0	63.1
농어업 재해보험	농어업재해 재보험금 지급률(%)	목표	-	-	-	100	100	100	100
		실적	-	-	-	100	100	100	100
		달성률(%)	-	-	-	100	100	100	100
	예산(억 원)		256	278	288	100	80	230	230
	실적(억 원)		165	3	29	238	2,925	229	31
	집행률(%)		64.5	1.1	10.1	238.0	3,656.3	99.6	13.5
발농업 직불제	주요발작물 의경지면적 변화율(%) *주요발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콩	목표	-	-	-	-	-	-	지표 변경
		실적	-	-	-	-	-	1.6	
		달성률(%)	-	-	-	-	-	-	
	발 직불금 신청 대비 적격 비율 (%)	목표	-	-	-	-	-	-	75.0
		실적	-	-	-	-	-	-	90.9
		달성률(%)	-	-	-	-	-	-	121.2
	예산(억 원)		-	-	-	-	624	726	1,347
	실적(억 원)		-	-	-	-	270	324	825
	집행률(%)		-	-	-	-	43.3	44.6	61.2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	정주농 비율 증가율(%)	목표	98.5	98.5	98.5	98.5	98.5	98.5	98.5
		실적	99.2	99.2	99.2	100.2	124.0	110.2	98.8
		달성률(%)	100.7	100.7	100.7	101.7	125.9	111.9	100.3
	예산(억 원)		-	-	-	-	55	14	14
	실적(억 원)		-	-	-	-	52	14	14
	집행률(%)		-	-	-	-	94.5	100.0	100.0
농기계 임대	임대농기계 이용 농가 수(천 호)	목표	20	35	52	95	105	200	250.0
		실적	36	36	55	75	135	210	287.0
		달성률(%)	180.0	102.9	105.8	78.9	128.6	105.0	114.8
	농기계 이용률 (일/대)	목표	-	6.4	6.6	6.9	8.0	9.5	10.5
		실적	-	6.5	7.0	7.5	9.2	10.1	10.5
		달성률(%)	-	101.6	106.1	108.7	115	106.3	100.0
	예산(억 원)		-	-	250	125	150	200	200
	실적(억 원)		-	-	250	125	150	200	200
	집행률(%)		-	-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지연금	농지연금 가입율(%)	목표	-	-	-	3.3	14.0	17.0	23.0
		실적	-	-	-	6.7	14.7	17.4	26.4
		달성률(%)	-	-	-	203	105	102.4	114.8
	예산(억 원)		-	-	22	72	154	237	290
	실적(억 원)		-	-	22	72	153	227	290
	집행률(%)		-	-	100.0	100.0	99.4	95.8	100.0

주: 농업재해보험의 2014년 실적 중 ()는 전품목을 대상으로 한 가입률임

○ 경영안정화 사업군의 8개 성과지표(6개 사업)가운데 목표대비 성과를 달성한 지표는 7개, 미달성 1개였다.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는 ‘농작물재해보험가입률’이었다.

- 최근 재해발생(2013~2014년)이 적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수요 저조로 성과지표인 ‘농작물재해보험가입률’은 목표대비 92.6%를 달성하였다.

2.3.4. 사업수혜자 조사

□ ‘농업재해보험사업’ 설문조사⁴⁸⁾

○ 〈조사개요〉 FTA 국내보완대책의 주요사업을 면밀히 평가하고 생산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농업재해보험사업’ 수혜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의 만족도, 만족·불만족 이유, 기존 사업의 개선점,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48) ‘농업재해보험사업’을 수혜한 100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일부 문항 미응답자 존재).

- 조사시기: 2015년 4월 1일 ~ 4월 30일
 - 응답자 연령: 40세 이하 5%, 41세~51세 10%, 51세~60세 32%, 61세~70세 35%, 71세 이상 18%
 - 영농경력: 10년 이하 11.2%(11명), 11~20년 13.3%(13명), 21~30년 20.4%(20명), 31~40년 21.4%(21명), 41년 이상 33.7%(33명)
 - 거주지역: 전라도 40.7%(37명), 경상도 34.1%(31명), 충청도·세종 19.8%(18명), 제주도 2.2%(2명), 강원도 2.2%(2명), 서울·경기 1.1%(1명)
 - 생산품목: 사과 31%, 배 28%, 벼 20%, 복숭아 3%, 국화 3%, 포도 2%, 자두 2%, 수박 2%, 감귤 2%, 화훼 1%, 토마토 1%, 참외 1%, 복분자 1%, 무화과 1%, 단감 1%, 고추 1%
- 〈세부사업 만족도〉 ‘농업재해보험사업’은 농업경영 위험 대처, 경제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낮은 실지금액, 손해평가방식의 부정확성과 불공정성, 제한적인 대상재해(태풍, 우박) 등에 대한 불만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불만족’ 35%, ‘매우 불만족’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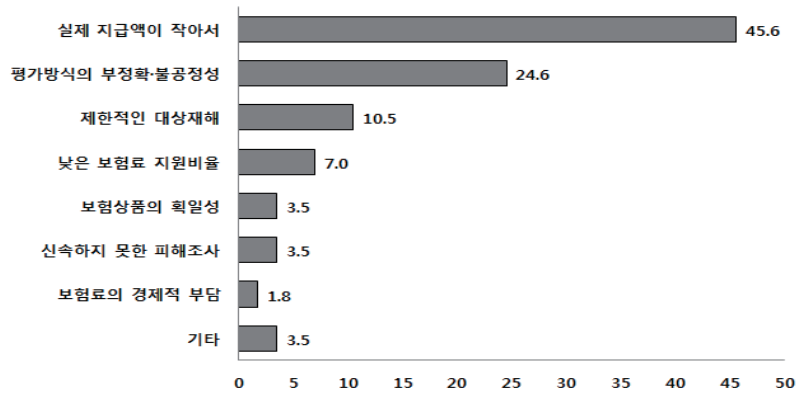
그림 4-2. 농업재해보험사업 만족도

■ 매우 만족 ■ 만족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6.0%	39.0%	35.0%	20.0%
------	-------	-------	-------

-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피해액 대비 실제 지급액이 작아서’가 4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손해평가방식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낮아서’ 24.6%, ‘제한적인 대상재해(태풍, 우박, 서리)’ 10.5%, ‘낮은 정부 보험료 지원 비율’ 7%, ‘품목이나 지역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보험 상품의 획일성’과 ‘신속하지 못한 피해조사’가 3.5%, ‘높은 보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 1.8% 순으로 조사되었다.
- 품목별로 조사 비중이 높은 ‘과수(67%)’와 ‘벼(20%)’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피해대비 낮은 실지금액’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수 농가들은 ‘손해평가방식의 부정확 및 불공정성’을 벼 농가들은 ‘제한적인 대상재해(태풍, 우박, 서리)’에 대해 불만족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3. 농업재해보험사업 불만족 이유



○ 〈건의사항〉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수혜 농업인은 까다로운 손해평가방식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손해평가대상의 확대와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 등을 건의하였다.

- 농업인들은 현행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이 농업인들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가 품목의 확대 및 평가조건의 간소화를 요구하였다.
- 또한, 보험사 직원들의 ‘농업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지식강화와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농지연금사업’ 설문조사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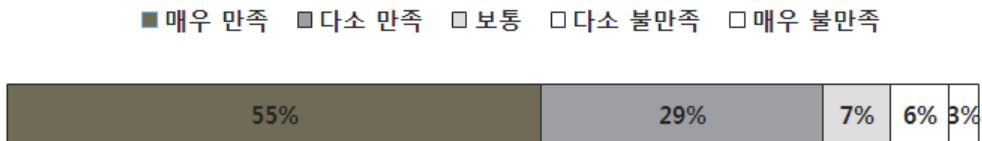
○ 〈조사개요〉 FTA 국내보완대책의 주요사업을 면밀히 평가하고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하고자 2014년 ‘농지연금사업’ 수혜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의 만족도, 기존 사업의 개선점, 정책 중요도,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 조사시기: 2014년 1월 1일~12월 10일
- 응답자 연령: 65~69세 29.3%(222명), 70~74세 28.1%(213명), 75~79세 27.7%(210명), 80~84세 10.7%(81명), 85~89세 3.2%(24명), 90세 이상 1.1%(8명)
- 연금수령액: 50만 원 미만 44.9%(340명), 50~100만 원 미만 21.6%(164명), 100~150만 원 미만 11.5%(87명), 150~200만 원 미만 8.3%(63명), 250만 원 이상 5.0%(38명), 200~250만 원 미만 8.7%(66명)

49)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연금사업’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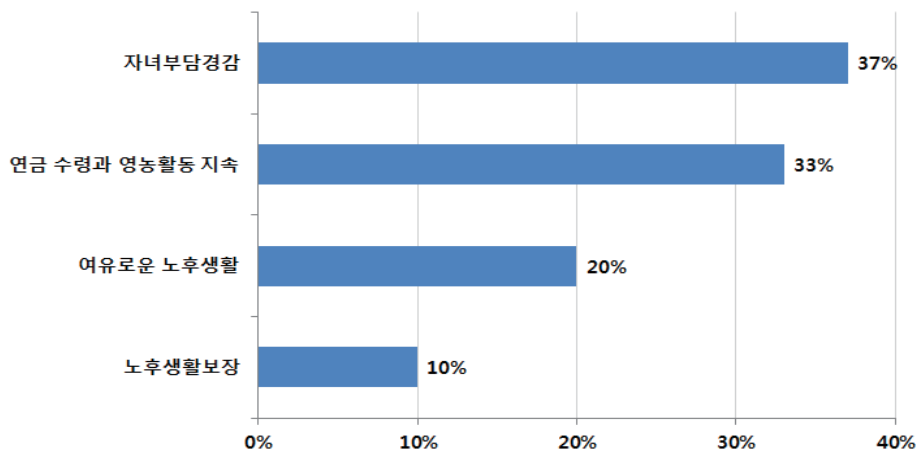
- 거주지역: 전라도 27.8%(211명), 서울·경기 25.2%(191명), 충청도 19.5%(148명), 경상도 22.8%(173명), 강원도 3.8%(29명), 제주도 0.8%(6명)
- 〈세부사업 만족도〉 ‘농지연금사업’ 시행으로 자녀에게 주는 부담 완화, 지속적인 영농 활동, 여유로운 노후생활 등의 효과가 나타나 사업에 대한 수혜 농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채무부담 과다와 적은 연금 지급액으로 인한 불만족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전체 응답자의 55%, ‘다소 만족’ 29%, ‘보통’ 7%, ‘다소 불만족’ 6%, ‘매우 불만족’ 3%로 조사되었다.

그림 4-4. 농지연금사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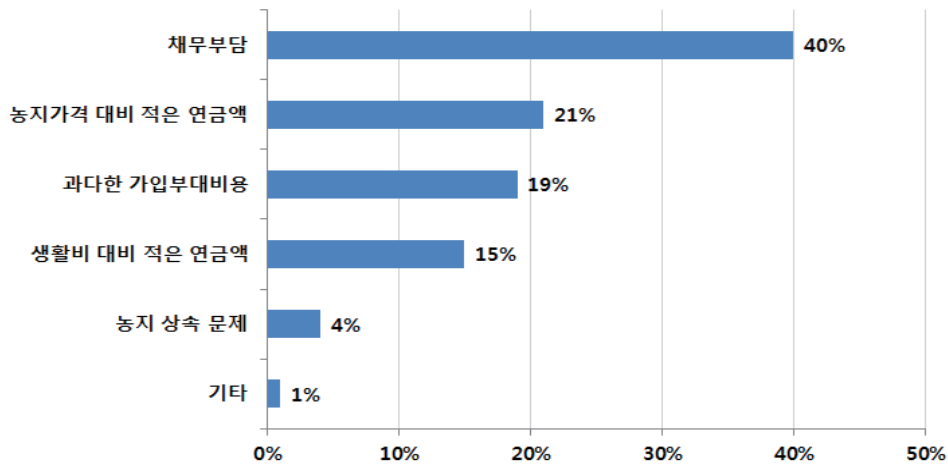
- 만족하는 이유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가 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도 활용할 수 있어서’ 33%, ‘노후생활이 여유로워져서’ 20%, ‘평생 노후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10%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5 농지연금사업 만족 이유



-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채무부담이 높은 것 같아서’가 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지가격에 비해 연금이 적어서’ 21%, ‘가입 부대비용이 높아서’ 19%, ‘필요한 생활비에 비해 연금지급액이 적어서’ 15%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6. 농지연금사업 불만족 이유



○ 〈건의사항〉 ‘농지연금사업’ 수혜농가들은 노후생활에 대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으나 높은 채무 부담, 적은 연금지급액, 과다한 가입부대 비용 등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부터 제도개선에 따라 가입부대 비용 부담 등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어촌공사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농업인들에게 농지연금을 인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가입상담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농지연금사업’ 심층면담⁵⁰⁾

○ 사업만족도 및 원인

- 조사결과, ‘농지연금’에 대한 만족도는 4.0(5점 만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을 통해 은퇴농가들은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만족하였다. 또한, 배우자의 연령이 65세 미만이어도 소유자가 65세 이상이면

50) 농지연금사업 수혜자 4군데 조사결과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자격이 변경되어 만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신청 서류의 복잡함과 높은 복리 이자율에 대한 불만도 제기하였다.

○ 정책건의

- ‘농지연금’의 대출이자율은 기존 4%에서 2014년에 3%로 낮아졌으나, 현재 이자율이 복리로 계산하여 지급되고 있어 단리 또는 1.5~2%대의 이자율로 낮춰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농지연금 신청 시 농지원부 등 신청서류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신청서류의 간소화를 건의하였다. 연금 신청 시 농지가격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의 70%를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하나, 농지가격이 연금지급액 보다 낮아 농지가격을 현실에 맞게 책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2.3.5. 발농업직불제 전문가 평가⁵¹⁾

가. 연구 목적

- 농업부문의 직불제는 FTA 국내 보완대책의 하나로써 농가소득 안정화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다. 쌀 농가의 소득보전 및 안정화를 통해 쌀산업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쌀고정직불제 및 변동직불제와 함께 발농업직불제 및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성과평가가 요청되고 있다.
- 특히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발농업직불제의 경우 아직까지 이렇다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농업직불제의 성과평가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발농업직불제의 성과지표의 주요쟁점을 논의하고, 성과평가의 방법론을 검토한 후 정량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51)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 작성

나. 연구 방향

1) 발농업직불제 성과지표의 주요 쟁점

- 발농업직불제의 목적은 발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발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유지이며 성과목표는 발작물 재배농가의 농가소득보전이다.
- 그러나 이에 대한 성과지표는 주요 발작물의 경지면적변화율과 직불금신청 대비 적격자 비율로 설정되어 있어 성과측면에서의 목표와 성과지표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 대상 발작물의 경지면적 증가율의 경우, 직불제로 인한 해당 발작물의 소득안정 효과뿐만 아니라 발면적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작물로의 작목전환 효과(타 작물의 경지면적 감소를 수반함)를 포함하는 문제점이 존재하며, 직불금 신청면적 대비 지급적격면적 증가는 발직불제의 홍보 및 운영 효율성 측면의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성과지표가 발농업직불제의 소득안정 효과를 엄밀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발농업직불제 성과지표 방법론 검토

- 소득안정화 효과의 계측 문제
 - 소득안정화 효과는 소득수준 증대 효과와 소득변동 감소효과를 의미한다.
 - 소득효과 계측은 일차 적률인 평균(mean)과 이차 중심 적률인 분산(variance)의 개념을 이용하여 계측할 수 있다⁵²⁾.
 - 평균을 이용한 소득수준 증대 효과는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농업 및 농가

52) 본 연구에 사용된 농가경제조사 데이터는 패널자료이지만 2013년도부터 패널이 교체되어 개별농가의 소득변동을 계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직불의 평균효과에 주목하여 농업 소득, 농가소득, 발직불금의 평균(농가 전체, 농가 특성별로 계산)을 계산하여 발직불금이 포함된 평균 농업 및 농가 소득과 이를 제외한 농업 및 농가 평균 소득의 차이로 소득효과를 계측함. 농가경제조사 자료에 발직불금에 대한 정보가 따로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직불금은 전체 농가의 '발면적* 직불금 단가'의 평균에 발직불금 대상작물의 재배면적 비중을 곱하여 추정됨.

소득의 평균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러한 접근법은 선택적 변이(selection bias)로 인한 정책효과의 식별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였다.

- 일반적으로 일차 적률인 평균(mean)과 이차 중심 적률인 분산(variance)의 개념을 이용하여 직불금이 포함된 소득과 직불금이 포함되지 않은 소득의 분포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측정함으로써 직불금의 소득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 주요작물의 자급률 개선 효과 계측의 문제점

- 현재 발농업직불제는 본격적으로 시행 된지 2년 밖에 되지 않았으며, 홍보 개선, 대상작물 확대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요작물의 자급률 개선효과는 발직불제의 장기적 성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성과 측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다.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의 원 자료 이용

- 분석 자료로는 통계청에서 발간되는 농가경제조사 2013년도 원 자료를 활용하였다.

○ 발농업 직접직불금 추산방법

- 직불금은 농가경제조사에서 이전수입의 공적보조금 중 농업보조금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항목에는 농업투자보조금과 직불금(쌀고정, 경영이양, 친환경농업, 조건불리지역, 경관보전, 발농업), 농업관련 보조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발직불금만을 구분하기 어렵다.
- 또한, 농업보조금 항목을 발직불금의 변수로 대체하여 사용하기에는 직불금 전체 예산에서 발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4.5%)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추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가경제자료의 발과 논 면적을 이용하여 발직불금을 추정하였다.

표 4-13. 직불금 예산 규모 추이

단위: 천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비중(%) ('13년 기준)
직불금 예산합계	20,224	21,704	16,833	16,245	100.0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6,650	6,195	6,181	6,984	43.0
쌀소득보전변동직불제	5,951	7,993	620	252	1.6
경영이양직불제	699	623	659	624	3.8
친환경농업직불제	520	379	506	478	2.9
조건불리지역직불제	417	388	436	395	2.4
경관보전직불제	157	139	76	141	0.9
밭농업직불제	-	-	624	726	4.5
기타	5830	5975	7718	6556	40.4

주: 그 외 직불제=FTA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작물재해보험+송아지생산안정사업+가축재해보험+여성농업인일손돕기+농어민건강보험료지원+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취약농가인력지원+농어촌 보육여건 개선+부적지감골과원정비+농업인재해공제+농어민연금보험료지원+농업인자녀학자금+친환경축산+마늘경쟁력제고생산조정보상+FTA피해보전직불제(수산)+조건불리 수산직불제+양식수산물재해보험+어선원및어선보험+환경친화배합사료(수산)+친환경어구보급+환경친화부표지급

자료: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의 농림수산물부 농업정책과 자료를 재가공함.

① 받직불금 지급대상 제외기준에 따라 전년도 농외소득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농가의 받직불금은 '0'원으로 처리하였다.

- 본 분석에서는 2013년도 데이터를 사용했으므로 패널의 교체에 따라 전년도 동일 농가의 농외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2년 대비 2013년의 농외소득 증가율(15.61%)을 고려하여 2013년 농외소득이 4천 2백만 원 이상인 농가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4-14. 농가의 소득종류별 농가소득

단위: 천 원

구분	2011	2011	2012(A)	2013(B)	증감률(%) [(B-A)/A]*100
농가소득	30,148	31,031	34,524	100	11.26
농업소득	8,753	9,127	10,035	29.1	9.95
농외소득	12,949	13,585	15,705	45.5	15.61
이전소득	5,453	5,614	5,844	16.9	4.10
비경상소득	2,993	2,705	2,940	8.5	8.69

자료: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2013)

- 받직불금은 농가경제조사 자료의 농업보조금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항목이 '0'원인 농가는 받직불금을 '0'원으로 처리하였다.

- ② 농가당 밭면적과 논면적에 밭직불금 단가(40만원/ha)를 곱하여 밭직불금을 계산하였다.
- 밭직불금은 동일 농지의 대상품목 중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 되지 않고 연간 1회만 지급되므로 해당 작물의 재배면적을 이용해 직불금을 계산할 경우 중복지급 금지의 기준에서 볼 때 과대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따라서 이러한 과대 추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별농가의 밭(논) 면적을 이용하여 밭직불금을 계산하였다. 하지만 이 접근법도 밭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직불금 대상 작물만을 재배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다른 종류의 과대 추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조정해 주기 위해 2013년도 전체 농작물의 재배면적 중 대상 작물의 재배면적의 비율(56%)을 위에서 계산된 밭직불금(농가당 밭면적*지급단가)에 곱함으로써 면적에 기초한 밭직불금을 추정할 수 있다.
 - 논 면적의 경우에도 논에 이모작을 하는 밭작물의 직불금을 추산하기 위해 논면적에 밭직불금 단가를 곱해준 후 재배되는 전체 논 재배면적에서 밭직불제의 대상 작물인 사료 및 식량작물 재배면적(보리, 잡곡, 두류, 서류)의 비중인 9.4%을 가중치로 곱하였다.

표 4-15. 작물별 재배면적

단위: ha, (%)

항목	논		밭	
벼	825,503	(82.85)	7,122	(0.95)
보리	28,359	(2.85)	4,705	(0.62)
잡곡	1,623	(0.16)	26,572	(3.53)
두류	11,886	(1.19)	84,258	(11.19)
서류	4,105	(0.41)	45,532	(6.05)
채소류	56,968	(5.72)	234,047	(31.08)
특약용작물	3,673	(0.37)	69,693	(9.25)
수원지	2,685	(0.27)	51,681	(6.86)
합계	996,367	(100.)	753,052	(100.)
대상품목 면적	93,786	(9.44)	333,566	(56.04)

주 1) 논 면적에서 밭직불제 대상품목 면적은 보리, 잡곡, 두류, 서류임.

2) 밭 면적에서 밭직불제 대상품목 면적은 보리+잡곡+두류+서류+채소류 중 고추, 마늘, 대파, 쪽파, 양파+특약용작물 중 참깨, 들깨, 땅콩+ 기타작물 중 사료작물 함임.

자료: 농업면적조사통계 (2013)

③ 마지막으로 밭직불금의 지급상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농가는 밭직불금의 상한가를 해당 농가의 밭직불금으로 추정하였다.

- 농업인은 4ha로 직불금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추정한 밭직불금이 160만 원 이상인 농가는 160만 원으로 설정하였다.
- 농업인의 경우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5~8ha 미만이면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3ha이다. 따라서 논 면적이 5~8ha 미만인 농가 중 추산한 밭직불금이 120만 원 이상인 농가는 120만 원으로 설정하였다.
-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8ha 이상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2ha이다. 따라서 논 면적이 8ha 이상이고 추산한 밭직불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 밭직불금을 80만 원으로 설정하였다.

라. 분석결과 및 시사점

○ 전체농가에 대한 평균 밭직불금을 추정한 결과, 농가당 평균 밭직불금은 36만 4,687원으로 나타났으며, 농업 및 농가 소득에 대한 보조금의 소득증대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³⁾.

- 보조금을 포함한 평균 농업소득은 1,470만 원이고 보조금을 제외한 평균 농업소득은 1,44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직불금 유무에 따른 소득 수준 변화를 기준으로 보조금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밭직불금의 농업소득 기여율은 2.53%로 추정된다.
- 보조금을 포함한 평균 농가소득은 4,030만 원이고 보조금을 제외한 경우에는 3,900만 원으로 밭직불금의 농가소득 기여율은 0.91%로 추정된다.
- 이는 농업소득 기여율보다 1.54%p 낮은 수준으로 농가소득은 농외소득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소득증대 효과가 농업소득 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53) 패널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농가소득에 대한 밭직불금의 평균효과는 농업소득의 경우 22%, 농가 소득의 경우 6%임.

표 4-16. 밭직불금 소득 효과

단위: 천 원, %

농업소득			농외 소득	농가소득		
보조금 포함(A)	보조금 제외(B)	① 기여율 (%)		보조금 포함(C)	보조금 제외(D)	② 기여율 (%)
14,787	14,423	2.53	15,059	40,296	39,931	0.91

주: ①=[(B-A)/A]*100 ②=[(C-D)/D]*100

○ 규모별 밭직불금 평균은 다음과 같이 추정되었다.

- 직불금이 가장 적은 농가는 0.5ha 미만 농가(1만 746원)이고 가장 많은 농가는 7ha 이상(72만 1,629원) 농가로 나타났다. 이는 재배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의 지급방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직불금 상한제로 인해 면적이 증가할수록 직불금 증가율이 작아짐. 0.5ha 미만 농가보다 0.5~1ha 미만 농가의 직불금은 400%, 0.5~1ha 미만 농가보다 1~3ha 미만 농가의 직불금은 196%, 1~3ha 미만 농가보다 3~5ha 미만 농가의 직불금은 107%, 3~5ha 미만 농가보다 5~7ha미만 농가의 직불금은 37%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규모별 추정 평균 밭직불금

단위: 원, ha

구분	밭직불금	밭	논
0.5ha 미만	10,746	0.22	0.03
0.5~1ha 미만	53,777	0.47	0.08
1~3ha 미만	159,486	0.88	0.49
3~5ha 미만	331,337	1.47	1.47
5~7ha 미만	455,448	2.01	2.24
7ha 이상	721,629	4.28	5.76

주: 밭과 논 면적은 밭직불금 대상면적이 아닌 해당 규모에 속한 농가들의 평균 면적임.

○ 농업소득에 대한 규모별 직불금의 소득효과는 규모가 클수록 커지지만, 1~3ha 이상 농가들의 기여율은 2%대로 비슷하게 나타났다⁵⁴⁾.

- 농가소득도 직불금의 소득증가 기여율 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4) 규모별 쌀직불금의 농업소득 증가에 대한 기여율은 모든 규모에서 20%대로 비슷하며, 농가소득에 대한 기여율은 규모에 비례함(0.5ha 미만: 1.29%, 1~3ha 미만 5.99%, 7ha 이상 12.91%)

- 이는 농가소득의 경우 농외소득의 영향을 받고 농가소득에서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절대적/상대적 비중은 규모에 반비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8. 규모별 발직불금 소득 효과

단위: 천 원

구분	농업소득			농외 소득	농가소득		
	보조금 포함(A)	보조금 제외(B)	① 기여율 (%)		보조금 포함(C)	보조금 제외(D)	② 기여율 (%)
0.5ha 미만	-1,878	-1,889	0.57	24,077	30,668	30,658	0.04
0.5-1ha	3,064	3,010	1.79	20,360	33,936	33,882	0.16
1-3ha	6,008	5,849	2.73	17,045	32,948	32,789	0.49
3-5ha	13,593	13,261	2.50	13,690	37,101	36,769	0.90
5-7ha	22,346	21,891	2.08	12,499	44,541	44,085	1.03
7ha 이상	27,865	27,143	2.66	12,456	52,297	51,576	1.40

주: ①=[(B-A)/A]*100 ②=[(C-D)/D]*100

○ 경영주 연령별로 발직불금을 추정한 결과, 발직불금(평균)이 가장 큰 농가는 ‘60~70대 미만’ 연령대(40만 5천 원)의 농가이고 가장 적은 농가는 ‘70대 이상(31만 6천 원)’ 농가로 나타났다⁵⁵⁾.

- ‘50대 미만’과 ‘50~60대 미만’ 연령대가 평균 밭(논)면적이 ‘60~70대 미만’ 연령대에 비해 크에도 불구하고 평균 발직불금이 작은 이유는 ‘50대 미만’과 ‘50~60대 미만’ 연령대에 직불금 제외 대상자(농외소득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와 직불금 상한 기준에 해당하는 농가비중이 많기 때문이다.

표 4-19. 연령별 추정 평균 발직불금

단위: 원

구분	밭직불금	밭	논
50대 미만	382,604	3.08	3.15
50-60대 미만	395,888	2.67	3.16
60-70대 미만	405,215	2.07	2.40
70대 이상	316,122	1.45	1.57

주: 밭과 논 면적은 밭직불금 대상면적이 아닌 해당 연령대에 속한 농가들의 평균 면적임.

55) 연령별 쌀직불금의 농업소득 증가에 대한 기여율은 밭직불금과 다르게 ‘50~60대 미만’ 연령대에서 26.5%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70대 이상’ 연령대(20.7%)에서 가장 작게 나타남. 농가소득의 경우는 모든 연령대에서 6%대로 비슷하게 나타남.

- 농업소득은 가장 작은 연령대는 ‘70대 이상’(880만 원)이고 ‘50대 미만’ 연령대의 농업소득은 이와 비교하여 179% 큰 2,4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을 제외할 경우 ‘50대 미만’ 연령대의 농업소득은 2,430만 원으로 이는 ‘70대 이상’의 보조금 제외 농업소득(850만 원)보다 185% 큰 것으로 나타나 직불금이 연령대별 소득격차를 미약한 수준이나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 보조금을 포함할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증대 효과가 나타나지만 효과가 가장 큰 연령대는 ‘70대 이상’으로 보조금의 기여율은 3.71%로 나타났다. 보조금 효과가 가장 낮은 연령대는 이보다 약 2%p 낮은 ‘50대 미만’의 연령대이다.
- 보조금을 제외한 농가소득을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농업소득과 마찬가지로 ‘70세 이상’ 연령대의 농가소득이 2,530만 원으로 가장 낮고, ‘50~60세’ 연령대가 6,240만 원으로 가장 높다.
- 한편, 농가소득의 경우 ‘70대 미만’ 연령대에서 보조금의 평균증대효과가 1% 미만으로 추정되었다.
- 기여율로 측정된 보조금의 평균효과가 가장 큰 연령대는, 농가소득이 가장 작은 ‘70세 이상’ 연령대로 밭직불금 기여율이 1.25%로 나타났다.

표 4-20. 연령별 밭직불금 소득 효과

단위: 천 원

구분	농업소득			농외 소득	농가소득		
	보조금 포함(A)	보조금 제외(B)	① 기여율 (%)		보조금 포함(C)	보조금 제외(D)	② 기여율 (%)
50대 미만	23,246	22,863	1.67	25,600	55,832	55,449	0.69
50~60대 미만	24,701	24,305	1.63	28,932	62,804	62,408	0.63
60~70대 미만	15,123	14,718	2.75	15,391	43,115	42,710	0.95
70대 이상	8,832	8,516	3.71	7,013	25,665	25,349	1.25

주: ①=[(B-A)/A]*100 ②=[(C-D)/D]*100

○ 주·부업별로 추정된 밭직불금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업의 경우, 평균 밭직불금은 45만 8천 원으로 부업농가(14만 3천 원)보다 약 2.2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업농가의 밭 재배면적이 2배 정도 큰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4-21. 주·부업별 추정 평균 발직불금

단위: 원, ha

구분	발직불금	밭	논
주업	458,795	2.37	2.81
부업	143,677	1.06	0.91

주: 밭과 논 면적은 발직불금 대상면적이 아닌 해당 분류에 속한 농가들의 평균 면적임.

- 주업농가의 농업소득은 2,010만 원으로 농외소득이 많은 부업농가의 농업소득(2백만 원)보다 9.7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소득에 대한 주·부업별 보조금의 소득증대 효과를 살펴보면, 발직불금의 평균 효과는 농업수입이 많은 주업농(2.33%)보다는 농외소득이 많은 부업농(7.46%)의 경우 5.13%p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직불금의 절대적인 크기는 농업소득이 많은 주업농이 더 크지만 부업농의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농업소득 평균이 주업농가에 비해 작기 때문에 상대적인 보조금의 기여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반면 농가소득에 대한 발직불금의 소득 기여율은 농업소득의 경우와는 반대로 주업농가의 경우 부업농가 보다 0.93%p 크게 나타났다.
- 이는 농가소득의 경우 농외소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부업농은 농외소득의 비중이 높은 농가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2. 주·부업별 발직불금 소득 효과

단위: 천 원

구분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가소득		
	보조금 포함(A)	보조금 제외(B)	① 기여율 (%)		보조금 포함(C)	보조금 제외(D)	② 기여율 (%)
주업	20,191	19,732	2.33	6,465	37,541	37,083	1.24
부업	2,071	1,927	7.46	35,353	46,840	46,696	0.31

주: ①=[(B-A)/A]*100 ②=[(C-D)/D]*100

○ 요약 및 시사점

- 분석결과, 발직불금은 농업 및 농가소득에 대한 소득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소득(0.91%)보다는 농업소득(2.53%)에 대한 기여율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규모별 직불금의 소득효과는 면적이 클수록 증가하며 이러한 현상은 농가소득의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 연령별 소득효과를 살펴보면, 농업소득과 농가소득 모두 ‘70대 이상’ 농가의 소득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밭직불금은 연령대별 소득격차를 미약한 수준이나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부업별 소득효과를 살펴보면, 농업소득에서는 부업농의 밭직불금 소득효과가 크고 농가소득의 경우 주업농의 밭직불금 소득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업농의 농외소득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밭직불금의 소득효과는 쌀직불금의 소득효과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게 분석된다. 쌀직불금의 경우 농업소득에 대한 상대적 기여율은 22%인데 반해 밭직불금의 상대적 기여율은 2.53%에 불과하다.
- 농가소득에 대한 쌀직불금의 소득증가 기여율은 6%이고 밭직불금은 이보다 작은 0.91%로 추정된다.
- 이는 사업규모 및 예산 기준으로 쌀직불금에 편중된 직불금 구조와 아직 밭농업 직불의 집행실적(44.7%, 쌀고정직불금의 경우 98%)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2.3.6. 소결

- 경영안정화정책의 세부사업인 ‘농업재해보험·농어업재해보험사업’ 시행은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밭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통해 밭작물 재배농가 및 조건불리지역의 실경작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으로 생산비용 절감과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농지연금사업’ 시행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경영안정화 사업군의 8개 성과지표(6개 사업) 가운데 목표대비 성과를 달성한 지표는 7개, 미달성 1개였다.
- ‘농업재해보험·농어업재해보험사업’은 보험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 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피해액 대비 낮은 지급액과 손해평가방식의 부정확성 등에 불만족을 제기하였다.
-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수혜자 조사결과, ‘매우 불만족’ 20%, ‘불만족’ 35%로 ‘전체 불만족’이 응답자의 5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최근 풍작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업재해보험에 대해 불만족이 다소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 농업재해보험에 대해 조사 비중이 높은 ‘과수’, ‘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피해대비 낮은 실지금액’에 대해 가장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수 농가들은 ‘손해평가방식의 부정확 및 불공정성’을 벼 농가들은 ‘제한적인 대상재해(태풍, 우박, 서리)’에 대해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혜 농가는 평가품목 확대 및 평가조건의 간소화, 보험사 직원들의 농업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지식강화와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 등을 건의하였다.
 - 해당 사업의 지표인 ‘가입률’은 농가의 선택과 흉·풍작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향후 ‘가입금액’으로 변경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발농업직불제’ 시행으로 발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발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행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실경작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발농업직불제’는 농업소득에 2.53%, 농가소득에 0.91%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행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실경작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발농업직불제’에 대한 전문가 평가(농가경제자료활용)결과, 농가당 평균발직불금은 36만 5천 원으로 농업소득의 2.53%, 농가소득의 0.91%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발직불금의 농가소득효과는 농외소득이 적고(주업), 규모가 큰 전업농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쌀 직불금에 편중된 직불금 구조와 발농업직불제의 집행실적 저조 등으로 발직불금의 소득효과는 쌀직불금의 소득효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게 분석되었다.
-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해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영농 수월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한 임대 농기계 이용 농가 수는 2013년 21만 가구에서 2014년 28만 7천 가구로 약 36.7% 증가하였다.

- ‘농기계이용률’은 1대당 6.5일('09)에서 10.5일('14)로 61.5%(4일) 상승하였다.
- ‘농지연금사업’은 가입자 확대 및 연금 지원액 상향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수혜자 조사에서도 자녀에게 주는 부담완화, 지속적인 영농활동, 여유로운 노후생활 등의 이유로 응답자의 84%가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채무부담과 낮은 연금지급액으로 인한 불만족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농지연금 신규 가입건수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1,036건으로 농지연금의 가입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농지연금 신규가입자 월 평균 지급액은 2012년 69만 4천 원에서, 2013년 83만 1천원, 2014년 95만 9천 원으로 농지연금 지급액이 늘어나 노후생활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농지연금사업’의 수혜자 조사결과,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전체 응답자의 55%, ‘다소 만족’ 29%, ‘보통’ 7%, ‘다소 불만족’ 6%, ‘매우 불만족’ 3%로 조사되었다.
- ‘농지연금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농지연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종신�형 가입이 높아지는 것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하여 일반적 복지대상이 아닌 자산을 보유한 고령농가에 대한 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

2.4. 영농규모화

2.4.1. 정책목표 및 개요

- 영농규모화 정책은 ‘고령화와 FTA로 인한 시장개방 등에 대비하여 고령·은퇴 농가의 소득안정과 전업농의 규모화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고령·은퇴 농가의 농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소득을 안정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도모한다.
- 영농규모화의 세부사업별 사업 목적,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자격, 예산과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23. 영농규모화사업 목적과 개요

사업명		개요
농지 매입 비축	사업목적	▪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원활한 농지매도 지원을 통한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
	지원내용	▪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 등의 농지를 매입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 장기임대
	지원 대상 및 자격	▪ 매입대상 : 이농·전업 희망농가, 고령 은퇴농 ▪ 임대대상 : 영농규모 증대를 희망하거나 새로이 영농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1,278억 원 ▪ 실적 : 1,278억 원
경영 이양 직불제	사업목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소득안정 ▪ 전업농 등에 대한 영농규모 확대 지원으로 영농규모화 촉진
	지원내용	▪ 농업경영 이양 후 고령농업인의 생활자금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617억 원 ▪ 실적 : 617억 원

2.4.2. 성과지표

- **영농규모화**를 위해 ‘농지매입비촉’, ‘경영이양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 성과지표를 평가에 활용한다.

표 4-24. 영농규모화 성과지표

사업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농지매입비촉	매입농지 임대율(%)	(임대농지 면적/매입농지 면적)×100
경영이양직불제	경영이양 목표 면적 달성률(%)	(당해연도 경영이양 달성 면적/당해연도 경영이양 계획 면적)×100

2.4.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을

□ 농지매입비촉사업

- 2014년부터 ‘매입농지 임대율(%)’로 성과지표가 변경되었으며 97.8%의 매입농지 임대율을 달성하여 후계농업인력 중심의 영농규모화를 통한 농업구조 개선과 농촌사회의 활력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2014년에는 ‘농지매입비촉사업’을 통해 총 888농가로부터 541ha를 매입하였으며, 예산 1,278억 원을 모두 집행하여 100%의 예산집행률을 달성하였다.
 - 2014년 농지매입실적은 논 530ha(98%), 밭 10ha(1.8%), 과수원 1ha(0.2%)이다.
 - 매입단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평방미터(m²)당 감정평가액이 2만5천원 이하인 농지를 전국 기본으로 하였으나, 시도별 농지 실거래가를 감안하여 매입가능 단가상한을 5만원으로 설정하였다.
 - 2014년의 매입농지 임대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596ha⁵⁶⁾가 임대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업인 유형별로 전업농 25.3%, 2030지원 68.8%, 일반농업인 5.7%, 귀농인 0.2%에게 임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40세 미만이 전체 임차자 중 54%에 해당된다.

56) 2014년 이전 매입 면적 중 미임대였던 부분 67ha가 2014년도에 임대되어, 2014년의 순수 임대농지는 529ha이다.

표 4-25. 지역별, 지목별 매입면적

단위: ha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3,192	469	189	108	848	537	669	236	136
답	3,049	455	135	101	843	533	642	206	134
전	125	14	54	6	2	4	26	17	2
과수원	18	-	-	1	3	-	1	13	-

□ 경영이양직불제

○ 해당사업의 성과지표는 ‘경영이양목표 면적 달성률’로 2012년 91.7%에서 2014년 207.3%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4년에는 신규 고령은퇴 농업인 1,826명이 소유한 1,555ha의 농지를 경영이양하여 목표면적(750ha)대비 207.3%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 은퇴농들은 경영을 이양하고 1인당 연 평균 139만 7천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아 은퇴농들의 소득보전 및 노후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4-26. 영농규모화 성과지표 측정 결과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농지매입 비축	매입농지 임대율(%)	목표	-	-	-	-	-	-	96.0
		실적	-	-	-	-	-	-	97.8
		달성률(%)	-	-	-	-	-	-	101.9
	예산(억 원)		-	-	750	1,573	1,599	1,675	1,278
	실적(억 원)		-	-	750	1,573	1,599	1,674	1,278
	집행률(%)		-	-	100.0	100.0	100.0	99.9	100.0
경영이양 직불제	경영이양 목표 면적 달성률(%)	목표	-	-	-	-	100.0	100.0	100.0
		실적	-	-	-	-	91.7	130.1	207.3
		달성률(%)	-	-	-	-	91.7	130.1	207.3
	경영이양 면적 (ha)	실적					2,752	1,952	1,555
	예산(억 원)		300	845	699	623	659	624	617
	실적(억 원)		131	324	540	593	624	624	617
	집행률(%)		43.7	38.3	77.3	95.2	94.7	100.0	100.0

○ 영농규모화 사업군의 2개 성과지표(2개 사업)는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다.

2.4.4. 사업수혜자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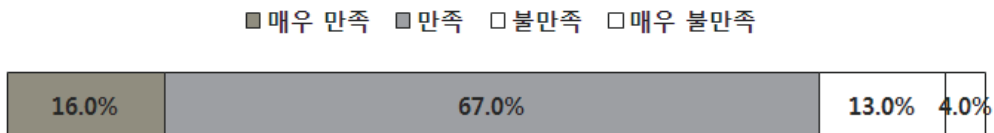
□ ‘농지매입비축(매도인)사업’ 설문조사⁵⁷⁾

○ 〈조사개요〉 FTA 국내보완대책의 주요사업을 면밀히 평가하고 생산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농지매입비축(매도인)사업’ 수혜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의 만족도, 만족·불만족 이유, 기존 사업의 개선점,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 조사기간: 2014년 4월 1일 ~ 4월 30일
- 응답자 연령: 40세 이하 1%(1명), 41~50세 6.1%(6명), 51~60세 9.1%(9명), 61~70세 38.4%(38명), 71세 이상 45.5%(45명)
- 영농 경력: 10년 이하 10%, 11~20년 14%, 21~30년 12%, 31~40년 21%, 41년 이상 43%
- 거주지역: 충청·세종 36.4%(32명), 전라도 22.7%(20명), 경상도 19.3%(17명), 서울·경기 19.3%(17명), 강원도 2.3%(2명)
- 생산 품목: 벼 100%

○ 〈세부사업 만족도〉 ‘농지매입비축(매도인)사업’ 시행으로 소득안정, 적정수준의 매입가격 등의 효과가 나타나 사업에 대한 수혜농가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낮은 매입가격, 까다로운 매입대상자 요건 등으로 인한 불만족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만족’ 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은 전체 응답자의 16.0%, ‘만족’ 67.0%, ‘불만족’ 13.0%, ‘매우 불만족’ 4.0%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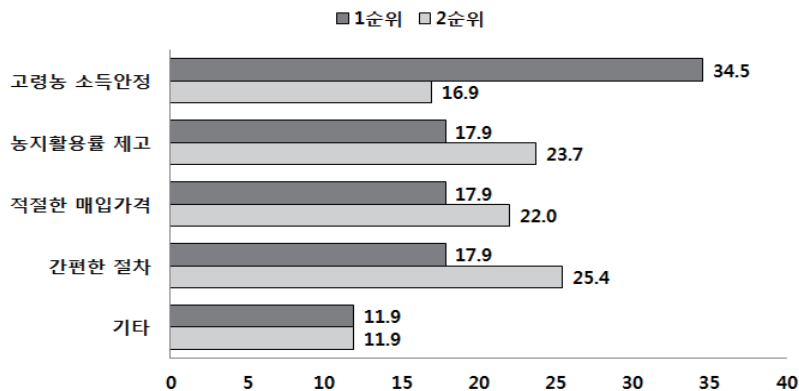
그림 4-7. 농지매입비축(매도인)사업 만족도



57) ‘농지매입비축(매도인)사업’을 수혜한 100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일부 문항 미응답자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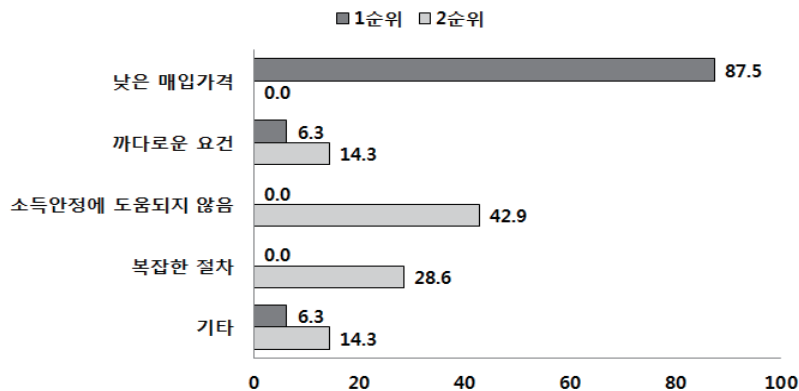
- 만족하는 이유 1순위는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어서’가 3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농지의 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해서’, ‘매입가격이 적당해서’, ‘절차가 간편해서’ 17.9% 순으로 조사되었다.
- 만족하는 이유 2순위는 ‘절차가 간편해서’가 25.4%로 가장 많았고, ‘농지의 활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해서’ 23.7%, ‘매입가격이 적당해서’ 22.0%,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어서’ 16.9%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8. 농지매입비축(매도인)사업 만족 이유



- 불만족하는 이유 1순위는 ‘매입가격이 낮아서’가 8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입대상자 요건이 까다로워서’ 6.3%로 조사되었다.
- 불만족하는 이유 2순위는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42.9%로 가장 많았고, ‘절차가 복잡해서’ 28.6%, ‘매입대상자 요건이 까다로워서’ 14.3%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9. 농지매입비축(매도인)사업 불만족 이유



- 〈건의사항〉 ‘농지매입비축(매도인)사업’의 참여 농가는 절차 간소화, 단가상한 상향조정, 지원대상자 기준완화 등을 건의하였다.
 - 복잡한 절차 등으로 사업신청 당시 애로를 겪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매입단가 상한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의견도 일부 존재하였다.
 - 현재 감정평가 비용을 농지소유자가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농지매입비축(임차인)사업’ 설문조사⁵⁸⁾

- 〈조사개요〉 FTA 국내보완대책의 주요사업을 면밀히 평가하고 생산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농지매입비축(임차인)사업’의 수혜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의 만족도, 만족·불만족 이유, 기존 사업의 개선점,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 조사기간: 2014년 4월 1일 ~ 4월 30일
 - 응답자 연령: 40세 이하 44%, 41~50세 22%, 51~60세 23%, 61~70세 7%, 71세 이상 4%
 - 영농경력: 10년 이하 47%, 11~20년 22%, 21~30년 15%, 31~40년 12%, 41년 이상 4%
 - 거주지역: 충청·세종 34.7%(33명), 전라도 27.4%(26명), 경상도 17.9%(17명), 서울·경기 16.8%(16명), 강원도 3.2%(3명)
 - 생산 품목: 벼 76%, 과일 19%, 기타 5%
- 〈세부사업 만족도〉 ‘농지매입비축(임차인)사업’ 시행으로 매매부담 완화, 임대료 인하 등의 효과가 나타나 사업에 대한 수혜농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일부 응답자중 농지선택의 제약 등으로 인한 불만족도 일부 제시하였다.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전체 응답자의 9%, ‘만족’ 76%, ‘불만족’ 11%, ‘매우 불만족’ 4%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0. 농지매입비축(임차인)사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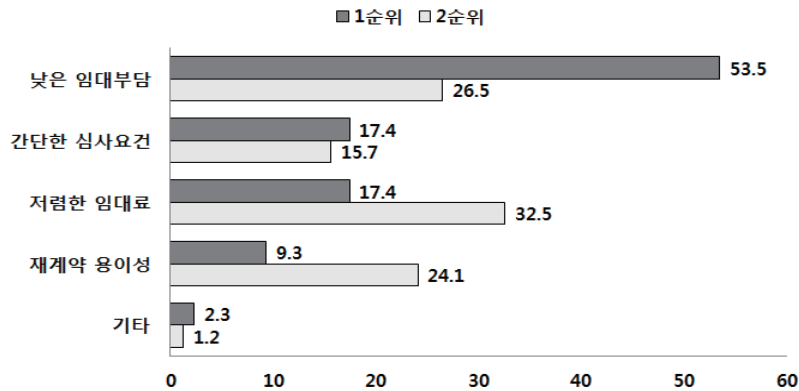
■ 매우 만족 □ 만족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9.0%	76.0	11.0	4.0
------	------	------	-----

58) ‘농지매입비축(임차인)사업’을 수혜한 100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일부 문항 미응답자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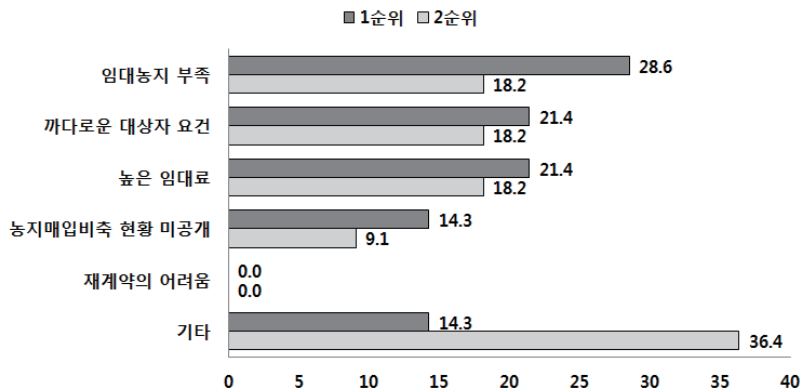
- 만족하는 이유는 순위별로 ‘매매의 부담 없이 임차료만 내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가 53.5%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임대 대상자 심사요건이 간단해서’와 ‘임대료가 저렴해서’가 각각 17.4%, ‘농지 임대 재계약이 쉬워서’가 9.3%로 조사되었다.

그림 4-11. 농지매입비축(임차인)사업 만족 이유



- 불만족하는 이유는 순위별로 ‘임대 가능한 농지건 수가 적어서(선택의 제약)’가 2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임대 대상자 심사요건이 까다로워서’와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가 각각 21.4%,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2. 농지매입비축(임차인)사업 불만족 이유



○ 〈건의사항〉 ‘농지매입비축(임차인)사업’의 수혜농가는 임대 토지 면적증대 등을 건의하였다.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로 임대되는 토지 면적의 증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 ‘경영이양직불제’ 설문조사⁵⁹⁾

- 〈조사개요〉 FTA 국내보완대책의 주요사업을 면밀히 평가하고 생산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경영이양직불제’의 수혜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의 만족도, 만족·불만족 이유, 기존 사업의 개선점,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 조사시기: 2015년 4월 1일 ~ 4월 30일
 - 응답자 연령: 67세 이하 36.4%(24명), 68세~70세 39.4%(26명), 71세 이상 24.2%(16명)
 - 영농 경력: 10년 이하 1.5%(1명), 11~20년 9.1%(6명), 21~30년 6.1%(4명), 31~40년 25.8%(17명), 41년 이상 57.65(38명)
 - 거주지역: 전라도 30.8%(20명), 충청도·세종 27.7%(18명), 경상도 27.7%(18명), 서울·경기 10.8%(7명), 강원도 3.1%(2명)
- 〈세부사업 만족도〉 ‘경영이양직불제’ 시행으로 노후생활 안정,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효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낮은 지급 단가, 짧은 직불금 지급기간 등에 대한 불만족도 일부 존재하였다. ‘매우 만족’ 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은 전체 응답자의 22.7%, ‘만족’ 39.4%, ‘불만족’ 33.3%, ‘매우 불만족’ 4.5%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3. 경영이양직불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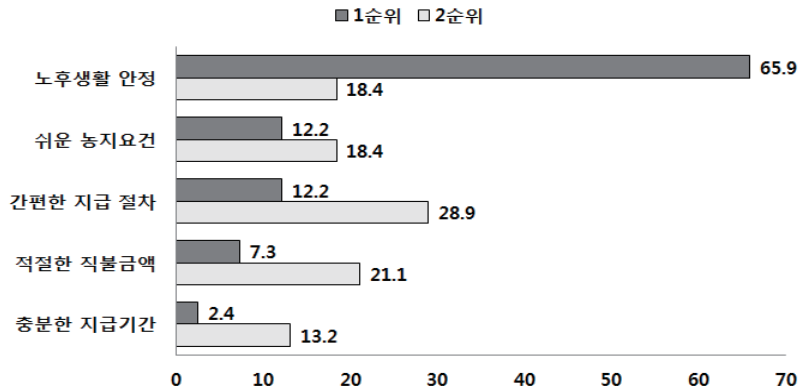
■ 매우 만족 ■ 만족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만족하는 이유 1순위는 ‘노후생활 안정’이 6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까다롭지 않은 지원 대상 농지요건’과 ‘간편한 직불금 지급절차’가 각각 12.2%, ‘적절한 월별 직불금 금액’ 7.3%, ‘충분한 직불금 지급기간’ 2.4% 순으로 조사되었다.
- 만족하는 이유 2순위는 ‘간편한 직불금 지급 절차’가 2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적절한 월별 직불금 금액’ 21.1%, ‘노후생활 안정’과 ‘까다롭지 않은 지원 대상 농지요건’이 각각 18.4%, ‘충분한 직불금 지급기간’ 13.2%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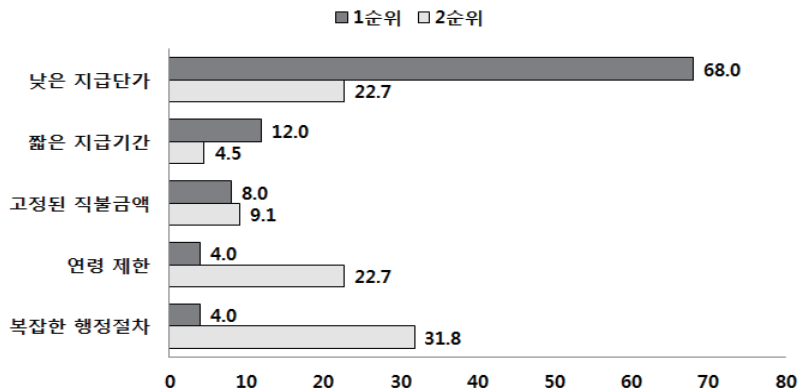
59) ‘경영이양직불제’을 수혜한 66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일부 문항 미응답자 존재)

그림 4-14. 경영이양직불제 만족 이유



- 불만족하는 이유 1순위는 ‘낮은 지급단가’가 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짧은 직불금 지급기간’ 12%, ‘고정된 월별 지급’ 8%, ‘신청대상자 연령 제한’과 ‘까다로운 행정절차’ 4% 순으로 조사되었다.
- 불만족하는 이유 2순위는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31.8%로 가장 많았고, ‘낮은 지급단가’와 ‘신청 대상자 연령제한’이 각각 22.7%, ‘고정된 월별 지급방식’과 ‘장기간 직불금 지급’이 각각 9.1%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5. 경영이양직불제 불만족 이유



- FTA 국내보완대책 이외에 영농규모화를 위해 고려할 사항⁶⁰⁾으로는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강화가 42.4%로 가장 많았고, 직접피해보전 확대가 18.2%, 유통

60) 1순위 응답 기준

구조개선 및 규모화가 9.1%,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과 생산비절감 방안마련이 3%로 조사되었다.

- 〈건의사항〉 ‘경영이양직불제’의 수혜농업인은 지급대상자 연령(75세) 연장, 지원금 인상 등을 건의하였다.
 - 수혜농가들은 ‘경영이양직불제’ 신청 조건인 ‘65~75세, 영농경력 최근 10년 이상인 고령인’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1 ha당 25만 원의 경영이양제 지원금이 너무 낮아 지원금을 높여줄 것을 건의하였다.

□ ‘농지매입비축사업’ 심층면담⁶¹⁾

○ 사업만족도 및 원인

- 매도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도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3.8점(5점 만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를 통해 토지를 매도하는 것이 부동산을 통해 매도하는 것 보다 토지 감정평가액이 높았으며 토지거래 수수료 또한 지불하지 않아도 되어 만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임차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차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4.5점(5점 만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어촌공사를 통해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농업인이 농지소유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 보다 임대비용을 20%이상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농지임대 시 별도의 행정비용(등기이전, 임대차계약 등)이 소요되지 않아 임차인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대에 따른 보증인 설정의 어려움에 대한 애로사항을 제기한 응답자들도 일부 존재하였다.

○ 정책건의

- 매도인은 단가상한 상향조정, 지원대상자 및 매입대상 농지의 기준완화 등을 건의하였다.
- 임차농은 토지에 대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보증인을 선정해야 하지만, 실제 농촌에서 보증인을 찾기 어려워 사업혜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61) 농지매입비축 매도·임차인 5군데 조사결과

□ ‘경영이양직불제’ 심층면담⁶²⁾

○ 사업만족도 및 원인

- 조사결과,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만족도는 4.3점(5점 만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이양직불제’를 통해 은퇴농가들은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만족하였다. 하지만 사업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건의했다.

○ 정책건의

- ‘경영이양직불제’는 농가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고, 사업에 대한 홍보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져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가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 신청기준(신청 연령: 65~74세)과 적절하지 않은 계약기간(최소 5년)으로 72세 이상의 고령농들은 계약기간 동안 직불금 수혜를 다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2.4.5. 농지은행사업 전문가 평가⁶³⁾

가. 문제제기

- 2013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에서는 ‘영농규모화’ 사업군에 농지매입비촉, 농지연금, 경영이양직불 사업이 포함되었지만 2014년에는 각 사업을 개별적으로 성과 분석하였다.
- 농지매입비촉사업은 고령화 심화, 개방 확대 등에 따른 농지가격 불안에 대비, 농업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농지이용 효율화 및 농지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 등의 소유 농지를 매입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에 임대한다.

62) 경영이양직불제 수혜자 4군데 조사결과

6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 연구위원」 작성

- 농지연금사업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안정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한다.
 - 약정해지 시 상속인의 상환 또는 저당권 실행으로 농지연금 채무를 회수한다.
- 농지매입비촉 및 농지연금 사업의 재원은 농지기금이지만, 경영이양직접지불 사업은 농특회계 재원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은 농가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시행하여 쌀값 하락으로부터 쌀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경영이양 고령농의 소득안정 및 전업농영농규모화 추진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 세 개의 사업 모두 영농규모화를 사업목적에 두고 있지만, 사업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영농규모화 보다는 개별 사업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어 사업대상자의 구분이 가능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4-27. 농지은행 주요 사업 개요

구분	농지매입비촉사업	농지연금	경영이양직불
■ 사업내용	고령·은퇴 농업인의 소유농지 매입	소유농지를 담보로 연금형식 지급	경영이양 고령농의 소득안정 및 전업농 등의 영농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2010~계속	2011~계속	1997 ~ 계속
■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고령농업인	농업인(65~74세)
■ 지원형태	융자 100%	융자 100%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농지매입시: 감정 평가액 농지임대시: 약정 임차료	연리 3.0%, 위험부담금 : 채무의 0.5%, 기대이율 4%	국고 100%
■ 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자료: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성과계획서

나. 농지매입 비촉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내용〉

- 고령·은퇴,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가의 원활한 농지매도지원을 통한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한 농지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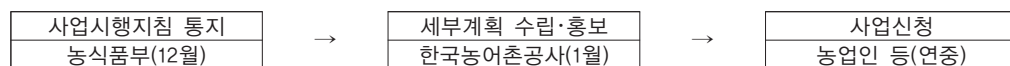
- 매입대상자: 이농·전업(轉業),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일시에 은퇴하고자하는 농업인,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단계적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단, 고령인 경우는 만 60세 이상에 한함),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이농·전업(轉業),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하고자 하는 경우 자가 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하다.
- 고령 및 질병에 의해 단계적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이란 60세 이상 고령 또는 3개월 이상 질병으로 인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기 어려워 경영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임대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농업인, 귀농인·후계농업경영인, 기타 새로이 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 임대대상자 선정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업무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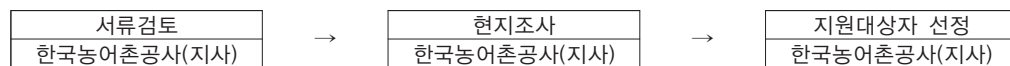
○ 농식품부가 사업시행지침을 통보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를 통해 사업신청인을 모집하게 된다.

-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공사의 본사와 지사에서 선정하는데,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지사심의회, 지원대상자 선정, 계약체결 단계를 거치게 된다.

①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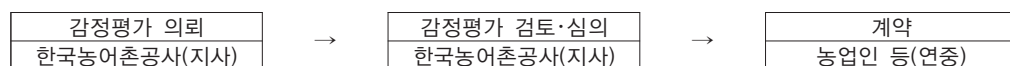


② 대상자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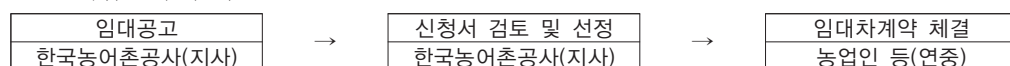


③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 농지매입



- 매입농지 임대



〈사업예산〉

- 해당사업의 예산은 2012년 까지 3,922억 원이 투자되었고, 2014년 1,175억 원, 2015년 1,44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표 4-28. 농지매입비축사업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12년까지	2013	2014	2015
합계	392,198	167,439	117,500	144,000
용자	392,198	166,498	117,500	144,000
보조	-	942	-	-

2) 농지매입비축사업 성과

〈사업실적〉

-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매입실적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임대실적은 추세가 없고 연도별로 변동이 있다.
- 특히 2011년 임대농가수, 임대면적 모두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지만, 2013년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 그러나 임대실적(면적)은 당년도 매입면적 대비 당년도 임대면적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전년 12월에 매입한 농지를 익년도 1월에 임대 등) 누계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매입면적 대비 임대실적이 2013년말 기준 99.2%에 이르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이 매우 바람직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29. 농지매입비축사업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ha, 백만원

구분	매입실적			임대실적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B/A
2010	829	495	74,999	262	192	0.73
2011	1,175	711	157,299	831	755	0.91
2012	1,236	715	159,900	1,019	876	0.86
2013	1,204	730	166,498	852	807	0.95
계	4,444	2,651	558,696	2,964	2,630	-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성과지표〉

- 해당 사업의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측정이 가능하다.
 - 사업수행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식품부에 보고하는 ‘매입농지 임대율’이다.
- 공사는 매입농지 임대지원 실적을 평가하여 농식품부에 익년 1월 말에 보고한다.
 - 평가지표 : 매입농지 임대율(%)
 - 측정방법 : 연도 말까지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면적(누계) 대비 임대 완료된 농지 면적 비율
-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매입농지 임대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13년 기준 99.2%에 달하고 있어 사업의 세부 목적은 달성하고 있다.
 - 매입농지 임대율(%): 38.8('10)→ 78.5('11)→ 94.9('12)→ 99.2('13)→ 97.8('14)

표 4-30. 영농규모화 관련 성과 추이

단위: %, ha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쌀 전업농 경영면적 비율(%)	목표	40	43	46	50	50
	실적	40	44	46	48	
쌀 전업농 호당 경영면적(ha)	목표	5.2	5.5	5.7	6.0	6.0
	실적	5.2	5.4	5.6	5.8	

자료: 김미복 외, 2013

다.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내용〉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목적은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경영이양을 통해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사업대상자는 65세 이상 74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 지원대상 농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 중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농지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이다.
-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과수원
 - 경영이양 이전에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처분한 간척농지를 매입(분할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논·밭·과수원
 -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논·밭·과수원
 - 농지가 3만 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된 지역의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로서 지사장이 5년 이상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논·밭·과수원
 - 상속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논·밭·과수원은 3년 이상 소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지원형태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민간경상보조 국고 100%)
 - 지급단가 : 제곱미터당 300원/년(ha당 3,000천원/년)
 - 지급 상한면적: 2만 제곱미터(매도 및 임대 이양 시 각각 적용)

표 4-31. 경영이양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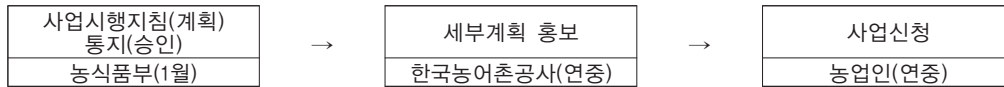
연령	66세 이하	67세	68세	69세	70세
지급기간	10년	9년	8년	7년	6년

주) 보조금 지급기간은 75세까지 최대 10년(120월)을 초과할 수 없다.(시행규칙 제6조)

〈사업추진절차〉

- 경영이양직불금 지급신청(은퇴농업인) → 현지조사 확인(농촌공사) → 공사 자체심의위원회심사·확정(농촌공사) → 지급약정 체결·지급(농촌공사→고령농업인) → 사후관리(농촌공사)

1) 사업신청단계



2) 사업자선정단계



〈사업예산〉

○ 9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12년까지 총 5,239억 원이 투자되었다.

표 4-32. 연도별 재정투입

단위: 백만원

	2012년까지	2013	2014	2015
국고	523,999	62,420	21,737	58,998

2) 성과와 문제점

〈집행실적〉

○ 1997~2013년까지 고령 농업인 99.8천명에게 직불금 4,001억 원(1인당 4,009천원) 지원하였으며, 농지 72.5천ha(매입비축농지 76ha 제외)를 전업농 등 69.6천명에게 경영이양하여 전업농 등 1인당 1.04ha 영농규모 확대하였다.

표 4-33. 경영이양 실적

단위: 명, ha, 백만 원

구분	인원	면적	금액	전업농등 지원현황	
				인원	1인당 양수면적
2010	3,884	3,445	53,254	3,183	1.08
2011	3,186	2,877	58,786	2,800	1.03
2012	2,929	2,752	61,897	2,507	1.10
2013	2,186	1,952	62,321	1,960	0.99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문제점〉

- 경영이양직접지불 사업은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연금 사업과는 달리 재원이 농특회계인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타 사업과는 달리 정부의 직접보조 사업 성격에 맞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이 사업은 65~70세 사이의 고령농들이 경영 이양 시 최대 10년 동안 정부가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전업농의 농지규모화 보다는 고령농의 소득보전에 더 큰 목적이 있는 사업이다.
- 1인당 양수면적은 1ha 내외에 있지만, 1인당 이양면적은 0.8~0.9정도로 낮은 편이다. 즉, 실제로 가입상한은 2ha이지만 소규모 농지에 대해 이양을 하는 농가가 사업수혜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급단가, 지급조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개선방안

- 최근의 농지연금사업과 경영이양직불제는 모두 고령농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연금방식과 보조방식이라는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다.
-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은 보조를 받는 경우 보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농지연금과 경영이양직불제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수혜자의 차별성을 유인하기 위하여 농지연금은 종신�형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자율 인하와 월지급금을 상향하여야 하고 다양한 연금상품을 고려해야 한다.
- 경영이양직불제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대규모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세고령농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목표에 충실하여야 한다.
 -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10~20만원 사이이고, 연금지급액이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경영이양직불제의 지급액이 경영이양 면적에 비례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 경영이양직불제의 지급대상 자격이 된다면 지급액은 가계가 어려울수록 높아지는 방식이어야 타 직불금 및 농지연금과 차별성이 있다.

- 매입비축 농지, 경영이양 농지, 담보 농지는 통합 운영을 고려하여 운영을 효율화하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농지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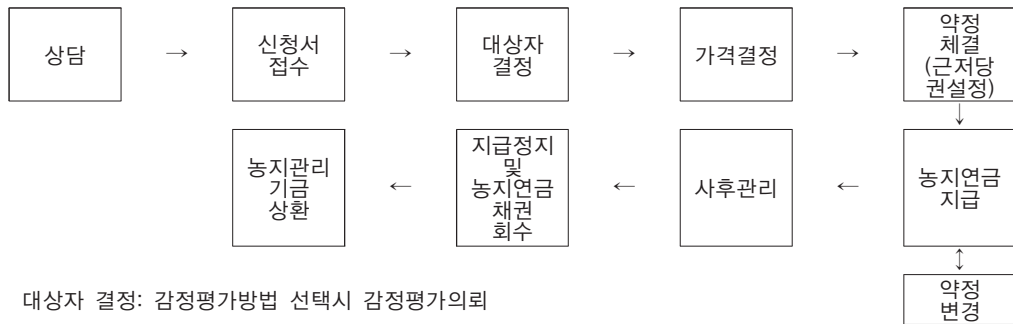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내용〉

- 이 사업의 목적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하고자 한다.
- 또한 농지자산을 유동화함으로써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이 되고 이를 통해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능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 지원자격
 - 신청년도 말일 기준으로 농업인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만65세 이상
 - 영농경력 5년 이상
 - 신청당시 총 소유농지 3만㎡이하
- 대상농지
 - 「농지법」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지급방식
 - 종신행 :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 기간형 : 일정한 기간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5년, 10년, 15년형)
 - 70세, 공시지가 2억원(종신행)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 가입시 824천원/월 지급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절차는 상담, 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을 통해 약정이 체결된 후 연금이 지급된다.



〈사업예산〉

- 농지연금사업의 예산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2011년 처음 도입된 이래 예산이 약 6배 가량 들며 확대되는 추세이다.

표 4-34. 농지연금 연도별 재정투입

단위: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	7,171	15,333	22,684	33,935	42,883

2) 성과와 문제점

〈사업실적〉

- 연도별 가입건수는 변동이 있었다. 도입초기부터 다음해까지는 증가하였지만, 2013년 다시 감소하였다. 2011년 사업비와 가입건수로 보았을 때, 가입자는 월평균 약 66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합계
가입건수	911	1,291	725	2,927
사업비	7,171	15,333	22,684	45,188

표 4-36. 연금액 규모별 가입현황

구분	가입건수	비중
계	2,927	100.0%
50만원 미만	1,408	48.1%
50~100	642	21.9%
100~150	342	11.7%
150~200	193	6.6%
200~250	128	4.4%
250만원 이상	214	7.3%

- 2013년까지 누계로 보았을 때 가입건수는 2,927건(2014년 누계 3,963건)인데, 이 중 가입금액 50만원 미만이 48%로 가장 높고, 150만원 이하로 보면 약 82%를 차지해 대부분이 이 구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가입자 연령으로 보면 70대가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60대와 80대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7. 연금액 규모별 가입현황

구분	가입건수	비중
계	2,927	100%
65~69	561	19.2%
70~74	1,030	35.2%
75~79	848	29.0%
80~84	356	12.2%
85~89	110	3.8%
90세이상	22	0.8%

- 농지연금 사업 실적으로 미루어보아, 영농활동을 줄이고자 하는 70대 농가들에게 적합한 사업으로 월 약 50~100만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지표〉

○ 농지연금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는 공식적인 지표는 농가가입률이다.

- 농지연금 가입 목표치에 대한 당해연도 가입 농가 비율
- 농지연금 가입 장기목표 : 15,000 농가
- 2014년 지원 농가수 : 3,447 농가

표 4-38. 농지연금 성과추이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농지연금 농가가입률(%)	목표	신규	3,3	14	17.0	23.0

○ 농지연금 사업의 목표 가입농가수는 15,000농가로 이는 2010년 농업총조사 기준 경영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농가⁶⁴⁾의 2.7%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고령 농가들에 대한 정책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인다.

○ 공식적인 성과지표는 아니지만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지표로는 농지연금 가입농가의 연금지급액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이 얼마나 대체하고 있는 가이다.

-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평균가입연령 농가경제조사 자료에 적용하였다.
- 농지연금 가입 가능한 경지를 보유한 농가로 표본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의 한계는 있지만 70대 농가의 농업소득은 약 120%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70대 농가의 경우 영농활동을 포기함으로써 얻어지는 소득이 농업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얻는 농업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70대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 646만원, 전체 농지연금 평균 지급액 792만원을 적용하였다.

〈문제점〉

○ 농지연금 가입실적이 상승하고 있지만, 전체 65세 이상 농업종사자에 비하면 0.5%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적인 노후 생활안정 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64) 2010년 농업총조사 기준 전체 농가 수는 1,177,318농가, 65세 이상 농가는 545,748농가이다.

- 또한 기간형 가입에 쏠림 현상이 있는데, 이는 연금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농지연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종신휘 가입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
- 고령 농가의 농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농가의 노후 대책으로써 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3) 개선방안

- 최근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농지평가율 대신 공시지가 또한 감정평가액의 70%를 적용하여 연금지급액을 현실화하였고, 문제가 되어 왔던 가입비를 폐지하였다.
-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가입율을 제고하여 일반적 복지대상이 아닌 자산을 보유한 고령농가에 대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 현행 농지연금 이자율은 연금채권액의 3% 복리 이자율이 적용이 되어 최근의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
 - 소유농지 제한면적(3ha) 가입조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즉, 평야지의 저가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은 가입제한 및 지가가 높은 지역에 비해 월 지급금도 낮아 이중 규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4.6. 소결

- 영농규모화 정책의 세부사업인 ‘농지매입비축사업’ 시행은 후계농 중심의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구조 개선과 농촌사회의 활력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경영이양직불제’는 은퇴농들의 경영을 이양하여 그에 대한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은퇴농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영농규모화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영농규모화 사업군의 2개 성과지표(2개 사업)는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다.
- ‘농지매입비축사업’ 시행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이나 전업농육성대상자 등 후계 인력중심의 영농규모화와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

수혜자(매도인)조사에서는 소득안정, 적정수준의 매입가격 등의 이유로 응답자의 83%가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까다로운 매입대상자 요건 등에 대한 불만족도 제기되었다. 사업수혜자(임차인) 조사에서는 매매부담 완화, 임대료 인하 등의 이유로 응답자의 85%가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농지선택의 제약, 농지매입비축 현황 미공개 등으로 인한 불만족도 제기되었다.

- ‘농지매입비축사업’의 수혜자(매도인) 조사결과,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전체 응답자의 16%, ‘만족’ 67%, ‘불만족’ 13%, ‘매우 불만족’ 4%로 조사되었다.
 - ‘농지매입비축사업’의 수혜자(임차인) 조사결과,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전체 응답자의 9%, ‘만족’ 76%, ‘불만족’ 11%, ‘매우 불만족’ 4%로 조사되었다.
 - 수혜농가(매도인)는 농지매입 절차 간소화, 일관적인 가격정책 등을 건의하였으며 임차인은 임대토지 면적증대, 임대 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건의하였다.
- ‘경영이양직불제’ 시행으로 은퇴농들의 노후안정과 신규 후계농의 영농규모화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수혜자 조사에서도 노후생활 안정,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이유로 응답자의 62.1%가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낮은 지급단가, 짧은 직불금 지급기간(최대 75세, 10년) 등에 대한 불만족도 제기 되었다.
- ‘경영이양직불제’의 수혜자 조사결과,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전체 응답자의 22.7%, ‘만족’ 39.4%, ‘불만족’ 33.3%, ‘매우 불만족’ 4.5%로 조사되었다.
 - 은퇴농들은 경영을 이양하고 1인당 평균 139만 7천 원을 지원 받아 은퇴농들의 소득보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5. 생산기반조성

2.5.1. 정책목표 및 개요

- 생산기반조성의 정책은 ‘가뭄·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생산기반조성은 용수부족 및 상습 가뭄지역에 대한 농촌용수개발 등을 통해 농촌용수의 안정적 확보, 공급 및 가뭄피해 해소, 효율적인 배수개선체계 구축, 침수피해 방지를 목표로 한다.
- 생산기반조성의 세부사업별 사업 목적,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자격, 예산과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39. 생산기반조성 사업목적과 개요

사업명		개요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목적	▪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지원내용	▪ 수리시설 보수·보강 공사비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안전진단 사업비 등으로 집행
	지원 대상 및 자격	▪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지구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1,400억 원 ▪ 실적 : 1,400억 원
배수 개선	사업목적	▪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다양한 작물재배 여건을 구축
	지원내용	▪ 농업진흥지역 내 농경지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 공사비(자재대)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홍수 발생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고, 농지로의 보전 가능성이 높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경지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800억 원 ▪ 실적 : 800억 원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	사업목적	▪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편의 기반 구축
	지원내용	▪ 사업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사업비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구 중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지구 ▪ 조사설계비는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된 지구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800억 원 ▪ 실적 : 800억 원

2.5.2. 성과지표

-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 성과지표를 평가에 활용한다.

표 4-40. 영농규모화 성과지표

사업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수리시설개보수	수리시설 개보수율(%)	(사업 완료/사업 대상)×100
배수개선	배수개선 완료지역 침수피해액(원)	침수 피해액 산정(원)
	배수개선 완료지역 침수피해 해소율(%)	(최근 3개년 준공지구 총수해면적-침수피해면적/최근 3개년 준공지구 총수해면적)×100
다목적농촌용수 활용	수리안전답율(%)	가뭄에 안전한 답면적/전체 논면적×100

2.5.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2013년까지 총 6조 4,071억 원을 투입하여 수원공 2,583개소(누계:2,713)정비를 완료하였고, 2014년에는 1,400억원으로 집행실적은 100% 달성하였다.
- 성과지표인 ‘수리시설개보수율’은 74.1%를 달성하여 100%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 2014년에는 총572지구에서 수리시설 개보수(총 1,400억 원)를 실시하였으며 준공된 지구는 142개, 신규지구는 90개, 그리고 계속 진행 중인 지구는 340개로 조사되었다.
 - 지구별 사업은 전남이 109지구(19%)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103지구(18%), 경남 91지구(16%), 전북 84지구(15%) 순으로 조사되었다.

□ 배수개선사업

- 2014년에 신규 지표로 설정된 ‘배수개선 완료지역 침수피해 해소율(최근 3개년 준공지구)’은 100%의 실적을 달성하여 침수피해예방, 안정영농 도모,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총 대상면적 30만 270ha중 2014년까지 총 16만 6천ha(55%)의 배수시설을 개선하였으며 2014년도 예산은 800억 원으로 집행실적은 100% 달성하였다.

□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따른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 설치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논 면적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농촌용수개발 지원으로 ‘수리안전답율’이 증가하였다.
- 2014년 ‘수리안전답율’은 전년 대비 0.6%p 증가한 60.3%를 기록하였고 목표대비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의 누계 실적(2014년 기준)은 총 8만 8,400ha에 6조 792억 원을 투입하여 64.8%의 다목적농촌용수개발을 추진하였다.
 -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의 2014년도 예산은 800억 원으로 전년(650억 원) 대비 1.2배 증가했으며, 집행실적은 100% 달성하였다.

표 4-41. 생산기반조성 성과지표 측정 결과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리시설 개보수	수리시설 개보수율 (누계%)	목표	66.2	67.3	68.1	69.0	69.8	72.7	74.1
		실적	66.2	67.3	68.1	69.0	71.2	72.7	74.1
		달성률(%)	100.0	100.0	100.0	100.0	102.0	100.0	100.0
	예산(억 원)		-	-	-	-	300	1,400	1,400
	실적(억 원)		-	-	-	-	300	1,400	1,400
	집행률(%)		-	-	-	-	100.0	100.0	100.0
배수개선	배수개선 완료지역 침수피해액 (원)	목표	0	0	0	0	0	지표 변경	
		실적	0	0	0	0	0		
		달성률(%)	100	100	100	100	100		
	배수개선 완료지역 침수피해 해소율(%)	목표	-	-	-	-	99.0	99.0	99.0
		실적	-	-	-	-	100.0	100.0	100.0
		달성률(%)	-	-	-	-	101.0	101.0	101.0
	예산(억 원)		-	-	-	-	400	900	800
	실적(억 원)		-	-	-	-	400	900	800
	집행률(%)		-	-	-	-	100.0	100.0	100.0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수리안전 답율(%)	목표	45.7	46.0	50.0	50.1	50.5	56.9	60.3
		실적	47.4	47.8	52.9	53.1	56.4	59.7	60.3
		달성률(%)	103.7	103.9	105.8	106.0	111.7	104.9	100.0
	예산(억 원)		-	-	-	-	300	650	800
	실적(억 원)		-	-	-	-	300	650	800
	집행률(%)		-	-	-	-	100.0	100.0	100.0

- 생산기반조성사업군의 3개 성과지표(3개 사업)는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다.

2.5.4. 사업수혜자 조사

□ ‘생산기반조성사업’ 설문조사⁶⁵⁾

- 〈조사개요〉 FTA 국내보완대책의 주요사업을 면밀히 평가하고 생산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2014년 ‘생산기반조성사업’ 준공지구 내 수혜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의 유용성, 농촌발전 기여도, 사업의 지속 필요성, 사업의 개선점과 건의 사항을 조사하였다.
- 2014년 ‘생산기반조성사업’을 수혜 받은 785농가(수리시설개보수 280농가, 다목적 용수개발 180농가, 배수 개선 사업 325농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시기: 2014년 7월 24일~8월 11일
- 조사내용은 사업의 종합만족도를 포함하여, 사업의 유용성(영농활동 도움 정도), 농촌발전 기여도(지역 발전 기여도), 사업 지속 필요성, 수혜민의 의견 반영, 공사 담당자의 적극성(담당자 업무 태도)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만족도〉 수리시설개보수 준공지구의 사업수혜자들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87.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에 대한 세부 설문에서 ‘사업 지속 필요성’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9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촌발전기여도’ 80.0%, ‘사업유용성’ 77.1%, ‘수혜민 의견 반영’ 57.2%, ‘담당자 적극성’ 56.4%가 긍정으로 응답하였다.

표 4-42.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대한 종합만족도(87.1점)

단위: %

사업유용성			농촌발전기여도			사업지속필요성			수혜민 의견 반영			담당자 적극성		
긍정	보통	부정	긍정	보통	부정	긍정	보통	부정	긍정	보통	부정	긍정	보통	부정
77.1	13.2	9.7	80.0	15.7	4.3	95.0	4.6	0.4	57.2	29.3	13.5	56.4	36.1	7.5

- 〈배수개선사업 만족도〉 배수개선 준공지구의 사업수혜자들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85.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에 대한 세부 설문에서 ‘사업 지속 필요성’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9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유용성’ 75.7%, ‘농촌발전기여도’ 71.1%, ‘담당자 적극성’ 54.7%, ‘수혜민 의견 반영’ 52.7%가 긍정으로 응답하였다.

65) 농어촌공사에서 2014년에 발간한 “2014 준공지구 수혜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를 요약 정리

표 4-43. 배수개선 사업에 대한 종합만족도(85.5점)

단위: %

사업유용성			농촌발전기여도			사업지속필요성			수혜민 의견 반영			담당자 적극성		
긍정	보통	부정	긍정	보통	부정	긍정	보통	부정	긍정	보통	부정	긍정	보통	부정
75.7	14.5	9.8	71.1	22.2	6.7	92.9	6.8	0.3	52.7	32.9	14.4	54.7	39.4	5.9

- 〈다목적농촌용수사업 만족도〉 다목적농촌용수 준공지구의 사업수혜자들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84.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에 대한 세부 설문에서 ‘사업 지속 필요성’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8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촌발전기여도’ 70.0%, ‘사업유용성’ 69.5%, ‘수혜민 의견 반영’과 ‘담당자 적극성’이 각각 48.9%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표 4-44.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에 대한 종합만족도(84.0점)

단위: %

사업유용성			농촌발전기여도			사업지속필요성			수혜민 의견 반영			담당자 적극성		
긍정	보통	부정	긍정	보통	부정	긍정	보통	부정	긍정	보통	부정	긍정	보통	부정
69.5	18.9	11.6	70.0	21.7	8.3	87.8	10.6	1.6	48.9	37.8	13.3	48.9	45.6	5.5

- 〈건의사항〉 ‘생산기반조성사업’의 준공지구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도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물 개보수, 적기 완공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대해 건의하였다.
-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사회간접자본투자(SOC)사업으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경지 침수, 가뭄발생 등 농촌의 안전과 재해예방, 수자원 확보 등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5.5. 소결

- 생산기반조성 정책의 세부사업인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은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영농편의 도모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배수개선사업’은 침수 피해예방, 영농안정 도모,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수리시설 개보수 및 확장으로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생산기반조성 사업군의 3개 성과지표(3개 사업)는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다.

-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2014년에 총 138개소를 정비하여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영농편의 도모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87.1점이며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9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배수개선사업’은 2014년까지 총 16만 6천ha의 배수시설을 개선하여 침수피해 예방, 영농 안정 도모,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85.5점이며 ‘배수개선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9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다목적농촌용수사업’을 통해 2014년까지 총 8만 8,400ha에 다목적농촌용수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다목적농촌용수사업’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84.0점이며 ‘다목적농촌용수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8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5장

신성장동력창출
분야 성과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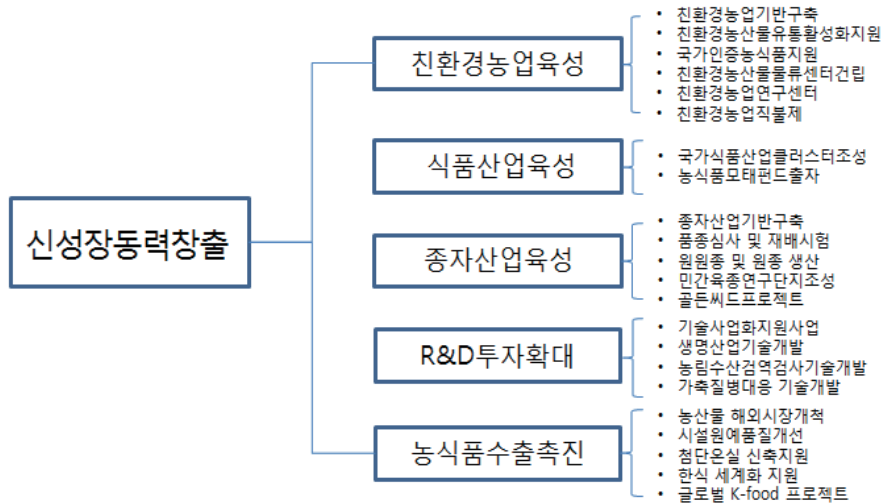
제5장

신성장동력창출 분야 성과평가

1. 개요

- 신성장동력창출의 전략 목표는 시장개방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이다.
 -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국내 농식품산업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더 나아가 해당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함으로써 시장개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한다.
- 신성장동력창출 분야는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목표에 따라 5개 사업군, 22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다.
 - ① **친환경농업육성**은 6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 ‘국가인증농식품지원’,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건립’,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다.
 - ② **식품산업육성**은 2개 사업으로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 ‘농식품모태펀드출자’가 시행되고 있다.
 - ③ **종자산업육성**은 5개 사업으로 ‘종자산업기반구축’,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원원종 및 원종생산’, ‘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 ‘골든시드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
 - ④ **R&D투자확대**는 4개 사업으로 ‘기술사업화지원’, ‘농생명산업기술개발’, ‘농림축산 검역검사기술개발’, ‘가축질병 대응기술개발’이 시행되고 있다.
 - ⑤ **농식품수출촉진**은 5개 사업으로 ‘농산물해외시장개척’, ‘시설원예품질개선’, ‘첨단온실 신축지원(이차보전)’, ‘한식세계화지원’, ‘글로벌 K-Food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

그림 5-1. 신성장동력창출 분야의 세부사업



○ 2014년도 신성장동력창출에 투입된 예산 6,596억 원 가운데, 67.7%인 4,464억 원가 집행되었다. 신성장동력창출 전체 예산 가운데 농식품수출촉진 예산비중이 44.8%로 가장 높고, 친환경농업육성 16.4%, 식품산업육성 14.4%, 종자산업육성 12.6%, R&D투자확대 11.7% 순으로 나타났다.

- 신성장동력창출에 투입된 예산은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으며, 예산집행률도 전년 대비 21.4%p 하락하였다.
- 사업군별 예산을 살펴보면, 식품산업육성 예산은 전년 대비 49.5%, 종자산업육성은 41.3%가 증가한 반면, 친환경농업육성 예산은 전년 대비 28.9%, 농식품수출촉진 4.2%, R&D투자확대 0.8% 감소하였다.
- 사업군별 예산집행률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군이 7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인 반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농식품수출촉진의 집행률은 55.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5-1. 신성장동력창출 분야 예산집행률

단위: 억 원

정책목표	집행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 대비 증감률(%)
전 체	예산(억 원)	2,417	2,685	3,783	3,345	4,346	6,616	6,596	-0.3
	실적(억 원)	1,658	2,379	3,001	3,574	4,157	5,892	4,464	-24.2
	집행률(%)	68.6	88.6	79.3	106.8	95.7	89.1	67.7	-21.4p
친환경 농업육성	예산(억 원)	657	683	973	890	1,118	1,525	1,084	-28.9
	실적(억 원)	633	645	456	1,200	955	1,146	851	-25.7
	집행률(%)	96.3	94.4	46.9	134.8	85.4	75.1	78.5	3.4p
식품산업 육성	예산(억 원)	20	20	630	540	540	634	948	49.5
	실적(억 원)	0	20	627	540	540	634	713	12.5
	집행률(%)	0.0	100.0	99.5	100.0	100.0	100.0	75.2	-24.8p
중자산업 육성	예산(억 원)	187	160	178	161	219	588	831	41.3
	실적(억 원)	104	129	145	158	183	516	645	25.0
	집행률(%)	55.6	80.6	81.5	98.1	83.6	87.8	77.6	-10.1p
R&D 투자확대	예산(억 원)	815	965	993	818	888	781	775	-0.8
	실적(억 원)	735	885	993	813	883	775	612	-21.0
	집행률(%)	90.2	91.7	100.0	99.4	99.4	99.2	79.0	-20.3p
농식품 수출촉진	예산(억 원)	738	857	1,009	936	1,581	3,088	2,958	-4.2
	실적(억 원)	186	700	780	863	1,596	2,821	1,643	-41.8
	집행률(%)	25.2	81.7	77.3	92.2	100.9	91.4	55.5	-35.8p

2. 정책군별 성과평가

2.1. 친환경농업육성

2.1.1. 정책목표 및 개요

-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은 ‘생산과 유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농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s)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과 유통망을 확충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과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친환경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와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친환경농업육성의 세부사업별 사업 목적,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자격, 예산과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2. 친환경농업육성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사업명	개요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목적 ▪ 광역·마을 단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지원
	지원내용 ▪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장비를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후보단지로 선정된 지역의 지자체, 지역농협, 생산자조직, 법인화된 조직과 마을단위의 농업인 등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172억 원 ▪ 실적 : 189억 원
친환경 농산물 소비지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목적 ▪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매장지원을 통한 판로확대 및 가격안정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매장 임대보증금 및 매장시설 설치비 ▪ 친환경농산물 직구매 자금 ▪ 결제자금 융자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계된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운영법인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514억 원 ▪ 실적 : 353억 원
국가 인증 농식품	사업목적 ▪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사업을 통한 농식품 소비촉진 및 활성화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인증, 농산물우수관리(GAP), 지리적표시인증, 유기농 인증 등
	지원 대상 및 자격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인증 지정을 받으려는 자(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지정받았으나 지원을 받으려는 자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51억 원 ▪ 실적 : 47억 원

사업명		개요
친환경 농산물 물류 센터 건립	사업목적	▪ 농가소득증대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유통체계 개선과 물류비용 절감
	지원내용	▪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건축비, 시설비 등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종합물류센터 1개소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30억 원 ▪ 실적 : 47억 원(전년도 이월예산)
친환경 농업 연구 센터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 연구시설 건립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연구·교육시설 및 부속건물, 기타 시설 및 기자재 구입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지역 맞춤형 친환경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 능력을 갖춘 대학 및 지자체 등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48억 원 ▪ 실적 : 48억 원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확산 도모 및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
	지원내용	▪ 친환경농가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 일부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2012년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269억 원 ▪ 실적 : 167억 원

2.1.2. 성과지표

- 친환경농업육성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과 유통망 확충을 위해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 ‘국가인증농식품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 성과지표를 평가에 활용하였다.

표 5-3. 친환경농업육성 분야 성과지표

사업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광역·지구조성 친환경농업단지 내 친환경인증면적 비율(%)	(광역·지구조성 인증면적/광역·지구조성 전체면적)× 100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지원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유기) 유통시장 규모 증가율(%)	(당해연도 시장규모- 전년도 시장 규모)/전년도시장규모×100
국가인증 농식품 지원	국가인증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평균인지도(%)	소비자 설문조사
	GAP인증농산물 재배비율(%)	(GAP인증농산물재배면적/전체농경지면적)×100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건립	물류센터의 친환경농산물 취급 비중(%)	(물류센터들의 친환경농산물 취급액/친환경 농산물 시장규모)×100
친환경 농업연구 센터	친환경인증 상승 농업인 비중(%)	(친환경인증 상승 농업인(또는 농가) 수/친환경농업연구센터 교육 및 지도 수혜 대상 농업인(또는 농가) 수)×100
친환경농업 직불제	친환경농산물 재배(인증)면적 비중(%)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전체 농산물 재배면적)×100

2.1.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 저농약 신규 인증 중단,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 강화로 인해 ‘광역·지구 조성 친환경농업단지 내 친환경인증면적 비율’은 전년 대비 5.1%p 하락하였다. 하지만, 2014년 광역단지 4개소, 친환경농업지구 29개소를 선정하는 등 지속적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친환경농업단지 내 친환경인증면적 비율’은 2013년 35.2%에서 2014년 30.1%로 5.1%p 하락했으며, 전국을 기준으로 한 친환경인증면적(무농약 이상) 또한 전년 대비 30.2% 감소하였다.
 - 광역단지·지구 내 친환경인증면적(ha): 33,889(’13)→ 20,228(’14)
 - 친환경농업 광역지구(누적): 1,048개(’11)→ 1,076(’12)→ 1,112(’13)→ 1,141(’14)
 - 친환경농업 광역단지(누적): 34개(’11)→ 42(’12)→ 44(’13)→ 48(’14)
- 친환경 농업인의 조직화 및 교육 부진에 따른 친환경농업 전환의 어려움, 초기 운영비에 대한 부담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농업 교육·컨설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최근 친환경농업 인증기준 강화에 따라 친환경 재배면적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부실인증 방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광역단지·친환경지구의 반기별 친환경농업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인증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2014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32.3% 감소한 189억 원이며, 예산집행률은 109.9%로 초과 집행되었다.

□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사업

- 친환경농업이 양적 성장에서 조정·보완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장 규모가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29.6% 감소하였다. 또한, 융자금리 부담으로 인한 사업수요 부진으로 68.7%의 예산집행률을 나타냈다

- 2014년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은 83만 톤이었으며, 무농약 이상 생산비중은 69.7%를 차지하였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기준강화 등으로 2014년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2% 감소하였다.
- 2014년도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28.5% 감소한 514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68.7%인 353억 원이 집행되었다.
- 본 사업의 예산 중 세부사업인 판매장 개설자금 지원은 높은 정책금리(3%)와 신청업체의 담보부담 등으로 사업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 향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가인증농식품지원사업

-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 및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GAP인증농산물재배비율’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국가인증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평균 인지도’는 전년 대비 5.4%p 증가하여 농식품 국가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GAP인증 농산물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1%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배면적은 다소 감소하여 GAP인증농산물 재배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3.4%로 나타났다.
 - GAP 재배면적(ha) : 58,703('13) → 58,768('14)
 - 전체 재배면적(천 ha) : 1,762('13) → 1,728('14)
-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국가인증농식품 인지도는 2009년 39.2%에서 2013년 56.3%, 2014년 61.7%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 2014년 51억 원의 사업예산중 연구용역비 미집행, TV홈쇼핑을 활용한 홍보사업 유찰로 92.2%의 집행실적을 나타내었다.

□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건립사업

-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인 ‘물류센터의 친환경농산물 취급 비중’은 5.2%(잠정)로 전년 대비 1.8%p 증가했으나, 전체 친환경 농산물 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 확대로 물류센터 취급비중을 높여 친환경농산물 물류비용 경감, 안정적인 공급, 판로확보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기대된다.

- 2012년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사업 순연으로 2013년 예산을 이월하여 2014년에 집행하였고, 2015년 공사 착공 시 전액 집행될 예정이다.
- 2016년까지 전남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전문 유통 단지 조성으로 식당, 학교 등 대량수요처에 대한 안정적이고 규격화된 원료 공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친환경농업연구센터사업

-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시행으로 상위단계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수가 증가하였다. 향후, 저농약 농산물 신규 인증 중단 또는 폐지(2016년)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법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 될 것으로 예상 되어 친환경농업연구센터와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된다.
- 2014년 친환경농업연구센터는 3개소가 건립되었고 4개소가 추가로 건립 중에 있으며, 경북 의성군에서 기술보급센터 건립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2014년 ‘친환경농업연구센터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40% 감소한 48억 원이며, 100%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친환경농업직불제

- 친환경농업 인증에 대한 법적요건 강화와 친환경 인증 농가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및 농가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친환경 농산물(무농약 이상)재배면적 비율’은 전년 대비 2.1%p 감소한 4.9%로 나타났다.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2013년 14만 ha에서 2014년 10만 ha로 감소했으며,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 수도 같은 기간 13만 호에서 9만호로 감소하였다. 2014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농업직불)’ 예산은 전년 대비 28.5% 감소한 269억 원이며, 이 가운데 62.1%인 167억 원을 집행하여 예산집행률이 전년보다 낮아졌다.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산업육성, 사후관리 강화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014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규모: 2만 6천 ha(농가기준: 3만 호)

표 5-4. 친환경농업육성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광역·지구 조성 친환경농업 단지내 인증면적 비율(%)	목표	-	-	-	34.0	35.0	36.0	37.0
		실적	-	-	-	34.0	34.2	35.2	30.1
		달성률(%)	-	-	-	100.0	97.7	97.8	81.4
	예산(억 원)		330	147	319	365	263	254	172
	실적(억 원)		330	147	319	365	242	227	189
	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92.0	89.4	109.9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 유기)유통 시장규모 증가율(%)	목표	-	6.0	7.0	8.0	8.1	5.0	8.0
		실적	24.0	7.0	7.0	6.7	9.5	12.4	-29.6
		달성률(%)	-	116.0	100.0	83.8	117.3	248	-
	예산(억 원)		24	24	24	22	289	719	514
	실적(억 원)		-	-	-	-	289	545	353
	집행률(%)		0.0	0.0	0.0	0.0	100.0	75.8	68.7
국가 인증 농식품 지원	국가인증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평균인지도 (%)	목표	-	20.0	25.0	30.0	50.0	54.3	58.0
		실적	-	39.2	45.0	46.6	50.3	56.3	61.7
		달성률(%)	-	196.0	180.0	155.3	100.2	103.6	106.4
	GAP인증 농산물 재배비율 (%)	목표	-	-	-	5.0	3.2	3.5	5.0
		실적	2.1	2.4	2.8	5.9	3.2	3.4	3.4
		달성률(%)	-	-	-	118	100	97.1	68.0
	예산(억 원)		10	14	10	40	40	49	51
	실적(억 원)		10	14	10	40	40	47	47
	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0.0	95.9	92.2
친환경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	물류센터의 친환경 농산물 취급비중 (%)	목표	2012년 경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이후					3.8	4.5
		실적						3.4	5.2(p)
		달성률(%)						89.5	115.6
	예산(억 원)		-	8	63	114	50	47	30
	실적(억 원)		-	8	63	114	50	이월	47
	집행률(%)		-	100.0	100.0	100.0	100.0	0.0	156.7
친환경 농업연구 센터	친환경인증 상승 농업인 비중(%)	목표	-	-	-	-	20	22	10.0
		실적	-	-	-	-	13	19	19.5
		달성률(%)	-	-	-	-	65.0	86.4	195.0
	예산(억 원)		30	67	37	-	40	80	48
	실적(억 원)		30	67	37	-	40	80	48
	집행률(%)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친환경 농업 직불	친환경 농산물 재배(인증) 면적 비중(%)	목표	-	-	6.2	7.4	7.8	8.0	8.5
		실적	-	-	6.4	6.7	7.3	7.0	4.9
		달성률(%)	-	-	103.2	90.5	93.6	86.3	57.6
	예산(억 원)		263	423	520	349	436	376	269
	실적(억 원)		263	409	27	681	294	247	167
	집행률(%)		100.0	96.7	5.2	195.1	67.4	65.7	62.1

주: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건립사업'의 성과지표인 '물류센터의 친환경농산물 취급 비중은 잠정치임

- 친환경농업육성 사업군의 7개 성과지표(6개 사업) 가운데 목표대비 성과를 달성한 지표는 3개, 미달성은 4개였다.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는 ‘광역·지구조성 친환경농업단지내 인증면적 비율’, ‘친환경 농산물 시장규모 증가율’, ‘GAP 인증 농산물 재배비율’,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비중’ 이다.
- ‘친환경 농산물 시장규모 증가율’,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비중’, ‘GAP 인증 농산물 재배비율’의 달성도는 부실 인증 방지를 위한 친환경농업 인증강화 및 인증농산물 소비부진에 따른 신규면적 감소, GAP 시설보완사업 참여 희망자 저조 등으로 목표달성률 대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2.1.4. 소결

-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의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시행으로 친환경 농업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국가인증농식품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자 인지도 향상,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판매장 개설사업에 대한 금리부담으로 인한 사업 수요 저조와 물류센터 건립지연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분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군의 7개 성과지표(6개 사업)가운데 목표대비 성과를 달성한 지표는 3개, 미달성 4개였다.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저농약 신규인증 중단, 친환경 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 강화 등의 제도개선으로 인해 친환경 인증면적은 감소 추세이다. 하지만, 2014년 지구 내 친환경 인증 29개소, 광역단지 내 4개소를 선정하는 등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광역단지·친환경 지구의 반기별 친환경농업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인증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이 양적 성장에서 조정·보완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인증량이 감소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29.6% 감소하였으며, 융자금리

- 부담으로 인해 사업수요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 친환경농업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판매장 지원사업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국가인증농식품지원사업’ 시행으로 국가인증 농식품의 생산·공급체계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국가인증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전년 대비 5.4%p 상승하였으며, GAP 농산물 재배면적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건립사업’은 2014년 기준으로 전남지역 물류센터 준공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친환경 농산물 물류비용 경감, 안정적 공급 및 판로 확보 등 친환경 농산물 유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교육사업’ 시행으로 상위단계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 농가 수가 증가하여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향후, 저농약농산물 신규 인증 중단 및 폐지(2016년)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법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친환경농업연구센터와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의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
-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 인증 법적요건 강화와 친환경인증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저농약 인증 폐지 등의 제도적 변화로 직불금 신청면적과 농가 수는 감소하였고, 예산집행률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2013년 14만 ha에서 2014년 10만 ha로 감소했으며, 농가수도 같은 기간 13만 호에서 9만호로 감소했다.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산업육성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2. 식품산업육성

2.2.1. 정책목표 및 개요

- 식품산업육성은 ‘식품분야의 기술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농식품 분야의 성장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세부사업별 사업 목적,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자격, 예산과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5. 식품산업육성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사업명		개요
국가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목적	▪ R&D, 수출 중심의 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농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
	지원내용	▪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 조성 ▪ 국내외 식품기업·연구소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시설 구축
	지원 대상 및 자격	▪ 전북 익산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348억 원 ▪ 실적 : 113억 원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	사업목적	▪ 농식품산업에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
	지원내용	▪ 자펀드 결성 및 성장가능성 있는 다양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
	지원 대상 및 자격	▪ 펀드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수익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투자처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600억 원 ▪ 실적 : 600억 원

2.2.2. 성과지표

- 식품산업육성은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 ‘농식품모태펀드출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MOU체결·분양계약·투자신고 수’,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수’ 등의 지표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다.

표 5-6. 식품산업육성 분야 성과지표

사업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	투자유치 MOU체결·분양계약·투자신고 수	식품기업·연구소 등 투자유치 MOU체결, 분양계약, 투자신고 실적
농식품 모태펀드출자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수	모태펀드로부터 출자 받아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의 개수

2.2.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⁶⁶⁾

-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인 ‘투자유치 MOU체결·분양계약·투자신고 수’는 15개 기업 또는 기관으로 목표치(14개)보다 높은 달성률을 나타냈으나, 농어촌특별세수 부족과 현지 공사 지연으로 인해 2014년 예산집행률은 낮게 나타났다.
- 2014년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1.6배 증가한 348억 원이며, 이 가운데 113억 원이 집행되어 32.5%의 낮은 예산집행률을 보였다.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의 목적>

- 세계 식품시장은 2020년에는 7조 달러 까지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Datamonitor, 2011). 우리나라는 15억 인구를 가진 동북아 시장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농식품 분야의 기술혁신과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세계 식품시장에 대응할 거점 구축이 필요하다.
- 정부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식품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기업·연구소 등을 집적화 된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6)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은 전북 익산 지역의 232만㎡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2011년 12월에 식품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LH), 2012년 6월에는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국토부) 되었음. 2013년 9월부터 토지보상이 시작되었으며, 2014년 6월에 착공되었음.

<사업 추진 및 투자 유치 현황>

- 국가식품클러스터(푸드폴리스)는 국산 원료 농산물 생산지와 인접성, 도로·철도 등 물류·유통망, 해외수출 항만, 공항 등을 고려하여 전북 익산시에 조성 중에 있다.
 - 곡창지대인 호남권·김제평야에 위치한 전라북도는 다양한 농수산물 생산 및 전통·발효식품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며, 전주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농촌진흥청(전주), 한국식품연구원(전주예정), 장류연구소(순창), 식품관련 임상센터(전북대학교) 등 농식품 연구기관들이 집결되어 있어 산·학 연계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 서울, 대구, 광주 등 주요 소비지로부터 2시간 이내에 위치하고, 호남고속도로, 호남선철도, 군산항 교통망 등 물류·유통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은 총 면적은 358만 m^2 (산업단지 223만 m^2 , 배후도시 126만 m^2)이며, 사업비는 5,535억 원(국고+지방비 1,966억 원, 민자 3,569억 원) 규모로 진행 중이다.

표 5-7.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 경과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대상지 선정 (2007~2008년)	- 제1차 균형발전 정책 보고회에서 ‘식품클러스터 조성 방향’ 대통령 보고(’07.11.27) - 신규사업 추진 공모 결과에 따라 전북도를 사업대상지로 선정(’07.12.17)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입지지역 선정 발표(’08.12.26)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정책연구(’08.7~12월, 산업연구원) - 국정과제 채택(’08.7) 및 입지로 전북 익산을 최종 선정(’08.12.26)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사업 시행자 지정 (2009~2010년)	- 국가식품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09.11.6, 기획재정부) - 국가산업단지로 조성, 예비 사업시행자로 LH공사를 지정(’10.1, 국토부)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식품산업진흥법 개정 ’10.1)
산업 단지 지정 및 종합계획 수립 (2011~2012년)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11.2) - 식품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11.12, LH) 및 지정 승인(’12.6, 국토부) 6개 기업지원시설* 설립 및 건축 기본계획 수립(’11~’12) *지원센터, 식품기능성평가, 품질안전, 패키징, 파일럿플랜트, 임대형공장 -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발표(’12.7, 위기관리대책회의)
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공사 추진 (2013~2014년)	- 국가식품클러스터 대상부지 토지보상 추진(’13.9~’14.10, 보상을 100%) - 산업단지·기업지원시설 설계 완료(’13.12), 시공사 선정 및 공사 착공(’14.상) -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14.6월) 및 고시(’14.7.2)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공식 개최(’14.11.24) 및 분양공고(’14.11.28), 외국인 투자 지역(FIZ) 지정 신청(’14.12.24), 분양계약 체결(’15.1.7~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2.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 계획

○ (투자유치현황) 국내·외의 108개 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2015년 4월 기준)하였으며, 외국기업 5개소는 외국투자신고를 이미 한 상태이다.

- 투자양해각서 : (국내) CJ제일제당, 동원F&B, 하림, 한성기업 등
(해외) NIZO연구소(네), 차오마마(중), 햄튼 그레이즈(미) 등
- 외국투자신고 : 웰스프랑햄튼그레이즈(미), 위해자광차오마마(중), 골드락인터내셔널(케)

○ (운영방향) 종자개발, 농업생산, 식품개발, 가공 및 해외수출까지 농식품 연관 산업 집적화·네트워크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 (종자) (시드밸리) 김제 → (농업생산) 전국 주산지·새만금·영산강·화옹
→ (식품개발·가공) 국가식품클러스터 → (수출) 군산항·새만금신항

<기대효과>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으로 2020년까지 식품 관련 150개 기업 및 10개 연구소 입주, 연간 매출액 15조 원, 수출액 30억 달러 등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산업연구원, 2008).

- 국내·외 식품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통한 농식품 경쟁력 제고, 수출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의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 국산 원료 농산물 사용증가(연간 5조원)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가, 쌀가공식품·기능성식품·발효식품 등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연구개발·생산·관리 등 직종별 2만 2천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교육·의료·문화 등 서비스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설구축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의 양적·질적 향상을 통한 혁신효과, 기업투자파급효과, 간접효과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혁신효과) 입주 기업들의 혁신활동에 의한 효과로 생산유발 1조 2천 억 원, 고용유발 5천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 (기업투자파급효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 내 생산유발은 1조 7천억 원, 지역 내 고용유발은 8천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간접효과) 단지 조성과정인 건축·토목 등에 투입되는 사업비 집행에서 생산유발은 1조 1천억 원, 고용유발은 9천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5-8.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경제적 효과산출

단위: 억 원

구분	투자예정액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합계		40,810	22,096
직접효과	혁신효과	2,417	12,454
	기업투자효과	3,119	17,555
간접효과	5,535	10,801	9,19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2.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 계획

□ 농식품모태펀드출자사업⁶⁷⁾

- ‘농식품모태펀드출자사업’의 성과지표인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수’는 2014년 9개로 전년 대비 50.0%(6개→9개)증가하였다. 2014년에는 소형, R&D, Agroseed 등 다양한 분야의 자펀드 결성으로 인한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로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시장상황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투자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식품펀드의 투자촉진을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의무출자 비율 및 우선순실 충당금 비율 완화, 농식품모태펀드 참여 가능 운용사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2014년 ‘농식품모태펀드출자사업’의 예산은 600억 원으로 100%의 예산집행률을 보였고, 2020년까지 1조 2천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표 5-9. 식품산업육성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가식품 산업클러 스터조성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의향 기업 및 기관수 (개소)	목표	-	-	-	-	-	13	14
		실적	-	-	-	20	10	26	15
		달성률(%)	-	-	-	-	-	200.0	107.1

67) ‘농식품모태펀드출자사업’은 전통적인 농업금융방식인 투융자를 보완·대체하는 사업으로 제3섹터형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정부재정 지출을 감소시키고 농식품 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2014년 12월말 누적 기준 30개(4,670억 원)의 농식품투자조합이 결성되어, 155개 업체에 대해 2,258억 원(48.4%)이 투자되었다. 그 중 농식품분야에 투자 실적은 125건, 1,908억 원(84.5%)이며, 비농식품분야에 대한 투자는 30건, 350억 원이다.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억 원)		20	20	33	40	40	134	348
	실적(억 원)		-	20	30	40	40	134	113
	집행률(%)		0.0	100.0	90.9	100.0	100.0	100.0	32.5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	농식품투자 조합 결성수	목표	-	-	3	3	5	6	7
		실적	-	-	4	6	7	6	9
		달성률(%)	-	-	133.3	200.0	140.0	100.0	128.6
	예산(억 원)		-	-	597	500	500	500	600
	실적(억 원)		-	-	597	500	500	500	600
	집행률(%)		-	-	100.0	100.0	100.0	100.0	100.0

- 식품산업 육성 사업군의 2개 성과지표(2개 사업) 가운데 목표 대비 성과를 모두 달성하였다.

2.2.4. 사업수혜자 조사 결과

□ ‘농식품모태펀드출자사업’ 심층면담⁶⁸⁾

○ 사업만족도 및 원인

- 조사결과, ‘농식품모태펀드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4.3점(5점 만점)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의 만족도는 3.8점(5점 만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농식품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로 인해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어 수혜자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식품 경영체의 경우, 시설투자, 상품개발, 홍보 및 유통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사업규모로 인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투자처 발굴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유한 책임조합원(LP)모집이 원활하지 않은 것과 높은 우선손실충당금 비율(3~5%), 소규모 기업에 대한 우선투자, 정부주도 행사 참여 등 운용사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투자조건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 건의

- ‘농식품모태펀드출자사업’은 민간자본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 발굴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농업경영체육성’, ‘식품산업육성’, ‘지역

68) 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 2군데, 농식품경영체 3군데 조사 결과

전략식품산업육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타 단위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투자처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투자조합 운용사와 농림축산식품부 단위사업 담당자와의 정기적인 정보교환 및 정책협의 등 소통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농식품 경영체의 경우 본 사업에서 정한 최소 의무투자기간(평균 3년)을 농식품 경영체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종자·종묘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및 육종부터 판매까지 대개 7~8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3년의 의무 투자기간으로는 충분한 투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의 경우, 우선순실충당금 비율과 소규모 기업에 대한 우선투자 조건을 완화하여 투자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들은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에 따른 정부 주도 행사 참여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 농식품투자조합의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이외 운용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2.2.5. 소결

○ **식품산업육성** 정책의 세부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추진으로 농식품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출자사업’으로 인한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로 농식품 분야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식품산업 육성 사업군의 2개 성과지표(2개 사업) 가운데 목표 대비 성과를 모두 달성하였다.

○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은 현재 전북 익산시에 총면적 358만 m^2 규모로 진행 중에 있으며, 국내·외 108개 기업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2015년 4월 기준)하였고, 외국기업 5개소는 외국투자신고를 한 상태이다.

- 사업 완료 후 국내·외 식품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통해 농식품 경쟁력 제고,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다만, 농어촌특별세수 부족과 현지공사 지연에 따른 예산집행 지연으로 2014년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 ‘농식품모태펀드출자사업’으로 소형, R&D, Agroseed 등 다양한 분야의 자펀드가 결성됨으로써 농식품산업 육성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수혜자 조사결과, 운용사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투자조건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수는 총 9개로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타 단위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투자처 발굴·모집과 높은 우선손실충당금 비율(3~5%) 완화를 통한 투자여건 개선 등으로 운용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2.3. 종자산업육성

2.3.1. 정책목표 및 개요

- 종자산업육성 정책은 ‘국산 품종의 효율적인 증식·보급 체계를 구축하고 품종 보호제도 강화와 생산비 지원을 통한 국내 종자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종자 산업은 식량주권과 직결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종자개발, 생산 및 보급의 기반조성을 통해 농산물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국산 종자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을 확대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세부사업별 사업 목적,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자격, 예산과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10. 종자산업육성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사업명		개요
종자산업 기반구축 (우수품종 증식보급 촉진)	사업목적	▪ 우수한 국산품종을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
	지원내용	▪ 딸기원묘증식시설 ▪ 화훼종묘보급센터 ▪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 우량묘증식시설 ▪ 버섯종균배양센터 ▪ 고구마중순생산기반구축 ▪ 백합종구전문생산단지 ▪ 마늘종구생산시설 ▪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 종묘삼 생산시설현대화 ▪ 씨감자생산기반구축
	지원 대상 및 자격	▪ 생산자단체 ▪ 시·도 농업기술원 ▪ 시·군 농업기술센터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117억 원 ▪ 실적 : 107억 원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사업목적	▪ 품종 육성을 활성화시켜 국내 종자 산업 발전 및 국제 경쟁력 제고
	지원내용	▪ 신품종개발비 지원 : 경영규모가 영세한 민간육종가에게 국내 신품종 출원·등록 장려금 지원 ▪ 해외출원비 지원 : 민간육종가 및 중소기업이 해외출원을 함으로써 소요된 비용 중 일부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내국인으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해외출원비 지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 포함) ▪ 최근 2년 이내에 품종 보호 등록된 품종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88억 원 ▪ 실적 : 85억 원

사업명		개요
원원종 및 원종생산	사업목적	■ 원원종 및 원종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 등의 직접생산비를 지원하여 보급 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지원내용	■ 보급종 생산에 필요한 원원종 및 원종생산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 직접 생산비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지방자치단체(각 도 농업기술원 및 원종 생산기관)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41억 원 ■ 실적 : 41억 원
민간육종 연구단지 조성	사업목적	■ 민간업체의 육종연구에 필요한 육종포장 및 첨단 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지원
	지원내용	■ 개별시설 및 공동시설 구축
	지원 대상 및 자격	■ 전북 김제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271억 원 ■ 실적 : 100억 원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목적	■ 글로벌 종자 시장 선점을 통한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 및 민간 종자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 전략형 수출·수입대체 종자 개발
	지원내용	■ 글로벌 시장개척 종자 및 품종보호 전략 종자 개발을 위한 5개 사업단 20개 품목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종자업체 등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314억 원 ■ 실적 : 312억 원

2.3.2. 성과지표

○ 종자산업육성은 국내 종자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자산업기반구축’,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원원종 및 원종생산’, ‘골든시드프로젝트’ 사업 등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세부사업별 성과지표를 평가에 활용한다.

표 5-11. 종자산업육성 분야 성과지표

사업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종자산업기반구축	주요품목의국산품종보급률(%) *딸기, 장미, 국화	(국산품종 재배면적/전체 재배면적)×100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신품종개발비 및 해외출원비 지원실적(지수)	$0.5 \times (\text{신품종개발비 지원건수}) + 0.5 \times (\text{해외출원비 지원건수})$
원원종 및 원종생산	원원종·원종 종자 생산량(톤)	원원종·원종 종자 생산량(톤)
	원원종 및 원종생산 지원면적(ha)	원원종 및 원종생산 지원면적(ha)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단지내입주업체의품종보호출원 건수(매년50건)	연도별 품종보호 건수 (대규모 업체 : 5건, 중규모 3건, 소규모 1건)
	입주종자회사매출액변화율(%)	(비교연도 수치-기준연도 수치)/기준연도 수치×100
골든시드프로젝트	GSP 수입대체 품목종자에 대한 국내 보급률(%)	(GSP 수입대체 품목종자 이용량/GSP 수입대체 품목종자 전체 이용량)×100

2.3.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 해당 사업은 2014년 종자산업 기반구축 22개소를 추진하여 2009년부터 구축된 종자산업 기반시설은 총 57개소이며, 전문 인력 42명을 양성하였다. 국내 채종 전환을 목적으로 268톤의 종자를 지원함으로써 종자 지원은 전년 대비 34.7% 증가하였고, 농업인의 외국 품종 사용에 따른 종자 로열티 부담 경감 및 우수 품종 개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국산 품종 보급률’은 57.3%로 전년 대비 5.4%p 상승했으며, 당초 설정한 성과지표 (52%)를 초과 달성하였다.
- 2014년 시행된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의 예산은 117억 원이며, 이 가운데 91.5%인 107억 원이 집행되었다.
- ‘품목별 국산 품종 보급률’을 살펴보면, 2014년 딸기의 국산 종자 보급률은 86.1%로 전년 대비 11.1%p 상승하였으며, 참다래, 장미, 국화 등의 국산 종자 보급률도 상승하였다. 반면, 버섯의 국산 종자 보급률은 전년 대비 2%p 하락한 48.0%였다.
- 연도별 국내 채종 전환 목적 지원물량(톤): 114(’11) → 157(’12) → 199(’13) → 268(’14)
- 국내채종 전환 지원물량 변화율(%): 26.7(’13) → 34.7(’14)

표 5-12. 주요 작물의 국산 품종 보급률

구 분	작 물 명	보급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채 소	딸기	34.6	42.4	56.4	61.1	71.7	74.5	75.0	86.1
버 섯	버섯	27.0	30.0	35.0	36.3	40.2	44.6	50.0	48.0
과 수	참다래	2.0	3.0	5.0	9.0	12.5	15.4	17.0	20.7
	감귤	-	-	-	-	-	0.5	1.0	1.0
화 훼	장미	4.4	8.0	13.0	18.0	22.0	25.0	27.0	29.0
	국화	4.5	8.2	12.0	15	20.2	22.8	25.0	27.9
	포인세티아	2	3	5	8	11.0	12.0	15.0	16.3
	난	-	-	2.6	4.0	4.8	6.2	7.4	12.9

자료: 2014년 농촌진흥청 집행실적 등 취합

□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

-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을 통해 신품종 개발 68건에 대해 신품종개발비 2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성과지표인 ‘신품종 개발비 및 해외출원비 지원 실적 지수’는 신품종개발비·해외출원비 지원신청 저조로 목표 대비 3.5 감소하였다. 향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품종으로 출원·등록된 품종에 대해 지원 및 홍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신품종개발비 및 해외출원비 지원금액: 2.4억 원('11) → 3.3('12) → 3.4('13) → 2.7('14)
- 신품종개발비 및 해외출원비 지원건수: 80품종('11) → 108('12) → 85('13) → 68('14)
 - 2013~2014년에는 해외출원비 지원신청은 없음
- 2014년도 예산은 88억 원으로 전년대비 3억 원 증가했고, 예산집행률은 96.6%를 달성하였다.

□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

- 2014년 ‘원원종 및 원종 생산량’은 1,512톤, 생산면적은 271ha로 벼,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등 주요 식량작물 보급종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원원종과 원종 종자 생산량’은 매년 1,450~1,500톤 수준을 유지하고 목표 달성률도 높은 수준이며, 생산지원면적도 최근 3년 동안 270ha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 2014년도 예산은 41억 원으로 전년대비 동일하고, 예산집행률도 100%를 달성하였다.

□ 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사업

- ‘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사업’은 중기(2011~2016년)사업으로 사업 초기에 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성과지표의 하나인 ‘입주 종자회사의 매출액 변화율’은 관련 업체 입주 후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지 내 입주업체의 품종보호 출원 수’도 2016년 이후 측정이 가능하다. 2014년 12월까지 입주가 결정된 기업 수는 총 20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014년 12월 26일 공사 체결 완료).
- 2014년도 사업예산은 2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배 증가했으나, 집행률은 36.9%에 그쳤다. 해당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총

[illegible]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억 원)		30	32	35	40	40	41	41
	실적(억 원)		30	32	35	40	40	41	41
	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민간육종 연구단지 조성	단지내 입주업체의 품종보호 출원 건수	목표	2016년 이후 측정 가능						
		실적							
		달성률(%)							
	입주종자 회사매출액 변화율(%)	목표	입주이후측정가능						
		실적							
		달성률(%)							
	예산(억 원)		-	-	-	-	29	61	271
	실적(억 원)		-	-	-	-	3	20	100
	집행률(%)		-	-	-	-	10.3	32.8	36.9
	골든시드 프로젝트	GSP 수입대체 품목종자에 대한 국내 보급률(%)	목표	2015년 이후 측정 가능					
실적									
달성률(%)									
예산(억 원)		-	-	-	-	25	290	314	
실적(억 원)		-	-	-	-	25	290	312	
집행률(%)		-	-	-	-	100.0	100.0	99.4	

○ 종자산업육성 사업군의 7개 성과지표(5개 사업) 가운데 목표대비 성과를 달성한 지표는 3개, 미달성은 1개, 미측정은 3개였다. 성과지표 미달성 지표는 ‘신품종 개발비 및 해외출원비 지원실적(지수)’이다.

- ‘신품종 개발비 및 해외출원비 지원실적지표(지수)’는 신품종개발비·해외출원비 지원 신청 저조로 인해 달성도가 90.7%에 머물렀다.

2.3.4. 골든시드프로젝트 전문가 평가⁶⁹⁾

가. 국내 종자시장 동향⁷⁰⁾

○ 국내 종자시장규모는 약 1조 원 내외로 분야별 규모는 채소분야, 식량작물분야, 화훼분야, 특용작물분야, 과수분야 등의 순으로 크며, 세계 종자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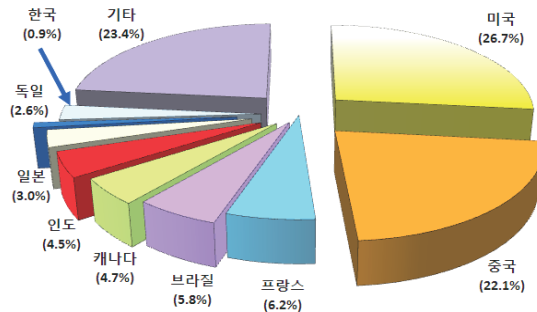
69) 충남대학교 「임용표 교수」 작성

70) 박준기 외. 2014. 「농업은미래성장산업이다」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음.

- 세계 종자시장 규모 비중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이 각각 26.7%, 22.1%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시장규모는 전 세계의 0.9%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의 1/3 수준이다.

그림 5-2. 국내 종자시장 규모 추정치 및 세계 종자시장 국별 비중

구분	금액
식량작물	2350
채소	2369
과수	1166
화훼	1544
버섯	400
특용작물	1398
사료/녹비작물	435
계	9662



주: 시장규모는 2010년, 세계 종자시장 국별 비중은 2012년 기준

자료: (사)한국종자협회(2011). 『종자산업 시장 현황 조사보고서』. 농촌진흥청. ISF(International Seed Federation).

나. 골든시드프로젝트 사업 개요 및 운용 현황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종자 산업은 종자주권 및 식량 안보 확보와 직결된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육성 전략이 필요 하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종자 수요증가 및 종자시장의 글로벌화로 세계시장을 겨냥한 종자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반도체와 같이 국가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 (사업목적 및 목표) 세계 종자시장 선점을 통한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 및 민간 종자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2021년까지 종자 수출 2억 달러 달성 및 종자 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한다.
- (사업 추진 전략) 해당 사업은 크게 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 (2013~2016)는 목표시장 선정 및 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육종목표를 설정하고 육종소재 개발, 분자육종시스템 구축, 원천 기반기술 개발 및 해외 육종수출 기반 마련에 있다. 2단계(2017~2021)는 품목별 목표 품종 개발, 대량생산체제

등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개발된 품종의 수출시장 개척 및 국내 보급을 통해 수출 목표와 수입대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

- **(주요사업내용)** 골든시드프로젝트는 글로벌 종자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수출전략 종자 개발 및 민간 종자산업 기반 구축, 품종보호제도 대응 종자 개발을 위한 부·청 협력 R&BD 프로젝트로 글로벌 시장개척형 종자, 품종보호 전략종자 개발을 위한 5개 사업단 지원을 통해 전략수출 종자를 개발하는 것이다.
 - (글로벌 시장개척형 종자개발) 보유 강점기술을 기반으로 수출시장 개척용 종자 개발
 - (품종보호 전략 종자개발) 품종보호 기반 및 장기적 수출시장 진입용 종자 개발
- **(GSP 사업단의 구성)** 4개 부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예산 출연,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계획 확정 등 최종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다.
- GSP 운영위원회는 부·청 협력 사업인 GSP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중장기 사업계획 및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 사업비 편성 및 운영 계획, 사업단 및 프로젝트 선정 기준 등을 심의한다.
- 농기평 GSP 운영지원센터는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 관리 및 통합 운영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총괄 기획·관리, 사업단 운영의 평가·관리, 성과확산 및 종자수출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 GSP사업단은 수출 및 수입대체 종자개발 중심의 5개 사업단(채소, 원예, 수산, 식량, 종축)으로 편성되어 있다.
 - 2014년에는 2013년과 동일 수의 프로젝트(세부 프로젝트 227개)를 수행하였다(수산업 포함).

표 5-14. GSP 소속 기관별 역할

기관	역할/사업단 담당 품목
정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 예산 출연, 기본계획수립, 지도감독
GSP 운영위원회 (구성 : 부·청, 전문가 19명)	• 중장기 추진계획, 예산배분, 사업단 선정기준 등 주요사항 심의·조정
농기평/GSP운영지원센터	• 총괄 운영 및 관리, 행정 지원, 사업단 점검 및 평가
사업단	• 사업단 목표 및 계획 수립, 연구팀 선정·평가 관리
채소종자사업단(5)	■ 고추, 배추, 무, 수박, 파프리카
원예종자사업단(6)	■ 양배추, 양파, 토마토, 버섯, 백합, 감귤
수산종자사업단(4)	■ 넙치, 전복, 바리과, 김
식량종자사업단(3)	■ 벼, 감자, 옥수수
종 축 사 업 단(2)	■ 종돈, 증계

표 5-15. 사업단별 프로젝트 수행 현황

사업단		2013년 (1년차)						2014년 (2년차)					
		프로젝트			세부 프로젝트			프로젝트			세부 프로젝트		
		계속	신규	종료	계속	신규	종료	계속	신규	종료	계속	신규	종료
채소	분류	3	36	1	14	72	2	38	1	0	84	3	0
	소계	39			86			39			87		
원예	분류	3	32	1	7	59	3	34	0	2	63	3	5
	소계	35			66			34			66		
식량	분류		10			26		10			26		
	소계	10			26			10			26		
종축	분류		11			17		11	1		17	3	
	소계	11			17			12			20		
농축산 분야 합계		95			195			95			199		

다. 사업단 추진 목표 및 성과실적

1) 채소종자사업단

- 수출지역 맞춤형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고부가가치 품종을 개발하여 채소 종자 수출 11,415만 달러를 달성한다.
- 종자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 확립 및 유전자원 확보와 자원 평가시스템구축 등 첨단기술 확립을 통한 육종기반을 조성한다.
- 민간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 전략으로 작물별 수출 목표 지역에 최적화된 종자 개발을 위한 시장 전략을 수립한다.

- 대기업, 중·소규모 종자회사, 개인 육종가들을 위한 지역별 패키지형 수출 지원 시스템 구축

성과지표 구분			단위	1년차 목표	1년차 실적	달성률 (%)	증빙자료
과학 기술적 목표	품종 개발	국내(외) 출원	건	15	22	147	수숙커(고추) 및 소소황(배추) 등
		국내(외) 등록		0	0	0	-
		국내(외) 판매		23	13	57	Cheong Sa Cho Rong(팍초이) 외
	특허	출원		2	5	250	오이고실모틀모자이크 바이러스 관련 특허(수박기반과제) 외
		등록		0	0	0	-
	논문	SCI		1	7	700	흰가루병 관련 논문(공통기반) 외
		비SCI		13	4	31	초분광 영상기술 관련 논문(공통기반) 외
	분자마커/성분분석기술/ 병리검정기술 개발			5	6	120	역병관련 마커(고추기반) 외
	유전자원수집			238	783	329	산지왕2호(배추) 외
	분자마커 서비스			5,000	4,512	90	고추의 병저항성 관련 마커 서비스 외
	성분분석 서비스		3,020	1,510	50	배추의 미네랄 성분 분석 서비스 외	
	병리검정 서비스		5,000	5,709	114	배추 뿌리혹병 검정 서비스 외	
	DB시스템 구축		건	2	1	50	배추 web DB 구축
	DH계통 개발		점	81	174	215	고추 소포자 배양 외
	기타(자원분양)			62	389	627	약배양 유래 파프리카
산업 경제적 목표	국내매출액		억 원	0.7	0.73	104	파프리카 0.13억 원 외
	종자수출액		만 불	66	91,645	139	고추 33,041만 불 외
	수입대체효과		%	0	0	0	-
	기술이전			0	0	0	-
환경적 목표	마케팅 전략 수립 보고서		건	1	1	100	중국의 채소 종자산업 동향과 관련 제도
	인력양성		명	8	9	113	고추 4명 외

2) 원예종자사업단

- 선진국 대비 종자 생산 기술수준을 70%에서 90%로 향상하고, 글로벌 전략 수출 품종을 개발하여 원예종자 수출 4,463만 달러를 달성, 국내 보급률은 양배추 50%, 양파 50, 토마토 70, 버섯 60, 백합 20, 감귤 1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연구논문과 기술특허·신품종 등의 지식기반 및 지식재산권을 수익성 사업기술 개발로 전환하여 수입 대체율 및 수출액 증가를 도모한다.
- 성과 위주의 사업단 관리와 과제별로 철저히 성과물(수입대체율, 수출액, 품종 개발 등 연구목표 달성도, 논문, 특허, 품종)을 관리하고 연구비 조정을 통해 우수 연구 결과에 대한 연구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성과지표 구분			단위	1년차 목표	1년차 실적	달성률 (%)	증빙자료
과학 기술적 목표	품종 개발	국내 출원	건	10	20	200	코리아익스프레스(양배추) 케이스타(양파) 화이트로송(백합) 등
		국내 등록		3	3	100	이조은플러스(양배추) YP610(양파) 등
		품종생산수 입판매신고		10	11	110	포인트(양배추) 케이맥스(양파) TY메가톤(토마토) 등
	국내 특허	출원		1	5	500	토마토 TYLCV/역병/검무늬병 및 저장성 관련 분자표지 개발 과제 등
		등록		0	1	부가 달성	양파 분자유종 기반 구축 및 주요형질 관련 분자표지 개발 과제
	논문	SCI		5	5	100	‘적색양파와 황색양파 변이의 차이를 결정하는 DFR-A 유전자의 9가지 변이 유전자형 발견’ 등
		비SCI		12	6	50	아위느타리 신품종 ‘비산2호’의 육성 및 자실체 특성 등
	학회 발표	국내		15	9	60	중균제조 기술개발 관련 등
		국제		0	0	0	-
	품종 지역적응성 검정			5	7	140	무한성장형 LSL 대과 및 중장기 재배용 방울토마토 등
	무독묘 품종생산			2	2	100	감굴 무독묘 공급체계 기반 구축 과제 관련
	반수체유계통			5	8	160	양파 분자표지 개발 관련
	계통선발			370	312	84	고식미계 복합내병성 방울토마토 관련
	계통세대단축			150	910	606	서남아 유한 생장형 Saladette 및 Sour&Flat 토마토 관련
	생산량 검정			3	1	33	기능성 유색양파 품종 관련
	원종탐색			10	17	170	자가불화합성 유전자형 양배추 소재개발 관련
	분자마커 개발			11	13	118	병저항성 양배추 후대 선발법 관련
	마커분석			1,005	2,553	254	복합내병성 대과종 토마토 관련

성과지표 구분		단위	1년차 목표	1년차 실적	달성률 (%)	증빙자료
	분자마커 지원	점	800	3,768	471	원예작물 주요형질 및 병해 관련 분자마커 지원
	bioassay 건수	건	1,000	2,000	200	복합내병성 대과종 토마토 관련
	유전자원 등록		57	134	235	종간 원연교배를 통한 양파 관련 등
	유전자원수집 및 분양		70	492	702	종간 원연교배를 통한 양파 관련 등
	primer 탐색		200	910	455	감귤 주요형질 연관 분자표지 개발 용
	분리집단 적용		1	1	100	반수체 유래 동질사배체를 이용한 무핵 삼배체 만다린 우량 계통 육성(감귤) 관련
	전시포 개설 수		15	15	100	양배추, 양파, 토마토
	전시포 설명 회수		8	6	75	양배추, 양파, 토마토
	품종특성설명회, 평가회		6	5	83	양배추, 양파, 토마토
	조직배양민간서비스(batch)		5	7	140	양배추 육종 기반기술 및 소재개발 관련
	유전자원도입 격리재배		60	61	101	반수체 유래 동질사배체를 이용한 무핵 삼배체 만다린 우량 계통 육성(감귤) 관련
	기본식물생산	만구	3	3	100	국내 및 일본, 러시아, 중국시장 맞춤형 화색 및 화형 오리엔탈 품종 개발 관련(백합)
	자구생산		10	10	100	신품종 백합 종구 및 개화구 대량생산 신기술 개발 관련
	개화구 생산		1	1	100	국내 및 일본, 러시아, 중국시장 맞춤형 화색 및 화형 오리엔탈 품종 개발 관련(백합)
	종구 증식	천구	5	5	100	백합 종구 증식
	절화생산판매(국내)	천본	2	0	0	-
	절화생산판매(국외)		1	0	0	-
	성분검정	건	20	30	150	기능성 양파 품종 개발 관련
	성과관리시스템		0	0	0	-
산업 경제적 목표	수입대체효과	%	2021년 최종 목표 50%			
			2021년 최종 목표 50%			
			2021년 최종 목표 70%			
			2021년 최종 목표 60%			
			2021년 최종 목표 20%			
			2021년 최종 목표 10%			
	종자수출액	만불	202	211.1	104	양배추, 토마토 수출액
환경적 목표	시장조사보고서	건	1	1	100	원예종자 수출마케팅 및 지원시스템 과제 관련
	인력양성		2	26	1,300	양배추, 양파, 토마토, 백합 품종 과제 관련 인력 양성

3) 식량종자사업단

- 종자생산 기반구축, 육종기술 수준 향상, 수출시장 기반 구축, 수출대상 국가별 맞춤형 품종개발로 식량 종자 수출 2,600만 달러를 달성한다.
- 프로젝트 목표의 특성 상 해외 현지 연구 개발은 필수이므로 해외 현지 연구 관리 및 평가를 강화하고 연구원과 현지 국가 및 협조기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프로젝트 연구기관과 수출 대상국 연구기관과의 거버넌스 조직을 유지한다.
- 연구개발 성과와 수출 마케팅 전략 수립과의 상보적 관계가 중요하므로 수출 사업화 성공을 위한 프로젝트 내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 국내·외 현지 점검 및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로 통합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감안하여 발 빠른 연구수행 방향 점검 및 수정을 하고 종자전문가, 기획전문가, 정책전문가 등과의 주기적인 협의회 및 산업화 전략 위원회 위원들과 프로젝트 책임자들과의 상시 의견 교류를 활성화한다.

성과지표 구분			단위	1년차 목표	1년차 실적	달성률 (%)	증빙자료
과학기술적목표	품종 개발	국내등록	건	0	0	0	-
		국외판매		0	0	0	-
	국내 특허	출원		0	1	부가달성	감자 조직배양 용기
		등록		0	0	0	-
	국제 특허	출원		0	0	0	-
		등록		0	0	0	-
	논문	SCI	편	0	0	0	-
		비SCI		1	3	300	감자뿌리나방에 대한 16종 살충제의 살충활성과 생물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농약과학회지 4호)외 2건
	분자마커		건	2	2	100	도열병 저항성 간접선발용 2건
	육성계통수			0	560	부가달성	목표형질(수량, 내병성 등) 초기 세대(벼 560점)
	F1육성(인공교배)			140	431	307	다양한 육종소재 개발을 위한 인공교배 확대 (벼 431점)
	유전자원 수집			100	2,081	2,081	종자은행 분양, 현지 수집, 분리세대 등 (옥수수 1800여점)
	유전자원 등록			100	119	119	벼 26점, 감자 17점, 옥수수 76점
	기반구축			3	7	233	육종기지, MOU 등 7건
산업	국내매출액		만불	0	0	0	-

성과지표 구분		단위	1년차 목표	1년차 실적	달성률 (%)	증빙자료
경제적 목표	종자수출액		0	0	0	-
	수입대체효과		0	0	0	-
	기술이전		0	0	0	-
환경적 목표	마케팅전략 수립 보고서	편	0	3	부가달성	-
	인력양성	명	2	3	150	충남대 박사 1명, 강원대 석사 2명

4) 종축사업단

- 양적으로는 대등 수준이나 질적으로는 차별화된 돼지·닭 종자를 개발하여 종돈 100%, 종계 30%의 수입대체율을 달성한다.
- 국가·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종자를 통합해 모본 집단을 구성, 국산 원종돈·원종계를 개발해 국제적인 종자권리를 확보(FAO등재, GSP종축인증제 등) 하여 종돈·종계의 국내 증식 보급 및 수출을 실현한다(사업 참여기업 중점 육성).
- 개발 원종 보호 및 규모화 유지를 위한 집단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방역·검역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 기술적·제도적으로 대응 한다.

성과지표 구분		단위	1년차 목표	1년차 실적	달성률 (%)	증빙자료
과학 기술적 목표	품종 출원	건	0	0	0	-
	품종 등록		0	0	0	-
	산업재산권 출원		0	0	0	-
	산업재산권 등록		0	0	0	-
	생명정보 등록·기탁		0	0	0	-
	학술발표(국내)		5	7	140	닭의 품종 간 스트레스 정도 비교 분석(한국 가금학회)외 6건
	학술발표(국제)		2	5	250	깃털 유전자 관련 발표 (11th World Conference on Animal Production, Oct. 2013) 외 4건
	논문게재(SCI)		1	1	100	재래 돼지와 닭의 육종 DB
	논문게재(비SCI)		7	7	100	닭의 산육 및 산란형질과 SNP간의 연관성 분석에 대한 연구현황(동물자원연구지) 등
	현장 분석/검정 지원		1	29	2,900	참여 종돈장 질병분석 29점
	정보·전산 프로그램 저작권 개발/등록		1	1	100	종계 개량 정보시스템
	DB 구축 및 활용		4	3	75	모계 종돈 개발을 위한 기초 DB 구축 외 2건
산업 경제적	영농활용 기관 제출		0	0	0	-
	영농활용 채택		0	0	0	-

성과지표 구분		단위	1년차 목표	1년차 실적	달성률 (%)	증빙자료
목표	우량계통 육성/선발/증식	개수	2	0	0	-
	기술이전	건	0	0	0	-
	사업화 실적		0	0	0	-
	유전자원확보/증식평가/등록보존/분양 개수	개수	12	12	100	축산원 보유 가금 유전자원
	품종 증식/분양/보급		0	2,841	부가달성	참여 종돈장 GP순종돈 분양 수
	현장 적용/실증	건	1	0	0	-
	정책제안 기관 제출		5	7	140	검정종료체중 상향조정 건의 외 6건
	정책제안 채택		0	0	0	-
	제도개선		0	0	0	-
환경적 목표	자료발간	명	5	7	140	태국, 베트남 종돈 수출시장 조사결과 보고서외 6건
	우수인력양성 지원		3	7	233	종돈1, 종계6
	현장 애로과제/제도개선 발굴·해결		2	2	100	가금육 및 돈육 생산 및 수출업체 현장애로 분석 외 1건
	기준/지침/규정 작성	건	2	9	450	GSP 참여 종돈장의 점검 대상인 16종의 돼지질병에 대한 질병지수 평가표(안)외 8건
	홍보성과 지수		48	13	27	태국, 베트남 종돈 수출시장 조사 결과 보고 외 12건

라. GSP 사업의 향후 기대 효과

○ 고품질 종자개발을 통한 식품 및 제약 산업 등 미래의 바이오산업에 대한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종자산업과 관련된 기계, IT, 농약, 마케팅관련 산업 등의 발전과 해외 시장진출에 영향
- 신기능, 고품질의 신품종 종자는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및 신약 개발 가능
- 글로벌 종자기업에 대항하여 종자주권 확보
- 종자개발 관련 기술 개척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 및 종자 브랜드 개발로 국가이미지를 제고

○ 고부가가치 품종개발로 수출 및 수입대체율 확대와 후방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종자 수입 대체율 확대로 연 수백억(2011년 226억 원 지불)의 로열티 경감
 - 글로벌 종자업체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후방 산업인 농약, 비료, 천적산업, 농식품 가공 산업 등의 동반 해외진출 기대
- 농업분야 국가 R&D 혁신 및 기술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역량 제고 및 종자 개발강국으로의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후변화 대응 품종기술 개발을 통한 주요 품목의 생산력 제고 및 이에 따른 농산물 물가 상승 억제 기여 가능
 - 수출 경쟁력을 갖춘 세계 최고 국가 전략 품종 육성을 통해 세계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
- 분자 육종 기술의 수준 및 종자 생산 기술 향상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내병, 내재해성 품종 개발로 식량종자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산 종축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고 종축 R&D를 통한 인적자원 육성으로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골든시드프로젝트 종축사업단은 연간 1,700여두의 순종돈 수입 대체 효과와 육종 개량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기술 보급에 따른 농가 수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육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육종사업 및 관련 연구 진행이 가능하고 저비용, 고효율 질병 진단 및 모니터링 기법 보급으로 농장 질병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2.3.5. 소결

- **종자산업육성** 정책의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 농업인의 외국 품종 사용에 따른 종자 로열티 부담 경감 및 우수품종 개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원원종 및 원종생산’, ‘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 ‘골든시드프로젝트’ 등으로 민·관, 산·학연계를 통한 종자 생산·연구기반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종자산업육성 사업군의 7개 성과지표(5개 사업) 가운데 목표대비 성과를 달성한 지표는 3개, 미달성은 1개, 미측정은 3개였다.
-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시행으로 국산 품종들의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딸기, 버섯 등 주요 품목의 외국 품종 사용에 따른 종자 로열티 부담 경감 및 우수품종 개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성과지표인 2014년 ‘국산 품종 보급률’은 57.3%로 전년 대비 5.4%p 상승하였으며, 특히 딸기의 국산 품종 보급률은 전년 대비 11.1%p 상승하였다.
-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 시행으로 신품종 개발, 해외출원을 지원하였으나, 성과지표인 ‘신품종 개발비 및 해외출원비 지원 실적 지수’는 신품종개발비·해외출원비 지원신청 저조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사업활성화를 위해 신품종으로 출원·등록된 품종에 대해 지원 및 홍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을 통해 2014년 원종 및 원원종 생산면적 271ha, 생산량은 1,512톤으로 주요 식량작물 보급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원원종과 원종 종자 생산량은 매년 1,450~1,500톤 수준이며, 생산지원면적도 최근 3개년 270ha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 ‘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과 ‘골든시드프로젝트(GSP)’ 사업은 중장기 추진 사업으로 사업 초기에 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 ‘골든시드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수행한 결과, 사업단의 성과 관리를 통한 우수 연구 결과에 대한 지원 확대로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지역 맞춤형 품종, 미래시장 선점 품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거대 기업의 종자 수입을 대체함으로써 종자 산업 효과를 창출, 후방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며, 분자 육종 기술의 수준 향상에 따른 수출용 식량 종자 개발 및 기반기술, 기후변화 대응 내병·내재해성 품종 개발로 생산 기능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우리 축산물의 혈통 및 산업적 이용체계 확립으로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을 위한 육종사업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4. R&D 투자확대

2.4.1. 정책목표 및 개요

- R&D투자확대 정책목표는 ‘농업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를 통한 맞춤형 선진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신성장동력원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R&D 투자확대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필요하며, 특히 축산물의 품질 제고와 가축질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
- R&D투자확대의 세부사업별 목적,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자격, 예산과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16. R&D투자확대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사업명		개요
기술사업화지원 (농림바이오 기술사업화지원)	사업목적	▪ 농림축산식품분야 신성장동력원 및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농가의 신소득원 창출
	지원내용	▪ 농림바이오 분야 기초·응용·개발 단계의 연구성과를 이용한 사업화연구 개발비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민 등 산·학·연 협동 연구팀(농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단독 참여 가능)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58억 원 ▪ 실적 : 58억 원
농생명산업 기술개발 (농림기술 개발사업)	사업목적	▪ 동식물, 미생물 등 생명자원의 생산·응용·유지관리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핵심산업인 ‘생명산업’육성에 기여
	지원내용	▪ 민간주도형 녹색 농업기술 개발 지원 ▪ 고기능성 동식물 활용 천연소재 개발 지원 ▪ 민간육종지원 ▪ 동물자원화, 곤충자원화, 식물자원화, 미생물자원 기술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민 등 산·학·연 협동 연구팀(농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단독 참여 가능)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467억 원 ▪ 실적 : 309억 원
농림축산 검역검사 기술개발 (수의과학 기술개발)	사업목적	▪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방역기술, 동·축산물 및 식물검역기술 개발로 관련 산업 보호 ▪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전염병 및 축산 위생관리기술개발로 관련 산업 발전 및 국민 보건 향상
	지원내용	▪ 수의과학기술개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확충
	지원 대상 및 자격	▪ 본부 13개 부서 ▪ 2개 검역검사소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213억 원 ▪ 실적 : 208억 원

사업명		개요
가축질병 대응기술 개발	사업목적	▪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주기적 기술개발 및 동물용의약품 개발 지원
	지원내용	▪ 국가 긴급 재난형 가축질병 신속 진단, 예방, 소독, 방역 및 백신개발 ▪ 가축질병 억제제 개발 및 질병예방·예찰 기술지원 ▪ 동식물 자원활용 동물용의약품 개발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민 등 산·학·연 협동 연구팀(농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단독 참여 가능)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37억 원 ▪ 실적 : 37억 원

2.4.2. 성과지표

○ R&D투자확대를 위해 ‘기술사업화지원’, ‘농생명산업기술개발’,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별 성과지표를 평가에 활용한다.

표 5-17. R&D투자확대 분야 성과지표

사업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기술사업화지원		① 실용화 성과=지식재산권[(특허출원건수×0.3)+(특허 등록건수×0.7)]
농생명산업기술 개발	① 실용화 성과, ② 산업화 성과, ③ 과학적 성과, ④ 산업기반구축 성과	② 산업화 성과=기술이전[(산업체기술이전 건수×0.4)+(농어업인기술이전건수×0.2)]+ 기술사업화건수(사업화건수×0.4) ③ 과학적 성과=논문[(SCI급 논문건수×0.7)+(비SCI급 논문건수×0.3)] ④ 산업기반구축 성과=[(인력양성 건수×0.6)+(교육지도건수×0.4)]
가축질병대응 기술개발		2015년부터 측정 가능
농림축산검역검사 기술개발 (구 수의과학 기술개발)	0.20×(검역검사정책 제안지수)+0.20×(검역검사가이드 라인 개발지수)+0.15×(검역검사기술의 관련산업 영향지수)+0.15×(검역검사기술 국제화 지수)+0.15×(검역검사기술 보급지수)+0.1×(검역검사분야 지적재산권지수)+0.05×(검역검사 분야 학술활동지수)	①검역검사정책 제안지수=0.4×(법, 시행규칙 제개정) + 0.35×(훈령 예규, 고시, 지침 제개정) + 0.25×(기타정책건의) ②검역검사가이드라인 개발지수=0.2×(동·식물질병 표준검사법) + 0.25×(질병방제 표준기술) + 0.2×(독성· 위해성 평가법) + 0.25×(축수산물중 유해물질 분석법) + 0.1×(기타) ③검역검사기술의 관련산업 영향지수=[0.1×(산업체 공동연구 건수) + 0.9×(통상실시권 계약건수)] / [(당해년도 총 연구사업비(10억 원))] ④검역검사기술 국제화 지수=[(0.6×OIE 표준실험실 운영건수) + 0.35×(검역검사실험실 공식인증건수) + 0.05×(국제공동연구건수)] / [당해년도 총 연구사업비(10억 원)] ⑤검역검사기술 보급지수=(0.3×기술잡지게재건수 + 0.5×현장방문교육건수 + 0.2 × 홍보책자 발간 건수) / 당해년도 총 연구사업비(억 원)

사업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⑥검역검사분야 $\text{지적재산권지수} = [(0.4 \times \text{해외특허등록}) + (0.3 \times \text{국내특허등록}) + (0.2 \times \text{해외특허출원}) + (0.1 \times \text{국내특허출원})] / [\text{당해년도 총 연구사업비}(10\text{억 원})]$ ⑦검역검사분야 학술활동지수 = $[0.7 \times \frac{\sum(\text{SCI급 저널별 Impact Factor} \times \text{SCI급 저널별 논문건수})}{\sum(\text{비SCI급 저널별 Impact Factor} \times \text{논문건수})}] / [\text{당해년도 총 연구사업비}(\text{억 원})]$

2.4.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 기술사업화지원사업

- ‘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성과지표는 ‘실용화 성과, 산업화 성과, 과학적 성과, 산업기반 구축 성과의 가중평균값’이다. 2014년의 4개 지표가 모두 초과달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 인해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신성장동력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사업화 지원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개발된 기술과 사업화가 연계되어 우수 기술사업화의 성공률을 높이고, 농림축산식품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신산업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실용화 성과’, ‘산업화 성과’, ‘과학적 성과’와 ‘산업기반 구축 성과의 가중 평균값’의 성과지표 달성률은 각각 122.8%, 186.7%, 108.7%와 1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도 예산은 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4% 감소하였고, 100% 예산집행률을 보였다.

□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지표는 ‘실용화 성과, 산업화 성과, 과학적 성과, 산업기반 구축 성과의 가중평균값’이며, 모든 지표가 초과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사업은 차세대 핵심 산업인 생명산업 육성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농생명산업기술개발과 생명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생명산업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상 재해에 대비한 조기경보체계 및 위험관리 역량 강화로 농축산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 ‘실용화 성과’, ‘산업화 성과’, ‘과학적 성과’와 ‘산업기반 구축 성과의 가중 평균값’ 등의 성과지표 달성률은 각각 100.5%, 120.0%, 127.0%와 102.9%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도 예산은 467억 원으로 사업군 전체 예산의 60.3%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5.4%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률은 66.2%를 기록했다.

□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의 성과지표는 ‘검역검사정책제안, 검역검사가이드라인 개발, 검역검사기술의 관련산업 영향, 검역검사기술 국제화, 검역검사기술보급, 검역검사분야 지적재산권, 검역검사분야 학술활동’ 7개의 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하였다. 성과지표 가운데 ‘검역검사정책제안, 검역검사가이드라인 개발과 검역검사분야 학술활동’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모두 8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반면, ‘검역검사기술의 관련 산업 영향, 검역검사기술국제화, 검역검사기술 보급과 검역검사분야 지적재산권’ 지수는 목표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검역기술개발의 보급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대외적으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R&D 분야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검역검사정책제안, 검역검사가이드라인 개발, 검역검사기술의 관련 산업 영향, 검역검사기술 국제화, 검역검사기술보급, 검역검사분야 지적재산권과 검역검사분야 학술활동’의 성과지표 달성률은 각각 86.3%, 88.3%, 152.9%, 125.0%, 100.0%, 140.0%와 83.3%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도 예산은 2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했으며, 예산집행률은 97.7%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의 2014년도 예산은 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 감소했으나, 예산집행률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00%를 기록하였다.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의 특성상 연구성과의 기술실시 대상기업의 폭이 좁고, 개발물의 임상 및 현장실증시험 등으로 성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2015년부터 성과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8. R&D투자확대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기술사업 화지원	① 실용화 성과, ② 산업화 성과, ③ 과학적 성과, ④ 산업기반구 축 성과의 가중평균값	목표	-	-	-	-	-	4.9	① 5.7	
			-	-	-	-	-	1.3	② 1.5	
			-	-	-	-	-	1.5	③ 2.3	
			-	-	-	-	-	0.6	④ 1.0	
		실적	-	-	-	4.38	5.4	5.4	① 7.0	
			-	-	-	1.20	1.4	2.0	② 2.8	
			-	-	-	0.29	2.7	2.0	③ 2.5	
			-	-	-	0.04	1.1	0.9	④ 1.0	
		달성률(%)	-	-	-	-	-	110.2	① 122.8	
			-	-	-	-	-	153.8	② 186.7	
			-	-	-	-	-	133.3	③ 108.7	
			-	-	-	-	-	150.0	④ 100.0	
예산(억 원)		80	80	80	80	80	72	58		
실적(억 원)				60	80	80	72	58		
집행률(%)		0.0	0.0	75.0	100.0	100.0	100.0	100.0		
농생명산 업기술 개발	① 실용화 성과, ② 산업화 성과, ③ 과학적 성과, ④ 산업기반구 축 성과의 가중평균값	목표	-	-	-	-	-	35.7	① 37.5	
			-	-	-	-	-	9.0	② 9.0	
			-	-	-	-	-	41.9	③ 40.3	
			-	-	-	-	-	51.4	④ 48.7	
		실적	-	-	-	33.90	39.6	36.0	① 37.7	
			-	-	-	9.67	9.0	10.1	② 10.8	
			-	-	-	47.43	38.9	57.5	③ 51.2	
			-	-	-	59.48	46.3	47.7	④ 50.1	
		달성률(%)	-	-	-	-	-	100.8	① 100.5	
			-	-	-	-	-	112.2	② 120.0	
			-	-	-	-	-	137.2	③ 127.0	
			-	-	-	-	-	92.8	④ 102.9	
		예산(억 원)		735	885	913	522	523	443	467
		실적(억 원)		735	885	933	522	523	443	309
		집행률(%)		100.0	100.0	102.2	100.0	100.0	100.0	66.2
농림축산 검역검사 기술개발 (구수의 과학기술 개발)	①검역검사 정책 제안지수 ②검역검사 가이드라인 개발지수 ③검역검사 기술의 관련산업 영향지수 ④검역검사 기술 국제화 지수 ⑤검역검사 기술 보급지수 ⑥검역검사 분야 지적재산권 지수 ⑦검역검사 분야 학술활동지수	목표	-	-	-	-	-	10.9	① 17.5	
			-	-	-	-	-	17.0	② 20.5	
			-	-	-	-	-	1.6	③ 1.7	
			-	-	-	-	-	0.3	④ 0.4	
			-	-	-	-	-	0.6	⑤ 0.6	
			-	-	-	-	-	0.4	⑥ 0.5	
		실적	-	-	-	-	-	0.7	⑦ 0.6	
			-	-	-	-	21.8	11.0	① 15.1	
			-	-	-	-	25.5	17.5	② 18.1	
			-	-	-	-	1.9	1.7	③ 2.6	
			-	-	-	-	0.5	0.4	④ 0.5	
			-	-	-	-	0.6	0.6	⑤ 0.6	
			-	-	-	-	0.6	0.5	⑥ 0.7	
			-	-	-	-	0.6	0.7	⑦ 0.5	
		달성률(%)	-	-	-	-	-	100.9	① 86.3	
			-	-	-	-	-	102.9	② 88.3	
			-	-	-	-	-	106.3	③ 152.9	
			-	-	-	-	-	133.3	④ 125.0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	-	-	-	100.0	⑤ 100.0
			-	-	-	-	-	125.0	⑥ 140.0
			-	-	-	-	-	100.0	⑦ 83.3
	예산(억 원)		-	-	-	216	245	226	213
	실적(억 원)		-	-	-	211	240	220	208
	집행률(%)		-	-	-	97.7	98.0	97.3	97.7
가축질병 대응 기술개발	① 실용화 성과, ② 산업화 성과, ③ 과학적 성과, ④ 산업기반구 축 성과의 가중평균값	목표	2015년 이후 측정 가능						
		실적							
		달성률(%)							
	예산(억 원)		-	-	-	-	40	40	37
	실적(억 원)		-	-	-	-	40	40	37
	집행률(%)		-	-	-	-	100.0	100.0	100.0

○ R&D투자확대 사업군의 19개 성과지표(4개 사업) 가운데 목표대비 성과를 달성한 지표는 12개, 미달성 3개, 미측정 4개였다.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로 ‘농림축산 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의 ‘검역검사전책 제안지수’, ‘검역검사가이드라인 개발지수’, ‘검역검사분야 학술활동지수’였다.

- 2014년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지속적인 국가 재난형 질병 발생에 따른 질병진단 및 방역을 위한 연구원 지원업무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4.4. 소결

○ R&D투자확대 정책의 세부사업인 ‘기술사업화지원사업’으로 신성장동력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실용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생명산업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검역기술개발의 보급 및 가축질병 위기관리 대응의 기술역량 확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R&D투자확대 사업군의 19개 성과지표(4개 사업) 가운데 목표대비 성과를 달성한 지표는 12개, 미달성 3개, 미측정 4개였다.

-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으로 개발된 기술과 사업화가 연계되어 우수 기술 사업화의 성공률을 높이고, 농림축산식품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신산업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시행으로 농생명산업기술개발과 생명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생명산업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상 재해에 대비한 조기경보체계 및 위험관리 역량 강화로 농축산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사업으로 검역기술개발의 보급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가축질병 위기관리 대응의 기술 역량을 확충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5. 농식품수출촉진

2.5.1. 정책목표 및 개요

- 농식품수출촉진 정책은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과 한류 등을 적극 활용한 우리 농식품 수출 인프라 구축 및 확대는 물론 국가 브랜드를 통한 식문화 해외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을 통해 우리나라 농식품 관련 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외식산업 발전을 통해 국내 식재료와 한식의 세계화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농식품수출촉진의 세부사업별 목적, 지원내용, 지원 대상 및 자격, 예산과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19. 농식품수출촉진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사업명		개요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사업목적	-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 지원으로 안정적 수출기반 조성 - 현지시장의 한국농산물 수요 기반 확대를 통해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여 농가소득 증대, 농업 및 식품산업 발전 도모
	지원내용	- 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 수출정보 등 인프라 구축, 수출 유망품목 육성, 공동브랜드 육성, 품목별 공동마케팅 지원, 해외 물류기반 구축 등 - 해외 마케팅사업: 국제박람회 참가비 지원, 해외 판촉행사 지원, 바이어 거래 알선, 해외 홍보 등
	지원 대상 및 자격	- 지원 대상: 수출농가를 포함한 수출경영체 - 지원 자격: 농식품 수출업체, 단체 및 협회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331억 원 - 실적 : 331억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목적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지원함으로써 원예 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지원내용	- 공정육묘장, 양액재배시설, 시설복합환경 제어시설, 에너지 효율형 냉·난방·보온시설, 보광시설, 관수시설, ERP 시스템, 무인방제기 등(시설 현대화) - 유리온실, 자동화온실 증·개축 및 기존시설 구조개선(단지 증·개축) - 원예특작시설내재형 규격 설계도·시방서의 내재형 단동 비닐하우스 및 동 고시의 지역별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대상 및 자격	-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화훼)의 농업인 - APC, 농협, 영농법인 - 고추종합처리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의 농업인(법인포함)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864억 원 - 실적 : 775억 원
첨단온실신축 지원	사업목적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 구축
	지원내용	철골 온실, 자동화 비닐 온실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온실을 신축하여 채소·화훼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사업명		개요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300억 원(본 사업), 1,200억 원(이차보전) - 실적 : 303억 원(이차보전)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목적	한식세계화를 농식품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브랜드 사업으로 정착시키고, 외식산업 육성을 통해 고용창출과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
	지원내용	- 한식 세계화 기반구축 - 한식 및 식문화 해외 홍보 - 한식당 경쟁력 제고 및 한식 교육
	지원 대상 및 자격	- 산업화가 유망한 한국음식을 개발하고 있는 시·도·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 및 음식관련 법인·단체 - 한식세계화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126억 원 - 실적 : 128억 원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사업목적	수출확대 가능성이 큰 주요 수출시장에 대해 수출상담회를 포함한 페어와 미디어를 결합한 집중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현지 수요 창출 및 수출 확대
	지원내용	- 해외 미디어 마케팅(콘텐츠 제작·배포) - 해외소비자 체험 마케팅(재외공관연계, 해외 소비자체험, 글로벌 K-Food Fair 개최)
	2014년 사업예산	- 예산 : 137억 원 - 실적 : 106억 원

2.5.2. 성과지표

○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해 ‘농산물해외시장개척’, ‘시설원예농산물품질개선’, ‘첨단 온실신축지원’, ‘한식세계화지원’, ‘글로벌K-food프로젝트’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 성과지표를 평가에 활용하였다.

표 5-20. 농식품수출촉진 분야 성과지표

사업명	지표명	산출 방법(공식)
농산물해외시장 개척	수출전략 품목의 수출액 증가율(%)	(당해연도 수치-전년도 수치)/전년도 수치×100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추진 원예전문생산단지 상대적 수출 증가율(%)	사업추진단지의 전년대비 수출성장률-사업미추진단지의 전년대비 수출성장률
첨단온실신축지원 (본사업+이차보전)	사업대상자의 수출증가율(%)	전년대비 수출증가율
한식세계화지원	국내 외식(한식)기업 해외진출 점포수	국내 외식(한식)기업 해외진출 점포수
글로벌K-food 프로젝트	K-Food Fair 개최국의 수출 증가율(%)	(당해연도 수치-전년도 수치)/전년도 수치×100

2.5.3. 성과지표 평가 및 예산집행률

□ 농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

- 농식품 브랜드 홍보,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 해외 유통관전 개최 등의 사업 추진으로 전략품목의 수출액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대일 수출 의존도⁷¹⁾와 엔화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성과지표인 ‘수출전략품목의 수출액 증가율’의 성과 달성도는 낮게 나타났다.
 - 환율변동과 같은 대외여건 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2014년 예산은 전년 대비 18.2% 증가한 331억 원이며, 100% 집행되었다.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 원예전문생산단지 28개소의 증개축 및 시설현대화를 지원하였으며 미지원 단지와 비교한 상대적 원예작물(채소, 화훼)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어 농산물 수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성과지표인 ‘미지원 생산단지 대비 지원단지의 상대적 수출증가율’은 2012년 10.4%에서 2014년 15.6%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 지자체 개발유형으로 진행되는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은 지자체의 건의로 귀농업인 대상으로 지원대상이 전환되었으나, 융자 실행을 위한 담보 문제로 인해 사업대상자를 확보하지 못해 2014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일반유형 방식의 이차보전사업은 담보부족, 인허가 지연에 따른 온실 착공이 늦어지면서 303억 원만이 집행되어 25.3%의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 향후, 사업수요 증가를 위해 다양한 금리지원, 농신보의 보증한도 증대 등의 정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71) 2014년 주요 수출품목 중에서 대일 수출 비중은 파프리카(99.9%), 백합(99.9%), 국화(99.5%), 장미(95.3%), 토마토(68.9%), 김치(67.4%), 막걸리(59.6%)이다.

□ 한식세계화사업

- 2014년의 ‘국내 외식(한식)기업의 해외진출 점포 수’는 총 288개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하였고,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점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식 홍보를 통한 국산 농식품의 인지도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2014년 사업예산은 1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4% 감소하였으며, 집행률은 101.6%인 128억 원이 집행되었다.

□ 글로벌K-Food프로젝트사업

- 2014년 K-Food Fair 개최 대상국 중 중국, 홍콩과 베트남은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4.3%, 6.6%, 1.2% 증가한 반면, 싱가포르는 3.5% 감소하였다. 성과지표인 ‘K-Food Fair 개최국의 수출 증가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 2013년에는 기존에 제작한 K-Food 홍보영상을 재사용함으로써 제작비용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2014년 예산인 137억 원의 77.4%만 집행되었다.
- 측정 지표에 대해 수출확대를 위한 성장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지원함에 따라 단기간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성과지표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표 5-21. 농식품수출촉진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수출전략 품목의 수출액 증가율(%)	목표	-	-	-	-	-	8.0	4.0
		실적	-	-	-	-	2.9	0.5	0.6
		달성률(%)	-	-	-	-	-	6.3	15.0
	예산(억 원)		186	235	279	298	314	280	331
	실적(억 원)		186	235	279	298	314	280	331
	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설원에 품질개선	사업추진 원예전문생 산단지 상대적 수출 증가율(%)	목표	-	5.0	5.0	8.0	10.0	12.0	14.0
		실적	-	18.9	4.0	26.6	10.4	12.4	15.6
		달성률(%)	-	378	80.0	332	104	103.3	111.4
	예산(억 원)		522	522	489	326	1,048	962	864
	실적(억 원)		-	365	298	296	1,048	949	775
	집행률(%)		0.0	69.9	60.9	90.8	100.0	98.6	89.7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첨단온실 신축지원	○ '13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13년 성과실적 없음 ○ '14년 본사업 사업대상자 미확보로 이차보전사업만 진행								
	예산(억 원)		-	-	-	-	-	800	300
	실적(억 원)		-	-	-	-	-	552	-
	집행률(%)		-	-	-	-	-	69.0	0.0
	이차보전 예산		-	-	-	-	-	700	1,200
	이차보전 실적		-	-	-	-	-	700	303
	이차보전 집행률(%)		-	-	-	-	-	100.0	25.3
한식 세계화 지원	국내 외식(한식) 기업 해외진출 접포수	목표	109	109	113	200	230	255	281
		실적	109	109	170	210	234	257	288
		달성률(%)	100	100	150.4	105.0	101.7	100.8	102.5
	예산(억 원)		30	100	241	312	219	192	126
	실적(억 원)		-	100	203	269	234	188	128
	집행률(%)		0.0	100.0	84.2	86.2	106.8	97.9	101.6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K-Food Fair 개최국의 수출 증가율(%)	목표	-	-	-	-	-	10.0	10.0
		실적	-	-	-	-	-	12.4	5.8
		달성률(%)	-	-	-	-	-	124.0	58.0
	예산(억 원)		-	-	-	-	-	154	137
	실적(억 원)		-	-	-	-	-	152	106
	집행률(%)		-	-	-	-	-	98.7	77.4

○ 농식품수출촉진 사업군의 5개 성과지표(5개 사업)가운데 목표 대비 성과를 달성한 지표는 2개, 미달성은 2개, 미측정은 1개였다.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는 ‘수출전략 품목의 수출액 증가율’, ‘K-food Fair 개최국의 수출 증가율’이다. 미계측된 지표는 ‘첨단온실신축지원 사업대상자의 수출 증가율’로 사업대상자 미확보로 인해 이차보전만 진행되었다.

- ‘수출전략 품목의 수출액 증가율’, ‘K-Food Fair 개최국의 수출 증가율’의 달성도는 각각 15.0%, 58.0%로 단기간에 특정품목 및 국가에서의 수출 증가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5.4. 사업수혜자 조사 결과

□ 농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 심층면담⁷²⁾

○ 사업만족도 및 원인

- 조사결과, ‘농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4.3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

72) 해외시장개척사업 3군데 조사 결과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는 수출시장 개척, 현황 파악 등 수출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족한 예산과 중소기업들의 참가자 격제한 등이 일부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정책 건의

- 식품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여 신규시장 박람회 참가 기회 및 참가업체 수 확대가 필요하다.
- 또한,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박람회 참가업체를 선정하는 평가기준을 없애고, 1억 달러 이상 수출업체⁷³⁾들이 박람회 지원 시 자부담으로 참가하도록 하는 등 대기업 참여는 줄이고 중소기업 참여를 장려하는 선정 평가 기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글로벌K-Food프로젝트사업’ 심층면담⁷⁴⁾

○ 사업만족도 및 원인

- 조사결과, ‘글로벌K-Food프로젝트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4.3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Food 페어 행사를 통해 한국 식품의 신뢰도 및 인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K-Food 페어 행사는 직접적으로는 관람객 및 방송, 미디어 노출을 통해 K-Food 이미지 가치를 높이고, 간접적으로는 B2B 및 B2C를 통해 한국 기업의 수출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일부 바이어와의 사전 미팅을 통해 서로 간의 선호를 조율하여 성사된 계약은 수출계약률 상승 및 수출 물량을 증가시키고, B2C 행사를 통해 직접 소비자에게 맛을 선보이는 방식은 식품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 정책 건의

- 해외박람회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다수의 업체들이 K-Food 페어 행사를 통해 바이어 상담 및 소비자 체험 기회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 및 확대로 더 많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출 대상국 증가를 위해 K-Food 행사 개최국 다변화가 필요하다.

73) 2014년 기준 1억 달러 이상 수출업체는 농심, CJ, 대상, 롯데, 동원임.

74) 글로벌 K-Food 참가업체 3군데 조사 결과

2.5.5. 한식세계화 전문가 평가⁷⁵⁾

가. 한식세계화사업 추진 현황

- ‘한식세계화사업’은 한식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8년에 ‘세계인이 즐기는 우리 한식’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세계 5대 음식화’를 주요 목표로 한 ‘한식세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한식세계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해외 홍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과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14년 ‘한식정책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기존 사업을 수정·보완하여 추진하였다. 정책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해외 중심의 사업 방향을 전환하여 국내 기반정비와 해외 확산을 병행 추진하고 농업·문화·관광 등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 전체 시장 진출 전략에서 탈피하여 유망 시장에 집중하고, 한식 수용도 및 시장 매력도가 높은 중국, 일본, 미국 등에 집중하며, 해외 홍보 일변도에서 탈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홍보 확대 등으로 사업 전략을 수정하였다.
- ‘한식세계화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한식세계화지원’ 예산은 2009년에 100억 원이 편성된 것을 시작으로,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312억 원에 달하였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12년 219억 원에서 2014년에는 134억 원으로 감소하였다.⁷⁶⁾⁷⁷⁾
- 전체 식품정책 관련예산과 비교한 한식세계화 지원 예산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사업초기 이후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였으나 2011년 이후로 감소하여 현재는 사업초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7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윤재 연구위원’ 작성

76) 정부 예산서에서 2014년 한식세계화지원 예산은 12,639백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2014년부터 고부가가치식품산업 및 컨설팅지원 사업 등으로 이관되었으나 통상적으로 한식 정책예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컨설팅 예산 등을 포함한 13,439백만 원을 한식세계화지원 예산으로 분류함. 세부 분류에서 컨설팅 예산은 경쟁력 강화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음(800백만 원).

77) 2014년부터 한식세계화와 관련이 적다고 평가된 대한민국식품대전 예산은 중소식품기업 공동 협력 지원사업으로 이관됨. 또한 한식과 식품 간 연계 효과 제고, 중복성 방지 등을 위해 R&D지원사업은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R&D)사업, 컨설팅은 고부가가치식품산업 및 컨설팅지원 사업, 현지화지원은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R&D)로 이관됨.

- 2009년 전체 식품관련 예산중 한식세계화지원 예산 비중이 2.0% 이었으며, 이후 2011년에는 4.8%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감소하여 2014년에는 1.7% 수준을 나타내었다.

표 5-22. 한식세계화지원 예산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식세계화지원 예산 (백만 원, A)	10,000	24,100	31,150	21,949	19,150	13,439
식품관련 총 예산 (백만 원, B)	502,436	566,364	651,598	761,708	780,578	782,433
비중 (% A/B)	2.0	4.3	4.8	2.9	2.5	1.7

주: 2013년까지 한식세계화지원에 포함되어 있던 컨설팅 사업이 2014년에 고부가식품산업 및 컨설팅지원사업으로 이관되었으나, 한식예산으로 분류되고 있어 경쟁력 강화 부문에 포함시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한식세계화사업’의 일환으로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 경쟁력 강화, 홍보 등과 관련된 세부 사업이 추진되었다. 대부분의 세부 부문별 예산은 201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⁷⁸⁾
- 특히 경쟁력 강화 부문 예산의 경우 2011년 138억 원에서 2014년에는 28억 원으로 약 1/5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5-23. 한식세계화지원 세부사업 유형별 예산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식 홍보	3,150	6,300	6,650	6,099	5,800	3,150
전문인력 양성	1,100	4,100	4,100	4,690	4,250	3,200
인프라 구축	3,550	5,200	6,600	5,160	5,100	4,289
경쟁력 강화	3,200	8,500	13,800	6,000	4,000	2,800
합 계	10,000	24,100	31,150	21,949	19,150	13,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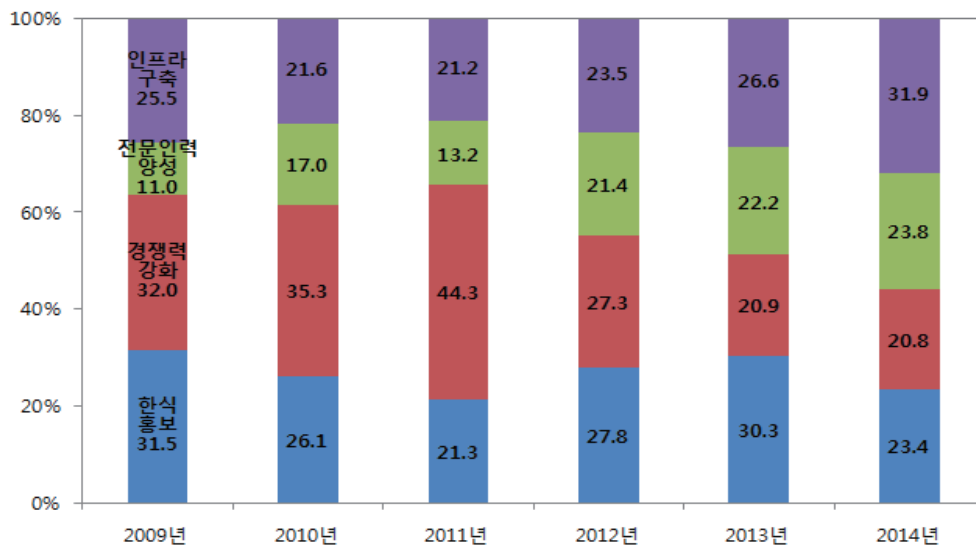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78) 기초 자료의 한계로 연구개발(R&D)예산이 경쟁력 강화 예산에 포함되어 자료가 구성됨.

- 한식세계화지원 예산에서 세부 부문별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경쟁력 강화(32.0%), 한식홍보(31.5%)관련 예산 비중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인프라 구축(25.5%), 전문인력 양성(11.0%) 순이었다. 하지만 2014년에는 인프라 구축 예산(31.9%) 비중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전문인력 양성(23.8%), 한식홍보(23.4%), 경쟁력 강화(20.8%) 순이다.

그림 5-3. 한식세계화지원 예산 부문별 비중

단위: %



자료: 황윤재·이동소(2014).

- 유형별 세부 사업 중에서 한식 홍보는 주로 대중매체 프로그램 제작·지원, 인쇄(홍보)물 제작·보급, 이벤트·캠페인·행사 개최·참여·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주로 한식재단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 전문인력 양성은 국내와 해외 부문으로 구분되어 추진되었으며, 국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식재단을 중심으로 ① 한식 스태프 양성과정 ② 향토음식(북한음식) 교육과정 ③ 한식조리 특성화학교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해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중심으로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이밖에 ② 해외 요리학교 한식강좌 개설 등이 추진되었다.

- 한식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대표적으로 ① 한식 우수성·기능성 연구 사업 ② 한식 현지화 상품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한식 R&D지원 사업의 경우 식품산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식품 R&D지원사업과 통합되었다.
- 인프라 구축을 위해 ① 한식세계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수립, 사업조직 등 추진체계 구축 등이 이루어졌으며 ② 한식재단을 중심으로 한식에 관한 콘텐츠 개발·보급 등이 추진되었다.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은 주로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 한식당의 성공적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대표적으로 ① 해외 우수 한식당 추천제 ② 해외 한식당 개설자금 및 컨설팅 지원 등이 실시되었다.
 - 해외 한식당 개설자금 지원의 경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었으나 지원자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밖에 플래그십(flagship) 한식당 개설사업도 2011년에 추진되었으나 참여의사를 밝힌 민간업체가 없어 사업이 종료되었다.

나. 한식세계화사업 성과평가

- ‘한식세계화사업’은 정책 추진 초기에 단기적 홍보·이벤트 중심 사업 추진, 잦은 사업 계획 변경, 부실한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사업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정부의 한식 및 외식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으로 한식에 대한 해외 인지도 상승, 국내산 식재료 수출 증가, 외식산업 해외진출 확대 등의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산업적인 측면에서 2014년 고추장 수출이 전년대비 18.2%증가한데 힘입어 국내 가공 식품 수출액이 50억6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외식산업 해외진출도 2012년 총 77개 업체 1,485개 매장에서 2014년에는 총 120개 업체 3,726개 매장으로 증가하였다.

- 전문가 조사에서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해서 대체로 필요한 정책이며, 중요성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⁷⁹⁾ 세부사업 유형별로는 한식 홍보(100점 기준 65.8점)가 가장 사업성고가 크다고 평가되었다.
-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평균 4.44점(5점 척도 기준)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정책적 중요성 4.19점, 시급성 3.62점으로 평가하였다.
 - 사업유형별로 한식홍보(65.8점), 한식 R&D(62.4점), 전문인력 양성(62.0점), 인프라 구축(60.8점), 경쟁력 강화(56.6점) 순으로 사업성고를 평가하였다.

표 5-24. 한식세계화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정책적 필요성	정책적 중요성	정책적 시급성
척도평균	4.44	4.19	3.62

주: 점수는 5점 척도에서 전혀 필요하지(중요하지, 시급하지)않음 1, 필요하지(중요하지, 시급하지) 않은 편 2, 보통 3, 필요한(중요한, 시급한) 편 4, 매우 필요함(중요함, 시급함) 5를 항목별로 계산하여 평균한 수치임.

- 권기정 외(2013)의 경우 2013년 한식세계화 사업의 세부사업을 유형별로 평가한 결과 대체로 모든 부문이 ‘보통’ 수준 이상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⁸⁰⁾ 이 연구에서도 식문화 홍보 부문이 80.2점(100점 기준)으로 가장 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이 연구에서는 세부 부문별 사업성고가 식문화 홍보(80.2점), 전문인력 양성(76.1점), 인프라 구축(75.2점), 기술 개발(74.6점), 경쟁력 강화(73.3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5. 한식세계화사업 성과분석

단위: 점

평가대상	종합 (100)	성과달성도 (30)	계획의 적정성 (10)	과정의 적절성 (20)	정책효과성 (40)
식문화 홍보	80.2	25.9	7.1	14.4	32.9
전문인력 양성	76.1	25.2	7.6	12.6	30.6
인프라 구축	75.2	28.7	7.0	13.2	29.3
기술 개발(R&D)	74.6	25.5	7.2	12.2	29.8
경쟁력 강화	73.3	24.6	7.1	12.5	29.0
평균	75.9	25.4	7.2	13.0	30.3

주: 3차 평가위원의 평균을 적용한 후 평점을 분류하였으며, 우수(8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80점 미만), 미흡(70점 미만) 등으로 분류함.

자료: 권기정 외(2013).

79) 황운재·이동소(2014)에서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재구성함. 한식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학계, 정부·산하기관 관련 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2014년 9월에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80) 권기정 외(2013)는 한식세계화정책에 대해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R&D), 전문인력 양성, 경쟁력 강화, 식문화 홍보 등 5개 부문과 이들 5개부문에 포함된 35개 사업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함.

- 세부 부문별 주요 추진실적과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한식 홍보의 경우 단기적 홍보·이벤트와 해외 홍보 중심의 사업 추진 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으나, 한식에 대한 해외 인지도·인식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 한식재단 조사에 의하면 2012년 뉴욕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식 인지도는 28.5%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조사에서는 67.0%로 38.5%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밖에 조사 결과 한식 인지도가 아시아(연변, 호치민, 북경, 홍콩, 상하이, 마닐라, 동경, 오사카)지역에서 85~100% 정도로 매우 높으며, LA(68.8%), 뉴욕(67.0%), 시드니(55.2%) 등에서도 비교적 높았다. 또한 북경, 상해, 연변, 호치민의 경우 한식 식당이 해당 지역 시민들이 가장 자주 가는 식당 1위를 차지하였다.⁸¹⁾
- 전문인력 양성의 경우 국내 단기교육을 통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946명의 한식 전문조리인력이 배출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산업계와의 연계 부족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한식조리 전문인력 취업 지원 활동을 병행하였다.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약 2,000여명(4년간 총 8,6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밖에 2014년 2월 현재 4개국 4개 학교에 한식강좌가 개설되었다.
- 산업계와의 연계 차원에서 글로벌 한식 잡페어(2013년 11월)를 통해 약 80명, 해외 한식당 전문조리인력 채용박람회(2013년 5월)을 통해 약 130명의 국내외 업체 취업을 지원하였다.
 - 미국 드렉셀 대학교, 중국 양주 대학교, 말레이시아 UCSI(University College Sedaya International), 필리핀 CCA(Center for Culinary Arts) 등에 한식 강좌가 개설되었다.

표 5-26. 한식조리 전문인력 양성 현황(단기교육)

단위: 명

	한식 스태프 과정 (수료 인력)	향토음식(북한음식) 전문가 (수료 인력)	계
2009	49	109	158
2010	107	210	317
2011	109	150	259
2012	61	77(36)	138
2013	56	(18)	74
계	382	564	946

주 : 향토음식 전문가 과정 수료 인력에서 ()는 북한음식 전문가 과정 수료 인력 현황임.
 자료: 한식재단(2014).

81)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4 해외 외식 및 한식산업 조사결과, 2015년 4월 8일자)를 참조함.

표 5-27.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 현황

구분	국가(도시)	교육인원	교육지역
2010	4개국 (10 도시)	2,055명	미국(뉴욕, LA), 중국(북경, 상해, 연변, 심양, 홍콩), 일본(도쿄, 오사카), 베트남(호치민)
2011	7개국 (11 도시)	2,204명	미국(뉴욕, LA), 중국(상해, 광주, 홍콩, 연변), 일본(도쿄), 베트남(호치민),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호주(시드니)
2012	9개국 (13 도시)	2,094명	미국(LA, 애틀랜타), 일본(도쿄), 중국(연변, 광주, 청도, 상해), 캐나다(토론토),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몽골(울란바토르), 뉴질랜드(오클랜드), 호주(시드니), 영국(런던)
2013	9개국 (15 도시)	2,262명	미국(뉴욕, LA, 시애틀), 중국(연변, 청도, 상해), 일본(도쿄, 히로시마), 캐나다(몬트리올),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카자흐스탄(알마티), 뉴질랜드(오클랜드), 영국(런던)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자료.

- 인프라 구축 중 추진체계 구축 차원에서 “식생활교육지원법”, “외식산업진흥법” 등이 마련되었으며, 그 외 식품외식종합자금을 마련하여 2011년부터 지원하였다. 또한 한식재단을 설립하고(2010. 3), 해외한식당협의체를 마련하였다. 해외한식당협의체는 2014년 2월 현재 7개국 12개 도시에 구축되어 있다.
- 인프라 구축 중에서 한식 콘텐츠 개발·보급의 경우 대표적인 사업은 “한식원형 복원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식 및 음식문화 관련 콘텐츠 목록 DB구축, 세계 유명 10대 한식메뉴 스토리텔링 소재 발굴, 북한전통음식 조사 발굴, 역사성 있는 한식당 조사 발굴 등이 추진되었다.
 - 한식 및 음식문화 관련 콘텐츠 목록 DB구축을 통해 고문헌(1,519건), 고문헌 번역물(169건), 한국음식문화관련 도서(831건), 논문, 학술자료집 등의 연구결과물(5,020건), 향토음식자료(247건), 한식 관련 영상(503건), 종가음식 및 사찰음식 관련 서적(507건), 조선시대 풍속화 등의 시각자료(166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 한식 관련 연구개발(R&D)의 경우 한식 우수성·기능성 연구 사업을 통해 2009년 5억 원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20억 원이 지원되었다. 2009년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0년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식재단, 2011년, 2012년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관리·추진되었다. 그러나 식품산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는 식품 R&D지원사업과 통합되었다. 이밖에 한식 현지화 상품개발 사업은 2011년부터 해외진출 외식기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 2011년 41개, 2012년에는 10개 등 2년간 총 51개의 과제가 수행되었다. 비교적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었으나 사업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사업 결과에 대한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성과를 도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 한식 현지화 상품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아워홈이 2011년부터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김치, 숯불구이 양념 등과 관련한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도 출원하였다(숯불구이 양념 제조공법 특허 출원).
-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 중 해외 우수 한식당 추천제를 통해 현지 유명 셰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평가단이 2010년 일본, 2011년 서유럽(11개국 25개 도시), 2012년 미국, 2013년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우수 한식당을 추천하였다. 해외 한식당 개설자금 지원의 경우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었으나 지원자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플래그십(flagship) 한식당 개설사업도 2011년부터 추진되었으나 참여의사를 밝힌 민간 업체가 없어 사업이 종료되었다.
- 경쟁력 강화 부문의 경우 직접 자금지원 사업보다는 다양한 간접지원 실시와 경쟁력 강화 이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시장 조사와 자료 구축 등 정보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14년 사업 개편과 함께 정부의 역할을 투자 등 직접 지원에서 정보제공 등의 지원으로 전환하였다.
- 한식세계화 사업의 경우 한 국가의 식문화를 전세계로 확산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며 보다 장기적인 전략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2.5.6. 농식품수출지원사업 전문가 평가⁸²⁾

가. 수출지원사업 예산 동향

- 농림축산식품부의 2014년 기준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총 예산은 5,081억 원이다. 그 중 해외시장개척사업 예산은 321억 원으로 전체 보조사업 예산의 36.4%,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은 423억 원으로 48.0%이다.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4년 수출지원 예산은 2009년 대비 34.6% 증가했다.
 - 수출지원사업 예산은 2000년대 초 중반까지 정체 내지 다소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정부가 적극적인 수출 정책을 추진한 2008년부터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 2013년부터는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사업(농특회계, 계속, 보조)이 추가되어 전체 수출지원사업 예산이 더욱 상승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표 5-28.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부문별 예산 동향

단위: 십억 원, %

지원사업 부문	2000	2005	2009	2013	2014	증감률 ('14/'09)
1. 해외시장개척사업	8.7	12.9	24.0	30.2	32.1	33.9
수출성장동력확충	1.6	2.5	7.3	12.2	12.7	73.3
해외수출거래선발굴	7.0	10.4	16.6	18.0	19.4	16.5
2.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19.1	28.9	41.3	41.2	42.3	2.4
수출물류비지원	19.1	26.3	39.7	31.0	32.9	-17.2
수출인프라 강화	-	2.6	1.5	10.2	9.4	510.3
3.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사업	-	-	-	15.4	13.7	-
4.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	272.4	312.2	350.0	420.0	34.5
계	27.7	314.2	377.4	436.7	508.1	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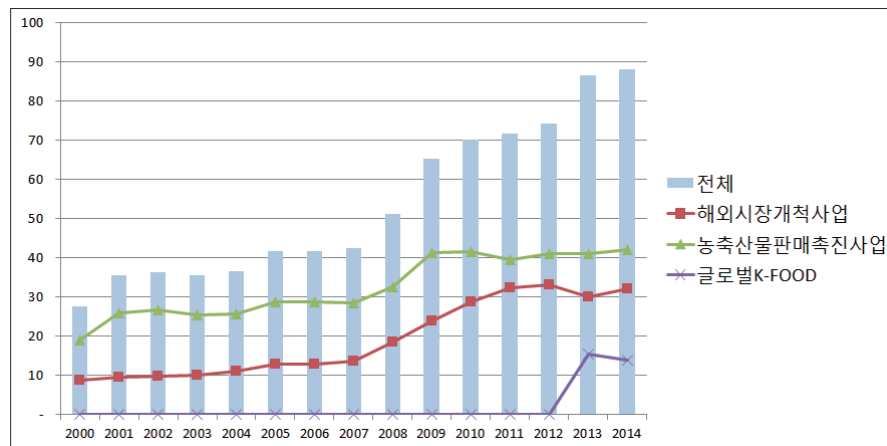
주: 2009~2012년은 정산기준, 2013~2014년은 예산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내부자료

8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경필 연구위원」 작성

- 지원사업의 예산변화를 2009년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의 세부지원 사업인 수출인프라 강화 사업의 예산이 510.3%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 또한 73.3%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 전체 지원액에서 세부지원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결과(2009년 대비 2014년 예산비중), 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과 수출인프라 강화사업이 각각 3.2%p와 8.3%p 상승하였다.
 - 반면, 이를 제외한 다른 사업부문 중에서 특히 수출물류비지원 비중이 23.5%p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해외수출거래선발굴지원사업도 3.5% 축소되었다.
 - 이는 2013년에는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사업이 신규로 추진된 영향이 크다. 수출물류비 지원비중이 축소되고 수출인프라 지원부분이 강화되는 추세는 최근의 국제협상이나 보조금지급에 대한 논란 등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추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4.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예산 추이

단위: 십억 원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내부자료 참조 작성.

표 5-29.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분야별 예산비중 변화

단위: %, %p

지원사업분야	2000	2005	2009	2013	2014	증감 ('14/'09)
1. 해외시장개척사업	31.2	31.0	36.7	34.8	36.4	-0.3
수출성장동력확충	5.9	6.1	11.3	14.1	14.5	3.2
해외수출거래선발굴	25.3	24.9	25.5	20.7	22.0	-3.5
2.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68.8	69.0	63.3	47.4	48.0	-15.3
수출물류비지원	68.8	62.8	60.9	35.7	37.4	-23.5
수출인프라 강화	0.0	6.3	2.4	11.7	10.6	8.3
3.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	-	-	17.8	15.6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1) 2009-2012년은 정산기준, 2013-2014년은 예산기준임.

2) 용자사업인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예산은 금액의 단위가 보조사업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체 비중변화의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비중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내부자료를 토대로 재작성함.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은 5대 부문, 29개 세부 지원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5대 지원부문은 1) 가공식품 생산·수출조직 부문 2) 수출농식품의 안전성관리 부문, 3) 수출시장개척·해외마케팅 부문, 4) 가공식품 수출 물류·검역·통관 부문, 5) 수출 금융·보험 부문이다.⁸³⁾

- 시장개척·해외마케팅 부문이 국제박람회참가, 해외관측행사지원 등 총 12개의 가장 많은 세부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생산·조직 부문은 수출상품화사업 등 4개 세부 지원사업을, 안전성관리 부문에는 잔류농약검사비 등 5개 지원사업을, 물류·검역·통관 부문은 수출물류비지원 등 6개 지원사업, 금융·보험 부문에는 우수농식품구매 지원자금 등 2개 지원사업을 포함한다.

83) 현재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은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지원사업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전체 지원 사업들 중에서 신선농산물이나 가공식품 어느 한 부문만 지원이 가능한 사업들이 있으며, 농식품 유형별로 해당되는 지원사업은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지원사업들 중에서 신선농산물에만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있지만 가공식품 지원을 강화할 경우 필요한 사업, 예를 들어 원예전문 생산단지육성사업은 가공식품 원료공급을 위한 기능 수행이 가능하고 가공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모든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가공식품 수출을 지원방안을 분석하였다.

나. 수출지원사업 예산 동향

1) 평가 목적

- 정부의 수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사업과 지원 사업별 수출증대 효과 순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개별 수출 지원 사업이 수출증대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 모형분석(OLS)을 수행하였다. 분석 자료는 수출 지원사업 수혜업체들에 대한 지원실적 및 수출액에 대한 합동자료(pooled data)이며 다중회귀모형분석으로 추정하였다.
- 국내 가공식품 수출 지원실적을 바탕으로 개별지원사업의 수출증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지원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지원사업의 지원 순위를 결정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2) 평가 방법

- 다중회귀모형(OLS) 분석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식품 수출업체 수혜 지원사업과 수출실적”자료를 이용하였다.
- 분석품목 부류는 1) 신선가공식품, 2) 전통가공식품, 3) 일반가공식품으로 구분된다.
- 분석에 사용된 각 년도별 자료는 2011년 394개 업체, 2012년 418개 업체, 2013년 598개 업체에 대한 지원 실적이다.
- 자료의 변수는 2013년도의 경우 수출업체명, 개별사업 참여 여부, 업체별 주력 품목, 업체별 수출실적(년간) 변수는 2011년과 동일하나 개별 지원사업 명칭은 2011년, 2012년과 다소 다르다.
- 2013년 지원기준 개별지원사업 종류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수출물류비지원, 국제박람회참가(국제식품박람회), 국제박람회참가(개별참가박람회), 해외관측행사지원, 개별브랜드지원사업, 수출상품화사업, 해외시장정보인프라구축(맞춤형해외시장조사), 해외시장정보인프라구축(유료정보지원사업), 해외안테나숍운영, 글로벌K-FOOD FAIR, 해외바이어거래알선으로 구성된다.⁸⁴⁾

표 5-30. 수출지원사업 수출증대 효과분석의 다중회귀모형 변수

관측치	포함되어 있는 변수	변수 특성 및 단위
724	○ 업체명	명목 변수
	○ 수출지원사업별 수혜여부 -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수출물류비지원, 국제박람회 참가(개별참가박람회), 해외관측행사지원, 개별브랜드 지원사업, 수출상품화사업, 해외시장정보인프라구축(맞춤형해외시장조사), 해외안테나숍운영, 해외시장 정보인프라구축(유료정보지원사업), 국제박람회참가, 글로벌K-FOOD FAIR, 해외바이어거래알선	더미 변수 1: 각 사업별로 수혜를 받은 경우 2: 지원사업 비수혜업체인 경우
	○ 업체별 주력 수출 품목류	1) 신선가공식품 2) 전통가공식품 3) 일반가공식품,
	○ 업체별 수출실적(년간)	양적변수 (단위: 천불)

주: 연도별 수출지원사업 변수명은 조금씩 다르며 현재 제시되어 있는 지원사업은 2013년 기준으로 작성함. 2011년 변수명은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수출물류비지원, 국제박람회참가(개별참가박람회), 국제박람회 참가(국제식품박람회), 해외관측행사지원, 수출보험 지원, 수출상품화사업, 직접세일즈, 판매촉진사업, 해외 바이어거래알선 등임. 2012년 지원사업 변수명은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수출물류비지원, 국제박람회참가(개별참가박람회), 해외관측행사지원, 수출상품화사업, 국제박람회참가(국제식품박람회), 해외바이어거래 알선, 직접세일즈 등임.

○ 지원사업 수혜업체들의 수출증대 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먼저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해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만일 패널분석을 진행할 수 없다면, 합동자료(pooled data)를 이용하여 다중회귀 OLS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개년도에 걸쳐 목록에 올라 있는 기업체의 수는 313개이다. 이는 대략적으로 각 연도별 전체 수혜기업들 중 절반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이 313개의 관측치들을 이용하여 패널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매년 주어진 사업들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 매년 수출사업들의 지원 종류 및 명칭이 동일하지 않은 상태인데, 우수농식품구매 지원자금, 수출물류비지원, 국제박람회참가(개별참가박람회), 국제박람회참가(국제식품 박람회), 해외관측행사지원, 수출상품화사업, 해외바이어거래알선 이상 7개 사업만이 매년 연속적으로 지원되었다.
- 따라서 3개 년도에 걸쳐 계속 수혜 받은 기업들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관측치만 남게

84) 해당사업명은 aT 지원실적 자료 D/B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원사업명 기준이며, ()의 사업명은 aT Kati 및 지원사업종합안내서의 사업명으로 D/B 사업명과 aT 안내 사업명 및 지원사업 범위가 다소 다른 경우가 있다.

되고 또한 3개 년도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또한 7개만이 남게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패널분석보다는 합동자료를 이용한 다중회귀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합동자료를 이용한 분석 모형은 아래의 식 (1)과 같다.

$$(1) Y_i = \alpha + \delta_1 D_1 + \dots + \delta_j D_j + \beta_1 Class_i + SOD_i + \epsilon_i.$$

- Y_i 는 종속변수로서 개별기업들의 특정년도의 업체별 수출실적을 의미한다. D_j 는 독립변수로서 개별기업의 각 사업별 참가여부에 대한 더미변수이며, 원래 주어진 자료를 변환하여 특정기업이 특정년도에 개별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처리하였다.
 - α, δ, β 는 독립변수들에 대응한 계수를 나타내며, ϵ_i 는 에러항을 의미한다.⁸⁵⁾
 - $Class_i$ 는 개별기업의 주력품목 유형을 나타내며, 신선가공식품을 1, 전통가공식품을 2, 일반가공식품을 3으로 분류하였다.
 - 개별사업들의 참가 여부뿐 만 아니라 더 많은 사업의 수혜를 받게 되면 체계적으로 수출실적이 상승하는지를 살피기 위해 변수를 추가하였다. SOD_i 는 개별기업이 특정 년도에 받은 사업의 전체 개수를 뜻한다. 이 변수는 각 년도의 개별기업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은 사업의 건수에 해당되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2011년에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수출물류비지원의 수혜를 받았다면 이 때 이 변수의 값은 2가 되고, 만일 또 다른 어느 기업이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개별참가 박람회, 국제식품박람회, 해외관측행사지원의 수혜를 받았다면 4의 값을 갖게 된다.
- 수출업체들의 개별지원사업 수혜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들과 이 더미변수들의 전체 합에 해당되는 독립변수가 같은 모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중공선성 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소(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j번째 독립변수 X_j 에 대한 분산팽창계수를 다음과 같은 식에 의거하여 구하게 된다.

$$(2) VIF_k = \frac{1}{1 - R_k^2}$$

85) 문한필 외(2012) 연구결과 물류비지원,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수출지원사업이 수출증대에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 근거하여 모형의 계수 추정결과가 (+)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 여기서 R_k^2 는 X_k 를 종속변수로 하고 나머지 $m-1$ 개의 독립변수에 대해 회귀방정식을 맞추었을 때 얻어지는 결정계수이다. 만일 심각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면 $R_k^2 \rightarrow 1$ 로 접근하기 때문에 VIF $_k$ 는 커지게 되는 반면, 다중공선성이 거의 없다면 $R_k^2 \rightarrow 0$ 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VIF $_k$ 는 1에 가까워진다.
- 독립변수에 각 업체가 받은 지원사업의 개수에 해당하는 ‘전체사업혜택’을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을 경우, 2011년, 2012년, 2013년 각각 VIF값이 6.705, 6.475, 9.509로 나타났다. 이는 다중공선성이 추정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개별 사업들의 더미변수와 이들의 전체 합에 해당되는 독립변수를 한 모형에 포함하여 추정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평가 결과

- 각 연도별 분석결과 모형 적합도는 각 연도별 우도비카이제곱 통계량이 61.162, 81.336, 130.177로 나타났으며, 모형설정이 적합하지 않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전체적인 측면에서 모형 적합도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된다.
- 2011년은 총 10개의 지원사업들 중 해외관측행사지원과 판매촉진사업이 5% 유의수준 하에서 수출실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 해외관측행사지원이 표준화계수 0.298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으며, 판매촉진사업의 표준화계수도 0.098로 분석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2012년은 총 8개의 지원사업들 중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해외관측행사지원, 국제박람회참가(국제식품박람회), 해외바이어거래알선이 유의수준 5% 하에서 수출실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제박람회참가(개별 참가박람회)사업이 유의수준 10% 하에서 업체 수출실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중 해외관측행사지원이 표준화계수 0.277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국제식품박람회는 표준화계수 0.164로 두 번째로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표준화계수 0.158인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표준화계수 0.104인 해외바이어 거래알선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범주형 변수인 주력품목을 보면, 신선가공식품, 전통가공식품, 일반가공식품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들 간 수출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업체의 주력품목별 특성이 업체들의 수출실적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뜻한다.

○ 2013년도 지원실적에 대한 분석결과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총 12개의 지원사업 중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해외관측행사지원, 개별브랜드지원사업, 해외시장정보인프라구축(맞춤형해외시장조사), 해외시장정보인프라구축(유료정보지원사업), 국제박람회참가(국제식품박람회), 글로벌K-FOOD FAIR의 7개의 변수가 5% 유의수준 하에서 수출업체실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그 중 해외시장정보인프라구축(유료정보지원사업)이 표준화계수 0.173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은 표준화계수 0.152로 두 번째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영향 순서는 글로벌K-FOOD FAIR, 개별브랜드지원사업, 해외관측행사지원, 국제박람회참가(국제식품박람회), 해외시장정보인프라구축(맞춤형해외시장조사)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13년도 수출상품화사업은 수출업체실적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렇게 나타난 주요 이유는 지원사업 성격이 수출업체의 수출유망상품을 발굴하고 상품화하여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등의 장기간 지속되어야 하는 등 사업 특성상 수출성과가 바로 나타나기 어려운 특성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 전체적으로 볼 때, 지원연도가 오래될수록 수출업체들의 수출실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별사업들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중 해외관측행사지원은 3개 년도에 걸쳐 모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영향의 크기와 순위가 모두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⁸⁶⁾.
- 또한 국제박람회참가(국제식품박람회)와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도 2011년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2012년도와 2013년에 걸쳐 모두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 수출업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86) 해외관측행사지원 등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이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출시장 소비자의 선호 속성에 맞는 제품개발(R&D)과 상품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표 5-31. 가공식품 유형별 수출증대 유효사업

구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신선 가공 식품	1)국제박람회참가 (국제식품박람회)** 2)해외바이어거래알선** 3)해외판촉행사지원**	1)해외판촉행사지원** 2)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3)국제박람회참가 (국제식품박람회)** 4)바이어초청**	1)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2)해외시장정보인프라구축 (맞춤형해외시장조사)** 3)개별브랜드지원사업** 4)국제박람회참가 (국제식품박람회)** 5)해외판촉행사지원*
전통 가공 식품	1)직접세일즈** 2)해외바이어거래알선** 3)국제박람회참가 (국제식품박람회)**	1)해외판촉행사지원**	1)유료정보지원** 2)글로벌K-FOOD FAIR**
일반 가공 식품	해외판촉행사지원**	1)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2)해외바이어거래알선** 3)국제박람회참가 (국제식품박람회)** 4)해외판촉행사지원**	1)개별브랜드지원사업** 2)글로벌K-FOOD FAIR** 3)유료정보지원** 4)국제박람회참가 (국제식품박람회)** 5)해외바이어거래알선**

주 1) 숫자는 수출증대 효과 순위를 나타내며 표준화계수를 바탕으로 한 개별사업의 수출액에 대한 영향도임.
2) **는 5% 수준 하에서 유의한 변수를 의미하며, *는 10% 수준 하에서 유의한 변수를 의미함.

표 5-32. 가공식품 품목유형별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사업 순위

품목류	지원효과순위	유효사업
신선가공식품	1순위 그룹	해외판촉행사지원, 국제박람회참가(국제식품박람회)
	2순위 그룹	해외바이어거래알선,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3순위 그룹	맞춤형해외시장조사, 개별브랜드지원사업
전통가공식품	1순위 그룹	-
	2순위 그룹	-
	3순위 그룹	글로벌K-FOOD FAIR, 해외판촉행사지원, 국제박람회참가(국제식품박람회), 해외바이어거래알선
일반가공식품	1순위 그룹	-
	2순위 그룹	해외판촉행사지원, 국제박람회참가 (국제식품박람회), 해외바이어거래알선
	3순위 그룹	글로벌K-FOOD FAIR, 유료정보지원, 개별브랜드지원사업,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주 1) 1순위 그룹은 지원효과 분석결과 3개년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난 지원사업, 2순위 그룹은 2개년도, 3순위 그룹은 1개 연도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지원사업을 제시함.
2) 물류비는 2011년과 2012년도 뚜렷한 증가효과를 보이지 않으며 2013년에는 오히려 수출감소 효과로 나타남. 이는 전반적으로 수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인데, 따라서 물류비는 수출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증가시키거나 하락시키는 영향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다. 사업 평가

○ 다중회귀모형(OLS) 분석결과 가공식품 유형별로 수출증대 효과가 큰 사업들을 차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신선가공식품 부문에 수출증대 영향이 큰 사업은 해외관촉행사지원, 국제박람회참가(국제식품박람회)사업이다.
- 전통가공식품류 수출을 증대시키는데 특히 유효한 사업은 글로벌K-FOOD FAIR, 해외관촉행사지원, 국제박람회참가(국제식품박람회)사업이다.
- 일반가공식품류에 유효한 지원사업은 해외관촉행사지원, 국제박람회참가(국제식품박람회), 해외바이어거래알선이다.

2.5.7. 소결

- **농식품수출촉진** 정책의 세부사업인 ‘해외시장개척사업’, ‘글로벌K-Food프로젝트’, ‘한식세계화사업’ 시행으로 농식품의 새로운 판로개척과 홍보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시행으로 농산물 수출확대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은 융자 실행을 위한 담보 문제 등으로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식품수출촉진 사업군의 5개 성과지표(5개 사업) 가운데 목표대비 성과를 달성한 지표는 2개, 미달성은 2개, 미측정은 1개였다.
- ‘해외시장개척사업’은 농식품 브랜드 홍보,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 해외 유통관전 개최 등,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수혜자 조사에서 부족한 예산과 엄격한 참가기준 등에 대한 불만족이 제기되었다.
 - 환율변동과 같은 대외여건 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식품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여 신규시장 박람회 참가 기회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 ‘해외시장개척사업’, ‘글로벌 K-Food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사업의 지원실적과 수출실적과의 관계 분석) 12개의 지원 사업 중 7개 사업이 수출업체실적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료정보지원사업(0.173),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0.152), 글로벌 K-FOOD FAIR,

- 개별브랜드지원사업, 해외관측행사지원, 국제박람회참가, 맞춤형해외시장조사 순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11~2013년간의 실적을 누적으로 비교한 결과 지원연도가 오래될수록 수출업체들의 수출실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별사업들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으며, 해외관측행사지원은 3개 년도에 걸쳐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을 통해 원예전문생산단지 28개소의 증개축 및 시설현대화를 지원으로 생산단지의 수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미지원 생산단지와 비교한 지원단지의 상대적 수출증가율은 2012년 10.4%에서 2014년 15.6%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시행으로 융자 실행을 위한 담보 문제로 인해 사업대상자를 확보하지 못해 2014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일반유형 방식의 이차보전은 담보부족과 인허가 지연으로 온실 착공이 늦어져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못했다.
 - 사업수요 증가를 위한 다양한 금리지원, 농신보의 보증한도 증대 등의 정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식세계화사업’은 한식 홍보를 통한 국산 농식품의 인지도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국내 외식(한식)기업의 해외진출 점포 수’는 288개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한식세계화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정책 추진 초기에 단기적 홍보·이벤트 중심 사업 추진, 잦은 사업 계획 변경, 부실한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사업 필요성과 중요성(한식에 대한 해외 인지도 제고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장기적인 전략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산업적인 측면에서 2014년 고추장 수출이 전년대비 18.2%증가한데 힘입어 국내 가공식품 수출액이 50억6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외식산업 해외진출도 2012년 총 77개 업체 1,485개 매장에서 2014년에는 총 120개 업체 3,726개 매장으로 증가하였다.

- 한식세계화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세부사업 유형별로 한식 홍보(65.8/100점)가 가장 사업성고가 크다고 평가하였다.
- ‘글로벌K-Food프로젝트사업’으로 K-Food 페어 개최 등 집중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K-Food 페어 개최국인 중국, 홍콩과 베트남에 대한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4.3%, 6.6%, 1.2% 증가하여 현지 수요 창출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6장

직접적
FTA피해보전대책
성과평가

제6장

직접적 FTA피해보전대책 성과평가

1. 개요

- 한·미 FTA와 한·EU FTA의 체결을 계기로 국회는 폭 넓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 확대에 대비하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FTA 특별법』을 개정해 왔다. 특히, 농어업인에 대한 단기적인 피해보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를 세 차례에 걸쳐 개선하였다.
- 개정된 『FTA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특정 품목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시 그 차액의 최대 90%까지 보전해 주는 제도이며, 폐업지원은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의 재배·사육 등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폐업하는 농업인에게 3년간의 순수익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 피해보전대책에는 향후 10년간 전체 투융자(28조 8천억 원)의 5% 수준인 1조 5천억원(피해보전직불금 1조 원, 폐업지원금 5천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1.1. 피해보전직접지불제

-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직접적 피해보전 강화’의 일환으로서 FTA에 따른 농산물 수입증가로 피해받는 품목을 재배·사육·포획·채취·양식하는 농어업인에게 정부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직접적인 소득감소를 일정부분 보전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으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피해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가격차보상제도이며 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원형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 형식이며, 재원은 FTA 이행 기금이다.

※ 『FTA 특별법』 제6조 제1항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한·EU FTA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 『FTA 특별법』 제7조는 특정 품목에 대한 FTA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 ① 해당연도(FTA 이행년도)의 총수입량이 과거 5개년 평균보다 크고,
- ②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과거 5개년 평균보다 커야 하며,
- ③ 해당연도의 국내가격(FTA 발효일 이후 평균가격)이 과거 5개년 평균의 90% 미만으로 하락하는 품목

○ ‘피해보전직불제도’는 기존대책(2004년 한·칠레 FTA 보완대책으로 도입된 “소득보전직불제”)에 비해 대상품목 확대, 발동요건 완화, 보전비율 상향조정 등의 개선을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전 기능이 강화되었다.

- 대상품목은 사전지정 방식(키위, 시설포도)에서 해당 농산물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사후지정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발동요건은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최고와 최저치를 제외한 과거 5년간의 평균가격)의 ‘80% 하락’에서 ‘90% 하락’으로 완화되었다.
- 보전비율은 기준가격과 당해년도 시장가격 차액의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다.
- 지급한도의 경우 추가 보완대책(2012.1)을 수립하면서 신설하였는데, 법인은 5천만 원, 개인은 3천 5백만 원 내에서 지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다.
- 사업 시행기간은 기존의 한·칠레 FTA 발효 후 7년(2004.4~2010.3)에서 한·EU FTA 발효 후 10년(2011.7~2021.6)으로 연장되었다.

표 6-1.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개편

구 분	기존제도 (2004 도입)	2007년 대책 (2007. 11)	종합대책 (2011. 8)	추가 보완대책 (2012. 1)
발동 기준	국내가격 80% 이하로 하락	80% 이하	85% 이하	90% 이하
보전 비율	차액의 80%	차액의 85%	차액의 90%	
보전 기준	가격	조수익	가격	
지급 한도	-			법인: 5천 만 원 개인: 3.5천 만 원
대상 품목	사전지정 (키위, 시설포도)	사후지정 (모든 품목)		
시행 기간	2004~2010	7년 (2017.12.31)	한·EU FTA 발효 후 10년 (2011.7.1~2021.6.30)	

○ 농업(원예, 과수, 곡물)의 경우 농가당 수령하게 되는 피해보전직불금의 규모는 직불금 신청농가의 산출기준(해당농가의 생산면적에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을 곱한 값)에 지급단가와 조정계수를 곱한 값이다.

- 지급단가는 ‘(기준가격 - 당해연도 가격) × 보전비율(90%)’이다
- 기준가격은 해당 품목의 과거 5개년 올림픽 평균가격(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의 90%이다.

○ 한편, 축산업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산출기준(생산면적과 면적당 생산량)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에 따라 「자유무역 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농업인등 지원위원회)」(2012.2.28)에서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 축산업의 경우 산출기준으로 ‘출하마릿수’를 적용하되, 적용이 곤란한 품목(낙농, 양육, 산란계, 양봉)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원천’을 고려해 개별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 ‘수익의 원천’으로 낙농은 농가별 평균 납유량을, 양육은 사육마릿수와 연간 마리당 녹용 생산량을, 산란계는 사육마릿수와 산란율을, 양봉은 봉군수와 연간 봉군당 부산물 생산량을 각각 산출기준으로 하였다.

표 6-2.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방법

구 분	산출 공식
농업	생산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
축산업	출하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낙 농	납유량(L)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양 록	사육마릿수 × 마리당 연평균 녹용(녹각) 생산량(kg)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산란계	사육마릿수 × 1일평균 산란율(%) × 365일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양 봉	봉군수 × 봉군당 연평균 부산물 생산량(kg)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FTA 특별법』 제7조 제1항과 제8조 제3항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 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산출시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 조정계수는 피해보전직불금의 실제 지급액이 WTO 협정에서 정해진 국내 농어업 보조금의 한도 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농업인등 지원위원회」(2012.2.28)에서 직불금 산출시 적용하도록 결정되었다.
- 이후 「농업인등 지원위원회」(2013.1.13)는 WTO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 외에도 실질적인 수입피해에 대한 정확한 보전을 위해 조정계수에 ‘수입기여율’⁸⁷⁾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 농축산물 조정계수 = $\frac{\text{지급 가능 보조액}}{\text{지급 신청 총액}} \times \text{수입기여율}$
- WTO 규정에 따르면 피해보전직불금은 감축대상보조(AMS)로 분류되거나 개도국의 경우 최소허용보조(de-minimis) 지원한도인 특정 품목 생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⁸⁸⁾
- 따라서 조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신청 총액이 지급 가능 보조액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수입기여율을 조정계수로 한다.

87) 수입기여율은 ‘두 시점 간 해당 농산물의 실제 가격하락률’ 대비 ‘FTA로 인한 수입증가가 초래한 가격하락률’로 ‘FTA 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 계측함.

88) UR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감축대상보조(AMS) 상한은 2004년 이후 1조 4,900억 원이며, 품목 특정 최소 허용보조(de-minimis)는 개도국의 경우 생산액의 10%, 선진국의 경우 생산액의 5%까지 집행될 수 있다. DDA에서는 AMS와 de-minimis의 허용한도를 감축하는 방안이 합의되었지만 협정 타결이 지연되고 있음.

1.2. 폐업지원제

- ‘폐업지원제도’는 FTA 이행으로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들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폐업지원은 농어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농어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폐업 농어가에게는 재취업 시기까지 안정된 생활기반을 보장하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폐업지원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절차 및 시행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FTA 특별법』 제9조 제1항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들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다.

- ‘폐업지원제도’의 발동기준은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현행 『FTA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을 모두 폐업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토록 하고 있다.
- 한·칠레 FTA 대책에서는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세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피해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한·칠레 FTA 발효 이후 5년 동안 폐업을 신청할 수 있는 폐업지원제도를 운용한 바 있다.
- 한·미 FTA 대책에서는 대상품목은 ‘피해보전직불제’와 동일하게 사전지정 방식에서 사후지정방식으로 변경되었으나, 모든 농수산물에 대상으로 하는 ‘피해보전직불제’와는 달리 과수, 축산, 수산 등 초기 투자비용이 커 농어업인들이 쉽게 폐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시설투자가 존재하는 작목으로 한정되었다.
- 폐업지원을 받은 농가는 폐업 품목이 포함되는 품목군에 대해서 1) 5년간 재배(사육)가 제한되고, 2)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쟁력제고 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 폐업지원금의 지원형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 형식이며, 재원은 FTA 이행 기금이다.
- ‘폐업지원제도’는 2007년 이후 FTA 국내보완대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폐업지원금의 산정방식 등이 일부 변경되었다.
 - 폐업지원금 지급기준은 기존제도(2004년 폐원지원제)에서는 순수입(조수익 - 경영비 - 자가노력비) 기준이었으나, 2007년 한·미 FTA 국내대책에서는 과도한 폐업신청과 이로 인한 해당 품목의 적정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순수익(순수입 - 토지·자본 용역비)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또한 과원이나 축사시설 등을 철거하더라도 토지 등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한 조치이다.
 - 시행기간은 폐원지원제의 경우 2008년 12월에 종료되었으나 이후 ‘폐업지원제도’로 확대 개편되면서 한·EU FTA 발효 후 5년간(2011.7~2016.6)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표 6-3. 폐업지원제도 개편

구 분	기존제도 (2004 도입)	2007년 대책 (2007. 11)	종합대책 (2011. 8)	추가 보완대책 (2012. 1)
지 급 액	3개년분 순수입	3개년분 순수익		
대상 품목	사전지정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	사후지정 (모든 시설투자 품목)		
시행 기간	2008.12.31일 종료	한·EU FTA 발효 후 5년 (2011.7.1~2016.6.30)		

- 폐업지원금의 일반적인 산출방법은 농업의 경우 철거·폐기 면적에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곱한 값에 3년을 곱하여 산출하고, 축산업은 출하마릿수에 연간 마리당 순수익을 곱한 값에 3년을 곱하여 산출한다.
 - ‘철거·폐기 면적’은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별 표준재식주수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중 철거·폐기한 면적을 의미한다.
 -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은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수익액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①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의 생산비(농·축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에서 자가노력비

및 토지용역비와 자본용역비를 뺀 금액(단,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경우는 제외)

- ② 농·축산물 생산비조사의 조사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에는 농산물소득조사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에서 자가노력비 및 임차료를 뺀 금액(다만,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연도 직전 5년 중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 10년간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다음 방법에 따라 순수익액을 산출한다.

구 분	연간 순수익액
① 직전 10년간 5개 이상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최근 5개 연도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② 직전 10년간 4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2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③ 직전 10년간 3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3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④ 직전 10년간 2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2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⑤ 직전 10년간 1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③ 위 기준에 따라 산출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산출한 값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으로 사용한다.

- 폐업지원금 철거·폐기 면적 산출 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 ① 현지조사 시 신청인의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중 일부가 생산성 및 상품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해당 면적
- ② 현지조사 시 유실·매몰·질병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 품목 중 일부가 없어진 경우 해당 면적

- 축산업 중에서 일부 품목의 경우 일반적인 산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에 따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2012.2.28)에서는 해당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원천’을 중심으로 개별 산출공식을 마련하였다.

- 폐업지원금의 경우 피해보전직불금과는 달리 개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한도액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별로 우선순위자를 정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로 지원할 수 있다.

표 6-4. 폐업지원금 산출방법

구 분	산출 공식
농업	철거·폐기 면적 ×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3년
축산업	출하마릿수 ×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 3년
· 낙 농	농가별 평균 납유량(L) × 연간 L 당 순수익 × 3년
· 양 록 (녹용)	사육마릿수 × 연간 마리당 녹용 생산량(kg) × 연간 녹용 kg당 순수익 × 3년
· 산란계 (계란)	사육마릿수 × 연간 마리당 순수익 × 3년
· 양 봉	봉군수 × 연간 봉군당 부산물 생산량(kg) × 연간 부산물 1kg당 순수익 × 3년

2. FTA 피해보전대책 발동사례

2.1. 2014년도 FTA 피해보전대책 발동요건 검토

- 2012년도에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으로 42개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2014년도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신청서를 접수(2014.1.1~2.15)하였다.
 - 42개 품목은 10개의 기체결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존재하고, 특혜관세가 적용되며, 수입 농산물에 대응하는 국산 농산물의 시장가격과 생산량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를 집계할 수 있는 품목이다(FTA 이행지원센터, 2013a).
 -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신청한 품목은 쇠고기를 포함한 7개 품목으로, 기존 모니터링 품목과 중복된다.
- 농축산물 42품목에 대한 201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발동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발동요건이 충족된 FTA와 품목은 조, 수수, 감자, 감자, 고구마, 한우송아지 등 5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 조의 2014년도 총수입량은 1.7%(15천 톤→16)증가, EU로부터 수입된 물량도 2.1배 (10톤→21) 증가, 국내 가격은 기준가격 대비 3.2%(4,251원/kg→4,113) 하락했다.
 - 수수의 2014년도 총수입량은 과거 5개년 올림픽 평균과 비교하여 34.2%(4,362톤 → 5,853) 증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87.8%(329톤 → 618) 증가, 국내 가격은 기준가격 대비 13.3%(5,246원/kg → 4,546) 하락했다.
 - 감자의 2014년도 총수입량은 과거 5개년 올림픽 평균과 비교하여 74.5%(93천 톤→ 152천) 증가, 미국·EU·ASEAN·EFTA·인도·페루로부터의 수입량 증가, 국내 가격은 기준가격 대비 16.3% (935원/kg→782) 하락했다.
 - 고구마의 2014년도 총수입량은 과거 5개년 올림픽 평균과 비교하여 39.4%(899톤→ 1,253) 증가, ASEAN으로부터의 수입량은 74.8배(4톤→299) 증가, 국내 가격은 기준 가격 대비 7.0%(1,574원/kg→1,465) 하락했다.
 - 쇠고기의 2014년도 총수입량은 과거 5개년 올림픽 평균과 비교하여 8.0%(278천 톤 →300천) 증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6.4%(95천 톤→ 101천) 증가, 칠레로부터는 TRQ 물량 427톤이 처음으로 수입되었다. 수입산 쇠고기와 대응하는 국내 축산물인 송아지 가격은 기준가격(과거 5개년 올림픽 평균가격의 90%) 대비 9.3% 하락했다.
- 2014년 제1차 「농업인등 지원위원회」(2014.5.29)에서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 지원금 대상 품목 및 수입기여율⁸⁹⁾을 심의·확정하였다.
- 조, 수수, 감자, 고구마와 한우송아지를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수입기여도는 각각 0.0%, 13.4%, 36%, 0.55%와 31.0%로 결정하였다.
 - 수입쇠고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생산농가는 한우 비육농가이지만, 번식농가의 최종 산출물인 송아지의 가격이 한우 가격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하여 번식농가가 출하한 송아지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 한우송아지는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품목으로도 선정되었다. 현행 법령상 피해 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중에서 초기 시설투자가 큰 품목이나 2년 이상의 생육·사육 기간이 필요한 품목을 폐업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고려한 조치이다.

89) 「농업인등 지원센터」는 피해보전대책의 발동요건을 모두 충족한 품목에 대해 수입량 증가와 국내가격 하락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입기여율”을 정하였음. 「농업인등 지원센터」는 수입기여율 추정을 위해서 비교정태분석 기법인 균형대체모형(EDM,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을 활용하였음(구체적인 내용은 「2013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농축산물 조사·분석 연차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음).

2.2.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단가 산출

○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방법은 ‘(기준가격 - 당해연도 가격 × 보전비율(90%))’이며, 기준가격은 해당 품목의 과거 5개년 올림픽 평균가격(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의 90%이다.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는 수수가 ha당 12만 7천 원, 감자가 127만 1천 원, 고구마가 8천 원, 송아지가 마리당 4만 7천 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6-5. 2014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 산출

단위: 원/kg, 원/마리

구분	기준가격 (A)	2013년 (B)	차액 (C=A-B)	차액×90% (D=C*0.9)	수입기여도 (E)	지급단가 (원/ha, 원/마리)
조	4,251	4,113	138	124	0.0%	0
수 수	5,246	4,546	700	630	13.4%	127,474
감 자	935	782	153	138	36.0%	1,270,814
고구마	1,574	1,465	109	98	0.55%	8,570
송아지	1,804,151	1,635,967	168,184	151,365	31.0%	46,923

주: 품목별 단위(kg/10a) : 조 119, 수수 151, 감자 2,558, 고구마 1,574

○ 『FTA 특별법』 시행령에 축산업의 폐업지원금 산출방법은 출하 마릿수에 대한 3년간 순수익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축산업 폐업지원금 : 출하두수 ×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 3년
- * 출하두수 : 사육두수 × 축종별 회전율
- * 순수익 : 순수입 - 토지용역비 - 자본용역비

표 6-6. 2014년도 번식우(한우) 폐업지원금 지급단가 산출

단위: 원/마리

구분	마리당 순수익	회전율	마리당 폐업지원금(3년분)
번식우(한우)	416,403	0.71%	886,938

○ 2014년도 번식우(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폐업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번식우 두당 폐업지원금 지급단가는 88만 7천 원이다.

2.3. FTA 피해보전대책 예산 및 실적

- 2014년도 FTA 직접피해보전 예산은 2,032억 원이며, 그 중 1,748억 원이 집행되어 예산집행률은 86.0%를 기록했다.
- 피해보전직불금 예산은 605억 원이고 집행액은 403억 원으로 66.7%의 집행률을 기록했고, 폐업지원금 예산은 1,427억 원이고 집행액은 1,345억 원으로 집행률은 94.3%이다.

표 6-7. FTA 피해보전대책 예산 및 실적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2008~2012		2013		2014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집행률
소 계	4,900	367	900	1,080	2,032	1,748	86.0
피해보전직불금	2,500	0	600	261	605	403	66.7
폐업지원금	2,400	367	300	819	1,427	1,345	94.3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 접수 결과, 지급 대상 면적(마릿수) 대비 신청 면적(마릿수)의 비중은 이력제를 추진하는 송아지가 88.5%로 가장 높고, 지급단가가 작은 고구마가 2.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이력제 기준 지급 대상 송아지 마릿수는 390천 마리이고, 그 중 345천 마리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하였다.
 - 고구마의 지급단가는 ha당 8,500원으로 신청 시 투입되는 비용 대비 직불금 규모가 작아 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외, 수수와 감자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 대비 신청 면적의 비중은 각각 40.3%와 41.3%이다.

표 6-8. 2014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과 신청 현황

품 목	지 급 대 상			신 청 현 황			비 고 (B/A)
	농가수 (호)	면적/마릿수 (ha/마리, A)	지급금액 (백만 원)	농가수 (호)	면적/마릿수 (ha/마리, B)	지급금액 (백만 원)	
수 수	6,533	1,514	193	1,264	610	80	40.3
감 자	226,109	27,430	34,858	27,938	11,329	15,904	41.3
고구마	285,228	22,207	190	1,165	508	5	2.3
송아지	100,152	389,995	18,300	87,106	345,480	16,371	88.5
소 계	618,022		53,541	117,473		32,360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결과, 이력제 기준 지급 대상 번식우 마릿수는 652,965마리이고, 그 중 신청 마릿수는 22,828마리로 3.5%의 신청률을 기록하였다.
- 지급 대상 농가 수는 69,075호이고, 그 중 신청 농가 수는 3,010호로 신청률은 4.4%이다.

표 6-9. 2014년도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 현황

단위 : 호, 마리, 천 원

품 목	지 급 대 상		신 청 현 황				비 고	
	농가수 (a)	마릿수 (b)	농가수 (c)	마릿수 (d)	지급단가 (천원)	지급금액 (백만원)	c/a	d/b
송아지	69,075	652,965	3,010	22,828	886	19,601	4.4	3.5

- ‘직접피해보전사업’의 42개 모니터링 품목의 가격⁹⁰⁾ 지지율은 평균 109.9%로 분석되었다.
- 모니터링 42개 품목의 2014년 1~12월 평균가격은 6,222원이고, 기준가격은 5,660원 ('09~'13년 올림픽 평균가격(6,289원)의 90%)으로 평균 가격지지율은 109.9%
 - $\text{당년가격}(6,222\text{원} + \text{직불금 } 0\text{원}) / \text{기준가격}(5,660\text{원}) \times 100\% = 109.9\%$

90) 42개 모니터링 품목의 국내 가격은 채소·과일(가락동도매시장) 및 양곡(양재동 양곡시장), 축산물(축산물품질평가원)의 연간 거래금액을 거래물량으로 나누어 산출

3. 평가 및 개선과제

3.1. 소득증대 및 규모화

- 201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통한 해당 품목의 가격 지지율은 모두 100%를 밑돌고 있지만, 직불금 지급으로 가격 지지효과가 나타났다.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통해 2013년 수수, 감자, 고구마, 한우송아지 가격을 기준 가격 대비 각각 1.6%p, 5.3%p, 0.03%p, 2.6%p 지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 지급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감자 가격의 지지폭이 가장 큰 반면, 지급단가가 낮은 고구마 가격의 지지폭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0. 품목별 가격 지지율 현황

단위: 원/kg, 천원/두, %, %p

구 분		수수	감자	고구마	한우송아지
기준가격(a)		5,246	935	1,574	1,804
2013년 가격(b)		4,546	782	1,465	1,636
직불금(c)		84	50	0.54	47
가격 지지율	$d=b/a$	86.7	83.6	93.1	90.7
	$e=(b+c)/a$	88.3	88.9	93.1	93.3
	$f=e-d$	1.6	5.3	0.03	2.6

주: 품목별 기준가격은 각각 '08~'12년의 소득 중 최대·최소값을 제외한 3개년 평균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농축산물 조사·분석 연차보고서

- 201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농가의 소득 증대 효과를 살펴보면, 감자와 한우송아지 생산 농가의 소득이 각각 12.9%와 6.4%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고구마 농가의 경우 소득 증대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6-11. 품목 농가별 소득 증대 효과

단위: 천 원, ha, 두

구 분	ha(마리) 당 소득(a)	농가당 재배 (사육)규모(b)	농가당 소득(c=a×b)	ha(마리)당 직불금(d)	농가당 직불금(e=b×d)	소득 증대 효과(f=e/c)
감자	9,843	0.121	1,191	1,271	154	12.9%
고구마	14,107	0.078	1,100	9	0.7	0.06%
한우송아지	732	23.5	17,202	47	1,105	6.4%

주 1) 감자와 고구마의 ha당 소득은 '08~'12년의 소득 중 최대·최소값을 제외한 3개년 평균이며, 감자는 봄감자를 기준으로 함.

2) 송아지(번식우)의 마리당 소득은 '04~'13년의 소득 중 음의 소득('11~'13년)은 제외하고 최대·최소값을 제외한 5개년 평균임.

3) 수수의 경우 소득과 생산 관련 통계가 존재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농산물소득조사, 가축동향조사, 농작물생산조사)

○ 2014년 폐업지원으로 번식우농가당 사육두수가 9.5두에서 11.4두로 증가하는 등 번식우농가의 규모화가 진행되었다.

- 2014년 폐업지원을 신청한 번식우농가는 3,010호, 신청 두수는 2만 3천 두였다.
- 2013년 폐업지원 신청농가 상당수(12,421호, 추정치)의 폐업이 2014년에 이루어졌다.
- 번식우농가당 사육두수는 폐업전 9.5두에서 폐업 후 11.4두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한우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우 가격 : 4,590천 원/600kg(2013년) → 5,116천 원/600kg(2014년)

표 6-12. 폐업지원을 통한 번식우 농가의 규모화 효과

단위: 마리, 호

구 분		지급대상 두수 (a)	폐업신청 두수 (b)	번식우 감소 두수 (c)	전체 사육농가 수			농가당 사육두수		
					폐업 전 (d)	폐업신청 농가수	폐업 후 (e)	폐업 전 (f=a/d)	폐업 후 (g=(a-c)/e)	증가율 (%)
신청 연도	2013년	653천	118천	42천	69,075	12,421	53,644	9.5	11.4	20.0
	2014년		23천			3,010				

- 주: 1) 2013년도 폐업지원 신청 농가 중 상당수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2014년에 폐업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 전체 폐업지원 신청금액(2,183억 원) 중 37.5%(819억 원)만이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2014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됨
- 2) 모든 폐업지원 신청 농가가 폐업지원금을 수령하고, 폐업 신청 두수와 지급액이 비례한다는 가정 하에, 2013년 폐업지원을 신청한 번식우 두수 중 폐업지원금 지급이 2014년으로 유예된 두수 추정(189천 두 × 62.5% = 118천 두)
- 3) 폐업으로 일부 번식우가 도축되었다고 가정하였으며, 실제로 2014년 말(12월) 기준 전체 번식우 사육 두수는 1,458천 두로 2013년 말(12월) 대비 42천 두 감소함
- 4) 폐업 전 농가당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2013년 폐업지원을 신청한 번식우농가 중 폐업지원금 지급이 2014년으로 유예된 농가 수 추정(118천 두 ÷ 9.5두/호 = 12,421호)

자료: 통계청(가축동향조사)

3.2. 개선과제

○ FTA 이행에 따른 수입개방 확대로 단기 피해보전대책의 대상 품목과 지원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과 추진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 (수입량 요건 합리화) 현재와 같이 다수의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개별 FTA 체결국의 수입량만으로 국내 가격하락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보전직불금 발동요건 중 개별 FTA 체결국 수입량 요건을 전체 FTA 체결국 수입량 요건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 ‘조’의 사례처럼, 특정 FTA 체결국 수입량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수입 전환효과 등으로 전체 FTA 체결국 수입량은 오히려 감소하여 수입기여도가 ‘0’이 되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행정비용만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보전비율 현실화)** FTA 추진으로 인한 피해부문에 대한 적극적 보상과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 산출방식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급격한 가격하락’ 수준을 의미하는 ‘발동기 준가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피해보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 이와 함께,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가격하락 피해를 산출하기 위해 도입한 ‘수입기여도’ 개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표 6-13. FTA 피해보전직불금 산출방법 개선(안)

구 분	발동 기준	목표 가격	보전 비율	수입기여도
현 행 (90-90-90-0)	직전 5개년 올림픽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직전 5개년 올림픽 평균가격의 90%	목표가격과 당해년가격 차액의 90%	적용
개선(안) (90-90-100-0)	직전 5개년 올림픽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직전 5개년 올림픽 평균가격의 90%	목표가격과 당해년가격 차액의 100%	적용

- **(지원액 하한선 설정)** 지원액이 과소하게 지급될 경우 신청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직불금 수령 후 오히려 농가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 당 적정 하한액을 설정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 대비 과다한 행정비용 낭비를 막아야 한다.
- ‘고구마’의 사례처럼, 농가 당 지원액이 극히 작아 정책의 효과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 대안으로 농가의 서류 준비·제출 비용 및 지자체 서면·현장 조사 비용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 수준의 지급액을 보장해야 한다.
-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 농업인/단체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이해관계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특히,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가 한·EU FTA 발효일을 기점으로 각각 10년과 5년 동안 시행되고, FTA 이행에 따른 직접적인 수입피해만을 지원하는 한시적인 제도임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 단, 한·영·연·방 FTA 혹은 한·중 FTA 등 최근 체결된 FTA로 인한 추가적인 농업분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제도의 일몰기한 연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국무조정실. 2006. 「성과지표개발관리 매뉴얼」.
- 권오복 등. 2009. 「농식품 R&D 전망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권오상. 2010a. “한국 농업의 생산성 변화에 있어 규모효과와 R&D 투자효과”. 농업경제연구 제51권 제2호 pp.67-88.
- 권오상. 2010b.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R&D투자의 파급효과분석: 농림수산부문을 중심으로”. 농업경제연구 제51권 제3호 pp.27-45.
- 권오상. 2013. “농업 R&D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과학기술정책 제23권 제190호 pp.19-28.
- 기획재정부. 2012. 「재정사업 성과지표 개발 매뉴얼」.
- 김경필. 2015. 「한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동향 및 개선 과제」. E03-2015. 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3.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 1단계(2013~2016) 종합 계획」. 골든시드프로젝트 운영지원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예산내역/기금운용계획/예산·결산 검토보고서/사업시행지침서」. 각 연도
- 농림축산식품부.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각 연도.
- 농림축산식품부. 2012.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2013. 「201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 2014.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액비 이용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축산경영학회.
- 농림축산식품부. 2014. 「201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농진청. 「농산물표준소득자료」. 각 연도
- 농촌진흥청. 2009. 「가축분뇨 발생량 및 주성분 재설정」.
- 농협중앙회. 2014. 「축산업생산기반강화대책」.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 박준기 외. 2014. 「농업은미래성장산업이다」. M1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양승룡 외. 2014.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중장기 투융자 지원) 성과지표 개선 및 환류체계 구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정환·조재환. “농지가격의 결정요인과 요인별 영향력:현재가치이론 검증과 충격반응 분석”. 『농촌경제』. 제19권 제1호.
- 정민국 외. 2013. 「지역단위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모델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진흥청.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 통계청. 「농업총조사」. 각 연도.
- 통계청. 「농작물생산통계」. 각 연도.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2014. 「농지연금사업 설문조사 결과」.
- 한국농어촌공사. 2014. 「준공지구 수혜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FTA 국내보완대책 개선 및 조정 방안.
- 허덕·김연중·신용광. 2009. “녹색동물자원산업의 경제적 효과”. 『한국동물자원과학회 하계심포지움 발표자료』.
- 황윤재·이동소. 2014. 「한식정책 추진 실태와 개선과제」. R73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FTA 농업인등 지원센터. 2014a. 「201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농축산물 조사·분석 연차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FTA 농업인등 지원센터. 2014b. 「2013년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5. 6.
발 행 2015. 6.
발행인 최 세 균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삼신인쇄
02-2285-6477 E-mail: dnv6477@korea.com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